

# 신라의 삼국통일

# 신라의 삼국통일

# 04

연구총서

## 집필진 (집필순)

윤선태 동국대 (권별책임자)  
여호규 외국어대  
이상훈 경북대  
김영관 충북대  
임기환 서울교대  
서영교 중원대  
김기흥 건국대

## 자료제공 (가나다순)

경북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단체신채호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한밭교육박물관  
김영관

## 일러두기

1. 본 총서는 신라의 태동에서부터 고려에 복속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신라사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렴해서 총론, 시대사, 분류사로 구분·서술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집필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국가기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외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5.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작은 글씨로 병기하였다.
6. 인물에 대해 존칭은 생략하였다.
7. 삼도의 유적 명칭은 지자체명 + 유적명으로 하되, 같은 유적의 명칭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명은 생략하였다.
8. 찾아보기는 장별로 keyword가 될 만한 용어만을 선정하였다.
9. 사진 출처는 권별로 일괄 표기하였고, 필자가 제공한 경우는 출처를 생략하였다.
10. 참고문헌은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도 포함하였다.
11. 각 원고는 권별책임자의 1차 교열, 편집위원회 실무진의 2차 교열을 거친 후 감수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 발간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세계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사 편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료국의 출현에서부터 고대국가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년 ‘신라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되기까지 장장 5년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권,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문화콘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한 중세를 종식시켰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하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변치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전 사라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경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편찬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년 이상은 삼한 열국(列國) 중의 한 나라인 사로국(斯盧國)으로 출발, 일전(一轉)하여 왕국으로 비약한 뒤 선진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정립(鼎立)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長久)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으므로, 그 풍성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집대성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용(附庸)국가로 폄하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야심찬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史蹟)정비와 더불어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권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고고학자료를 수록한 『백제문화사대계(大系)』 25권을 발간하여 학계에 비익(裨益)한 바 매우 컸습니다.

이같은 추세와 동향에 비취볼 때 경상북도가 2011년 12월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根基)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함으로써 그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再定立)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雙璧)

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보조사료인 비문(碑文) 등 금석문(金石文)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간(木簡)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습니다. 이는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운 고구려·백제의 그것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백제·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까.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그 밖에 전체 개요(概要) 2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종의 외국어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켜 애향심(愛郷心)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信念)이랄까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습니다. 다만 140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大部書)를 엮는 거창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난관에 부딪혔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移轉)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忍耐)해 준 경상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諒解)에 감사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 이주석·주낙영·김현기·김장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실무를 훌륭하게 집행한 편집위원회의 노중국·주보돈·이희준 교수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 목 차

## 제4권 신라의 삼국통일

개 관	010
-----	-----

### 제 1 편 김춘추의 집권과 나당동맹의 결성

#### 제1장 김춘추의 집권과 즉위

1. 김춘추에 대한 평가	023
2. 김춘추의 정치 지향	024
3. 진덕여왕의 즉위와 정치 개혁	033
4. 김춘추의 즉위	042

#### 제2장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삼국의 대응

1. 남북조 말기의 동북아 정세 변화	049
2. 수의 중국 대륙 통일과 삼국의 역학관계 변화	056
3. 수·당 교체기의 정세 변화와 삼국의 동향	065
4. 당의 동방정책에 대한 삼국의 대응 양상	074

#### 제3장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1. 고구려 및 왜와의 외교	089
2. 나당동맹의 결성	103

### 제 2 편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당전쟁의 승리

#### 제1장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복

1. 나당연합군의 출범	121
2. 나당연합군의 협공과 백제의 멸망	129

3. 백제부흥군과의 전쟁과 진압	136
4. 당과 신라의 백제 지역 지배와 갈등	146

#### 제2장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정복

1.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고구려의 멸망	157
2.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	173
3. 보덕국의 성립과 해체	185

#### 제3장 신라의 대당전쟁과 승리

1. 신라의 자주성과 대당전쟁	193
2. 서역의 정세 변화와 당과 토번의 전쟁	195
3. 당군의 공격과 신라의 대응	203
4. 소강과 반전	207
5. 676년의 나당 휴전	212
6. 대당전쟁의 승리와 여진	216

### 제 3 편 신라 승리의 요인과 삼국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 제1장 통일의 배경과 요인

1. 통일전쟁의 배경	227
2.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원인	231
3. 신라 승리의 요인	241

#### 제2장 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1.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적 자산	259
2. 신라의 '일통삼한' 의식	260
3. 통일의 시점과 대당전쟁	265
4. 통일에 대한 논쟁	272
5. 삼국통일과 그 의의	284

색 인	290
-----	-----

# 개 관

6세기 말 국제정세의 변화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김춘추의 친당외교와 정치 개혁

나당연합군의 결성과 백제·고구려의 멸망

대당전쟁과 신라의 승리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역사적 의의

## 6세기 말 국제정세의 변화

589년 수<sup>隋</sup>가 5호16국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 대륙을 통일하자, 5세기 이래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 균형 속에서 안정되었던 기존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 수는 유목 세력인 돌궐과 토욕혼마저 굴복시키고 자신의 세력권을 요동 방면의 고구려 쪽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가장 반긴 것은 신라였다.

554년 관산성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포로로 잡아 참수한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점령한 뒤 고구려 영토였던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을 순수<sup>巡狩</sup>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이는 신라의 응비를 과시한 것이었다.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엄청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한편 그로 인해 신라는 종래 하나로도 버거웠던 상대인 백제·고구려 두 나라 모두와 싸워야만 하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고구려가 강력한 수의 등장에 맞서기 위해 거란·말갈 방면을 강력히 통제하고 또 신라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다시 만회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590년대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격렬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가 신라 북변을 치는 틈을 이용해, 백제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의 서변을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 고구려는 수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왜와의 국제공조도 강화하였다. 이제 신라는 고구려·백제·왜 삼자에 포위되는 형국을 맞이하였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의 과상공세를 이겨내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구려의 적인 수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진평왕은 영객부<sup>領客府</sup> 등 외교기구를 확충하고 수에 사절단을 자주 파견하며 수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원광, 안흥(또는 안함) 등을 대수<sup>對隋</sup>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등 수와의 외교적 공조체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진평왕은 수로부터 고구려왕·백제왕과 동등한 위상의 책봉호를 수여받게 된다.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590년 수의 문제는 고구려에 국서를 보내 왕을 꾸짖었다. '천하가 다 짐의 신하라고 호언하며, 고구려왕에게 번신<sup>蕃臣</sup>의 예를 요구하였다. 고구려는 수와 외교 관계를 단

절하고,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여 다가올 수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598년 고구려 영양왕은 1만 명의 말갈군을 이끌고 요서를 공격하였다. 이는 수의 팽창에 동요하고 있던 거란족과 말갈족에 대한 주도권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분노한 수의 문제는 수륙 3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1차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풍랑으로 수군이 입은 타격이 심해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영토를 밟아 보지도 못하였다.

수는 자기 중심의 천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구려 정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612년 1월, 수의 양제는 24군 113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재차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수의 대군은 처음 기세와는 달리 요동성 공격에서부터 그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초조해진 수의 사령관 우중문(宇文)은 30만의 별동대로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살수(지금의 청천강)를 건넜지만, 고건무와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책에 걸려 살아 돌아간 수군이 2,700에 불과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결국 수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민심을 잃게 되어, 나라를 세운지 겨우 38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수의 멸망 이후 신생 당(唐) 왕조는 각 지방의 할거세력을 통합하고, 629년 심각한 내분 상태에 빠져 있었던 동돌궐을 격파하였다. 그 후 당은 고구려로 눈길을 돌려 631년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웠던 경관(京觀)을 파괴하였다. 이에 고구려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부여성에서 요하를 따라 발해만까지 이어지는 천리장성을 16년간에 걸쳐 축조하였다.

중원과 북방의 유목세계를 통합한 당은 이제 서역으로 군사를 돌려 635년에 토욕혼, 640년에 고창(高昌)을 멸망시켰다. 이처럼 당의 대외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642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는 유혈정변이 일어났다.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처음에는 유화적인 대당정책을 피하였지만, 오히려 당은 난신적 자(亂臣賊子)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645년 1월, 당나라 군대는 요동성 공격만을 고집한 수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길을 나누어 요동의 요충지인 현도성, 신성, 건안성, 비사성을 동시에 공격하였다. 요하 전선에 배치된 다른 성들을 공격하여 후환을 없앤 후 요동성을 공격하는 주도면밀한 전략이었다. 이 때문에 수 때와는 달리 최대 요충지인 요동성이 함락되었고, 개모성, 백암성,

비사성 등이 차례로 함락되거나 투항하였다.

이어 당군은 요하 전선의 마지막 보루인 안시성으로 돌진하였다. 안시성이 무너지면 오골성(烏骨城, 지금의 요령성 봉황산성) 외에는 당군의 평양성 공격을 막을 방어선이 없었다. 그러나 당군의 대공세에도 고구려군은 80일이 넘도록 안시성을 지켜냈다. 당태종은 유목세력인 설연타가 고구려 원정으로 생긴 당의 빈틈을 노려 남하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머금고 마침내 9월 철군 명령을 내린다. 중국 대륙과 유목세계, 그리고 서역까지도 정복했던 당태종이었던만 고구려의 한 성을 넘지 못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김춘추의 친당외교와 정치 개혁

고구려와 수·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삼국 간에도 정세 변화가 나타났다. 백제의 의자왕은 즉위 후 친고구려 정책으로 전환하고 신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신라는 계속되는 백제의 공격 앞에 642년 대야성(지금의 경남 함천)이 함락되면서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존망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김춘추는 고구려에 직접 가서 백제를 칠 ‘청병(淸兵) 외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연개소문의 의도는 대외적 강경정책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권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김춘추로 하여금 한층 적극적으로 친당외교노선을 결심하게 하였다.

647년 1월 상대등 비담과 염중 등 구귀족의 반란을 진압한 김춘추와 김유신은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이들은 당시 소외되었던 지방 출신 인사나 하위 골품 출신 인사들을 규합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나아가 이들을 국가의 공적 질서에 포괄하기 위해 관료조직을 확충하고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의 귀족연합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 진골 대등(大等)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김춘추는 비담의 난을 통해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비담의 난은 귀족회의 대 왕권의 대립 길항관계에서 점차 후자가 승리하여 신라에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김춘추는 “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구귀족의 주장을 일축하고, 보란 듯이 다시 진덕여왕을 옹립하였다.

이후 김춘추는 648년 당태종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김춘추의 친당외교는 단순히 당의 힘에 빌붙으려 한 것이 아니다. 김춘추는 당시 신라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 즉 내부적으로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체제와 동아시아전략을 직시하고 이를 신라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 것이었다.

종래 신라의 사절이 당에 가면 매번 고구려·백제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했던 것과 달리, 김춘추는 당태종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당의 국학에서 행해진 석전釋奠 의례와 국학의 강론 교육을 참관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석전은 공자를 기리는 제사의례로서, 유학과 중국문화에 심취하고 있었던 김춘추의 모화적 성향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김춘추의 외교적 수사修辭이면서 동시에 신라의 국가체제를 유교정치이념으로 일신하려는 자신의 오랜 꿈과 포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당태종은 이러한 김춘추에게 신라왕에 버금가는 특진特進의 벼슬을 내리고, 손수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 등을 내리는 등 특별히 환대하였다.

이는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이후 새삼 신라의 위상에 눈을 떴기 때문이었다. 당으로서의 요하에 집중된 고구려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고, 평양성 공격의 최대 약점인 군수품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김춘추와 당태종은 고구려 공멸이라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상호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백제부터 멸망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에 합의하였다. 과거 당의 고구려 원정 때 신라는 3만 명을 동원해 고구려의 남쪽을 쳤지만, 오히려 백제는 이 빈틈을 노려 신라의 일급 성을 빼앗아갔기에 당도 백제의 친고구려적 정책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김춘추와 당태종의 만남에서 출병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당연합군이 우선적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를 정복한다는 군사작전계획은 이미 구상되었다.

김춘추는 신라로 귀국한 후 당의 관복을 받아들이고, 신라 고유의 연호 대신에 당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 독자의 관복 및 연호의 폐지는 신라가 당 중심의 천하 질서에 귀속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방한 대외적 선언이었다. 이어 김춘추

는 651년(진덕왕 5)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김춘추는 진골세력의 대동회의를 무력화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가 추구했던 친당정책은 사실 외교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정치이념 및 국가의례의 수용을 통한 왕권 강화와 관료제의 확립이라는 내정개혁이 오히려 본질적 목표였다. 김춘추는 품주에서 '집사부'와 '창부'를 독립시켜 왕의 비서기구와 재정기구를 한층 강화하였고, 왕이 임명하는 '재상'들을 통해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정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 정월 하례의식과 오묘제五廟制 등 유교적 국가의례를 수용해 왕자王儲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였다.

### 나당연합군의 결성과 백제·고구려의 멸망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 공략에 나섰다. 당시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의자왕은 집권 후반기에 정치 운영의 파행으로 귀족들과 갈등을 빚어 정국이 크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았던 계백의 장렬한 최후도 단지 백제의 멸망을 며칠 늦출 뿐이었다. 웅진으로 탈출해 전열을 다잡으려 했던 의자왕은 웅진방령 예식진의 투항으로 인해 사로잡혀 마침내 당에 항복하고 말았다. 소정방과 김춘추에게 술잔을 올려야 했던 의자왕의 비애는 백제 귀족들의 통곡소리에 묻혀버렸다. 700년의 백제 사적이 변변한 저항조차 못해 보고 불과 며칠 만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백제의 멸망은 군사력의 열세라기보다는 나당연합군의 기습 공격 앞에 당황한 중앙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진 결과였다. 아직 각 지방에는 백제의 주요 군사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전쟁은 백제왕의 항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 장장 3년간의 백제 부흥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의 전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종래 수 양제나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것은 요하에서 평양성까지 긴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상의 최대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백제의 멸망으로 당군은 신라의 군사와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 남북 양쪽에서 평양성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또 신라로부터 군량을 공급받음으로써 겨울철 군사 작전도 가능해져 고구려의 전력을 소진시켜가는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이처럼 불리한 정세 속에서 고구려에서는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였다. 유혈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약체 권력이었다. 믿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나 친족밖에 없었다. 자연히 아들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들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동생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난 남생<sup>南生</sup>은 국내성과 10만 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였고 끝내는 당군의 길잡이가 되었다.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을 틈타 667년 9월, 당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668년에 와서 마침내 평양성도 무너졌다. 고구려는 멸망하였지만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지방의 성에서 대당 항쟁은 계속되었다.

## 대당전쟁과 신라의 승리

나당연합군의 대공세로 고구려는 멸망하였지만,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당은 663년 신라 영역을 '계림주'로 삼고, 문무왕에게 신라 왕호 외에 추가적으로 '계림주대도독'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는 동맹국인 신라까지도 당나라의 일개 지방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대동강 이남의 백제 토지는 신라의 것으로 한다는 김춘추와 당 태종의 648년 협정만을 믿고 그냥 기다릴 순 없었다. 고구려가 멸망하면 이제 신라 차례인 것은 명약관화했다.

『일본서기<sup>日本書紀</sup>』와 『속일본기<sup>續日本紀</sup>』를 보면 668년부터 700년까지 신라가 25회에 걸쳐 매우 빈번히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 시작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바로 1개월 전부터였다. 신라사절단의 대표도 대아찬 이상의 진골귀족이나 고위 인사가 많았고, 대규모 선물 공세도 이어졌다. 이는 신라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당과의 전쟁에 대비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었다. 사실 대당전쟁은 이처럼 치밀한 신라의 외교 전략

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

668년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간 잠재해 있었던 백제의 영토에 대한 귀속을 둘러싸고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전면으로 표출되었다. 신라는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공공연히 백제 고지로 진격하여 이를 접수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포섭하여 대당항전에 이용했다.

마침내 신라는 670년 고구려 부흥운동군과 합세하여 압록강을 건너 당군의 전초부대였던 말갈 기병을 격파한다. 이후 8년에 걸쳐 전개된 신라와 당의 전쟁은 이렇게 신라가 먼저 대제국이었던 당나라를 공격하면서 개시된다. 약자가 왜 먼저 전쟁을 선택하였던 것일까? 그 해답은 대당전쟁과 연환<sup>連環</sup>되어 있었던 서역의 '토번<sup>吐蕃</sup>'에 있다.

당이 전력을 백제와 고구려 전선에 기울이자, 서역에서는 토번이 성장해 친당 세력인 토욕혼을 누르고 실크로드를 장악해버렸다. 669년 9월 토번이 천산남로를 급습하자, 670년 설인귀가 이끄는 한반도 주둔 병력이 토욕혼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당군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었다. 670년 7월 청해 지역에서 설인귀가 이끄는 10만 명의 당군이 대비천(지금의 중국 青海省 共和縣 부근) 전투에서 전멸 당하자, 신라는 백제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후 대당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신라 조정은 친당 귀족들을 숙청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귀족들에게 관작을 주는 한편 일부 고구려 유민 집단을 익산 지역인 금마저로 옮겨 살게 해 자치국으로 인정하는 등 여·제 유민에 대한 포섭에 힘쓰면서 당군과 장기전을 벌여나갈 준비를 하였다. 또 당의 기병에 대비한 장창 부대, 쇠뇌 부대를 정비 확대해 나갔고, 길목마다 요충지에 산성을 굳건히 세워 당의 침공에 대비했다.

675년 1월 토번의 사절이 장안에 와서 평화회담을 진행시키자, 그 해 2월 당군은 한반도에 재침해 왔다. 유인귀가 이끄는 당군은 임진강 이남까지 남하하여 칠중성을 대파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매소성(매초성, 지금의 경기도 양주)까지 장악했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는 675년 신라군이 당군 20만 명을 매소성에서 대파하고, 이듬해 전세를 만회하고자 서해안으로 침공하려는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지역인

기벌포에서 격멸함으로써 신라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신라의 전쟁 대비도 완벽했지만, 한편으론 신라와 토번이라는 두 적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딜레마 덕분에 신라는 대당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당은 토번에 발목이 잡혀 신라에 격파되었고, 결국 일원적 세계 지배의 야욕도 거둬 수박에 없었다. 그런데 이 여파는 고비사막 북쪽으로도 전파되어 680년대에는 돌궐이 재차 부흥하여 유목 세계를 통일하였다. 이처럼 당의 세계 장악력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었던 696년, 요서의 영주(지금의 요녕성 조양)에서도 거란족 이진충李盡忠의 난이 일어났고, 이 반란은 발해의 건국에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역사적 의의

당의 침략을 물리친 신라의 삼국통일은 수·당과 고구려 충돌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 확립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단순히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그치지 않으며, 세계의 중심, 즉 '중국中國'을 차지한 수·당의 일원적 세계 지배의 야욕을 좌절시키고, 이후 '중국과 주변 세계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세계 체제를 이끌어낸 국제전이였다.

5호五胡의 침입으로 300년 가까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당에 의해 다시금 통일되면서 7세기 동아시아 세계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당은 630년 동돌궐 제국, 635년 토욕혼 왕국, 646년 설연타를 차례로 정복하여 몽골고원의 여러 유목 국가의 항복을 받았고, 640년에는 고창국을 멸망시켜 투르키스탄 지역의 내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도 세력을 미쳤다. 그리고 수·당의 세계질서에 맞서 번신의 예를 끝내 거부했던 백제와 고구려마저도 각각 660년, 668년에 정복하였다.

이런 수당 제국의 등장에 대해, 동아시아에 새로운 '일원적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기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수당이 표방한 그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제는 주변 세계가 용인하지 않은 강압이었지, '질서'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수·당이 성립한 이후 나당전쟁까지는 '전쟁의 시대'였다. 수·당의 힘 앞에 명멸해간 숭한 국가와 족속이 있었다. 이러한 전쟁의 시대를 세계질서가 성립한 시대로 묘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당의 세계 지

배 야욕에 반대하면서 강하게 도전한 주변 세계가 당시에 엄존하고 있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진 신라와 당의 전쟁, 서역 지역에서 벌어진 토번과 당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또 돌궐, 토번, 위구르, 남조南詔 등 주변의 여러 민족이 교대로 강성해져 당 제국을 위협했던 이른바 '세계의 연환성連環性'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모 과정, 즉 과도기의 상황을 보고 이미 질서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했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두 요소, 즉 '중심'과 '주변'에 대해 균등한 눈길을 주지 않은 편향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5~6세기와 마찬가지로 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도 중심과 주변의 세력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발해의 성립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세계 질서 성립의 단초는 분명 삼국을 통일하고 대당전쟁에서 당군을 격멸한 신라의 승리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발해의 성립도 대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권별책임자: 윤선태)

## 제 1 편

# 김춘추의 집권과 나당동맹의 결성

제1장  
김춘추의  
집권과 즉위

---

제2장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삼국의 대응

---

제3장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 제1장

## 김춘추의 집권과 즉위

- 1. 김춘추에 대한 평가
- 2. 김춘추의 정치 지향
- 3. 진덕여왕의 즉위와 정치 개혁
- 4. 김춘추의 즉위

### 1. 김춘추에 대한 평가

『삼국사기』에는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태종 무열왕 이후 그의 직계가 즉위했던 해공왕(재위 765~780)까지를 신라의 중심시기인 '중대'로 설정하였던 사실이 전한다. 이는 신라인들이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의 집권을 신라사 전개에 획기적 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신라의 '중대'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린 신라 최고의 전성기로 이해하고 있다.

김춘추가 살았던 7세기 전반은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하던 시대였다. 수·당(隋唐)이 5호16국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고 주변부에 힘을 과시하면서 5세기 이래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 균형 속에서 안정화되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게 되었다. 김춘추는 긴박하게 전개된 이런 국제정세의 변동을 적극 활용하여 신라가 처한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군왕 중심 정치체제를 수용해 신라의 국가 조직을 혁신하였고, 나·당의 군사동맹을 이끌어 냄으로써 삼국 통일의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물론 당이란 외세를 끌어들이 동족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배족자(排族者)'라며 김춘추를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신채호의 평가를 필두로, 김춘추의 정치적 외교적 행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현재까지도 학계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김춘추의 행동에 대해 '배족'이라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다. 김춘추의 친당외교를 모화주의와 외세 의존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친당외교가 추구한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역사적 결과가 분명히 말해 주지만 신라는 최종적으로 당과의 전쟁을 거쳐 당을 몰아낸 뒤에야 삼국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김춘추의 친당외교는 단순히 당의 힘에 빌붙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김춘추는 당시 신라가 내부적으로는 진골연합체제가 아닌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확립,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에 대항해 국가존망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수립이라는 신라국가의 안전과 체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당의 국가체제와 당의 동아시아 전략을 직시

하고 활용하였던 것이다. 김춘추는 신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았으며, 이후 300년을 지탱했던 신라국가시스템의 새로운 기초를 닦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이후의 신라가 나아가야 할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전범을 만들어 내었다.

한편 오늘날 중국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유념해야 할 우리의 이웃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G2로 급부상하였다. 또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일 간에도 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거대한 제국 수·당이 등장해 격동하던 7세기의 김춘추 시대와도 상통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김춘추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의 집권 과정과 정치 개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헤쳐나가는 데서의 시사점을 찾아보자.

## 2. 김춘추의 정치 지향

김춘추는 654년에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보다 앞서 그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비담의 난'이었다. 647년 정월 초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여주는 잘 다스릴 수 없다(女主不能善理)."며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반란군이 왕군(王軍)을 압도할 정도였지만, 김유신의 군사적 책략으로 이 난은 결국 십여 일만에 진압되었다. 그 결과 여주를 지지하여 왔던 김춘추와 김유신 일파가 권력 장악에 성공하였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이 비담의 난을 신라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대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단지 김춘추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단행된 김춘추의 정치 개혁이 신라국가시스템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담이 말한 '여주'를 당시의 왕이었던 선덕여왕으로 보아 비담이 여주의 폐위를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덕여왕을 이어 다시 여왕(진덕여왕)을 즉위시키려는 후계구도에 대해 비담이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쪽이든 여왕의 집권이 신라 정국의 갈등과 불안을 야기한 핵심 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당시 신라에서는 왜 여왕의 즉위라는 정치적 발상이 가능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 여왕을 지지했던 '춘추(春秋)'와 그것을 반대했던 '비담(毘曇)'의 이름 자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비담에 대해서는 사료가 극히 빈약해 인물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대등까지 역임한 것으로 보아 그가 신라 최고의 진골 가문 출신이며, 춘추보다는 한 세대 앞서는 선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인 비담은 '아비담(阿毘曇)(abhidharma)'의 약칭으로 소승불교의 경전 이름이며, 또 저명한 인도 불교학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법흥왕 이래 진덕여왕대까지 소위 '불교식 왕명 시대'에 신라 귀족들 사이에는 불교식으로 이름을 짓는 방식이 널리 유행하였다. 불교 수용 이후 신라에서는 '거칠부(거친 사내)'와 같은 재래의 작명법(作名法) 대신에 불경 속에서 롤모델을 찾아 이름을 짓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진평왕은 자신을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을 본떠 '정반왕'으로, 왕비는 석가의 어머니 이름인 '마야부인'으로 부르게 했다. 신라 왕실이 전생애 석가족인 성골이었으며, 그들 사이에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원한 작명법이다.

그런데 김춘추의 '춘추'는 이러한 신라의 기존 작명 관행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이름이다. '춘추'는 공자(孔子)가 지은 역사책을 이름으로 삼은 것인데, 춘추는 그 자체 유교(儒敎)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춘추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인 '용수'가 지었을 것이다. 용수는 인도의 유명한 불교 학자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자기 자신은 기존의 관행대로 불교식 이름인데, 용수는 왜 자신의 아들에게는 불교식이 아니라 유교를 강조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일까? 이 새로운 시도는 춘추가 태어날 무렵 용수가 처했던 시대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용수(또는 용춘)는 '진지왕'(재위 576~579)의 아들이다. 진지왕이 폐위되지만 앳했다면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다.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뒤이어 춘추도

진작 왕이 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진지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음탕한 짓을 일삼아 ‘국인國人’에게 쫓겨났다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폐위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진지왕의 폐위 원인을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당시 신라 왕권의 실상을 그 무엇보다도 잘 보여 준다. 법흥왕 이래 신라의 왕들은 자신을 ‘태왕太王’이라 칭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인國人’, 즉 국가 지배층인 진골 권문權門들이 왕을 폐위시킬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당시 신라 왕권은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애초 박·석·김 삼성三姓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던 것도 그러하지만, 당시까지도 신라에서는 특정 가계가 왕위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만큼 왕실의 신성한 권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신라가 멸망할 무렵 박씨가 다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신라국가는 왕을 포함한 진골 세력의 공동지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왕과 진골들이 식읍이나 녹읍을 통해 경제권과 군사권을 분할 지배하고, 그 지역들의 재생산을 진골들이 책임지는 방식, 즉 국가는 진골 권력의 총합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진골연합체제는 생산 자체가 불안정하고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왕이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여 국가재정 전반을 통괄하는 시스템보다도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은, 꽤 유연성이 있는 체제였다. 이런 신라국가시스템의 유지에는 진골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왕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왕과 진골귀족들의 ‘회의’를 통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했다. 또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이었던 ‘대등大等’이라는 관직은, 고구려에서 대대로大對盧의 선임이나 연개소문 집안의 ‘부대인部大人’ 직의 계승 사례처럼, 진골 권문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하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귀족 회의를 주재하는 상대등은 대등 중에서 왕이 임명하였지만, 상대등도 본질적으로는 대등 집단과 이해를 같이하는 존재였다.

진골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신라국가의 성장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를 왕실이 독식하거나, 진골 권문의 고유한 특권과 기존 진골연합체제를 왕이 훼손하려 한다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았다. 진지왕의 폐위도 당시 강화되어갔던 왕권과 귀족권의 힘겨루기가 빚어낸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진지왕의 폐위를 통해 신라 왕권의 성장 속도가 늦추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기초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오히려 진지왕의 폐위 이후 신라의 정국은 왕권과 귀족권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진지왕을 이어 즉위한 진평왕(579~631)은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귀족세력을 견제하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갔다. 조부調府를 비롯한 여러 관청과 관직을 신설해 중앙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였고, 왕실의 혈통을 불교에 가탁해 ‘성골聖骨’로 격상하는 등 왕위 계승권을 신성화하였다.

더욱이 진평왕은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촌인 용수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왕실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내성內省의 장관인 사신私臣으로 중용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병부령兵部令’이 재상과 사신을 겸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사신이었던 용수도 병부령을 겸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용수는 김유신이 혁혁한 공을 세운 고구려와의 낭비성전투(629)를 직접 지휘하였다. 이처럼 용수는 왕실 관련 사무만이 아니라 병부령으로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김서현·유신 부자父子와 같은 유력한 무장가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진평왕의 왕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진평왕이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수를 중용한 것은 왕실의 내실을 다지고 법흥왕·진흥왕 이래 추구되어온 왕권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진골 권문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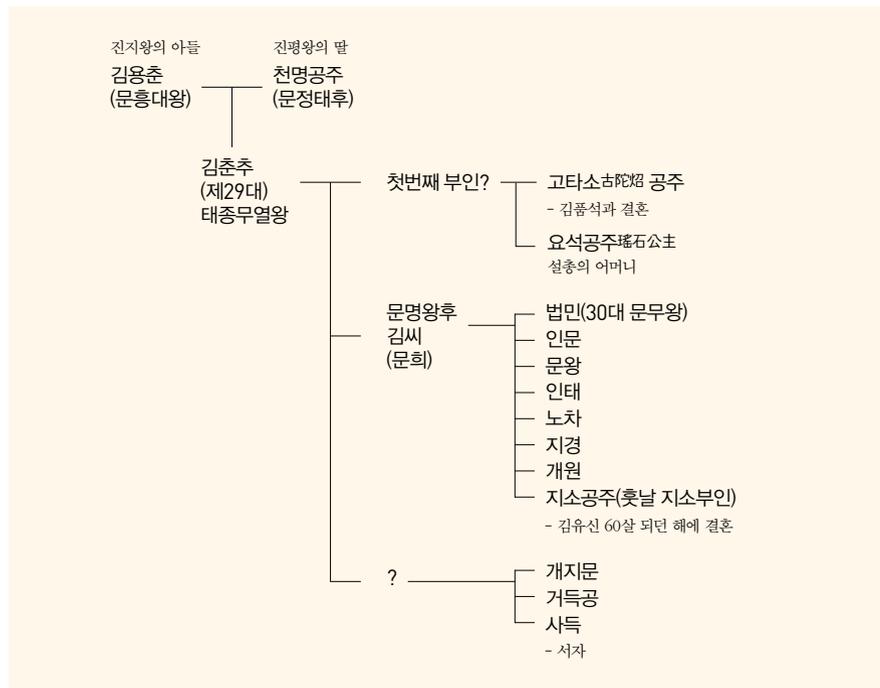
용수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왕좌에 대한 욕심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추구한다는 것은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진평왕과도 척을 지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용수는 그런 헛된 야망에는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 용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춘추’의 이름이다. 용수는 왜 아들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기존 관행대로 불교식으로 짓지 않고, 공자와 관련된 ‘춘추’라고 지었는지 궁금하다?

『삼국유사』에 김춘추는 백제 멸망 이듬해인 “661년 59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가 603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나당전쟁 때 당나라 장군 설인귀薛仁貴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는, 648년에 김춘추가 “60에 가까운 나이”였다고 되어 있어 큰 차이가 난다. 설인귀는 춘추와 동시

대인이고, 내용상 당에 도전한 문무왕을 꾸짖기 위해 춘추가 '60에 가까운' 늙은 나이에 몸소 당태종을 뵈러 온 충순했던 과거를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춘추의 아들인 문무왕에게 그 아버지의 나이를 거짓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으나 생각된다. 더욱이 이미 642년에 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대야성의 도독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고 그때 춘추의 딸 고타소랑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 춘추가 534년경에 출생한 진흥왕의 증손이라는 점에서 설인귀의 표현에도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춘추가 적어도 54~55세는 넘어야 60에 가까운 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춘추의 실제 출생연대는 590년대 초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그의 평생 동지였던 김유신(595~673)과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춘추가 태어난 590년대 초반은 동아시아 세계에 일대 격변이 일어났던 시점이다. 중국 북조의 수<sup>隋</sup>가 589년 남조의 진<sup>陳</sup>을 멸망시켜 5호16국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더욱이 수는 북방, 서방의 유목 세력인 돌

표 1. 김춘추의 가계도



궐과 토욕혼마저 굴복시키고 자신의 세를 요동 방면의 고구려 쪽으로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가장 반긴 것은 신라였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포로로 잡아 참수한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점령한 뒤 고구려의 영토였던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을 순수<sup>巡狩</sup>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이는 6세기 중반 신라의 웅비를 과시한 것이었다. 새롭게 강자로 부상한 신라의 진흥왕은 중국의 북제<sup>北齊</sup>로부터 '동이교위<sup>東夷校尉</sup>'에 봉해졌다. '동이교위'는 애초 백제가 동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고구려왕에게 주었던 것인데, 이제 진흥왕이 이 책봉호를 넘겨받은 것이다. 이는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등한 국가로 중국 측의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신라는 국제외교가 신라 왕권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국내 정치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신라에게 이처럼 엄청난 도약의 발판이 되었지만, 한편 그로 인해 신라는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제 신라는 종래 하나로도 버거웠던 상대인 백제·고구려 두 나라 모두와 싸워야만 했다. 특히 강력한 수의 등장에 맞서기 위해 고구려가 거란, 말갈 방면을 강력히 통제하고 또 신라에 빼앗긴 한강유역을 다시 만회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590년대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격렬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차산에서 전사한 유명한 고구려 장군 '온달' 이야기도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진평왕은 북변의 전쟁터를 직접 누비고 신라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고구려의 침략을 잘 막아 내었지만, 7세기에 들어서도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줄어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가 신라 북변을 치는 틈을 이용해, 백제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의 서변을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 고구려는 수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왜와의 국제공조도 강화하였다. 이제 신라는 고구려·백제·왜 삼자에 포위되는 형국을 맞이하였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의 과상공세를 이겨내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구려의 적인 수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진평왕은 종래 외교를 담당했던 관청인 '왜전<sup>倭典</sup>'을 '영객전<sup>領客典</sup>'으로 개칭하고, 다시 '영객부<sup>領客府</sup>'로 발전시켰다. 이는 당시 신라에서 외교의 비중이 커지

고 있었고, 그 방향도 왜(倭)를 넘어 중국을 지향하며 외교관부가 확대되고 있었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진평왕은 수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한문에 능하고 중국의 정세에 밝았던 원광, 안흥(또는 안함) 등을 대수(對隋) 외교에 적극 활용하였고, 수나라에 사절단을 자주 파견해 수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진평왕은 수로부터 고구려왕·백제왕과 동등한 위상의 책봉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물론 당시 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고구려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의 협조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라는 달랐다. 수와의 공조체제는 신라의 숭통을 조여 오는 고구려·백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신라의 지도층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종래의 불교식이 아닌 중국식이나 유교식 작명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남북조의 시문학을 집대성한 현자(賢者)인 '유신(庾信)'의 이름을 차용한 김유신이나, 공자가 지은 역사책 '춘추(春秋)'를 차용한 김춘추의 이름은 바로 그러한 신라 지도층의 절박한 대(對) 중국인식 속에서 등장하였다. 당시 신라의 지도층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던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정세를 신라에 유리하게 활용해야만 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라 지도층에게 중국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갔다.

이 때문에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유교정치 이념과 발달된 관료체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물론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지배 이데올로기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불교적 이상(理想) 군주 '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왕즉불(王即佛)(왕이 곧 부처다)' 사상을 통해 불교 역시 신라 왕권의 강화에 이바지한 바가 컸다. 또 화랑도에서도 승려가 화랑을 보좌하며 낭도들을 선도하는 등 국가 발전단계에서 야기되는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종교적으로 치유함으로써 신라인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 국가관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라에서 불교는 국가에 봉사하는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정치와 불교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 신라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치시스템의 개혁이나 정치 운영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신라에서 유교가 점차 문화적 저변을 넓혀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흥왕순수비」에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진흥왕은 자신의 지향점을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두고 있었다. 진평왕대에는 유학이 관료조직 정비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도덕적 실천원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불교와 유교 사상을 조화롭게 이상화한 원광의 '세속오계(世俗五戒)'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임신년인 612년(진평왕 34)에 두 명의 신라 청년이 3년 동안 『시경(詩經)』·『상서(尚書)』·『예기(禮記)』·『좌전(左傳)』 등의 유교경전을 익혀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의 기록이나, “추운 겨울이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개를 알 수 있다.”는 『논어』 자한(子罕) 편의 구절이 당시 신라 지도층의 좌우명으로 널리 유행한 사실 등은 이 시기에 유학이 신라 사회에 깊숙이 파급되고 있었음을 잘 말해준다. “너

는 불교를 공부할 것이냐? 유교를 공부할 것이냐?”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불교는 세속을 떠난 교리라서 저는 유교를 배우겠다.”고 한 강수(强首)의 대답은 진평왕 이후 불교를 대신해 유교가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진평왕 때 이처럼 유학이 신라에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왕권 축의 적극적 수용과 보급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유학의 근본은 효(孝)에 있다. 그런데 『효경(孝經)』에서 잘 드러나지만, 유학에서는 부자(父子) 간의 효계(孝梯)와 군신(君臣) 간의 충순(忠順)이 동일한 성격으로 관념화된다. 결국 유학에서 강조된 '효'는 궁극적으로 '충'으로 귀결된다. 앞서 살펴본 「임신서기석」에서 유학 경전 공부를 맹세한 두 신라 청년의 목표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림 1. 임신서기석

왕권 측에 섰던 용수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존의 불교식이 아닌 '춘추'라는 유교식으로 작명한 의도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자신의 아들 '춘추'가 통일된 수나라와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선진적 정치체제와 유교이념을 수용해, 신라가 처했던 대내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신라 왕권의 성장과 안정화를 달성해 달라는 자신의 염원을 그의 이름 속에 심어 주려 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전히 불교식 작명법이 유행하고 있던 시절에 그들과 구별되는 '춘추'라는 이름은 어린 춘추의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후일 김춘추의 실천적 행동과 사상이 잘 말해 준다. 성인이 되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유교적 예법인 '관례冠禮'가 신라에서는 김춘추의 아들들에게서 최초로 확인된다. 또 648년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서 맨 처음 요구한 것이 당의 국학國學에서 행해진 공자에 대한 석전釋奠 의례와 유교 강론講論을 참관하고 싶다고 한 것이나 신라로 돌아온 뒤 신라에 국학 건립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것 등은 유학과 중국문화 수용에 대한 김춘추의 태도와 인식을 잘 말해 준다. 비담의 난 이후 진덕여왕대에 김춘추가 단행했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확립과 혁신, 그리고 나당의 군사동맹 체결 등은 기실 용수가 지어준 그의 이름 '춘추'에서 이미 짝을 띄웠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담'과 '춘추'라는 7세기 초반 신라 정치계의 라이벌이었던 두 지도자의 이름 속에는 불교에서 유교로 신라의 사상적, 문화적 흐름과 그 대립적 갈등 양상이 함의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그들이 꿈꿔왔던 정치적 비전(vision)의 차이, 즉 진골연립체제와 국왕중심체제라는 신라 지배체제와 정치 운영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점이 내포되어 있다. 비담이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한 이상 국가로서 진골연립의 공화제共和制 실현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춘추는 유교적 왕도정치를 기초로 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자신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 정치 목표로 삼았다. 김춘추가 진덕여왕 때 실권을 장악한 뒤 당의 연호를 수용하고 신라에 국학 건립의 초석을 놓은 것은 단순히 외교적 목적에서 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설계할 새로운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중국적 정치체제와 문화의 창달에 두고, 그것을 만들어 갈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덕여왕대 김춘추의 정치 개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자.

### 3. 진덕여왕의 즉위와 정치 개혁

#### 진덕여왕의 즉위와 그 의미

비담의 난이 진압된 뒤, 신라엔 선덕여왕을 이어 다시 여왕이 즉위하였다. 그가 바로 진덕여왕(647~654)이다. 비담의 난을 진압한 김춘추와 김유신은 이미 권력을 완벽히 장악했고, 실제로 이때부터 김춘추의 집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춘추가 왕으로 즉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왕을 다시 즉위시킨 춘추의 선택 속에 그의 정치 개혁 의지가 숨어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담의 난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춘추의 집권에는 김유신의 무장력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김춘추에게 유신이 없었다면, 그의 집권과 정치 개혁 역시 어쩌면 불가능했는지 모른다. 당시 춘추와 유신의 관계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에도 전해졌다. 그 둘은 물과 물고기처럼 아주 친밀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수어지교水魚之交'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김유신은 신라에 멸망당한 금관가야 왕실의 후예였다. 신라는 금관가야 구형왕과 그의 아들 셋을 수도 경주로 이주시키고 진골로 대우하였다. 구형왕의 막내아들이었던 김무력이 유신의 조부였다. 진골 신분에 편입되었지만 김유신 집안은 신라의 정통 진골귀족들에게 냉대를 받았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진흥왕의 동생인 속흥종의 딸 만명과 야합하고 결혼하려 하자 속흥종이 강하게 반대한 사실은 그가 김서현의 집안을 낮게 평가해서 자신의 집안과 결혼할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후일 김춘추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사통하고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혼인을 망설인 것 역시 김유신 집안이 당시 신라의 정통 진골귀족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잘 말해 준다.

김유신 집안은 정통 진골처럼 대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좋아 진골이었지 실제로는 신라의 기존 권력구조에서 배제된 존재였다. 김유신 집안이 출세한 것은 사실 신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부인 김무력 때부터 김서현, 김유신에 이르기까지 무장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통

해서였다.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국가에 헌신 봉사하여 전공을 세우는 길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실과 밀착되었다. 진지왕이 폐위된 이후 왕실에 의존해 권토중래를 꿈꿨던 김용수·춘추 집안과 김서현·유신 집안이 사돈관계를 맺게 된 것도 이 두 집안 모두 입신출세의 기반에 왕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춘추를 설득해 유신의 누이와 혼인을 맺어준 것도 공주 시절의 선덕여왕이었다.

이 두 집안은 진평왕 및 선덕여왕의 왕권이 진골연합체제와 길항(扞抗)할 때 충실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들은 당시 소외되었던 지방 출신 인사나 하위 골품 출신 인사들을 규합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나아가 그들을 국가의 공적 질서에 포괄하기 위해 관료조직의 확충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종래의 귀족연합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 진골 대등(大等)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왕권의 성장을 마뜩찮아 했던 진골 대신들은 진평왕을 보좌하는 김용수·춘추 부자, 김서현·유신 부자 등 왕당파의 급속한 성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물론 당시 진골 대신들도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신라의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고구려·백제와 연일 계속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전쟁 국면 속에서 지금과 같은 진골세력의 권력분할체제가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진골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진골 권문들의 마음 속에는 진평왕이 개혁 국면을 활용해 성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기존 특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진골귀족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왕실과 진골 권문의 대립과 갈등은 진평왕이 자신의 딸 선덕공주를 왕위계승권자로 임명하면서 더욱 가열되었다. 아들이 없었던 진평왕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성골 남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선덕공주가 유일한 계승자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진평왕이 자신을 정반왕, 왕비를 마야부인으로 부르게 한 것도 선덕공주가 위대한 혈통을 이은 왕위계승권자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진평왕 말기 칠숙의 난을 비롯한 귀족들의 연이은 반란이 말해주듯

이 여자가 왕이 된다는 신라 초유의 사태를 왕실과 왕당파를 제외한 상당수의 진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에서 선덕공주 시절에 보낸 모란병풍 이야기로 유명한 '지기삼사(知幾三事)'의 설화로 볼 때 신라에 여왕이 즉위한다는 것에 대해 애초부터 당도 수긍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선덕이 여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정국불안은 여전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파상공격 앞에 신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다. 선덕여왕은 고구려·백제의 침략을 외교적으로 막기 위해 적극적 친당외교노선을 추진하였지만, 당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여자가 왕이라 고구려·백제 양국이 신라를 엮신 여겨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고 모욕만 주었다.

더욱이 642년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의 난행과 비겁한 항복으로 대야성을 백제에 빼앗기게 되면서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지역으로 낙동강 서안의 중진이다.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의 함락으로 이제 신라는 옛 가야 땅을 모두 백제에 빼앗겼고, 소백산맥이라는 안전한 방어선을 잃어버리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치해야만 했다. 백제군이 낙동강을 넘어서면 이제 수도 경주가 함락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김춘추가 목숨을 걸고 직접 고구려에 가서 '청병(淸兵)' 외교를 시도한 것도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신라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손을 거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도 645년 안시성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더욱이 당의 고구려원정을 돕기 위해 신라군 3만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북진하자,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백제는 서쪽 국경의 7성을 빼앗아 버렸다. 신라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여왕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신라 지배층들 사이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신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신라 정국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선덕여왕 이후에도 그녀를 이어 즉위할 성골 남자가 없다는 점이었다. 애초 성골 남자가 다했기 때문에 진평왕이 선덕공주를 세웠듯이 그가 정한 좁은 성골 가계 내에는 선덕을 이을 왕위계승권자 역시 그녀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후일의 진덕여왕)밖에 없었다. 진평왕이 신하들에게 강요했던 왕위계승 방식대로라면 선덕을 이어 다시 한 번 더 여왕이 즉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왕당파는 여왕 외에

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여주의 친당외교노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에서 진골 권문들은 또 다시 여주의 즉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상대등 비담은 진골을 규합해 647년 정월 “여주는 잘 다스릴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비담은 패배하였다. 이는 진평왕과 선덕여왕이 준비해둔 김춘추, 김유신 세력 덕분이었다. 상대등 비담의 난을 진압한 김춘추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비담의 난은 대등회의 대 왕권의 길항 관계에서 점차 후자가 승리하여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김춘추는 “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상대등 비담의 주장을 일축하고, 보란 듯이 다시 진덕여왕을 옹립하였다. 김춘추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진덕을 즉위시킨 것은 여자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즉위 과정을 통해 신권臣權이 개입할 수 없는 신라 왕권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내외에 표방하려는 상징조작이 내포되어 있었다.

### 친당정책과 국학의 수용

진덕여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648년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앞서 고구려에 대한 청병외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김춘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당노선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김춘추의 친당노선은 단순히 당의 힘에 빌붙으려 한 것이 아니다.

종래 신라의 사절이 당에 가면 매번 고구려·백제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했던 것과 달리, 김춘추는 당태종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당의 국학에서 행해진 석전釋奠 의례와 국학國學의 강론교육을 참관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석전은 공자를 기리는 제사의례이고, 국학은 유학 교육의 전당이었다. 이러한 김춘추의 행동은 유학과 중국문화에 심취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화적 성향을 표현하여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도 볼 수 있지만, 신라의 국가체제를 유교 정치이념으로 일신하려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김춘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김춘추의 입당 목적에 나당의 군사동맹이라는 외교적 측면 외에 국학의 수용이라는 신라 내

부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 준다.

김춘추는 신라로 귀국한 후 많은 분야에서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는 친당정책을 적극 추진해 갔다. 649년(진덕여왕 3) 당의 관복官服을 받아들이고, 이듬해에는 진골로 하여금 아홀牙笏을 잡게 하였다. 더욱이 652년에는 국왕이 조원전에서 백관으로부터 하정례賀正禮를 받는 국가의례를 마련하였다. 국왕과 신하의 위상 차이를 복색과 아홀, 국가의례 등의 제도를 통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다. 또 651년 김춘추는 신라 고유의 연호를 버리고 대신에 당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였다. 신라 고유의 관복과 독자적 연호의 폐지는 신라가 당 중심의 천하 질서에 귀속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방한 대외적 선언이었다.

이어 김춘추는 651년(진덕여왕 5) 큰 폭의 정치 개혁을 단행하여 기존의 미분화된 품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집사부’와 ‘창부’를 독립 관부로 출범시켰다. 이는 왕의 비서기구와 재정기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해의 정치 개혁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신라에도 국학이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에는 행정직이 대사大舍 2인에 불과한 소규모의 관원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유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씨앗이 김춘추에 의해 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접어들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어가면서였다. 이때부터 행정 업무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전담하는 관부가 두어지고 거기에 여러 관직이 배치되면서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성격의 인재가 절실해졌다. 정치는 물론 행정, 군사, 재정이 분리되어 이제는 비교적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또 6세기 이후 신라의 인구와 영토가 크게 늘어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의 천거제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인재양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마련된 것이 화랑도였다. 화랑도는 진골귀족의 자제인 1인의 화랑과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었다. 낭도의 수는 화랑에 따라 수백 혹은 수천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났다. 또 화랑도는 일시에 하나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병존하였다. 화랑도들은 귀족 자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되었고, 서로 간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해 갔다.

화랑도의 교육은 주로 승려가 담당하였다. 신라에 전래된 불교는 유학을 비롯한 중국의 선진사상과 문화를 상당히 내포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역경사업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불교 경전 자체가 중국인의 구미에 맞게 중국적 문화와 사상을 기준으로 번역되고 설명되었다. 이처럼 불교에 대한 중국적 이해 및 소화의 과정이 있었던 까닭으로 그를 받아들인 신라의 불교 승려들은 자연히 중국의 선진문화와 사상에 대한 소양을 갖추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는 후조(後趙)의 불도장(佛圖澄)이나 전진(前秦)의 도안(道安)과 같은 초기 승려들이 유교경전의 표현을 빌려 자비계살(慈悲戒殺)의 교의로써 통치자에게 간해 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며 생산을 발전시키라고 권하였다. 모두 한결같이 요순의 왕도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과 문덕을 강조하였다.

신라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불교가 수용된 때에는 어느 것이 불교 원래의 것

이고 어느 것이 중국의 문화나 사상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때문에 신라의 불교 수용은 종교의 수용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상, 건축, 미술, 의약 등 중국문화 일반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진흥왕순수비」(568)나 「대구무술오작비」(578)로 알 수 있듯이 당시 승려들은 유·불·도 삼교의 경전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념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토목건축을 감



그림 2. 대구무술오작비

독하는 선진기술자로도 활약하였다. 이는 당시 승려들이 중국문화에 대해 폭넓은 소양을 갖춘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승려가 화랑도에서 낭도를 이끄는 교육자 역할을 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화랑도는 자체 내부에 인재양성의 기능이 명확히 내재되어 있으나, 인재의 선발은 진골귀족의 자제인 화랑과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천거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더욱이 화랑과 낭도 사이에는 사적인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때문에 화랑에 의해 천거 발탁된 낭도는 귀족 권문의 가신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화랑도는 공적인 관료 선발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신라를 유학이란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사회로 만들려는 의욕을 불태우던 김춘추와 김유신에게는 그런 점이 충분히 포착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랑도를 대체할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이때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당에서 가동되고 있던 ‘국학’이었다.

유학의 소양을 지닌 관리를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한문에 능하고 문서행정을 잘하는 관리를 키우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유학은 ‘군군신신(君君臣臣)(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즉 신하와 절대로 동격일 수 없는 초월적 왕권의 이미지를 관료들의 머릿속에 손쉽게 주입시켜 주었다. 이 때문에 왕권 강화를 지상 과제로 여겼던 김춘추가 유학 교육의 전당인 국학을 신라에 도입해 유교정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춘추에게 국학을 통한 유학 교육은 당시 신라가 꼭 받아들여야 할 가장 효율적인 국가시스템과 정치이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진덕여왕대에 단행된 김춘추의 국학 설치과정을 보면, 아직 전면적인 수용을 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걸음마를 시도하는 정도였다. 국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 내부적으로 여전히 귀족의 천거를 원하는 반발하는 세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가 삼국통일 전쟁이 가열된 전시상황이었으므로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의 기초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방향을 모색해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국학은 그의 손자인 신문왕대에 완성되었다.

## 국왕 중심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재상제도의 도입

김춘추는 어떻게 하면 진골세력의 대등회의를 무력화(無力化)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였다. 그가 추구했던 친당정책도 실은 외교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정치이념과 국가의례의 수용을 통한 왕권 강화와 관료제의 확립이라는 내정개혁이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덕여왕대 이후 진덕여왕대에 걸쳐 ‘국상(國相)’, ‘재상(宰相)’ 등 기존의 정치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관직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러갈 때 그의 공식 직함도 ‘국상’이었다.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들의 합의로 결정하였고, 통일기에 귀족회의를 ‘화백’이라고 불렀다. 화백회의가 열린 장소로서 남당과 정사당, 그리고 4영지(靈地) (청송산, 피전, 우지암, 금강산) 등이 주목된다. 또 화백회의는 국왕이 회의를 주재하던 경우와 상대등을 비롯한 최고 집정자(執政者)가 회의를 주재하던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자료상으로 볼 때, ‘남당’에서 회의가 열린 경우에는 반드시 국왕이 참석하였음이 확인된다. 반면에 ‘정사당’에서는 상대등이 인사(人事)를 전형하는 모습이 전하고, 또 그것은 왕궁이 아니라 금성에 위치하고 있었다.

6세기 전반까지 의결 내용을 국왕을 비롯한 회의 구성원 공동 명의의 교시를 통해 반포하였던 사정으로 보건대 그때까지 남당회의가 국정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능하였음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런데 531년(법흥왕 18) 상대등 설치 후에는 상대등을 비롯한 집정자들이 주재한 정사당회의에서도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였다. 중고기에 정사당회의는 상대등이 주재하였고, 그 구성원의 핵심이 바로 대등이었다.

그런데 중고기에 ‘상대등’이 주재하던 정사당회의가 김춘추가 집권하는 진덕왕대 이후 통일기에 들어오면 ‘상재상’이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이는 두 시기 정사당회의의 기능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본래 재상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전하는 공식 관직은 아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병부령이 재상을 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재상제도는 당나라에서 수용하였다. 당의 경우 통상 재상은 천자를 보좌하고 백관을 총령하며 만사를 다스리는 존재를 지칭한다. 한편 고려에서 재상의 직분은 정사를 토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재

상이 국정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국왕에게 건의하고, 또 국왕에게 자문하는 식으로 국정을 논의함으로써 국왕의 최종 결정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재상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 국왕은 상대등, 병부령, 시중, 내성사신(전중령) 등을 상재상(1인), 차재상(2인), 제3재상에 임명하였다. 재상제도는 그 등장 시점으로 볼 때 선덕여왕대 이래 김춘추가 국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 개혁의 하나로서 정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재상은 국왕이 임용하였다. 그리고 재상회의의 결과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집행되었다. 따라서 통일기에 재상의 임명권이나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왕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집사부의 시중이나 병부령은 왕명이나 교시를 직접 이행하는 중앙 행서관서의 장관이었다. 그러한 관직을 겸임한 재상들은 재상회의에서 국사를 의정(議政)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명이나 교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고위 관직자들을 재상으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하던 시스템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김춘추는 새로운 정치 운영 시스템, 즉 국왕이 재상의 임명권이나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바탕으로 재상들을 견제하고, 왕이 임명한 ‘재상’들을 통해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중고기 대등회의의 구성원이었던 ‘대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대등은, 진골 권문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하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김춘추는 651년(진덕여왕 5) 중앙관서 조직을 4등급체제로 일신하고, 재정 지출을 담당하는 창부(倉部)와 형률과 입법을 관장하는 이방부(理方部)를 새롭게 창설하였다. 특히 국가의 기밀을 총괄하는 최고 집행기구로서 국왕 직속의 집사부(執事部)를 개설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왕권과 중앙집권을 뒷받침하였다.

집사부는 왕정의 기밀사무를 관장한 왕의 직속기구였다. 집사부는 국왕과 행정을 분담 집행하는 일반 관부 사이에서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연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창부에는 예하에 부속관서로 ‘상사서’를 더 설치하였다. 상사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훈에 보답하여 상을 내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부였다. 김춘추는 국왕에게 충성한 세력들에게 정당한 물질적 보상을 함으

로써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할 세력들을 포섭 양성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는 창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착실히 장악해 나갔으며, 상사서를 통해 신진 사류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내었다.

왕궁의 시위부도 갖추어졌다. 시위부는 국왕을 시위하는 금위군(禁衛軍)을 말한다. 이때 시위부는 3도(徒), 즉 세 부대로 구성되었는데, 진평왕대의 시위 대감과 비교할 때, 금위군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확충과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위군의 확대는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힘을 과시해 진골귀족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행정을 장악하려는 집사부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시위부 역시 군사적인 면에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부, 음성서, 대도서, 전사서 등 예부 및 그 부속관서, 특히 음악과 제사의례 관련 관청 등이 크게 정비되었다. 음성서는 음악을 관장한 관부였다. 대도서는 사전, 내도감으로 별칭되었듯이 왕궁 내의 사원을 관리하던 기구였다. 전사서는 제사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유교의 예는 악에서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예와 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651년(진덕왕 5) 정월에 처음 실시된 하정례에서도 의례를 장엄하는 예악이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김춘추는 정월 하례 의식과 오묘제(五廟制)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적 국가의례를 수용해 왕자(王者)의 권위를 확립하는데도 진력하였다.

## 4. 김춘추의 즉위

김춘추는 의표(儀表)가 영특하고 어려서부터 제세(濟世)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진덕여왕이 죽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이가 바로 태종 무열왕(654~661)이다. 진덕여왕이 죽은 뒤 화백회의에서 섭정으로 추대되었던 상대등 알천은 오히려 이를 사양하고 김춘추가 왕자의 덕을 지닌 훌륭한 인물이라며 새 왕으로 맞이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춘추의 즉위에는 진덕여왕대에 친당외교와 내정개혁을 통해 성장한 신진귀족세력의 힘이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상대등 알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춘추는 세 번에 걸쳐 추대를 사양하였다. 이는 진지왕의 폐위를 결정했던 바로 그 화백회의를 통해 자신의 가문을 복권하고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의식이었다.

태종 무열왕은 즉위하던 해에 우선 아버지 용춘을 문흥대왕(文興大王)으로, 어머니 천명부인을 문정태후(文貞太后)로 추증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종래 오묘제의 성립에 대해서는 혜공왕대설, 신문왕대설, 문무왕대설이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추봉대왕제가 무열왕대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점은 5묘에 신입하는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태종이 오묘제를 도입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은 진지왕이 폐위만 되지 않았다면 진작에 왕이 되었을 인물이다. 춘추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아버지 용춘을 갈문왕으로 추봉한 전통적인 제례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의 5묘제를 수용해 신라 종묘제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버렸다. 5묘제는 왕이 되지 못한 현왕의 직계조상들도 종묘에 위치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폐위된 진지왕과 아버지 용춘을 대왕으로 복권하여, 자신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조치였다. 중고기 왕실이 불교적인 성골의식을 통해 여타 진골귀족 가문과 자신들을 차별화했다면, 김춘추는 새로이 유교적인 의례를 수용해 중대왕권의 힘을 천하에 과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648년(진덕여왕 2) 당태종을 만난 김춘추는 '석전(釋奠)의례를 참관케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에는 나당동맹을 순조롭게 이끌기 위해 그의 모화(慕華)를 드러내려고 한 점이 없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핵심은 당의 유교적 국가의례를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예제와 의례를 수용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그가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백관의 '하정례(賀正禮)'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점이나 그가 왕으로 즉위한 후 4년(657)에 설치했던 '대일입전(大日任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 대일입전 예하에는 전의(典儀), 전알(典調), 전인(典引), 전사(典事) 등의 관원이 확인된다. 이 관직들은 당이나 고려의 사례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의례의 진행을 담당하는 관직들이다. 전의는 주로 찬창(贊唱)과 관위(版位)의 진설(陳設), 전알과 전인은 왕과 관인의 출입과 인도(引導)를 담당하였다. 한편 전사는 의례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업무를 담당한 내성(內省)에 소속된 인도전(引道典)에도 상인도(上引道), 위인도(位引道), 관인도(官引道) 등 의례의 진행과 관련된 직명이 확인된다. 이들도 국가의례를 전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의례만을 담당한 전문관인(專門官)들이 중대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미 국가의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김춘추가 국가의례를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적극 이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의례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의례절차를 담당한 이들 관인들은 의례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의례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례의 엄숙성이 유지되고, 의례에서의 왕과 관인의 위치와 행위가 물흐르듯이 인도, 조정된다. 그것은 중심이 권위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된다. 의례는 중심과 주변, 상하관계의 예제(禮制)를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엄숙과 오랜 기다림, 반복되는 “재배(再拜)”를 참으면서, 중심은 권위를 얻게 되고, 주변은 상하관계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예를 들어 651년(진덕여왕 5)부터 시작된 백관의 하정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657년(태중무열왕 4) 이후부터는 대일입전이 그 절차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의례는 조원전(朝元殿)이라는 왕궁의 중심공간에서 시작되었지만, ‘백관’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전 신라가 남면(南面)한 신라왕에게 상징적으로 집중되는 의식으로 끝을 맺었다. 주도독(州都督)이 올린 표문(表文)이 왕에게 전달되고, 중앙의 관리와 6부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이 하례의식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을 것이다. 또 지방에서도 도독을 비롯한 지방관들이 촌주들을 이끌고, 멀리 떨어진 국왕을 향해 조배(朝拜)를 행하는 의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집권국가에 있어 왕경의 의례는 항상 지방을 포섭, 종속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것이 의례가 지향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왕은 절대적인 중심을 회구하고, 의례는 그것을 모두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장(場)이었다.

한편 태종은 즉위와 동시에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새로이 법전화하여 율령정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김춘추는 신라 대민지배체제와 국가운영의 기본틀로서 수용된 ‘율령’을 더욱 일신하였다. 태종이 기존의 신라율령을 보완하여 ‘이방부격’ 60

여 조를 편찬한 것은 당나라의 율령격식(律令格式) 체제를 들여와 신라의 법률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율령격식’의 수정과 혁신을 지시한 681년(문무왕 21)의 ‘유조(遺詔)’로 볼 때, 중대 초기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율령’, ‘이방부격’, ‘율령격식’ 등은 당대(當代)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라 중대 초반의 ‘율령’과 ‘격식’은 어떠한 성격의 법률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 ‘율령’을 신라에서 당의 율령에 기초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이와는 달리 신라가 당의 율령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시행세칙인 ‘격식’으로 보완하였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어 있다. 그런데 문무왕이 유조에서 율령격식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고치라고 명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율령’ 자체가 개정(改定)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율령’을 ‘당의 율령’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혹 당의 율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격식’만으로 신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격식’을 율령의 하위법으로서 규정해서는 신라 율령제의 운영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당에서의 ‘격식’은 기존의 율령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황제가 ‘칙(勅)’을 내려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항상성을 가진 것을 법전의 형태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황제는 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율령은 개정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다. 이처럼 황제가 내린 명령이 칙이고, 그 가운데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격이라는 형태의 법전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때, 격은 율령에 종속된 하위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김춘추가 즉위하면서 기존의 신라율령을 보완하여 새롭게 편찬한 ‘이방부격’은 당시 신라의 율령통치체제가 상당히 조숙하였고, 중국의 율령을 참조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조건에 맞게 변용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김춘추의 중국문화 수용이 신라의 조건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변용된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695년에 작성된 「신라춘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입각한 당시 신라의 수취제도가 당의 것이 아니라, 6세기 이래 신라에 수용된 남북조시대의 것을 보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는 여실히 증명된다.

삼국시대에는 인두세의 비중이 컸지만, 호등제 즉 재산의 차이에 따라 부과

된 세제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삼국시대에 이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고대적인 인두세 체제를 탈피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태종은 통일전쟁의 격화로 농민의 계층분화현상이 심각해지자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인두세 중심에서 각 가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취제도를 혁신하였다.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되는 9등호제와 계연의 환산도 태종의 이방부격을 통해 실현된 수취제도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태종 무열왕은 즉위 2년 차인 655년에 원자元子인 범민을 태자에 책봉하고, 자신의 여러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왕권의 안정과 왕실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시켜갔다. 656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둘째 아들 김인문을 군주에, 658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문왕을 집사부 중시에 새로이 임명하여 직계 친족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의 즉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김유신을 660년에 상대등에 임명해 자신의 왕권을 보다 전제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가야계인 김유신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등이 진골 귀족세력의 대표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전제왕권과 더욱 밀착되어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대등 중심의 귀족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신라 중대사회에서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국왕과 각 관청의 업무를 효율적 연결시켜주었던 집사부 중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갔다. 태종은 친당외교를 통해 당나라를 후원세력으로 삼고 내정에서는 자신의 아들과 김유신 등 최측근세력의 정치적 안배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킨 다음, 마침내 백제에 대한 정벌전쟁을 단행하게 된다.

김춘추는 6세기 후반 이래 국제정세의 변동을 적극 활용하여 신라가 처한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유교정치이념을 수용해 신라의 국가체제를 혁신하였고, 나·당의 군사동맹을 이끌어내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춘추가 주도했던 신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새로운 변화와 제도들은 이후 신라를 300년 이상 지탱해준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윤선태)

## 참고

## 문헌

- 김영하, 1988, 「신라 중고기의 정치과정시론」, 『태동고전연구』 4.  
 김영하, 1988, 「신라의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고대사론』, 한길역사강좌 12.  
 남동신, 1992,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노태돈, 1989, 「연개소문과 김춘추」, 『한국사시민강좌』 5.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문경현, 2000, 『증보 신라사연구』, 도서출판 촛.  
 신형식, 1984,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병도, 1973, 「삼국통일기의 지도자들」, 『국토통일』.  
 이인철, 1993,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지사.  
 이호영, 1981, 「신라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 『사학지』 15.  
 정중환, 1984, 「김유신론」, 『고병익선생회갑기념사학논총』.  
 후보돈, 1993,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 제2장

#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삼국의 대응

1. 남북조 말기의 동북아 정세 변화
2. 수의 중국 대륙 통일과 삼국의 역학관계 변화
3. 수·당 교체기의 정세 변화와 삼국의 동향
4. 당의 동방정책에 대한 삼국의 대응 양상

## 1. 남북조 말기의 동북아 정세 변화

### 중국 대륙의 분열과 다원적 국제질서의 성립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여러 차례 요동을 치며 급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국제질서가 장기간 지속되며 각국의 역사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1-3세기에는 중국 대륙이 3국으로 분열된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후한(後漢)에서 서진(西晉)으로 이어지는 통일왕조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에 비해 4세기 초 서진의 지배 질서가 붕괴된 다음에는 흉노(匈奴)와 선비(鮮卑) 등 여러 족속이 북중국 대륙으로 진출해 5호16국이라는 역동적인 시대를 연출했다. 5세기 전반 북위(北魏)의 북중국 통일로 5호16국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남북조시대로 이어지면서 중국 대륙의 분열 상황은 6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중국 대륙의 분열 상황이 300여 년 가까이 이어지자 주변의 여러 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해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만주 중남부와 한반도 중북부 일대에서는 고구려가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고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했으며, 한반도 중남부에 자리잡은 백제와 신라도 각각 주변 지역을 통합하며 강력한 집권력을 갖춘 고대국가로 성장했다. 이 삼국은 동아시아 각국과 다양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 정세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4-6세기에는 중국 대륙의 분열 상황과 주변국의 국가적 성장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종전과 전혀 다른 다원적 국제질서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다만 북위가 북량(北凉)을 멸망시키고(439) 북중국을 재통합한 이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100여 년 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북위와 남조가 중국 대륙을 양분하며 대치한 가운데 유목제국 유연(柔然)이 북방 초원지대를 석권하여 국제 질서의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고구려와 토욕혼(吐谷渾)이 중국 대륙의 동방과 서방에서 각각 독자 세력권을 구축하여 국제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했다. 북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남조와 유연, 동서로는 고구려와 토욕혼 등의 역관계가 교차하며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장기간 유지했던 것이다.

## 동북아시아 각국에 감도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

이러한 세력균형은 6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국제질서의 양 축이 교차하던 북위에서 일어났다. 북위의 북방을 지키던 선비족 출신 군사들이 효문제 이래의 적극적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라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대우가 열악해진 것에 반발하여 옥야진(沃野鎮)을 시발로 대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524). 이들의 반란은 순식간에 북방의 6진 전체로 번졌고, 급기야 궁중의 내분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었다(534). 그 후 동위는 북제(北齊)(550~577), 서위는 북주(北周)(557~581)로 각각 대체되었다. 이러한 북위의 분열을 틈타 남중국의 양림이 북진하여 한때 낙양까지 점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양나라도 후경(侯景)의 난으로 대혼란에 빠졌고(547), 이를 틈타 동위와 서위가 양을 남으로 밀어내고 양자강 이북 지역을 분점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북조의 대치 상황이 삼국이 정립하는 형세로 바뀌었지만, 양나라가 대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북제와 북주가 중국 대륙의 정세를 주도해 나갔다. 이에 북제와 북주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폈다. 특히 북제 문선제는 고막해(庫莫奚)와 거란(契丹)을 잇따라 정벌하면서 동북방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552~553). 이때 북제는 고구려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북위 말의 유인(流人)을 쇄환해가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중국 대륙의 정세 변화가 동방지역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북방 초원지대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유연이 6세기 전반에 가한과 그의 숙부 사이의 내전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자, 그에 예속되어 있던 돌궐이 흥기한 것이다. 돌궐은 본래 알타이산맥 일대에서 단야업(鐵冶業)에 종사했는데, 우수한 야금술을 바탕으로 같은 족속인 철륵(鐵勒) 여러 부를 통합한 다음(546), 유연을 격파하고 북방 초원지대 전체를 석권했다(555). 신흥 유목제국 돌궐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북제와 북주의 경쟁 관계를 조종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했다. 동쪽으로는 대흥안령산맥을 넘어 거란을 격파하고 말갈에 세력을 뻗쳤으며,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돌궐은 만주 서부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 때문에 만주 서북방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북방 초원지대에서 일어난 변

화의 물결이 대흥안령산맥을 넘어 동방지역에까지 밀려왔던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각지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 무렵, 삼국의 역관계도 변모하고 있었다. 6세기 중반경 고구려가 잇따른 왕위계승전으로 내분에 빠지자, 이를 틈타 신라와 백제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한강유역을 기습 점령한 것이다. 이때 신라와 백제는 각각 한강 중상류와 하류 일대를 분점했다(551).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고구려는 신라와의 밀약을 통해 남쪽 국경의 위기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고구려의 방조 아래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553), 동해안을 따라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였다(556).

이에 따라 신라와 백제의 우호관계는 결렬되고, 신라와 고구려는 국경을 접한 채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대응하여 백제는 가야와 왜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했지만, 관산성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는 등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554). 결국 6세기 중반경 만주-한반도 일대에는 고구려 세력권이 크게 위축된 반면, 신라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정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신라는 종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중국 왕조들과 교섭했는데, 이제는 서해를 통해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신라는 564년과 572년에 북제와 교섭하는 한편, 566년 이래 여러 차례 남중국의 진(陳)에 사신을 파견했다.

## 정세 변동에 따른 외교관계의 변화

위와 같은 각 지역의 정세 변동이 맞물리면서 외교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표 1>은 남북조 말기에 북조 왕조들이 삼국에 수여한 책봉호를 정리한 것인데, 외교관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먼저 북위의 경우 고구려에게만 책봉호를 수여했던 데 비해, 북제는 백제와 신라에게도 책봉호를 수여했다. 더욱이 북위가 동방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고구려에게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수여했었는데, 북제도 처음에는 고구려 양원왕과 평원왕에게 동이교위직을 수여했다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신라의 진흥왕에게 이를 주었다. 또 북제는 백제 위덕왕에게도 고구려와 동급의 책봉호를 수여하고(570), 산둥반도 일대의 관할과 관련된 동청주자사라는 책봉호를 주기도 했다(571).

이처럼 북제가 동방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관할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삼국과 개별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으며 신라를 주요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만주-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정세 변동이 맞물려 일어난 변화이다. 즉 고구려의 세력권이 약화됨에 따라 백제와 신라가 남조뿐 아니라 북제와도 교섭하기 시작했고, 북제도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면서 고구려 후방에 위치한 양국, 특히 신라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제가 삼국에게 각각 요동군개국공, 대방군공, 낙랑군공 등의 군공호(郡公號)를 수여한 사실도 주목된다. 이는 각 변군(邊郡)을 통해 동방지역을 분리 통제했던 조위(曹魏)의 대외정책을 모범으로 삼아 삼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표 1. 남북조 말기 삼국에 대한 북조의 책봉호

북조	연도	삼국 왕명	책봉호	전거
북제	550. 09	고구려 양원왕	사지절·시중·표기대장군·영호동이교위·요동군개국공·고려왕	『북제서』 4
	560. 02	고구려 평원왕	사지절·영동이교위·요동군공·고려왕	『북제서』 5
	565. 02	신라 진흥왕	사지절·동이교위·낙랑군공·신라왕	『북제서』 7
	570. 02	백제 위덕왕	사지절·시중·표기대장군·대방군공·백제왕	『북제서』 8
	571. 01	백제 위덕왕	사지절·도독동청주제군사·동청주자사	『삼국사기』 27
북주	577	고구려 평원왕	상개부의동삼사·대장군·요동군개국공·요동왕	『주서』 49
수	581. 10	백제 위덕왕	상개부의동삼사·대방군공·백제왕	『수서』 1
	581. 12	고구려 평원왕	대장군·요동군공·고려왕	『수서』 1
	590	고구려 영양왕	상개부의동삼사·요동군공	『수서』 81
	591. 03	고구려 영양왕	(상개부의동삼사·요동군공) 고려왕	『수서』 81
	594	신라 진평왕	상개부·낙랑군공·신라왕	『수서』 81

그렇지만 북제는 570년대에 들어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남중국의 진(陳)과 소모전을 일삼다가, 북주의 공격을 받아 불과 1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577). 북위가 분열된 지 40여 년 만에 북주가 북중국을 재통합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남중국

의 진은 북제를 공략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북중국을 재통합한 북주를 상대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북주에서는 중국 대륙 전체를 재통일하겠다는 열망이 커져 갔다. 실제 북주는 일찍부터 서주대의 정치 질서와 유교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를 개혁했고, 북제를 통합한 직후에는 후량(後梁)의 왕을 서주의 조근지례(朝覲之禮)에 입각하여 맞아들이기도 했다. 여전히 남북조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북주가 중국 대륙의 패자를 표방하며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주가 북제를 병합한 직후에 고구려 평원왕에게 수여한 책봉호가 주목된다. <표 1>에서 보듯이 북주는 평원왕에게 '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대장군(大將軍)·요동군개국공(遼東郡開國公)·요동왕(遼東王))'이라는 책봉호를 수여했는데, 북위대의 도독제군사호(都督諸軍事號)나 지방관명뿐 아니라 북제대의 지절호(持節號)와 동이교위직도 보이지 않는다. 4세기 이래 주변국의 현실적 군사력과 지배력을 인정하며 주고받았던 도독제군사호나 지방관명을 제외한 채, 훈관·군공호·왕호 등으로 구성된 책봉호를 수여했던 것이다. 더욱이 '고려왕'이라는 왕호마저 '요동왕'으로 개칭하여 마치 고구려가 북주의 내제후(內諸侯)이고 중국 내지에 포함된 것처럼 취급하려 했다. 북주가 이념상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지향하며 다원적 국제질서를 반영한 종전 책봉호의 구성마저 바꾸려 했던 것이다.

### 수의 돌궐 공략과 고구려의 서북방 세력권 회복

이처럼 북주에서는 중국 대륙의 재통일을 향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실제 정국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무제 사망 이후(578), 잇따라 어린 황제가 즉위함에 따라 황제권이 약화되고 황실 외척인 양견(楊堅)의 권한이 막강해졌던 것이다. 결국 마지막 황제 정제가 양견에게 선위를 하며 북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가 건국되었다(581). 다만, 양견은 즉위한 다음 북주의 국가체제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와 더불어 대외정책도 이어받아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지향했는데, 건국 직후 고구려와 백제에게 북주와 마찬가지로 훈관·군공호·분국왕호 등으로 구성된 책봉호를 수여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註2)

표 2. 수의 주변국에 대한 책봉호 수여 현황

시기	대상국	책봉호	전거
584. 05	거란 막하불	대장군	『수서』 1
585	당항 탁발녕총	대장군	『수서』 83
585. 08	돌궐 굴함진	주국·안국공	『수서』 84
599. 10	돌궐 돌리가한	계민가한	『수서』 2
605	고창 국백아	좌광록대부·차사태수·변국공	『책부원귀』 963

그렇지만 수가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곧바로 국제관계에 투영하기는 힘들었다. 여전히 북쪽으로 유목제국인 돌궐, 남쪽으로 진(陳)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는 외교관계를 통해 주변국에게 일원적 국제질서를 강요하기보다는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책봉호는 중요한 외교 대상이나 대외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에 한정하여 수여했다. <표 2>는 수가 주변국 가운데 일부에게만 책봉호를 수여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특히 훈관, 군공호, 본국왕호 등을 모두 수여한 대상은 삼국뿐이었고, 본국왕호를 그대로 인정한 것도 삼국밖에 없었다.

삼국이 수여받은 책봉호는 비록 도독제군사호나 지방관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조 이래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삼국이 종전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수는 건국 직후 동북아 제국 가운데 고구려에게 가장 높은 책봉호를 수여했고, 북주가 개칭했던 ‘요동왕’이라는 왕호를 본국왕호인 ‘고려왕’으로 고쳐 수여했다. 고구려가 중국 왕조와 명확히 다른 별개의 국가이고, 동방지역의 최강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보아 수가 무리하게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시도하거나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강요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짐작된다.

이상과 같은 수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580년대에 수와 주변국의 외교 교섭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삼국의 경우, 고구려가 584년까지 사신을 자주 파견하는 정도였고, 백제는 581년과 582년 두 차례만 사신을 파견했다. 신라는 580년대에 수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데, 북제와 활발하게 교섭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대신 삼국은 남중국의 진과 교류하며 각종 선진문물을 수용했다. 수(隋)에 유학한 것으로 알려진 신라의 원광법사도 처음에는 진으로 들어가 불교를 공부했다.

이 무렵 수가 중점적으로 공략했던 대상은 북방의 돌궐이었다. 돌궐은 570년대만 하더라도 북제와 북주의 경쟁관계를 조종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가 남중국의 진을 병합하려면 돌궐이라는 배후의 위협 요소부터 제거해야 했다. 이에 수는 돌궐을 공략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마침 581년 타발가한(佗鉢可汗)이 사망한 다음, 동돌궐은 사발략가한을 중심으로 제2가한(염라), 아파가한(대라편), 처라후 등으로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동돌궐의 종주권이 약화되자, 중앙아시아에 자리잡은 서돌궐의 달두(達頭)도 가한을 칭하며 독자 행보를 걸기 시작했다. 만주 서부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대제국 돌궐이 사분오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수는 원교근공(遠交近攻)과 이강합약(繼強合弱)이라는 전통적 군사 공격과 이간책을 동원하여 돌궐을 압박하였다. 이때 고구려 서북방의 거란, 해, 습 등을 통해 돌궐의 동방지역을 관장하던 처라후를 유인하여 수에 귀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돌궐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자, 수는 583년부터 공격을 전개하여 이듬해에 사발략가한의 항복을 받았고, 585년에는 사발략가한으로부터 ‘대수(大隋) 황제에게 영원히 번부(藩附)하겠다.’는 표문을 받고, 군신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북중국 왕조에 대한 돌궐의 우위는 수의 우세로 역전되었다. 그 이후에도 동돌궐은 수의 이간책으로 인해 친수파(親隋派)와 반수파(反隋派)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더욱 심하게 분열했다.

이러한 수의 돌궐 공략과 그에 따른 돌궐의 약화는 주변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6세기 중반 이래 돌궐의 흥기로 인해 서북방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는데, 이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의 공략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돌궐의 영향력은 크게 퇴조한 반면, 수의 지배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는 수가 돌궐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던 584년 3월을 마지막으로 건수사 파견을 중단하는 한편, 남중국의 진과 통교하면서 수를 견제하였다. 그리고는 서북방의 거란과 말갈에 대한 세력 확장을 추진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이 지역에 대한 수의 이해관계와 거란 및 말갈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양자에 대해 상이한 정책을 구사했다. 가령 거란의 경우, 이미 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거란의 반발만 사고 수와의 정면 대결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거란족 가운데 예속되어 있던 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고금(固禁)’ 정책을 구사하며 수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말갈의 경우, 아직 수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고구려는 돌궐의 약화로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말갈에 대해 군사작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말갈의 일파인 돌지계(突地稽) 집단 등이 수로 이탈하기도 했지만, 584년 2월 이후 말갈의 견수사 파견이 중단된 데에서 보듯이 말갈에 대한 종전의 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멀리 남실위(南室韋)에까지 철을 수출하며 대흥안령산맥 방면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 2. 수의 중국 대륙 통일과 삼국의 역학관계 변화

### 수의 중국 대륙 통일과 삼국의 대응책

이처럼 고구려는 수의 돌궐 공략을 틈타 서북방에 대한 종전의 세력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었다. 돌궐 세력의 분열과 약화는 결국 수가 중국 대륙을 재통일할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는 돌궐을 굴복시킨 다음, 곧바로 진을 병합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588년 10월 진을 대대적으로 공략했는데, 589년 1월 양자강을 건넌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진을 멸망시켰다. 4세기 초 이래 약 300여 년 가까이 분열되었던 중국 대륙이 재통일된 것이다. 수가 중국 대륙을 재통일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국으로 퍼져갔다.

고구려 평원왕은 진의 멸망 소식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며 군대를 정비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방어할 계책을 삼았다.’고 한다. 또 당시 100여 세나 되었던 토욕혼의 과려가한은 ‘크게 두려워하여 멀리 달아나 험한 곳을 지켰다.’고 한다. 5세기 이래 중국 대륙의 동·서방에서 각기 독자 세력권을 구축했던 고구려와 토욕혼이 수의

중국 대륙 재통일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고구려가 군사 방어 태세를 확립하고, 토욕혼이 험요한 곳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아 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고구려나 토욕혼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수의 대외정책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고구려나 토욕혼의 예상과 달리 수 문제는 비교적 온건한 대외정책을 구사했다. 300여 년에 걸친 분열을 종식시키고 중국 대륙을 재통일한 수로서는 오랜 전란으로 파폐해진 국력을 회복하고 통일왕조에 걸맞은 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급선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수 문제는 내치에 전념하면서 주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성론(遂性論)을 견지하면서 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의 온건책은 군사 공격까지 예상했던 고구려나 토욕혼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에 새로이 즉위한 토욕혼의 세복가한은 590년에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칭번(稱藩)하며 자신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기를 요청했다. 수 문제가 이를 거절했지만 토욕혼은 거의 매년 수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596년에는 수가 광화공주를 보내 세복가한의 처로 삼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수 문제는 고구려에도 외교문서를 보내 ‘고구려가 거란이나 말갈로 세력을 확장한 것은 자신이 제대로 훈도(訓導)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제3국을 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고구려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주문이었다. 특히 수가 원하는 가시적 조치만 취한다면 별다른 마찰 없이 종전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휘하의 말갈이 수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제3국을 범하지 말라.’는 수의 주문에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수는 고구려 영양왕에게 거란의 막하불보다 낮고 백제 위덕왕이나 신라 진평왕과 동급의 책봉호를 수여했다.(표1.2) 수가 동방지역에서 고구려의 우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다.

한편 백제는 지금의 제주도로 추정되는 탐모라국에 표착한 수의 함선을 되돌려 보내며 사신을 파견하여 진을 평정한 것을 축하했다. 그런데 수 문제는 ‘사행길이

멀고 험난하니 매년 입공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도 사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적극적으로 교류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수는 신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보다 조금 늦은 594년에 수에 사신을 파견하고 책봉호를 수여받은 이후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지만, 『수서』본기나 신라전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는 수가 신라와의 교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대륙 재통일 이후 수가 고구려의 우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대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백제나 신라와 적극적으로 교섭할 의사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부터 갈등관계였던 고구려를 제외한다면 수와 삼국 사이에 외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했고, 수와의 외교관계가 삼국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소지도 거의 없었다. 백제가 590년부터 598년까지 수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은 것이나, 신라가 594년 이후 주로 불교 등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수에 사신이나 승려를 파견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렇다고 수가 동방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는 동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진기지 건설에 온힘을 기울였다. 590년경 요서에 영주총관부를 설치하고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란뿐 아니라 해, 습, 실위 등도 점차 수의 영향력 아래로 포섭되어 나갔다. 593년 거란이 해, 습, 실위 등을 대동하고 수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더욱이 수는 593년에 돌궐의 도람가한(都藍可汗)을 꺾어 수에 반감을 품고 있던 북주 출신의 대외공주를 참살하도록 했다. 그리고 돌궐의 동방지역을 관장하던 처라후의 아들 염간(染干)이 도람가한에게 반기를 들고 돌리가한(突利可汗)을 칭하며 청혼하자 이를 수락했다.

이처럼 수가 요서와 그 북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돌궐의 동쪽지역에까지 손을 뻗는다면, 고구려는 몽골초원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봉쇄당할 뿐 아니라 말갈에 대한 지배권마저 위협당할 수 있었다. 수는 백제나 신라와 활발하게 외교 교섭을 갖지 않은 대신, 요서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했던 것이다. 이는 590년 고구려가 수와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종전의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말갈의 견수사 파견부터 중단시켰다.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말갈이 언제 수의 영향력 아래로 포섭될지 모르는 상황이

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구려와 수의 외교관계는 사실상 다시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수는 597년 돌궐의 돌리가한에게 공주를 시집보낸 다음, 남쪽의 장성 부근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했다. 당시 동돌궐은 수에 적대적인 도람가한과 우호적인 돌리가한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돌궐은 달두가한이 다스리고 있었다. 수가 돌리가한을 장성 부근으로 이주시킨 일차 목적은 도람가한을 견제하는 데 있었다고 파악된다. 다만, 돌리가한이 아버지 처라후 이래 돌궐의 동쪽지역을 관장한 점을 고려한다면, 해, 습, 실위 등에 대한 돌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수가 이들을 직접 관장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고구려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595년 영주총관에 취임한 위충이 거란과 말갈을 위무하고, 해와 습까지 조공하도록 했다는 기록은 이러한 위기가 실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구려로서는 우려했던 위기가 현실로 표면화된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타개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 고구려의 남진정책 재개와 삼국 각축전의 심화

이에 고구려는 수의 압박을 견제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먼저 말갈의 견수사 파견을 통제하는 한편, 왜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했다(595). 이때 고구려는 왜에 승려 혜자를 보내 선진문화를 전수하는 한편, 쇼토쿠태자(聖德太子)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었다. 이로써 주로 백제와 통교하던 왜는 외교관계를 다변화할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 정세 변화를 종전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아의 국제 정세 변화가 고구려를 거쳐 왜에까지 파급되었고, 왜가 동북아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왜가 600년에 처음 수에 사신을 파견하고, 그 이듬해에는 백제와 고구려에 동시에 사신을 보내 신라 공격을 도모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말갈의 견수사 파견 중단이나 왜와의 외교 재개만으로 수의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고구려는 597년 5월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안위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수의 내부 정황을 정탐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외교관계의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고구려의 이러한 결정에는 597년 7월 돌궐의 동쪽지역을

관장하던 돌리가한이 장성 부근으로 이주하였고, 여러 가한의 대립으로 인해 돌궐의 공격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은 598년 2월 말갈병 1만을 동원하여 요서를 공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만 명이라는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 그것도 말갈족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 탐색전의 성격이 짙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양왕의 책봉호를 폐지하는 한편,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 수의 대군은 장마를 만나 병참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전염병마저 창궐한 가운데 80-90%가 사망하였다. 이로써 수의 공격은 실패하였지만, 언제든지 대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사죄하자, 수는 이를 명분삼아 철군하면서 종전과 같이 대했다. 더욱이 백제가 수의 고구려 원정 소식을 듣고 군도軍導를 요청했으나, 고구려를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벌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외견상 수가 고구려의 안위를 보장하고, 양국 관계도 정상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수가 고구려의 안위를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당시 수는 돌궐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원정을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무렵 동돌궐은 도람가한과 돌리가한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돌궐은 달두가한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599년 2월 장성 일대로 근거지를 옮긴 돌리가한이 도람가한과 달두가한의 협공을 받아 괴멸 당한 다음 수에 친조親朝하자, 수가 계민가한啓民可汗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리고 수는 계민가한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 10월 도람가한을 괴멸시킨 다음, 서돌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였다. 그리하여 603년 서돌궐에 예속되었던 철륵 등이 반기를 들어 계민가한에게 투항하자, 서돌궐 세력도 괴멸되고 달두가한은 토욕혼으로 도망가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돌궐에 대한 수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돌궐 방면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서북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한다거나 다른 세력과 연맹을 도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반면 고구려에 대한 수의 압박은 더욱 거세어졌다. 수 문제를 이은 양제가 '고구려 경역은 본래 중국 군현이었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이주토四夷誅討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가 수에 굴복하지 않는 한, 정면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수복하여 종전의 세력권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와의 정면 대결에 대비하고자 했다. 실제 고구려는 603년 신라의 북한산성을 필두로 607년에는 백제의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고, 608년에는 신라의 북쪽 국경을 급습하여 8천명을 노획하고 우명산성을 함락시키는 등 대남방 군사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로써 6세기 중반 이후 약 50여 년 간 휴전 상태를 유지했던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각축전이 재개되었다. 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도 각축전이 벌어졌다. 더욱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백제가 더욱 거세게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의 중국 대륙 통일에 따른 정세 변동이 고구려를 통해 한반도 중남부에 까지 파급되면서 삼국을 물고 물리는 치열한 각축전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무렵 왜가 백제나 고구려와 연계하여 신라 정벌을 도모한 데서 보듯이 삼국의 각축전은 언제든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중국 대륙과 북방 초원지대의 정세 변화가 고구려를 거쳐 신라와 백제로 그리고 바다 건너 왜에까지 파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전체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수 양제의 즉위와 함께 더욱 거대한 태풍으로 돌변했다.

### 수 양제의 사이주토 정책과 동방 제국의 동향

수의 대외정책은 604년 양제의 즉위와 함께 더욱 강경해졌다. 수 문제가 대체로 진隙을 병합하여 사해평일四海平一을 이룩한 것에 만족하며 돌궐을 제외한 주변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대외정책을 펼친 반면, 양제는 즉위하면서 곧바로 주변국을 대대적으로 정벌하는 사이주토四夷誅討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양제도 문제처럼 주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성론遂性論을 폈지만, '하늘에 태양이 한 개 있어야 만물이 평안하게 생장할 수 있다.'며 주변국에게 수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물론 수 양제의 강력한 대외정책은 수의 지원을 받는 계민가한[돌리가한]을 제외하고 돌궐 세력이 거의 모두 괴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방 초원의 거대한 유목제국이 사라짐에 따라 배후의 공격 위험을 염려하지 않고, 주변국을 정벌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수 양제는 605년 남쪽의 임읍林邑과 요서의 거란契丹

을 필두로 주변국을 본격적으로 정벌하기 시작했다. 특히 607년에는 양제가 북방 순행에 나서 계민가한의 아장牙帳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돌궐의 변심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때 수는 계민가한으로 하여금 해, 습, 실위 등의 추장을 불러들이게 하여 수의 위엄을 과시하는 한편, 북방 족속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양제는 고구려 사신을 발견하고는 '귀국한 다음 너희 왕이 직접 내조하라고 전달하라, 만약 내조하지 않으면 계민가한 휘하의 돌궐 병사를 이끌고 정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는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근현지역으로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 계민가한의 복종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고구려 사신을 협박하자'는 배구襄矩의 계책을 따른 것이다. 수 양제가 장차 동방지역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벌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결국 고구려가 계민가한처럼 수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이와 같이 수는 북방과 동방 지역을 단속한 다음, 5세기 이래 중국 대륙의 서방에서 독자 세력권을 구축했던 토욕혼吐谷渾을 대대적으로 정벌하기 시작했다. 수는 608년 7월 철륵鐵勒을 피어 토욕혼을 공격하도록 하여 대파한 다음, 609년 4월에는 양제가 친히 토욕혼 정벌에 나서 6월에 괴멸시켰다. 그리고는 서역으로 나아가는 연지산燕支山에서 고창과 이오 등 서역 27국 사신의 배알을 받았다. 수가 서역에 대한 돌궐과 토욕혼의 지배력을 차단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수는 고구려를 제외하고 5세기 이래 중국 대륙 주변에서 독자 세력권을 구축했던 국가를 거의 모두 병합하거나 괴멸시켰다. 수가 최종 공격 목표인 고구려를 정벌할 시점이 임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의 남진으로 압박을 받던 신라나 백제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백제가 607년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정벌을 요청한 것이나, 신라가 608년 원광법사에게 수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의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에게 고구려 정벌을 요청했겠지만, 이를 계기로 삼국의 각축전은 서서히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왜도 607년과 608년에 잇따라 수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 왜왕이 수 황제와 자신을 대등하게 지칭하는 외교문서를 보냈음에도 수 양제는 '무례한 만이蠻夷

의 글을 다시는 보이지 마라.'고 하면서 오히려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수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바다 건너 왜까지 포섭하려 했던 것이다. 다만, 그동안 왜와의 외교 관계를 독점했던 백제로서는 왜와 수의 직접 교섭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자국을 경유하여 귀국하던 왜의 사신을 조사하여 수 양제의 서찰을 빼앗았다. 당시 왜 사신이 백제의 검열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왜가 수와 직접 교섭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백제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짐작된다.

수의 사신 파견으로 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삼국은 왜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고구려는 605년 왜에 불상 조성에 필요한 황금 300냥을 보낸 데 이어, 610년에는 승려 담징을 파견하여 연자방아, 종이, 먹 등의 제조기술을 전수했다. 왜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백제와 신라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한편, 수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신라도 610년과 611년에 잇따라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종전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고구려-백제-왜로 둘러싸인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려 했다. 수가 고구려 원정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동방 제국에 접근함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에 연쇄적 변화를 일으키고, 또 각국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그 영향

한편 수는 토욕혼까지 괴멸시킨 다음, 고구려 정벌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는 605년 회수와 황하를 잇는 통제거를 완성한 데 이어, 608년에는 고구려 정벌의 전초기지인 탁군과 통제거[황하]를 잇는 영제거를 개통했다. 그리고 610년에는 회수에서 양자강을 거쳐 여항에 이르는 강남하까지 준공했다. 이른바 대운하를 완공한 것이다. 이로써 수는 이 대운하를 이용해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탁군까지 운송함으로써 고구려 정벌을 위한 군수물자로 충당할 수 있었다.

이에 수 양제는 611년 2월 양자강에서 대운하를 따라 탁군을 향해 출발하면서 고구려 정벌령을 내렸다. 그런 다음 수는 징병령, 병장기 제작령, 군량미 운반령 등을 잇따라 내리며 전쟁 준비를 마무리했다. 마침 백제와 신라도 잇따라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원정을 요청했다. 수로서는 고구려 원정의 대외적 명분도 확보한 셈이다.

마침내 612년 1월, 수의 대군이 고구려를 향해 탁군을 출발했다. 전투병만 113만 명, 보급병은 그 두 배인 200만 명,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어영(御營)을 포함한 행군의 총길이는 무려 1,040리에 달했다. 현전하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군이었다. 이때 수에 투항한 서돌궐의 처라가한(갈과나가한)과 고창왕 국백야가 종군하였고, 속말말갈 출신의 돌지계 집단도 동원되었다. 수가 휘하의 주변국이나 족속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외형상으로 국제연합군의 면모를 띠었던 것이다. 또 수는 해군을 별도로 편성하여 산둥반도의 동래(東萊)에서 평양성을 향해 출발시켰다.

수는 장마철에 고구려 공격을 감행했다가 실패한 598년의 교훈을 되새겨 갈수기인 2월을 선택하여 요하를 쉽게 건널 수 있었다. 그런데 요하를 건넌 수군이 요동성을 여러 달 공격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의 해군도 대동강 하구에서 격파당했다. 조바심이 난 수 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편성하여 평양성으로 직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유인작전을 구사하여 수의 별동대를 평양성까지 끌어들이 다음, 퇴각하는 수군을 살수에서 대파하였다. 고구려는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바탕으로 청야수성전(淸野守城戰)과 유인전술을 구사해 수군을 대파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 양제는 고구려를 정벌하여 사이주토(四夷誅討)를 완성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양제는 613년과 614년에도 잇따라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그때마다 수는 612년과 똑같은 전술을 구사했다. 덕분에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다. 수는 돌궐이나 토욕혼과는 전혀 다른 고구려의 방어체계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정벌을 추진하다가 국력을 낭비하고 마침내 지배 질서마저 동요하게 만들었다.

한편 611년에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자, 수는 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협공할 방안을 모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의 고구려 원정 기간에 신라나 백제가 수에 적극 협조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의 경우, 611년 백제에게 가잠성을 빼앗긴 탓인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백제는 말로만 수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구려와 내통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백제가 수 및 고구려와 동시에 연계하며 양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결국 수는 신라나 백제와의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원교군

공(遠交近攻) 정책을 구사하며 고구려 원정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 3. 수·당 교체기의 정세 변화와 삼국의 동향

#### 수의 고구려 원정 실패와 지배 질서 붕괴

612년 수가 고구려 원정을 단행한 순간부터 농민들이 동요했고,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점차 지배 질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원정군에 징발되지 않기 위해 도망치고, 무리를 지어 도적떼를 이루다가 점차 반란군으로 발전했다. 특히 고구려 원정의 전초기지인 탁군 및 동래와 가까운 황하 하류 일대의 농민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켰다. 611년 가을에 일어났던 황하의 홍수 피해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고구려 원정의 전초기지와 가까워 병력 동원과 군수물자 징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동으로 향하다 개죽음 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외침이 곳곳으로 번져갔고, 자신의 손과 발에 상처를 낸 다음 '복수복족(福手福足)'을 외치는 반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수 양제는 이러한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구려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에 고위 관료마저 반란을 도모했다. 특히 613년 6월 후방에서 수군의 병참 보급을 총감독하던 양현감이 십여 만 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양현감은 양제의 즉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양소의 아들로서 예부상서라는 고위직에 있었는데,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수 문제의 치세를 회복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때 양현감의 핵심 참모였던 이밀(李密)은 '요수 동쪽 조선의 땅은 우공(禹公)이 황복(荒服)으로 삼은 곳이고, 주왕(周王)이 불신(不臣)의 땅으로 버린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고구려는 본래 중국 군현의 땅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구려 원정을 추진했던 수 양제와 명확히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수 양제로서는 더 이상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즉각 중단하고 퇴각하여 양현감의 반란을 평정하였지만, 이미 반란이 전국 각지로 확산된 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양제는 614년 또다시 고구려 정벌을 감행했다. 그렇지만 전국이 반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원정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수 양제는 반란이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커지자, 요하를 건너지도 못하고 고구려의 항복을 명분삼아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수 양제는 615년에 북방을 순행하며 새롭게 흥기하던 돌궐을 종전처럼 분열시키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아 안문雁門에서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 때 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겠다.'는 조서를 내려 겨우 병사들의 분전을 이끌어내 돌궐의 포위를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 양제는 동도東都(낙양)에 도착한 다음, 다시 고구려 원정을 논의하게 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이 더욱 격분하고 반란도 더욱 격심해져 사실상 수의 지배 질서는 붕괴되었다.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군 집단의 수는 2백을 헤아렸고, 수십만 명을 거느린 대규모 반란군도 등장했다. 다만 615년까지의 반란군은 대부분 도적집단의 성격이 강했고, 문제의 치세를 복구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을 뿐이다. 아직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615년 이후 수의 지배 질서가 와해됨과 더불어 반란군의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617년에는 십수 개의 집단이 중국 대륙을 분점하며 할거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는 독자적 연호와 국호를 사용하며 왕이나 천자 등을 칭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때 수 양제는 남쪽의 강도江都(양주)로 피신했다가, 고구려 원정에 참여했던 우문술의 아들인 우문화급宇文文化에게 피살당하였다. 수는 중국 대륙을 재통일한지 불과 30여 년 만에 멸망한 것이다(618).

### 삼국의 동향과 돌궐 및 토욕혼의 부흥

수의 지배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고구려는 비로소 '수의 대규모 정벌군이 매년 침공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이은 수의 대규모 침공은 고구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무려 3년간 수의 수백만 대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요하에서 평양성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터로 변했다. 또 거의 모든 장정이 병사로 징발되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 국력은 엄청나게 피폐해졌다. 수의 침공을 막느라

남진정책은 물론이고, 정상적 외교 교섭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가 붕괴되었으니 고구려로서는 국가의 명운이 되살아난 느낌이었을 것이다. 다만 614년 수의 원정이 중단된 이후 고구려 내부 상황을 전하는 사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618년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 양제의 30만 대군을 격퇴했다고 전하며, 포로로 잡은 수나라 병사와 함께 고취鼓吹, 쇠뇌(弩), 포석기抛石器 등의 악기와 무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수가 608년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원정에 유리한 대외정세를 조성하려 했음을 고려한다면, 고구려가 대수 전승을 과시하며 왜를 최대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구려가 전쟁의 종식을 얼마나 열망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백제는 614년에 수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수의 지배 질서가 붕괴된 이후에는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백제가 수의 고구려 원정에 따른 정세 변화를 끝까지 예의주시하다가, 중국 대륙이 대혼란에 빠지자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던 것이다. 대신 백제는 왜에 사신을 파견하는 한편(615년 9월),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였다(616년 10월). 이에 신라도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를 견제하는 한편(616년 7월), 백제에게 빼앗겼던 가잠성을 공격하여 수복하였다(618).

수의 붕괴 이후, 백제와 신라는 중국 대륙이나 북방의 정세를 관망하며 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에 왜는 삼국 모두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어 다자외교를 펼치며,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려고 도모했다. 특히 왜는 종래 적대적이었던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왜-신라-당으로 이어지는 육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당과 신라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실제 623년에는 당에 유학한 왜의 승려와 의사 등이 신라의 사신을 따라 귀국하기도 했다.

이 무렵 중국 대륙의 북방과 서방에서는 종전에 독자 세력권을 구축했다가 수에게 격파당했던 돌궐과 토욕혼 등이 다시 부흥했다. 전술했듯이 돌궐은 수의 이간책과 군사 공격에 의해 문제 말년에 거의 괴멸되었다. 동돌궐은 수의 보호를 받는 계민가한(돌리가한)에 의해 다스려졌고, 서돌궐은 수 양제에 의해 셋으로 분열 당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서돌궐의 처리가한은 수에 투항하여 고구려 원정에 종군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림 1. 630~40년대 동아시아 형세와 당의 대외원정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 지배 질서가 붕괴되자, 돌궐은 유목민의 신속한 기동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하였다. 계민가한을 이은 동돌궐의 시필가한(始畢可汗)은 615년 기병 수십 만을 동원하여 수 양제를 안문에서 포위하였다. 이때 수 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겠다.’는 조서를 내려 겨우 병사들의 분전을 이끌어내는 한편 돌궐의 가한에게 시집간 의성공주(義成公主)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동돌궐이 수의 붕괴를 틈타 거대한 유목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혼란을 피해 많은 중국인들이 돌궐로 피신했으며, 북중국 대륙에 할거하던 두건덕(杜建德), 왕세충(王世充), 양사도(梁師都) 이궤(李軌), 고개도(高開道) 등이 앞을 다투어 돌궐에 칭신(稱臣)하며 가한(可汗)의 칭호를 받아들였다. 두건덕은 619년 2월 양제를 살해했던 우문

화급의 목을 벤 다음, 이를 돌궐에 보낼 정도였다. 6세기 중반경 북제와 북주가 돌궐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던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이 무렵 중국 대륙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돌궐의 사궤가한도 수의 분열책을 분쇄한 다음, 알타이 산맥으로부터 카스피해와 힌두쿠시에 이르는 지역을 통합하여 지배하였다. 한편 수 양제의 공격을 받아 괴멸되다시피 했던 토욕혼도 수의 붕괴를 틈타 다시 부흥했다. 당항(黨項)으로 피신했던 토욕혼의 복윤(伏允)은 고지로 되돌아와 급속하게 종전 영역을 수복했다. 그리고 619년에는 당과 연계하여 양주(涼州)에 웅거하고 있던 이궤를 협공하여 궤멸시키고, 수에 볼모로 보내졌던 아들 순(順)을 당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하였다. 토욕혼도 돌궐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세력을 회복하고 수에 보내졌던 볼모까지 돌려받으며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확보하였다.

### 당 고조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수의 붕괴로 중국 대륙이 대혼란에 휩싸이고, 주변국이 부흥하는 가운데 당이 건국되었다. 당의 건국자인 이연(李淵)은 북방 변경을 관장하는 태원유수(太原留守)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617년 7월 태원 인근의 문무관을 선동하여 3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수의 도성인 장안(長安)을 향해 출발했다. 이연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불과 4개월만인 11월에 장안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출발 당시 3만에 불과했던 병력은 무려 20만 대군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연은 장안을 점령한 직후, 수 양제의 손자인 대왕유(代王侑)를 공제(恭帝)로 옹립하고, 강도(江都)로 피신한 양제를 태상황으로 받들었다.

이연이 장차 수 문제처럼 공제로부터 선위를 받아 당 왕조를 개창할 준비를 한 것이다. 실제 이연은 수 문제가 북주의 정제로부터 선위를 받아 수를 개창할 때와 거의 똑같은 절차를 거치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는 618년 3월 수 양제가 피살 당하자, 5월 공제로부터 선위를 받아 당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때 당이 수의 도성인 장안을 장악했고 선위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대륙 곳곳에 독립 세력이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왕조의 황제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였다.

당의 당면 과제는 중국 대륙을 재통합하여 황제 중심의 집권체제를 확립하

는 것이었다. 때문에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은 수가 무리하게 사이주토 정책과 고구려 원정을 추진하다가 패망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 고조 이연은 622년 고구려 영양왕에게 '고구려가 요좌遼左를 통섭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기 강장疆場을 보전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화이를 구별하지 않고 고구려 지역이 중국 군현이었다며 정벌을 추진했던 수 양제의 대외인식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613년 수 양제에 반기를 들었던 이밀의 발언에서 보듯이 독립세력의 할거와 더불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본래 중국 왕조와는 관계없는 이역異域이었다는 인식이 널리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624년 고조선을 둘러싼 배구와 온언박의 논박을 제외하면, 641년 당태종이 '고구려는 사군四郡의 땅이다'라고 언급할 때까지 당 조정의 공식 논의에서 '고구려 지역이 본래 중국의 군현이었다'라고 언급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당은 건국 직후에 화이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념에 입각하여 주변국을 중국왕조와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건국 직후 중국 대륙의 할거세력을 병합하는 데 온힘을 기울이는 한편, 주변국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들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며 화친을 맺는 온건한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삼국의 사신 파견에 대한 당의 반응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가령 고구려는 당이 개창된 지 1년도 안 된 619년 2월과 621년 7월에 사신을 파견했고, 신라와 백제도 당이 북중국의 핵심부를 장악한 직후인 621년 7월과 10월에 각기 사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당은 곧바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진평왕에게 새서璽書와 함께 병풍과 비단을 수여하기도 했지만, 공식적 외교관계를 뜻하는 책봉호는 수여하지 않았다. 또 그 이듬해인 622년에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각기 영역을 보전하자'는 조서를 수여하면서도 책봉호를 수여하지 않고 고구려 영역 내에 있는 수의 전쟁 포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구려가 만약 명의 포로를 송환하자 당 고조가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당 고조는 고구려와의 외교교섭에서 공식 외교관계의 체결보다도 수의 고구려 원정 실패로 촉발된 천하 대란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더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당은 난하濛河 유역의 고개도와 삭방朔方 지역의 양사도 등을 제외

하고 할거세력을 거의 대부분 제거한 624년 1월에야 비로소 삼국에 책봉호를 수여했다. 이때 당은 수대와 마찬가지로 '훈관+군왕호+본국왕호'로 구성된 책봉호를 주었다. 중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군왕호와 본국왕호로 이루어진 이중의 작호를 수여한 것이다. 다만 수가 589년 이후 삼국에게 동급의 훈관을 수여한 반면, 당은 고구려에게는 최고위 훈관인 정2품 상주국上柱國, 백제와 신라에게는 그 보다 하위인 종2품 주국柱國을 수여했다. 외형상 고구려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또 당은 수와는 달리 군공호보다 상위인 군왕호를 수여했는데, 당 무덕-정관 연간에 본국왕호나 가한호를 수여받은 경우 모두 군왕호도 수여했다는 점에서 삼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초기의 책봉호 수여 양상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책봉호 구성은 매우 다양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독자세력을 상실하고 당에 투항한 경우는 훈관, 12위 장군직, 덕화의 의미를 내포한 군왕호, 도독호 등만 수여하고 본국왕호나 가한호를 수여하지 않았다.

다만 괴뢰정권이나 부용국이라 하더라도 당의 정주正州로 편제하지 않고, 당의 영역 밖에 존재할 경우에는 본국왕호나 가한호를 수여했다. 이로 보아 본국왕호나 가한호는 기본적으로 당의 경역 밖에 존재하는 정치체나 국가에 수여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당이 624년 삼국에게 동시에 본국왕호를 포함한 책봉호를 수여한 것은 삼국 모두를 동일하게 독립국가로 인정했음을 뜻한다. 당 고조가 고구려 영양왕을 책봉한 직후, '무리하게 칭신稱臣을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이 중국 대륙 내부의 할거세력을 상당수 병합한 다음, 삼국 왕에게 책봉호를 수여하며 동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수 양제와 달리 삼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병존을 인정하는 온건한 대외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는 여전히 중국 대륙 내부에 할거세력이 잔존하고 있었고, 북방과 서방에서 돌궐과 토욕혼 등이 새롭게 흥기하여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 삼국과 돌궐 및 토욕혼의 동향

이처럼 당이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 주변국에 대해 화친과 병존 정책을 펴자, 삼국은 당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대륙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 말기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려 하였다.

고구려는 619년 이래 당에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는 한편, 당이 624년 영류 왕을 책봉하면서 당의 국교인 도교를 전해주자 도사들의 강론을 경청했다. 이듬해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당에 사신을 보내 불교와 함께 도교의 교법을 배우기를 청했다. 고구려가 당의 온건한 대외정책에 온건책으로 화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백제 및 신라와 당의 외교교섭을 방해하는 한편, 625년에는 왜에 승려 혜관(惠灌)을 보냈다. 고구려가 당과 백제 및 신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는 한편, 왜를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백제도 621년 이래 당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는 한편, 신라를 더욱 거세게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624년 속함성, 앵잡성 등 신라의 6개 성곽을 공취하고, 626년에는 왕재성을 공취하기에 이르렀다. 백제가 신라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여 6세기 중반 이래의 열세를 만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신라는 점차 북쪽의 고구려와 서쪽의 백제로부터 동시에 협공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수·당 교체기의 정세 변화가 삼국의 역관계에서 신라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신라는 621년과 623년에 잇따라 왜에 사신을 파견하는 한편, 625년에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침공과 외교 방해를 호소하며 외교적 고립을 타개할 방안을 강구했다. 이때 백제도 당에 고구려의 침공과 외교 방해를 호소했다. 그렇지만 당은 수 양제대와 달리 신라나 백제의 호소를 빌미 삼아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때 당은 산기시랑 주자사(朱子耆)를 파견하여 삼국을 순회하며 서로 화해할 것을 종용했는데, 고구려에게 특별한 경고를 준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당은 624년에 맺은 삼국과의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삼국의 역관계에 개입했지만, 삼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화친을 권유하는 데 머물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구려는 외교문서를 보내 사죄를 표하며 두 나라와 화평하게 지내겠다고 화답했다. 당이 온건책을 계속 추진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의 견당사 파견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의 원정으로 잠시 중단했던 남진정책을 재개하여 신라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삼국의 각축전이 다시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동돌궐은 당 건국 직후 더욱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무렵 북중국 각지의

할거세력들이 동돌궐에 청신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연(李淵)도 당 건국 과정에서 동돌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연은 처음 태원에서 흥기할 때 동돌궐의 시필가(奚斤)로부터 군마를 제공받았다. 이연의 군대가 장안으로 진군할 때는 동돌궐의 기병 2천 기가 참전했다. 이에 당 건국 직후 동돌궐은 사신을 파견하여 갖가지 요구를 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중원을 통일하지 못한 당은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619년 2월 동돌궐이 북방의 양사도 및 유부주 등과 연계하여 당의 발흥지인 태원을 공격함에 따라 동돌궐과 당의 관계는 점차 적대적으로 바뀌어갔다. 이에 시필가(奚斤)를 이은 처라가한(處羅可汗)은 당을 압박하여 막대한 물자를 제공받는 한편, 중원대륙의 패권을 놓고 당과 대립하던 북방의 할거세력을 지원하는 이중적 정책을 구사했다. 특히 620년 2월에는 당시 최대의 농민군을 이끌던 두건덕(杜艷)으로부터 양제의 소황후(蕭皇后)를 인계받아 정양(定襄)에 안치하고, 제왕(齊王) 간(暕)의 아들 정도(政道)를 수왕(隋王)으로 삼아 수를 받들도록 함으로써 당과의 정통성 경쟁을 벌이게 만들기도 했다.

620년 11월 처라가한(處羅可汗)도 위와 같은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동돌궐과 당은 외형상 외교 교섭을 이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방전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동돌궐은 처음에는 주로 북방의 할거세력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기병을 동원하여 변경을 침탈하다가, 624년부터 당의 도성인 장안을 겨냥하여 대규모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 조정에서는 천도에 관한 논의가 일어날 정도였다. 더욱이 힐리가한은 625년에 기병 10여 만기를 동원하여 당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당은 고조의 두 아들 건성과 세민 및 울지경덕(尉遲敬德) 등의 활약에 힘입어 동돌궐의 공격을 격퇴하였지만, 돌궐의 기병이 언제 도성인 장안까지 진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한편 당은 서방지역에 대해서도 화친정책을 폈다. 이에 토욕혼의 복윤(伏允)은 619년 당과 연합하여 양주의 이궤를 궤멸시키는 등 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북방의 할거세력을 지원하며 당을 공격한 동돌궐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는 당과 연합하여 이궤를 궤멸시킨 데서 보듯이 중국 대륙의 재통합에 여념이 없던 당과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궤가한을 이은 서돌궐의 섭호가한(葉護可汗)도 당의 화친정책을 수용하여 청혼하는 등 활발하게 통교하는 한편, 동북쪽의 철륵을 정복하고 서남쪽의 박트리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인하였으며 부분적이지만 타림분지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당 건국 직후, 삼국을 비롯한 돌궐이나 토욕혼 등은 중국 대륙의 할거 상황 및 당의 온건한 대외정책 등을 활용하여 각기 자국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은 아직 중국 대륙을 재통합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북방의 할거세력을 지원하며 도성까지 위협하던 동돌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지만, 역시 적극적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 4. 당의 동방정책에 대한 삼국의 대응 양상

### 당의 중국 대륙 재통합과 태종의 집권

당이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대륙부터 재통합해야 했다. 그래야 당이 정통왕조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국과 다양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은 수의 율령을 수정하여 국가체제를 갖추는 한편, 각지의 할거세력을 병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때 당은 새롭게 부흥한 돌궐과 토욕혼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가령 당 고조는 태원에서 흥기할 때 동돌궐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619년 양주의 이궤를 병합할 때는 토욕혼과 연계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당은 각지의 할거세력을 하나씩 병합할 수 있었다. 당시 당의 최대 라이벌은 수의 동도東都였던 낙양 일대를 장악한 이밀과 왕세충이었다. 낙양 일대는 장안과 함께 오랫동안 중국 대륙의 양대 정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당이 중국 대륙의 정통왕조라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양 일대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양현감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밀은 일찍이 수의 창고를 습격하여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며 민심을 획득하고, 하남 일대에서 수십만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다. 또 왕세충은 월왕 동을 황제로 옹립하고는 당과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이밀이 수 양제를 살해하고 복상하던 우문화 급과 싸워 대패한 데 이어, 왕세충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패하였다. 세력이 크게 약화된 이밀은 당이 건국된 직후인 618년 10월 당에 투항하였다. 이에 당 고조 이연은 이밀을 살해한 다음, 620년 7월부터 왕세충을 대대적으로 공략하였다. 이때 왕세충은 하북 일대에서 최대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있던 두건덕과 연합하고 돌궐의 지원을 받으며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은 왕세충·두건덕 연합군과 무려 1년 가까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621년 5월에 양자를 모두 격파하였다.

이로써 당은 수의 수도였던 장안과 동도였던 낙양 등 북중국의 핵심부를 장악하며 정통왕조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 이후 당은 621년 파릉巴陵의 소선蕭銑, 622년 두건덕의 부하였던 유흑달劉黑達, 624년 어양漁陽의 고개도, 단양丹陽의 보공석輔公祐, 임성任城의 서원랑徐圓明 등을 차례로 평정하여 626년경에는 삭방의 양사도梁師都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할거세력을 병합하였다. 당이 건국된지 7년여 만에 천하대란 상태를 수습하고,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정통왕조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당이 흥기하고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는 과정에서 고조의 첫째 아들인 황태자 건성과 더불어 둘째 아들인 세민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건성과 세민은 돌궐 힐리가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등 상당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곳곳의 할거세력을 대부분 통합하면서 양자는 점차 황제위의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세민은 고조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 방법으로는 황제위를 계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세민이 626년 6월 장안궁성의 북문인 현무문玄武門에서 처남인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울지경덕 등을 거느리고 형 건성과 동생인 제왕齊王 원길元吉을 살해한 이른바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고조 이연을 유폐한 다음, 이해 8월에 태종으로 즉위했다.

태종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즉위했으므로 정통성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내적인 안정을 취하고, 황제 중심의 강력한 집권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현무문의 변’ 직후 돌궐의 힐리가한이 기병 10여만 기를 이끌고 장안

근교까지 진격한 데서 보듯이 외적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태종은 황제로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출병하여 힐리가한과 담관함으로써 돌궐을 물리칠 수 있었다. 태종으로서는 돌궐의 위협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시 돌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이 중국 대륙을 재통합하고 황제위에 즉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수 양제처럼 강력한 대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태종은 내부적으로 정치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조공·책봉질서를 통해 당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태종이 627년 백제에 조서를 내려 ‘신라와의 공방전을 중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유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이는 태종의 희망 사항에 불과했다. 남북조 말기 이래 북주나 수 등이 책봉호의 구성을 변화시키며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현하려 했지만, 이는 현실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념적 지향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 양제가 강력한 사이주도 정책을 폈지만, 고구려 원정에 실패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확립하기는커녕 수의 운명만 재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의 외교정책에 순순히 응할 국가는 거의 없었다.

백제 역시 겉으로는 태종의 권유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라를 종전보다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 및 신라와 화친하라.’는 당 고조의 조서를 받아들일겠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신라를 계속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백제나 고구려의 입장에서 조공·책봉관계는 어디까지나 당과 외교관계를 맺고, 동북아 국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사실상 병존 정책을 폈던 고조와 달리, 태종이 당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제압할 좀 더 구체적인 대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동돌궐의 붕괴와 당의 서북방 정책

태종이 즉위했을 무렵, 당에 대적할 만한 주변의 국가나 족속으로는 북방의 동돌궐, 서방의 토욕혼과 서돌궐, 그리고 동방의 고구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서방의 토욕혼과 서돌궐은 고조의 화친정책에 협조하며 각각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

는 정책을 폈다. 고구려 역시 당과의 화친을 지속하며 남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따라서 태종으로서는 당 건국 직후부터 북중국 대륙의 할거세력을 지원하며 당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동돌궐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이에 태종은 동돌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변 세력을 후원하여 동돌궐을 압박하며 분열시키는 이간책을 구사했다. 실제 628년경 동돌궐의 압박을 받던 거란, 말갈, 실위 등이 조공을 하자,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동돌궐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또 서북방에서는 서돌궐과의 화친을 지속하며, 철륵과 설연타를 지원하여 동돌궐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당의 압박과 분열 정책에 따라 동돌궐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내분이 일어났다.

627년 설연타와 회흘 등이 동돌궐을 배반하자 힐리가한이 돌리突利로 하여금 토벌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토벌군이 패배하였다. 이에 힐리가한이 돌리를 강하게 질책하자, 돌리는 당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침 이해 겨울 대설이 내려 동돌궐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난까지 발생했다. 동돌궐의 힐리가한으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힐리가한이 처음으로 칭신稱臣을 하며 청혼하였으나, 태종은 629년 가을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동돌궐 정벌을 단행하였다.

마침 동돌궐에 예속되어 있던 설연타가 가한可汗을 칭하며 독립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발야고, 복골, 동라, 해, 습 등도 동돌궐로부터 이탈하여 사신을 보내 왔다. 당으로서는 동돌궐을 정벌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당군은 과족 지세로 진격하여 630년 1월 동돌궐의 보호를 받고 있던 수 양제의 소황후와 손자인 정도를 사로잡고, 3월에는 음산산맥을 넘어 힐리가한을 생포하였다. 이로써 수의 붕괴를 틈타 다시 흥기한 동돌궐이 궤멸되고, 막남濮南 지역은 당의 판도로 편입되었다.

태종은 수 문제와 유사한 이간책을 구사하여 동돌궐을 궤멸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태종은 대외정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돌궐 궤멸 직후, 서북방 군장들이 태종의 존호를 ‘천가한天可汗’으로 할 것을 요청하자, 태종이 황제와 더불어 천가한을 겸칭하면서 이들에게 ‘가한호’를 수여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태종이 중국 대륙과 더불어 유목세계를 아우르는 군주의 위상까지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만 동돌궐을 궤멸시킨 것만으로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동돌궐의 붕괴로 서북방의 여러 국가나 족속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설연타가 동돌궐의 빈자리를 대체하며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고, 서방에는 여전히 토욕혼과 서돌궐이 건재하여 당이 영향력을 쉽게 뻗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종은 서북방의 여러 족속에게 '화이일가(華夷一家)'를 강조하며 귀부하는 세력을 후하게 대하거나 내지(內地)에 안치하는 한편,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나 족속에 대해서는 공격을 감행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태종은 주변국에 대해 무차별적 정벌정책을 폈던 수 양제나 주변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병존정책을 전개했던 당 고조와 구별되는 대외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태종의 대외정책은 화이일가를 명분삼아 화친정책을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군사정벌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강온(強穩) 양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태종은 화친정책을 통해 632년에만 당항(黨項)의 강족(羌族) 30여만 구를 내속시키는 한편, 634년에는 토욕혼이 서역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양주와 난주 일대를 공격하자 정벌을 감행했다. 이때 태종은 당에 귀부한 철륵의 설궐족(契苾族) 및 당항 강족의 병력도 동원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토욕혼을 괴멸시키고 가한인 복윤을 자살하도록 만들었다(635년 5월).

당이 서역으로 나아가는 길목까지 석권함으로써 서북방 지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태종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던 설연타를 견제하기 위해 내지에 안치시켰던 동돌궐 세력을 다시 막남(漠南)으로 이주시키며, '각자의 토강(土疆)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기면 군대를 동원하여 문죄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그 뒤 태종은 특정 국가를 정벌할 때 제3국에 대한 침범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641년 설연타 정벌 시에 돌궐과 대막(大漠)을 경계로 삼기로 한 약속을 어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원정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이 동돌궐에 이어 토욕혼까지 괴멸시킨 다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서북방의 여러 나라에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고조 이래 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고창국(高昌國)이 위협을 느끼고 서돌궐과 연계하여 서역 제국의 견당사(遣唐使)를 차단하며 당에 맞섰다(639년 2월). 고창국은 비록 소국이지만, 서역의 제국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당의 입장에서는 고창국을 제압하여야만 서역의 제국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다. 이에 태종은 639년 12월 당군과

함께 돌궐 및 설궐족의 기병 수만을 동원하여 이듬해 5월 고창국을 멸망시켰다.

이로써 당은 서북방의 동돌궐과 토욕혼을 괴멸시키고, 서역 제국까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침 641년 막북에서 흥기하던 설연타가 철륵 제부와 말갈, 습 등을 이끌고 막남을 침공했는데, 당이 이를 대파했다. 또 630년 섭호가 한 사후, 서돌궐은 동북의 돌궐부(吐陸部)와 서남의 노실궐부(弩失畢部)로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639년 고창국이 돌궐부에 접근해서 군사동맹을 맺었음에도, 당군이 진격하자 돌궐부의 욱골설(欲骨設(乙毗咄陸可汗))은 당과의 대결을 피해 서쪽으로 달아났다.

640년대 초반, 서북방 일대에서 당에 대적할 만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소멸된 것이다. 만약 당이 동방의 고구려만 제압한다면 명실상부하게 당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은 점차 동방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해 나갔다.

### 당의 동방정책 변화에 따른 삼국의 정치적 변동

전술했듯이 당태종은 집권 직후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삼국에 '상대국을 침공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는 겉으로만 당의 권유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라를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삼국의 역관계에 개입하려 한 당태종의 대외정책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은 630년 동돌궐을 괴멸시킨 이후, 점차 동방의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돌궐이 괴멸되자, 고구려 서북방의 거란을 비롯하여 해, 습, 실위 등이 잇따라 당에 항복을 청했다. 수의 원정을 경험했던 고구려로서는 또 다시 위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동돌궐 정벌을 축하하는 사절을 당에 파견하는 한편, 봉역도(封域圖)를 보냈다. 고구려는 당에게 종전처럼 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역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당의 공격에 대비 서북방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631년 2월).

고구려가 외교적 유회책과 군사 방어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당은 뜻밖의 조치를 취하였다. 631년 8월, 고구려가 대수전(對隋戰)의 승리를 기념해 수군 시신을 모아 건립한 경관(京觀)을 파괴한 것이다. 당이 고구려에게 수의 정벌을 격퇴한 사실을 더 이상 상기하지 말고, 당에 대항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은 630년대에는 서북방 일대의 여러 세력을 제압하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는 힘들었다.

당의 압박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외교적 유화책과 군사 강경책을 놓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었고, 귀족세력은 대당정책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더 활발하게 당과 교섭했다. 백제는 629년 이래 645년까지 거의 매년 당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637년과 639년에는 철갑조부(鐵甲雕斧)와 금갑조부(金甲雕斧) 등의 무구를 보내기도 했다. 백제는 당에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해 대륙의 정세 변화를 살피는 한편, 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신라도 630년대 전반에 당에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주로 진평왕의 사망 및 선덕여왕의 즉위와 관련된 사절이었다. 백제와 비교한다면 당과의 교섭이 활발하지 않았던 셈인데, 특히 635년 선덕여왕의 책봉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몇 년간 당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630년대 후반에 신라가 건당사를 파견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이 더욱 거세어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정된다.

즉 백제는 632년 신라를 공격한 이래 633년 신라의 서곡성, 636년 신라의 독산성과 옥문곡 등을 잇따라 공격했다. 이로써 백제는 신라의 서변을 압박하며 점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이 무렵 고구려도 신라를 공격하여 원산만 일대를 수복했으며, 638년에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협공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일찍이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삼국의 역관계에 개입하려 했던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는 자신의 정책에 순응한 반면 고구려나 백제는 이를 위배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당이 고창국까지 멸망시키고, 동방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당의 정세 변화를 미리 탐지한 고구려는 고창국 멸망 직전인 640년 2월에 세자 환권(桓權)을 사신으로 보내 당의 의중을 탐색하며,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를 국자감에 입학시키겠다고 요청하였다. 고구려가 당의 동방정책 변화를 예견하고 당의 침공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태종은 확답을 피한 채, 641년 군사정보

를 총괄하던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고창국 멸망 소식을 전하며 그 의중을 살폈다. 또 진대덕은 고구려 관리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사시설과 자연지세를 염탐하였다.

당이 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치밀하게 정탐한 것이다. 이로써 주변 여건만 충분히 성숙된다면, 당이 고구려 원정에 착수할 것은 거의 명확해졌다. 진대덕의 보고를 청취한 당태종이 수 양제처럼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사군(四郡)이었다.'면서 원정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의 고구려 원정이 임박한 상황은 대당정책을 둘러싼 고구려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백제와 신라 나아가 왜의 정국에까지 파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고구려 조정은 왕권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귀족연립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백제도 무왕대에 왕권이 많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대성8족 등 귀족세력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이었다. 신라도 선덕여왕 즉위 이래 여왕을 옹호하는 측근과 반대 세력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삼국 모두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의 고구려 원정이 임박한 상황은 삼국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다가, 마침내 정국 변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국 변동은 백제에서 먼저 일어났다. 무왕을 이어 즉위한 의자왕이 641년 11월 친위 쿠데타를 통해 반대세력을 대거 숙청한 것이다. 이로써 백제는 국왕 중심의 강력한 권력구조를 확립했지만,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왕의 일방적인 독단으로 흐를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이듬해에는 고구려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 642년 9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과 반대파 귀족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연개소문은 사적인 권력기반을 강화하며 종신 집권체제를 확립했지만, 대당강경책을 명분삼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탄력적으로 구사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백제와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은 신라의 정국에 연쇄적 영향을 미쳤다. 즉 친정체제를 구축한 백제 의자왕이 642년 여름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서쪽 40여 성을 빼앗고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위기에 몰린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642년 겨울, 선덕여왕의 측근인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하여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막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고구려 옛 땅인 한강유역을 돌려주면 도와주겠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명분삼아 쿠데타를 일으킨 연개소문으로서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신라를 지원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신라는 당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은 ‘여왕이 나라를 다스려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 당 황족을 보내 왕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조롱했다. 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신라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당태종이 신라의 군사지원 요청을 한낱 조롱거리로만 삼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태종의 조롱은 신라의 정국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선덕여왕을 둘러싼 측근세력과 반대파 귀족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해관계가 더욱 일치하게 된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의 당항성을 협공하여 대당교통로를 봉쇄하려고 시도했다(643년 11월). 이에 신라가 당에 이 사실을 알리자, 당이 상리현장을 고구려와 백제에 파견해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고구려에 대해서는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이듬해에 정벌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백제는 사죄사를 파견하여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고구려는 ‘신라에게 빼앗긴 구토(舊土)를 회복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물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상리현장도 ‘요동은 본래 중국의 군현이었다.’면서 고구려 정벌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당의 동방정책 전환으로 인해 삼국의 정국이 급변했고, 삼국의 역관계는 신라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정국 변화는 바다 건너 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645년 6세기 중반 이래 장기간 권력을 장악했던 친백제계의 소가씨(蘇我氏) 정권이 붕괴되고, 고토쿠(孝德) 천황과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를 중심으로 한 신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정을 쇄신하며 친당·신라 노선을 추구했는데, 이를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이라 부른다. 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왜의 정국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 당의 고구려 원정과 백제 및 신라의 대응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당의 동방정책 전환에 따른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고구려 원정의 명분만 찾던 당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 눈치 챈 연개소문이 당태종에게 백금(白金)을 바치고 관리를 보내 숙위(宿衛)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태종은 모두 거절했다. 고구려 원정을 위한 주변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고 명분까지 확보했다고 판단한 태종으로서서는 고구려 침공을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태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644년 11월 ‘연개소문 평정’을 내세우며 원정을 강행했다.

이때 당은 신라, 백제, 해, 거란 등에게도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당이 고구려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변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당은 조서에서 삼국의 영역을 ‘삼한지역(三韓之域)과 오군지경(五郡之境)’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군(五郡)’은 고구려가 중국 군현이었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던 ‘사군(四郡)’에 요동군을 합친 표현이다. 즉 오군은 고구려, 삼한은 백제와 신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구려만 본래 중국의 군현지역으로서 정토 대상이고, 백제나 신라는 삼한의 후예로서 당의 경역밖에 존재하는 독립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백제와 신라는 안심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한편 당군은 645년 봄 요하에 도착했는데, 시종일관 한 길로만 요하를 건넌 수군과 달리 세 갈래로 나누어 건넜다. 또 요하를 건넌 이후에도 요동성을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평양성으로 직공한 수군과 달리, 당군은 요동평원 주변의 성곽을 하나씩 함락시키는 전략을 폈다. 진대덕의 정탐을 통해 고구려의 방어체계와 군사전략을 정확히 파악한 당군은 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요동평원에서 평양성으로 향하는 진공로상의 성곽을 차례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당군은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당군이 평양성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당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요하 하구에서 평양성으로 향하는 진격로의 길목에 위치한 안시성으로 향했다. 이때 연개소문이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구려와 말갈의 병사로 구성된 15만 대군을 급파했지만, 당군은 평원대회전을 유도하여 이를 격파하였다.



그림 2. 645년 고구려와 당의 전쟁

이로써 당군은 안시성만 함락시키면 금방이라도 평양성으로 진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안시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당군이 3개월이나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좀처럼 함락시킬 수 없었다. 그 사이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어왔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병사와 군마까지 모두 추위와 눈보라에 얼어 죽을 판이었다. 당태종으로서의 퇴각하는 길 이외에 별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었다.

당태종은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수 양제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신하들이 원정을 반대하며 말했던 ‘고구려는 너무 멀고 성을 잘 지키는 나라’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많은 고구려 성곽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괴멸시킨 동돌궐, 토욕혼, 고창국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당태종이 ‘천하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도 작은 오랑캐에게 곤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지?’라고 자문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으로서 동돌궐이나 토욕혼을 공격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동안 신라와 백제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신라가 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략하며 당에 협조한 반면, 백제는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신라의 서편을 공격하였다. 당은 백제가 고구려와 연계해 신라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며 고구려 공격을 부탁했지만, 백제는 당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는 신라와 백제의 상황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던 신라로서는 당에 적극 협조하며 협공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즉위 이래 신라를 거세게 공격하던 백제 의자왕으로서 신라의 출병이 세력을 확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에 의자왕은 이전에 백제가 수의 고구려 원정 시에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것처럼 당에 대해 협조하는 척하며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략했다. 백제가 당의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 조성된 국제 정세를 활용해 최대 세력 확장을 도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도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당은 백제나 신라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얻는 데 실패했다. 물론 당시 당

태종이 백제나 신라를 파트너로 삼아 구체적 전략을 수립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태종은 즉위 직후 수와 달리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삼국의 역관계에 개입하며 고구려를 견제하였지만, 동방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한 이후 수와 마찬가지로 삼국의 역관계를 활용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643년 신라의 군사지원 요청에 대해 선덕여왕의 존재를 회롱하며 한낱 조롱거리로 삼은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당은 예상보다 훨씬 막강한 고구려의 군사력에 막혀 원정에 실패한 다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이 고구려를 원정하는 동안 고구려는 막북의 설연타와 연계를 도모했는데, 이는 설연타의 당 공격으로 이어졌다(646년 6월). 그리고 고구려는 당의 침공을 격퇴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말갈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당에 예속된 거란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당태종은 소규모 부대를 자주 보내 요동지역을 초토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것마저도 번번이 고구려의 방어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당의 공세적 동방정책이 삼국의 정국을 변화시키며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지만,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에 막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당 태종으로서의 고구려를 제압할 특단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린 신라도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고구려와 백제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면 할수록, 당이나 신라가 수립해야 하는 전략도 점차 근접해 갔다. 그렇지만 고구려나 백제의 위정자 가운데 신라와 당의 연합 가능성 및 그것이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을 예견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여호규)

## 참고

### 문헌

- 김수태, 2004,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
- 김영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당의 단계적 전략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 김창석, 2002, 「당의 동북아 전략과 삼국의 대응」, 『군사』 47.
- 김호동, 1993,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 『역사학』 137호 193.
- 노중국, 1981,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 노중국, 1994, 「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 박한제, 1993, 「7세기 수당 양조의 한반도진출 경위에 대한 일고」, 『동양사학연구』 43.
- 여호규, 2002,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 여호규, 2006, 「책봉호 수수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문화』 24.
- 이기동, 2004, 「수당의 제국주의와 신라 외교의 묘체」, 『신라문화』 24.
-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임기환, 1995,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 임기환, 2003, 「남북조기 한중 책봉 - 조공 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 정재훈, 1995, 「당초의 민족정책과 서북민족의 중국인식」, 『서울대 동양사학과론집』 19.
- 정재훈, 2000, 「서위, 북주시기(534~581)의 대외정책」, 『중국학보』 42.
- 정재훈, 2001, 「수 문제(581~604) 통일지향과 대외정책」, 『중국사연구』 13.
- 정재훈, 2004, 「수 양제(604~617)의 대외정책과 천하 순행」, 『중국사연구』 30.
- 정효운, 1995,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연구』, 학연문화사.
- 주보돈, 1992, 「《문관사림》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외교문서」, 『경북사학』 15.
- 주보돈, 1993,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 제3장

#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1. 고구려 및 왜와의 외교
2. 나당동맹의 결성

## 1. 고구려 및 왜와의 외교

###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

#### 김춘추의 활동

642년(선덕여왕 11) 백제는 7월에서 8월 사이 군사거점인 대야성을 비롯한 낙동강 이서 지역의 40여성을 일시에 함락시켰다. 이 지역은 과거 가야권역으로 당시 신라 전체 영토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였다.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신라는 수도인 경주가 직접 위협에 노출되었다. 대야성 함락은 신라로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 김춘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고구려, 왜, 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대에도 보기 드문 외교활동을 진행하였다.

김춘추의 본격적 활동은 대야성 함락 이후 처음 기록에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대고구려 외교이다. 대고구려 외교 이전에는 그의 뚜렷한 정치적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대고구려 외교 이전까지 실제로 별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김춘추는 대야성 함락 이후 처음 정계에 등장한 셈이 된다.

그러나 김춘추는 대고구려 외교 이전에 이미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고구려 외교를 진행할 시에 김춘추의 연령과 관등 그리고 활동에서 쉽사리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춘추는 603년(진평왕 25)에 출생하였으므로 642년 대야성 함락 당시의 연령은 40세였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소유한 관등은 이찬(伊瀾)이었다. 이찬은 신라 골품에서 이별찬 다음의 2등에 해당하는 최상위 관등이다.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관리가 되면서 이찬이라는 고위 관등을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이전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당시 김춘추의 연령과 아버지가 신귀족세력의 대표격이었던 김용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춘추는 김용춘의 후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계에 입문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이해해야 한다.

『삼국유사』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춘추와 문희가 혼인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김유신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춘추의 아이를 가진 문희를 집마당에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였다. 이를 본 김춘추는 선덕여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빛이 몹시 변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당시 김춘추가 선덕여왕의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의 측근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정계에서 활동하였고 또 그의 능력에 대한 검증은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춘추와 문희 사이의 장남인 김법민은 626년(진평왕 48)에 출생하였다. 그러므로 김춘추와 문희의 혼인은 늦어도 625년에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이미 선덕여왕을 측근에서 수행하였으므로 김춘추의 정계 입문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25년은 김춘추가 23세가 되던 해이다. 따라서 김춘추는 20세를 전후한 진평왕 후기부터 정계에 입문하였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김춘추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본적으로 김춘추의 부친인 김용춘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춘은 622년(진평왕 44)에 내성사신(內省私臣)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김용춘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해 취하였고, 이찬 칠숙의 모반사건을 진압하였으며, 선덕여왕대에는 이찬 수품과 함께 주군(州郡)을 순무하기도 하였다. 김용춘은 활발한 정치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강화하여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춘추도 자연스럽게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김춘추는 왜 대고구려 외교 이전에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김춘추의 부친인 김용춘의 적극적 정치활동 때문에 젊었던 김춘추의 정치활동은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김용춘 일파의 활동은 모두 그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김춘추에 대한 기록은 특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대고구려 외교 이전 김춘추의 정치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추는 이미 625년 무렵 국왕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춘추는 이른 시기부터 적지 않은 정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결국 김춘추는 이러한 정치 역량을 인정받아 대고구려 외교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 대고구려 외교의 배경과 목적

백제의 대야성 함락 이후 김춘추는 왜 고구려로 향했던 것일까? 대야성 함락 4년 전인 638년(선덕여왕 7) 고구려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한 바 있다. 칠중성은 신라 북방의 가장 주요한 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백제나 고구려는 모두 별반 다를 게 없는 적국이라 할 수 있다.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자청에 의한 것이었다. 김춘추는 입국 자체가 큰 위협이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나섰던 것이다.

김춘추는 당이 아니라 적국인 고구려를 먼저 찾아갔다. 이는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백제를 견제하고, 나아가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력이든 상관없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은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구원의 신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백제와 대립하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가 한층 현실적인 대상이었다. 만약 고구려의 군대가 움직여만 준다면 백제를 고립시킬 수 있어 전략상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왜는 일찍부터 친백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 우선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당장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적국인 고구려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김춘추가 고구려행을 결심하던 당시 고구려의 국내 정세는 어떠한이었을까. 642년 10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영류왕이 시해되고 보장왕이 새롭게 즉위하였다.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스스로 막리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은 대내적으로 구족세력을 숙청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대당(對唐) 강경책을 실시하여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추가 고구려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또 대당 강경책을 실시하여 당과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김춘추가 단순히 고구려에 '청병(淸兵)만'을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구려가 움직여 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럴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당 강경책을 추진하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자칫 백제와 신라의 다툼에 휘말려 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신라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춘추의 고구려에 대한 외교활동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대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직전 신라는 백제의 침공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대야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백제에게 투항하였다가 사망했다. 그의 행동은 김춘추에게도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춘추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위험 부담이 큰 고구려에 대한 외교활동을 추진한 것은 대내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김춘추가 고구려로 향했던 것은 백제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야성의 상실에 따른 국가적 위기와 함께 신귀족세력이 국내 정치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당시 고구려 국내 정세의 변동이다.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새로운 정권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혹시 그 이전의 고구려와는 태도를 바꾸어 신라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백제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는 데 고구려의 직간접적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정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김춘추는 자신이 직접 고구려로 갈 것을 청하였다.

630년 당이 돌궐을 평정하자, 고구려는 631년(영류왕 14) 천리장성을 수축하였다. 천리장성은 당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다. 당은 635년 토욕혼을 멸망시키고, 640년에는 고창국마저 정복하여 서역을 평정하였다. 이제 당의 동북변경에는 유일하게 고구려만 남게 되었다. 당의 대외 팽창 전략은 필연적으로 고구려와의 충돌을 안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의 축조를 감독하면서 당과의 충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고구려 국내의 정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당과 고구려의 대외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백제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발생한 그 해 11월 김춘추는 고구려로 갔다. 그 해 8월에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 함락되었던 점에서 볼 때,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그와 무관할 수 없다. 즉 고구려의 정변이 친백제 정책의 고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정리하자면 신라는 정변이

발생한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여 백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대고구려 외교의 전개와 평가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기본적으로 '청병'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세로 볼 때 고구려는 당과 국내문제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춘추의 최선책은 고구려의 군대를 움직여 백제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도 고려해 두었을 것이다. 차선책으로는 신라와 고구려가 휴전하거나, 신라와 백제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중립을 유지해 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춘추는 청병이라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보다는 '청화講和'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춘추의 궁극적 목적은 백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 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중립을 지켜주기를 바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고구려는 오히려 죽령 이북의 영토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김춘추가 당시 신라의 신귀족세력의 대표적 존재였다고는 하지만, 영토 반환 문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죽령 이북의 영토를 신라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를 반환하라는 것은 김춘추의 제의에 대한 공개적 거절이었다. 김춘추는 고구려가 백제를 선뜻 공격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청병을 요구하였다. 이에 연개소문은 신라가 죽령 이북의 영토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요구하였다. 김춘추와 연개소문의 치열한 외교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김춘추는 물론 고구려의 영토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신라와 고구려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김춘추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선도해가 감옥에 갇힌 김춘추에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춘추는 선도해의 얘기를 듣고 고구려왕 앞에 나아갔다. 한강 유역은 본래 고구려의 땅이므로 자신이 귀국하면 고구려에 돌려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맹세한 후 풀려날 수 있었다. 선도해가 김춘추를 왜 도왔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가 연개소문

의 쿠데타 후였으므로 아마도 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춘추가 고구려로 향하는 도중 신라 경내의 대매현(위치 미상)에 이르자 두사지 사간이 청포靑布 300보를 김춘추에게 건넸다. 이 청포 300보가 고구려왕이 좋아하는 선도해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김춘추의 고구려행 이전에 이미 신라는 우발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가 무사히 풀려난 데에는 김유신의 무력시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결사대를 선발하여 한강을 건너 고구려의 남쪽 경계로 들어갔다. 당시 동원된 병력이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에는 3천 명이라 되어 있고,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1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적지 않은 정예 병력이 동원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식은 고구려의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왕에게 전하였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일단 김춘추가 옛 땅을 돌려주겠다고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신을 세운 상태였다. 또 첩보를 통해 김유신의 움직임에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춘추를 더 이상 잡아 두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리하여 김춘추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김춘추 귀국 후 신라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백제를 직접 공격하여 실지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김춘추와 한 배를 탄 김유신을 압량주도독으로 삼아 대백제전의 전면에 내세웠다. 압량주는 현재의 경산 지역이다. 당시 대야성의 함락 이후 신라의 전진기지는 압량까지 후퇴되어 있었다. 김유신이 이 지역의 사령관이 된 후 전선은 점차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백제와 치열한 공방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유신의 성공적 대백제전 수행은 김춘추를 비롯한 신귀족세력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김춘추는 고구려에 갔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지만, 그의 대고구려 외교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구려에 머무는 동안에 고구려 국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김춘추 자신은 협상이 실패한 이후 감금상태에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고구려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춘추의 수행원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활동은 이루어졌

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김춘추가 고구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선도해 같은 고구려의 귀족들과의 교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직간접적 루트를 통해 고구려의 국내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적지 않게 수집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관심은 백제와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남부 전선이 아니라, 당의 침입이 예상되는 요동 전선에 있었다. 즉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어느 한쪽 편을 들기 보다는 두 세력이 서로 다투어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비록 김춘추가 고구려를 신라의 편에 서게 하는 데에 실패하였지만, 적어도 고구려 국내 정세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적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에 대한 인식은 이후 진덕여왕대의 대당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김춘추의 대외외교

### 자장의 귀국과 삼국의 정세 변동

김춘추는 귀국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파악한 고구려를 비롯한 국외 정세의 동향을 바탕으로 대백제 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물론 귀국 이후 그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에서 자장慈藏이 귀국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자장의 귀국은 643년(선덕여왕 12) 신라 조정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점은 신라가 백제에게 대야성을 빼앗기고,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직후이다. 신라의 위기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장의 귀국은 당시 신라가 외교적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한 가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국제정세, 특히 당의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던 구법승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외교 자문의 역할로 자장이 귀국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당으로 건너갔던 많은 신라의 구법승들은 나중에 나당동맹의 성립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시기 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라의 승려들이 고구려와 백제의 구법승에 비해 절대적 다수였다. 그리고 당에서의 구법활동에 있어서

도 신라 승려들은 고구려나 백제의 승려들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는 당이 신라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케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출신 성분은 대부분 6두품 이상의 진골귀족이나 왕족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지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법승의 귀국 시에는 외교사신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고승들은 명성을 날리며 당 황실과 연이 닿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신라 구법승들이 나당 동맹의 성립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신라는 김춘추가 귀환한 후인 643년 정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方物)을 전한 바 있다. 자장은 643년 3월에 신라로 귀환하였다. 자장의 귀국은 신라 조정이 당에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자장의 귀국은 신라 조정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장은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귀환한 얼마 뒤 귀국 하였으므로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사서에는 자장의 귀국이 선덕여왕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춘추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춘추는 당과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 국내의 정세 동향을 자신이 직접 살펴 보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당의 동향에도 많은



그림 1. 경주 황룡사구층목탑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에 체류하던 자장을 귀국시켜 그의 자문을 받고, 고구려에 대한 당의 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흐름과 변화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의 결과가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은 설화 자체가 시사하듯이 불력(佛力)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한 의식에서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는 여왕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던 국론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식도 깔려 있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은 대외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 이후 삼국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643년(선덕여왕 12) 9월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 해 3월 귀국한 자장의 조언을 참고하고 6개월간 당과의 외교 방식과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태종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곤란한 3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당태종이 제시한 당 위주의 3가지 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이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쳐들어가면, 신라의 위기는 자연히 풀리고 적의 공격도 얼마 동안 늦출 수 있다. 둘째, 신라군에게 당의 군복과 군기를 주어 그것을 입히고 세워놓으면, 당군의 지원으로 여진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는 달아날 것이다. 셋째, 신라는 여왕으로 인해 이웃 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으므로, 당의 황족을 보내어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가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귀환시키면 된다.

첫 번째의 계책은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두 번째의 계책은 당의 힘을 과신한 것으로 실제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계책은 이미 여왕을 옹립한 세력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태종이 3가지 계책을 내세운 것은 한마디로 말해 신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당태종은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연개소문의 쿠데타도 있던 터라 전쟁 명분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이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면, 신라는 자연히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 정벌 후에 고려해도 괜찮다고 여겼던 것 같다. 당

의 주된 목표는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의 백제와 신라의 다툼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튼 당태종이 제시한 '여왕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신라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신귀족세력은 선택여왕을 지지하고 있었다. 신라의 여왕을 폐위시키고 당의 황족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태종의 인식은 여왕 반대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신귀족세력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왕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귀족세력이 선택하였던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645년(선택여왕 14) 당은 대규모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하지만 당군은 안시성을 극복하지 못해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 당태종은 신라에 당군을 도울 것을 재촉하였다. 결국 신라는 3만 혹은 5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파견하였다. 이는 신라의 주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셈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시 신귀족세력은 고구려 원정에 최소한의 방어 병력을 제외한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 공격한 틈을 이용하여,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 7성을 점령하였다. 원래 신라는 당의 고구려 원정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였다. 대규모 군사 원병을 통해 차후 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여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였고, 신라는 서쪽 변경의 성마저 빼앗기는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다. 그를 주도하였던 신귀족세력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앞서 당태종의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인해 구귀족세력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면, 이번 고구려 원정의 실패와 서쪽 변경의 수비 실패는 구귀족세력의 발언권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구귀족세력인 비담이 상대등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지속적 침략으로 인해 신귀족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신귀족세력의 중심인 김춘추의 고뇌도 깊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춘추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결국 김춘추는 고구려에 이어 왜를 선택하게 된다.

## 타카무쿠노쿠로마로의 신라 파견과 김춘추의 도왜

645년 왜에서는 을사<sup>乙巳</sup>의 정변이 일어났다. 그동안 권력을 독점해 왔던 소가씨(蘇我氏)의 권력 남용에 대한 지배계층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그런데 이 정변은 당의 645년 제1차 고구려 원정 직후에 발생하였다. 크게 보면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당의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 왜에는 변동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집권체제의 수립이 요망되었다. 이에 대화개신<sup>大化改新</sup>이라는 정치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신정권이 성립한 이듬해인 646년 9월 타카무쿠노쿠로마로(高向黑麻呂)가 신라에 왔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소덕<sup>小德</sup> 고향흑마려를 신라에 보내 질<sup>質</sup>을 공납케 하고 드디어 임나<sup>任那</sup>의 조<sup>調</sup>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임나의 조에 대한 일본학계의 통설은 신라의 임나 지배를 인정하고 임나가 바쳐왔던 임나의 조를 신라가 대납해 왔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 임나의 조를 폐지하고 인질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임나 지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즉 임나 멸망 이후에도 임나문제를 둘러싸고 신라와 일본의 정치적 예측관계가 계속되었다는 논리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어떻든 이에 의거해 김춘추의 647년 도왜를 인질로서 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체제기간이 1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질로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김춘추의 도왜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647년 김춘추의 도왜는 『일본서기』 이외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춘추는 648년 다시 당으로 건너가 대당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김춘추가 왜에 머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춘추의 도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질이 아니라는 근거는 그의 도왜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김춘추의 도왜를 인질로 보지 않고 당시 국내외적 필요에서 나온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보면 위와 같은 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649년 일본으로 파견된 김다수도 『일본서기』에 김춘추와 마찬가지로 인질로 기록되어 있다. 김다수는 644년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로 김춘추와 유사한 외교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다수의 관등이 제8등인 사찬이라는 점에서 인질로서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사서에 유사한 행적을 보이는 김춘추와 김다수는 인질이 아니라 외교 사절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다. 오히려 김춘추의 도왜 사실을 『일본서기』가 특기했다는 자체가 그의 왜국행의 실제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김춘추의 도왜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 김춘추의 도왜가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삼국사기』 편자의 의도적 누락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삼국사기』의 편찬 당시 김춘추의 도왜 사료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라왕으로 즉위하는 김춘추가 왜국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왜인관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인질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김춘추 관련 내용은 무시되었음이 틀림없다.

반대로 『일본서기』에서 김춘추를 인질로 묘사한 것은 김춘추가 신라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일본과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춘추는 후에 무열왕으로 즉위하여 신라 중대를 열었다. 그리고 재위시 백제의 왕통을 끊은 인물이기도 하다. 왜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했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이에 일본은 김춘추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상신<sup>上臣</sup>의 신분으로 일본에 왔던 김춘추가 신라의 최고통치자에 오르고, 그의 직계후손들이 신라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였다. 8세기 일본의 지배층은 신라를 번국으로 위치시키는 율령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라가 조공국임을 증명하는 『일본서기』를 편찬하였다. 바로 일본의 이러한 대외이념을 충족시키는 인물로서 김춘추는 더할 나위없는 소재였다. 김춘추의 인질론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를 인질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일본 천황이 신라왕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나의 조'의 효용가치는 없어졌고, 자연히 폐지론으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왜에 개신정권이 수립되고 난 후, 최초의 사절이 신라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신라에 파견된 타카무쿠노쿠로마로는 개신정권의 수뇌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타카무쿠노쿠로마로를 신라로 파견한 것은 새로운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알리고, 당과의 통교 재개의 중개 등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7세기 이후 왜는 친백제를 기조로 하면서 당·고구려·신라와도 교류하는 등 다국외교를 전개

하였다. 왜의 친백제 노선으로 볼 때 새로운 정부의 첫 해외 사절의 방문지로 신라를 선택한 것은 파격적이다. 왜가 백제에 앞서 신라에 사절을 보낸 이유는 친백제 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실리외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왜는 당·신라 노선과 백제·고구려 노선과의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왜는 610년대 이래 동아시아의 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문물을 수입하려는 기본적인 대외 노선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 김춘추의 대외 외교의 배경과 목적

645년(선덕여왕 14)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이 났다. 이 전투에서 신라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아무런 전과가 기록되지 않은 점에서 신라의 군사활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의 패전과 신라의 작전 실패는 신라 국내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즉 파병에 반대하던 세력의 입지가 강화된 반면 파병 주도 세력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신라가 원병을 파견한 틈을 타 백제가 신라의 서쪽 7성을 탈취함으로써, 파병 반대파의 입장은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김춘추의 도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고향흑마려 타카무쿠노쿠로마로(高向黑麻呂)의 신라 파견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신귀족 세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고향흑마려가 신라에 당도하였다. 이는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김춘추에게는 그것을 벗어나는 또 하나의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김춘추는 주저없이 대외 외교로 나아갔다.

도왜한 김춘추에 대해 『일본서기』는 “춘추의 용모와 자태가 수려하고 화술에 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신라관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 호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춘추가 왜의 지배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증거이다. 김춘추의 왜 체재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다. 개신정권의 최초 사절이 신라에 갔고, 이에 대한 답례의 형식을 취하면서 김춘추가 도왜하였다. 따라서 왜는 신라에 대한 정보와 김춘추의 신라에서의 위상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김춘추를 국빈으로 접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왜는 백제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춘추가 도왜 하기 직전 왜에서는 대화개신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친백제 정책을 추진하였던 소가 씨가 숙청을 당하고, 중대형(中大兄) 황자(皇子)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중대형과 고향흑마려를 비롯한 대화개신의 주도세력이 친백제 정책을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신라와의 새로운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즈음 김춘추가 도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김춘추의 도왜 목적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즉 김춘추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백제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주변국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때마침 왜에서 대화개신이 시작되었고, 정변 이후의 왜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김춘추는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왜로 가서 정변으로 변화된 정세를 살펴보고자 하였을 것이다.

김춘추는 내심 왜가 백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신라와의 관계만을 유지하길 바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춘추 자신도 그러한 일이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 김춘추는 대고구려 외교의 경험을 통해서 왜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비록 왜가 대화개신 이후에 새롭게 신라와의 관계를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친백제 성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왜의 성향으로 볼 때 왜가 신라에 동조하여 백제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신라의 백제 고립 정책에도 동조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따라서 김춘추의 도왜 목적은 왜에 '청병'을 하기보다는 왜 국내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것이다. 즉 김춘추가 도왜한 가장 큰 목적은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변으로 변화된 왜의 정세를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김춘추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춘추의 대왜 외교의 또 하나의 목적은 여왕 통치의 문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당태종에 의한 '여왕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안으로 신귀족세력과 구귀족세력이 대립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에서는 신라의 선덕여왕 이전에 이미 여왕이 즉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신라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

었다. 그리고 왜의 여왕 즉위는 신라에서도 선덕여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의 논리로 작용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김춘추는 여왕이 존재했던 왜의 정치 상황을 직접 살핌으로써, 신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춘추는 앞으로 신라에서 선덕여왕에 이어 다시 여왕이 등장하게 될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그 이후 더 이상의 성골 출신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계승을 꿈꾸었을 김춘추가 자국 문제와 관련하여 왜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바로 왜에서 소가 씨 세력이 타도된 이후 여왕인 황극(皇極)이 효덕(孝德)에게 양위를 하였던 사실일 것이다. 김춘추는 성골 출신 남자가 없어 여왕을 즉위시켰던 세력의 중심인물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김춘추 자신이 즉위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나당동맹의 결성

### 김춘추의 대당외교

#### 김춘추의 정권 장악과 위상

647년(선덕여왕 16)에 발생한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 의해 진압되었다. 김유신은 김춘추의 정치적 동반자이다.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김춘추의 적대세력이 제거되자, 이제 김춘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신귀족세력은 지배체제를 그들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해 나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신회의(大臣會議)의 구성원은 신귀족세력들로 교체가 이루어졌다. 원래 대신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김유신도 이 시기에 새롭게 대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추는 비담의 난을 진압한 후 사실상 신라의 실권자가 되었다. 그는 648년 그의 아들 문왕(文王)을 데리고 당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신당서』 신라전에 따르면, 당에서는 문왕을 진덕왕의 아들(子)로 하여 좌무위장군에 제수하였다고 한다. 김춘추는 진덕왕의 동생(弟)으로 하여 특진(特進)에 제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덕여왕과 김춘추는

재종(再從)간이므로 동생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김춘추의 아들인 문왕을 진덕여왕의 아들이라 한 것은 이상하다. 문왕은 김춘추의 제3자(子)임에도 진덕여왕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는 김춘추가 문왕을 당에 숙위시키기 위한 외교적 목적에서의 도적으로 진덕여왕의 아들이라 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혹시 문왕이 실제로 진덕여왕의 사자(嗣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춘추가 당나라로 갈 때 그의 직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김춘추를 국상(國相)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이다. 아마 그는 대당 교섭 과정에서 스스로 국상이라고 하였던 듯하다. 국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다. 일단 대신회의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더 이상 국상에 대한 사례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무엇이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신을 초월하는 섭정과 유사한 직책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도당 당시의 김춘추를 ‘재동궁시(在東宮時)’라고 하여, 마치 태자로 책봉되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물론 김춘추가 실제로 태자에 책봉되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김춘추가 비상(非常)한 직책을 가진 실권자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당시 김춘추는 대신회의를 초월하는 국상 혹은 태자의 직위에 있으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덕여왕 즉위 후 김춘추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대신들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문왕을 진덕여왕의 사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춘추 자신은 대신회의를 초월하는 국상 또는 태자와 같은 비상(非常)의 직책을 가지고 진덕여왕을 대신해 섭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덕여왕대는 사실 김춘추의 즉위를 위한 준비기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김춘추가 직접 즉위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 그의 즉위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후일 진덕여왕이 사망한 뒤 그가 집권자였음에도 상대등이었던 알천의 양위(讓位)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김춘추의 도당과 당의 대우

김춘추 중심의 신귀족세력은 비담의 난을 진압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한 이후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왜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활동

을 전개하였던 김춘추는 본격적으로 대당 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라가 대당 외교에 중심축을 둔 것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당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648년(진덕여왕 2) 김춘추는 청병을 목적으로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김춘추가 진덕여왕대에 대당 외교를 추진한 것은 비담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데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의 정책 변화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는 신귀족세력은 정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귀족연합적 정치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였다. 만약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집권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비담의 난과 같은 정치적 반발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춘추는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도착하였다. 당태종은 이전의 신라 사신들에게 대하던 태도와는 달리 후한 대접을 하였다. 당태종은 643년(선덕여왕 12)에 파견되었던 신라 사신에게 ‘여왕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실현이 불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김춘추와 비슷한 시기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한질허(韓陟許)에게는 독자적 연호(年號)의 사용을 책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춘추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당태종의 변화는 김춘추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해 지닌 정보 및 그의 인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60여 일 동안 머물면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또 왜로 건너가서 그곳의 상황도 파악한 바 있다. 따라서 당태종으로서도 김춘추의 이와 같은 국제적 외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하였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내부에 관한 정보는 당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음에 틀림없다.

645년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이후 당은 소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입하면서 지속적 소모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김춘추야말로 당태종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당태종은 김춘추와의 만남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동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당태종의 태도 변화에는 김춘추가 신라에서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 비중도 작용하였다. 당태종은 김춘추와 비슷한 시기에 먼저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한질

허와 김다수로부터 신라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에 김춘추가 차지한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던 당태종으로서 김춘추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김춘추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 때문에 당태종은 이전의 신라 사신들과는 다르게 김춘추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였던 것이다.

## 김춘추와 당태종의 동맹 체결

### 신라의 대당 외교와 김다수의 파견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신라는 3만 명을 동원하여 지원하였다. 백제는 그 틈을 타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과 백제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던 것 같다. 당이 동맹국으로서 신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백제의 이러한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신라의 외교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신라는 백제와는 반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당에 본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라는 643년 청병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당에 조공과 청병을 하였다. 즉 신라는 김춘추가 도당하여 나당간에 동맹이 성립되는 648년까지 매년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관연간신라왕조(貞觀年間新羅王詔)」에 등장하는 김다수라는 인물의 존재로도 증명된다. 김다수는 조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서가 작성되기 바로 전 해인 644년 당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다수의 구체적 파견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군을 보내기로 결정한 시점 혹은 실행 직후에 새서(新書)를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644년 정월의 조공사가 아니라, 이후 별도로 파견된 사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월의 하정사(賀正使)가 이미 파견된 상태에서 다시 사신을 파견한 것은 그 목적이 의례적이지 않음을 추측케 한다. 같은 해에 당태종이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을 고구려로 보내 신라 침공을 중지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를 연개소문이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다수의 사행은 당에 고구려 정벌을 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다수의 존재는 한국 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정관연간신라왕조」와 『일본서기』에서만 확인된다. 그런데 단 두 차례의 기록에서 모두 시기나 행로면에서 김춘추의 활동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김다수는 644년 도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김춘추는 648년 당으로 건너갔다. 647년 김춘추가 왜로 건너간 후 649년 다시 김다수가 왜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서기』에 기록된 김춘추와 김다수의 도왜 시기 차이는 도당 시기 차이에 비해 짧다. 그리고 서로의 활동이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647년 김춘추가 도왜하여 인질이 되었고, 이후 649년 김다수가 도왜하여 다시 인질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외교활동이 매우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김춘추와 김다수의 당과 왜에서의 활동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자의 활동이 모두 신라가 백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몰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648년 김춘추의 도당 목적은 청병이었다. 따라서 644년 김다수의 도당도 청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는 당태종이 실현 불가능한 세 가지 계획을 내놓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이 시기 신라는 당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에 맞추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은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매년 사신을 파견하고, 당의 고구려 원정에 병력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당의 충실한 반국임을 적극 표방하였던 것이다. 특히 645년 당의 고구려 원정에 신라가 대군을 동원한 것은 당에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고구려 원정에 3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내외부의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의 환심을 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신라의 노력에 의해 당의 태도는 점차 변화하게 된다.

신라의 청병 성공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645년 당의 고구려 원정에서 백제는 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을 지원하는 신라의 변경을 공격함으로써 당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당은 고구려 정벌이 제일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당의 고구려 원정에 적극 동조한 신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

었다. 김춘추의 대당 외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643년 당태종은 선덕여왕이 여왕임을 문제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김춘추가 당에 청병한 이후에는 선덕여왕의 존재에 대해 별달리 문제시하지 않았고, 선덕여왕에 대한 추봉도 즉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신라의 대당 외교 노력의 성과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 나당의 합의점 도출과 동맹의 체결

김춘추가 도당할 당시 신라와 당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호전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신라와 당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신라는 백제의 공격과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당은 고구려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즉 신라와 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만 하였다. 관심 대상은 서로 달랐지만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을 것이다.

나당간의 합의점 도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671년 7월 당의 행군총관이었던 설인귀가 임윤법사를 시켜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이에 문무왕은 그에 대한 답서를 보냈는데, 그 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김춘추가 648년 당에 가서 태종을 만났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지금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어 매년 침략을 당해 편안할 때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산천과 토지는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고 옥백과 자녀들은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은 신라에게 주어 영원히 평안하게 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문무왕의 답서에는 당이 고구려를 정벌한 것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에 침략당하는 것을 가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태종이 648년 김춘추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속을 한 것은 645년 고구려 원정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645년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면 한반도로 바로 남하하여 백제와 신라를 다시 공격하려 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튼 위의 기록을 통해 김춘추가 당과 맺은 동맹의 조건을 알 수 있다. 즉 나당이 연합하여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당이 지원

하고, 당이 고구려를 원정할 때 신라가 후원하는 식이었다. 나아가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에는 대동강을 기준으로 이북은 당이 차지하고 이남은 신라가 영유하는 데에 당태종과 김춘추가 합의를 보았다. 각각 백제와 고구려라는 상대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마침내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김춘추가 당에 사신으로 갔던 목적은 청병이었다.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그의 청병 외교가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나당동맹이 체결됨으로써 신라는 고구려의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애초에 고구려가 신라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작았지만, 신라가 당과 연합함으로써 고구려는 더더욱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당시 백제의 입장에서는 당이 대규모 수군을 동원해 백제를 공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제도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였다. 나당동맹 이전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연계해 신라를 공격하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그러나 나당동맹 이후에는 고구려가 당을 의식해 신라를 공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백제의 신라 공격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신라는 고구려를 의식하지 않고, 백제에 대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편 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세력은 아닐지라도 고구려의 후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군을 얻게 된 셈이다. 물론 고구려를 공격하는 주력은 당이 되겠지만, 필요시에는 당의 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확실한 예비군을 확보한 것이다. 이전까지 고구려는 요동을 중심으로 수비군을 배치하였지만, 이제는 후방에도 일정한 병력을 배치하여 신라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당의 원정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 현지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급선을 확보하게 된 점도 큰 성과이다. 이렇듯 신라와 당이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나당동맹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 나당동맹의 체결과 김춘추의 위상

나당동맹의 체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나당동맹의 체결을 계기로 신라와 당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김춘추의 정치적 위상

은 높아져서 그가 즉위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당동맹은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신라와 당이 충돌하는 나당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나당동맹의 체결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김춘추의 외교활동에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춘추는 당에서 귀국하자마자 주도적으로 관복을 당복(唐服)으로 바꾸었다. 신라의 독자적 연호도 포기하고 당의 영휘(永徽)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집사부와 국학을 설치하는 등 당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당과 신라의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여겨진다. 신라와 당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당고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결국 당은 삼국 가운데 신라를 가장 신뢰하게 되었으며, 660년에는 대규모 수군을 동원하여 백제 원정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김춘추는 당에서 귀국하기 전에 당태종에게 자신의 아들 문왕의 숙위를 요청하였다. 650년(진덕여왕 4) 신라는 김춘추의 첫째 아들인 법민을 당에 파견하여 진덕여왕이 지은 「태평송(太平頌)」을 바쳤다. 그 이듬해에도 역시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인문을 파견하여 숙위로 머물게 하였다. 숙위는 중국 천자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것이지만, 일종의 정치적 인질의 성격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신라의 대당 외교 대행자로서 현지 정보 수집, 친신라파 형성 등을 위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당의 내부 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또 당에서 구법활동을 하는 승려나 국학(國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당을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진덕여왕대에 김춘추의 아들인 법민과 인문이 대당 외교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김춘추의 영향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들은 김춘추가 직접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김춘추가 숙위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낸 것은 대당 외교를 독점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법민과 인문이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기록을 통해 김춘추가 진덕여왕대 대당 외교를 독점하며 정국운영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춘추는 대당 외교를 통해서 나당동맹의 체결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이루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당에 숙위로 머물게 하여 대당 외교를 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대당 외교는 대고구려 외교 및 대왜 외교와 비교해 볼 경우, 아주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당 외교의 성공으로 김춘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활동들이 이후 김춘추가 즉위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김춘추의 외교를 보면,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이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결과적으로 만주지역의 고구려 영토를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나 백제 그리고 당 모두 외세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시각각 신라의 목을 죄여오는 백제의 공세를 막기 위해 당시 적국이던 고구려로 목숨을 걸고 들어갔으며, 이후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밀했던 왜에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든 인물이 바로 김춘추이다.

결국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흡수해 나가면서 당과의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지켜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의 운명을 건 김춘추의 외교활동은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고구려 승려 도현(道顯)이 쓴 『일본세기(日本世紀)』에 따르면, “춘추가 대장군 소정방의 힘을 빌어 백제를 협격하여 멸망시켰다.”고 한다. 백제의 멸망 원인이 김춘추의 대당 외교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당고종의 대외 전략

### 당의 서북변경 전략

김춘추의 대당 활동이 활발하던 무렵, 그 대상국인 당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630년(정관 4) 당태종이 돌궐을 정벌하였다. 이로 인해 당의 국제적 위상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후 당은 분열된 서돌궐에 대해 책봉을 통해 친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던 토욕혼에는 635년 군사를 동원하여 친당적 책봉을 실현시켰다. 640년(정관 14) 고창을 정벌하여 서주(西州)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646년

(정관 20)에는 설연타를 정복하여 철록을 6부 7주로 편제하였다. 당태종을 이은 고종대(650~683)에 이르면, 당의 판도는 최대로 확대된다. 당은 서북의 서돌궐부터 동북의 고구려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최전성기를 구가한다.

당고종 즉위 초인 651년(영휘 2)에 서돌궐의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사나하로의 모의가 당에 보고되자, 당은 통사사인通事舍人 교보명을 보내 위무케 하였다. 교보명의 위무는 반란 도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아사나하로의 아들 질운咄運을 당에 숙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질운이 좌효위중랑장이 된 후 서돌궐로 귀환하자, 서돌궐의 하로는 반란을 일으켰다. 당은 서돌궐의 별부別部인 처월·처밀이 하로에게 호응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당은 651년 12월 단도혜를 처월의 주사고주에게 파견하여 위무하였다. 그런데 주사고주는 단도혜를 죽이고 하로와 연합하였다. 655년에는 서돌궐의 힐필달도설이 하로를 토벌하기 위해 당에 청병을 하였다. 당은 풍주도독 원례신을 파견하여 힐필달도설을 가한으로 책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로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결국 당의 서돌궐 정벌은 657년(현경 2) 12월에 소정방이 하로를 생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하로의 반란을 평정한 후 그 땅을 주현으로 나누고, 다시 6개의 도독부와 2도호부를 두었으며, 안서도호부가 총괄하게 하였다. 당은 조서를 내려 아사나미사와 아사나보진을 도호都護로 삼았다. 아사나미사와 아사나보진은 아사나하로 정벌을 위해 파견되었던 서돌궐 가한의 후예였다.

미사와 보진의 책봉을 위해 광록경 노승경이 파견되었다. 노승경은 조서에 따라 미사와 보진을 책봉하고, 이와 함께 편제된 도독부의 자사 및 이하의 관료를 선별하였다. 그런데 노승경의 임무는 서돌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당서』 서역전에는 서역의 많은 국가가 658년을 전후로 도독과 자사에 임명되었고 전하고 있다. 즉 노승경의 관료 선별 임무는 서돌궐을 비롯하여 서역 각국에 당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이 서돌궐을 정벌·편제하여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서돌궐과 인접한 서역의 여러 나라에도 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서역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자,

661년(용삭 1)에는 파사왕이 당에 청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은 왕명원을 파견하여 파사도독부를 두고 비로사를 도독으로 책봉하였다.

서돌궐 아사나하로의 반란은 당고종 즉위 초부터 8년간 지속되었다. 당은 아사나하로의 반란을 진압한 후, 그 곳을 부주府州로 편제하고 서돌궐 가한 아사나씨의 후손을 도독에 임명하여 지배·관리하였다. 더불어 서역의 많은 나라도 도독부로 편제하여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당고종 통치 초기의 서돌궐과 서역에 대한 정책은 당태종대에 실행된 공격적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나아가 그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당의 동북변경 전략

당은 변경 안정을 위해서는 기미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은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를 기미부주 체제를 통해 운영하였다. 중국과 구별되는 별개의 역사공동체 권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하고, 그 군장을 기미부의 도독이나 기미주의 자사 혹은 도호부의 도호로 책봉하였다. 이는 나름의 '자치'를 허용하여 유지케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는 당대에 만들어져 유일하게 당대에만 작동된 것이었다. 당의 동북변경 지역에 기미주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당 고조 무덕연간부터였다. 이후 당태종 정관연간부터 대규모로 설치되었다. 이는 당이 돌궐을 공격하여 붕괴시키고, 고구려와 전쟁을 통해 요동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당의 동북지역에는 당, 돌궐, 고구려 3국이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는 3국 이외에 거란, 계, 말갈 등의 부족들이 존재하였다. 당시 이들은 국가를 건립하지 못하여 3국의 관계에 따라 복속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었다. 거란과 계를 비롯한 주변의 부족사회는 3국이 대립하고 있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하북의 영주 및 유주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다.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서쪽으로는 돌궐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이 때문에 3국에게 거란과 계의 동향은 동북지역 지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당, 돌궐, 고구려 3국이 팽팽하게 맞서있던 동북지역에서의 긴장관계는 당태종 정관연간 이후 변화가 나타난다. 동돌궐이 내부에서 발생한 분열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궐의 지배하에 있던 세력들이 이탈하여 당에 내속(內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당은 내속한 부족들을 대상으로 부주를 설치하고, 투항한 부족의 수령을 도독 또는 자사로 삼아 행정을 위임하였다. 이들은 당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고, 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이전 부족 수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부(內附)하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형식적으로 당의 행정 체제에 편입되어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에 내속한 세력은 일정한 자치를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변경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정주(正州)의 도독·자사나 도호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정주와 기미주는 동일한 행정단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하관계로 설정되어 있었다. 또 내속한 부족민들은 당의 대외 원정시에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즉 정주가 기미주를 관리·감독하는 특수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변경 지역의 기미주 설치에 있어 주목할 시기는 648년(정관 22)이다. 이 해에 거란의 대하씨부락연맹(大賀氏部落聯盟)과 계의 가도자부락(可都者部落)이 당에 내속하였다. 거란의 대하씨부락연맹은 8부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도자부락은 5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거란과 계의 가장 큰 부락이었다. 당은 대하씨부락연맹에 대해 송막도독부를 설치하고, 8개 부락을 9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또 가도자부락에는 요락도독부를 설치하고, 5개의 별부를 5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당은 거란, 계, 말갈 등의 세력을 부락 단위로 기미주를 설치해 관리·감독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던 것이다.

동북변경 지역에서 거란, 계, 말갈의 기미주는 대부분 영주와 유주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던 변경 관리체제는 668년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확대되었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당은 동북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동시에 고구려 영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기존의 기미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로써 동북변경 지역에는 안동도호부와 영주·유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란·계 등의 기미주가 이층으로 설치되었다. 다만, 안동도호부는 점령지에서 안정적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하여 자주 치소를 옮겨 다녔다. 이 때문에 안동도호부가 동북변경 지역에서 당의 기미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스럽다.

## 당고종의 한반도 전략

당태종은 645년 2월 낙양을 출발하여 고구려 원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645년 4월 요하를 건넌 당군은 안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추위와 보급문제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태종은 대규모 공세보다는 소규모 국지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고구려를 지치게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647년과 648년에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당태종은 649년 5월 또다시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다가 사망하였다. 이후 당의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몇 년간 중단되고 만다.

그런데 655년 정월 고구려·백제·말갈이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하여 신라 북쪽의 33성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청하게 되었다. 이로써 당은 648년 이후 중단되었던 고구려 침공을 재개하였다. 당태종의 뒤를 이은 당고종은 이미 651년에 고구려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면 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국서를 백제에 보낸 바 있다. 따라서 655년 백제와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양국의 동맹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셈이며, 나아가 당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당은 신라의 보고를 통해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백제와 말갈도 당의 전쟁 대상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당은 655년 2월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케 하였다. 그 해 5월 정명진 등은 요수를 건너 고구려의 성을 공격한 후 되돌아갔다.

당은 그 뒤 658년과 659년에도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659년 4월 백제가 신라의 국경지대를 침범해 오자, 이제 무열왕이 된 김춘추는 당에 사신을 보냈다. 백제에 대해 당과 신라가 양면에서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은 대고구려 전략상 그 배후에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침내 대대적인 백제 원정군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가 대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방어 부담이 적은 남부 전선보다는 당을 방비하기 위한 요동 전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다면, 신라는 전력을 고스란히 북방의 고구려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구려 남쪽에 강력한 제2전선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고구려의 방어 전선은 요동과 남부 전선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기본

적으로 신라의 전력은 당에 비해 열세였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신라와 접하게 되는 남부 전선은 요동 전선에 비해 수도인 평양까지의 중심이 짧은 단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백제가 멸망한다면 고구려는 요동 전선과 남부 전선 모두에 방어군을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할 경우 방어 공백이 생기게 마련이고, 양쪽을 모두 방어할 경우 전력이 분산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당고종은 660년 소정방을 보내 신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660년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어 백제를 공격한 것은 648년 김춘추와 당태종이 맺은 밀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은 태종이 사망한 후 10여년 동안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고구려 공격에 대한 전략이 변경되었다. 당은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를 먼저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쟁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이 때 신라의 백제 원정 요청이 있었다. 즉 660년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은 이 시기에 나당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648년 김춘추와 당태종의 약속대로라면 백제의 영토는 모두 신라에 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당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다. 663년에는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자 하였으며, 신라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이러한 당의 조치에 표면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고구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668년 나당연합군이 드디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또 다시 당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신라는 나당동맹을 통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이제는 당이라는 거대 제국과 직간접적으로 경계를 맞게 되었다. 나아가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의 압박 때문에 신라 자체의 생존도 불투명한 상태로 몰리게 되었다. 결국 영토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신라와 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본격적으로 백제의 옛 땅을 장악해 나가는 한편 고구려의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나당관계는 극도로 악화된다. 결국 나당동맹은 와해되고 나당전쟁이라는 무력 충돌로 확대되고 만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고종의 한반도 전략 역시 서돌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벌

과 지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고종의 한반도 전략은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의 설치로 실현되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신라가 강력히 반발하며 독립된 국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당의 공격적 대외 확장 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후 토번의 성장과 강성으로 인해 당의 대외 정책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상훈)

---

## 참고

## 문헌

- 김덕원, 2007,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 김영하, 2002, 『김춘추, 외교로 준비된 왕』, 『내일을 여는 역사』 9.
- 박순교, 2006,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 연민수, 2011, 『신라의 대외외교와 김춘추』, 『신라문화』 37.
- 염경이, 2011, 『당고종대 대외 정책의 성격과 의미』, 『중국사연구』 75.
- 이영철, 2011, 『당대 변경지역의 변진과 대외관계』, 『중국사연구』 74.
- 이종욱, 2009, 『춘추 신라의 피, 한국 · 한국인을 만든다』, 효형출판.
- 주보돈, 1993,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 주보돈, 2011, 『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 『영남학』 20.
- 최현화, 2004, 『7세기 중엽 나당관계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73.

## 제 2 편

#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당전쟁의 승리

제1장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복

---

제2장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정복

---

제3장  
신라의 대당전쟁과  
승리

## 제1장

#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복

1. 나당연합군의 출병
2. 나당연합군의 협공과 백제의 멸망
3. 백제부흥군과의 전쟁과 진압
4. 당과 신라의 백제 지역 지배와 갈등

## 1. 나당연합군의 출병

### 신라의 백제 정벌 목적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은 동아시아사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백제의 멸망은 결국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당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독차지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한반도 내에서 가장 약한 국가였던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후 한 국사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신라와 당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까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백제를 우선 통합하기 위해 당과 손을 잡았고, 당은 계속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자 고구려의 배후에 있던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후 나중에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당이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먼저 친 것은 당의 장수 유인제가 고종에게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백제를 먼저 병탄해야 한다.’는 상서를 올린 데에서도 드러난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먼저 백제를 친 것이었다. 신라와 당이 백제를 정벌하고자 한 목적과 입장은 달랐다. 당은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당의 고구려 공격에 협조하지 않고 있던 백제를 선제공격함으로써 고구려를 고립시킨 후 이를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신라는 계속되는 백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신라와 백제의 군사적 대결은 두 나라 사이에 얽힌 오래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553년 신라 진흥왕이 백제의 옛 터전이었던 한강유역을 탈취하면서 나제동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백제 성왕은 동맹을 깨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를 응징하고자 대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백제 성왕은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에서 오히려 신라군에게 사로잡혀 참수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와 신라는 원수가 되어 100여 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신라

와 백제의 공방전은 선덕여왕 말년에 접어들면서 신라가 백제의 파상적 공격에 몰리게 되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의 대대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서쪽 변방의 40여 성을 빼앗겼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은 대야성(합천)에서 백제군에게 사로잡혀 희생당하였다.

선덕여왕 당시 신라 정계의 유력자였던 김춘추는 대야성이 백제군에게 함락당하고, 사위인 대야성주 김품석과 딸 고타소랑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기대서서 종일토록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김춘추는 딸과 사위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슬프다! 대장부가 어찌 능히 백제를 멸망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한탄한 뒤, 선덕여왕에게 고구려에 원병을 청해 원수를 갚겠다고 언명한 뒤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 백제에 대한 김춘추의 원한은 그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여전하였다. 태자인 김법민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백제 도성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태자 부여웅을 사로잡은 뒤 말 앞에 꿇어앉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지난번에 너의 애비가 나의 누이를 참혹하게 죽여 옥중에 묻어놓아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였다.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며 오랫동안 묻어둔 원한을 토로하였다. 김춘추와 김법민 부자가 얼마나 대야성에서 희생된 딸과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백제군의 공세로 신라는 왕도와 가까운 압량주(경산)까지 위협당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신라의 힘만으로는 백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김춘추는 우선 고구려로 가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은 신라가 차지한 옛 고구려 영토를 돌려달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 걸었고, 김춘추를 억류했다. 고구려에 대한 청병외교에 실패한 신라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대신 고구려와 적대적이던 당을 끌어들이어 백제의 공격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643년 9월 선덕여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쳐 신라의 수십 성을 빼앗아 사자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다. 또 고구려가 백제와 공모하여 신라가 당에 입조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니 구원병을 보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당태종은 신라의 청병 요구를 바로 들어 주지 않았다.

당태종이 구원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자 신라는 당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고구려와 백제가 당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한 데 비해 신라는 645년 이후 거의 매년 당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당과의 관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라의 적극적 대당외교는 648년(진덕여왕 2)에 이르러 결실을 맺는 것 같았다. 당에 사신으로 간 김춘추가 당태종으로부터 백제를 정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것이다. 당태종은 소정방에게 20만 병력을 이끌고 가서 백제를 치도록 했다. 그렇지만 649년 5월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당군의 출병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새로 즉위한 고종은 고구려 공격을 계속하느라 백제 출병은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신라의 외교적 노력은 그침 없이 계속되었다. 650년에 진덕여왕은 손수 당고종을 찬양하는 시인 '태평송(太平頌)'을 비단에 짜서 바쳤다. 651년에는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을 당에 보내 조공을 바치고 고종을 숙위하도록 하였다. 652년에도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는 등 당에 대한 신라의 외교적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김춘추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이렇게 당이 신라의 청병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지 않고, 또 그를 들어 준다고 해 놓고 파병을 미루었던 것은 당이 백제보다 고구려 공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제가 당의 고구려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신라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당의 계속된 고구려 공격 실패는 당의 한반도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659년 4월 신라 태종 무열왕은 둘째 아들인 김인문을 다시 당에 보내 '백제가 자주 침범하므로 당군의 원조를 받아 백제를 쳐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은 신라의 요구에 즉시 회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당고종은 고구려 원정에 앞서 고구려의 배후세력으로 신라가 지목한 백제를 먼저 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마침내 당이 신라의 설득에 넘어가 백제가 고구려와는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고 군사협력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당과의 외교관계는 소홀히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당의 대외전략 수정은 백제 조정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당의 인식 전환도 한몫을 했다. 백제 조정은 왕비를 비롯한 외척세력의 발호로 왕권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새로 등장한 신귀족세력은 구귀족세력과 대립하면서 정쟁을 격화시켜 백제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백제 내부의 정세 변화는 신라와 내통하고 있던 좌평 임자와 같은 인물들과 조미곤과 같은 첩자를 통해 신라에 소상히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는 김인문에 의해 당에 자세히 전해졌다. 이에 당고종은 고구려와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던 백제를 먼저 정벌할 결심을 하였고, 태종이 신라에게 약속했던 백제 출병을 늦게나마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신라의 청병 요구를 들어 주게 되었다.

659년 10월 당은 백제 정벌을 결정하고 출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은 출병 결정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신라에게도 백제로 출병하겠다는 결정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인문과 당시 당에 와 있던 왜국 사신의 귀국도 막은 채 원정을 준비하였다. 당이 신라에게 출병을 알린 것은 원정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660년 3월에 가서였다.

신라가 고구려와 당에 청병을 하고 결국 당의 출병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것은 백제에 비해 열세였던 군사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신라가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것은 양국의 전투양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라가 고구려와 당에 청병외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642년 대야성의 패전 이후부터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는 660년 이전까지 『삼국사기』에 기록된 양국의 전투 횟수를 헤아려 보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 4차례에 불과한 데 비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은 12차례나 된다. 전투의 승패와 관계없이 백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신라를 공격한 것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신라는 방어에 급급했다. 신라의 군사적 열세는 진덕여왕이 백제를 대국이라고 부르고, 신라를 소국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신라가 결과적으로 당과 연합한 것은 고구려와의 동맹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백제와 고구려가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신라를 협공하는 상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이었다. 신라가 사대적이었기 때문에 당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던 시기에 신라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당과의 동맹뿐이었기 때문에 청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었다. 660년 당의 출병 결정으로 신라의 대당 청병외교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백제에 비해 열세였던 군사력은 당의 원군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 나당연합군의 전력

백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신라는 당의 파병을 전제로 백제 공격을 준비하였다. 660년 3월 당고종은 백제 출병을 명하였고 6월에는 출병하기에 이르렀다. 당은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였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좌효위장군 유백영,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효위장군 방효태 등이 14도의 행군총관으로 임명되어 백제 정벌에 나섰다. 아울러 태종 무열왕을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임명해 당군에 합세토록 하였다. 이로써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이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는 나당연합군의 편제와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두 사서에는 출정한 당군의 규모를 13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특히 『향기』를 인용해 12만 2,711인이 1,900척의 배를 타고 출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구당서』와 『자치통감』에는 당군을 10만으로 기록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군의 규모를 13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당군은 13만 군사를 이끌고 백제 정벌에 나섰고, 여기에 신라군 5만이 별도로 편성되었다. 나당연합군은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유백영과 풍사귀, 방효태가 육군과 수군 3개 군단, 김유신이 거느린 5만으로 구성된 신라군 1개 군단 등 모두 4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당군 중에서 수군이 차지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당군이 645년의 고구려 원정에 4만 명의 당병을 500척의 전함에 태워, 군량을 실은 배 400척과 함께 출병하게 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백제로 향한 1,900척의 배 가운데 수군의 전함은 500척 정도였을 것이고, 나머지는 육군의 수송선과 보급선이었을 것이다. 660년 13만 대군을 1,900척의 배에 나누어 태우고 출정한 것은 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출정이었다. 당군은 4개 군단으로 편성되었으므로 1개 군단의 규모를 약 4만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 원정시 출정한 당 수군의 규모는 645년 고구려 원정시와 유사한 4만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당군의 총사령관은 소정방이었지만 수군은 방효태가 거느리고 출정하였다.

신라의 육군은 5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라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였다. 660년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 이전에 신라가 동원한 최대 규모의 군사는 645년

(선덕여왕 14)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응원하여 출병한 3만 명 혹은 5만 명이였다. 신라가 동원한 5만은 전례가 없던 큰 규모로 당군에 대응한 규모였다. 다만 신라군은 정병 5만이라고 해서 전투병 위주로 편성된 것 같지만, 바다를 건너온 당군에게 보급품을 지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임무였다.

신라는 5만의 육군 이외에 큰 배 100척으로 구성된 수군을 이끌고 당군을 응원하였다. 신라 수군의 규모는 약 6,500명 정도로 김양도가 지휘하였다. 신라 수군은 당군의 바닷길을 안내하고 상륙에 필요한 도구나 군량, 식수 등을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다.

### 나당연합군의 출병 경로

신라군은 660년 5월 26일 왕도인 경주를 출발하였다. 신라군이 당의 출병 소식을 전해들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당군을 응원하기 위해 출정한 것은 이전부터 미리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신라군은 이미 1년 전 당에 청병을 요청할 때부터 이미 백제 출정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출병 소식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출병할 수 있었다. 6월 18일 신라군은 백제 도성인 사비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신라의 북방의 요충지인 남천정(이천)에 가서 머물렀다.

왕도를 출발한 신라군이 백제 도성인 사비로 바로 진군하지 않고 북상하여 남한강 유역의 남천정으로 향한 것은 까닭이 있다. 신라군은 당군과 원활하게 연락을 취하고 나아가 백제가 고구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을 예측해 그 통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자 백제의 방어 주력을 교란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동원한 5만 대군이 모두 남천정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신라군 주력은 백제 공격을 위한 관문인 탄현을 넘기 위해 관산성(옥천)이나 삼년산성(보은)과 같은 백제 국경과 가까운 곳에 주둔시키고, 태종과 김유신 등 지휘부는 바다를 건너오는 당군을 영접하고 백제 공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남천정으로 간 것이다.

당군은 6월 18일 산동성 내주(萊州)(봉래)를 출발하여 백제로 향하였다. 내주는 수와 당이 중요한 수군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598년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할 때 주라후가 이끈 수군이 평양성으로 가기 위해 출발한 곳이었고, 612년과 614년 수 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내호야가 이끈 수군의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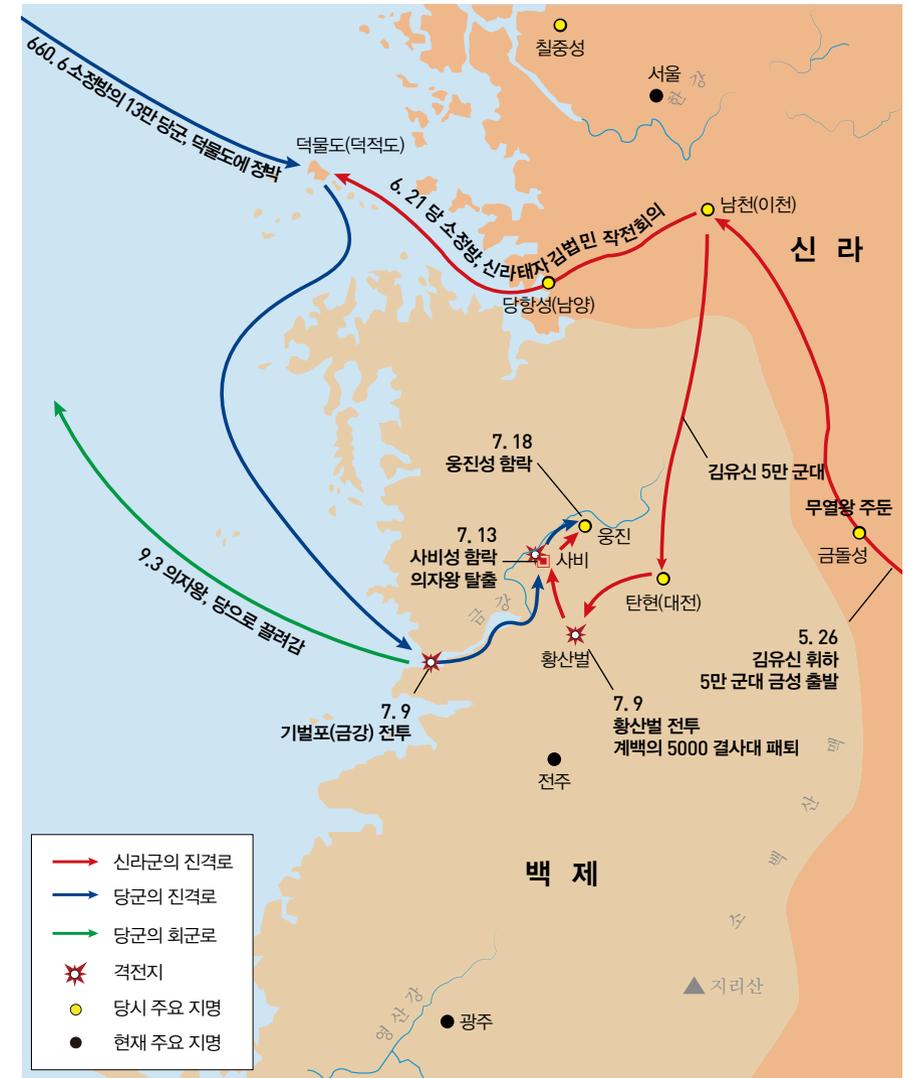


그림 1.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투도

였다. 645년 장량이 거느린 당 수군이 500척의 전선에 4만여 명을 싣고 고구려 공격에 나선 곳도 이곳이었다. 또 647년 우진달이 거느린 1만여 명의 당나라 수군이 출발한 곳이고, 648년 설만철이 거느린 3만여 명의 수군이 출발한 곳이었다. 이와 같이 내주가 당 수군의 출발기지로 사용되었듯이 660년 백제 원정에도 13만 당군의 출발지로 사용되었다. 당군은 고구려 출정시와 마찬가지로 내주에 전선을 집결하고 출정

을 준비한 후 산동반도 동쪽 끝의 성산을 거쳐 백제로 향했다.

1,900척으로 구성된 당군의 항해는 배가 꼬리를 물고 천리에 뺨쳤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당의 함선은 조류를 타고 남하해 서해안의 덕물도에 도착했다.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것은 내주를 떠난지 3일만인 6월 21일이었다. 당군과 동행한 김인문은 먼저 사자를 보내 남천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종 무열왕에게 당군이 덕물도에 기항한다는 것을 알렸다. 태종 무열왕은 태자 김법민을 덕물도로 보내 당군을 영접하고 백제 공격전략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 덕적도로 신라의 서해안 전진기지인 당항성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다. 김법민은 남천정에서 당항성으로 이동한 후 신라 수군을 거느리고 덕물도로 갔다. 김법민이 거느리고 간 100척의 배는 김양도가 지휘하는 신라 수군의 주력이었다. 신라 수군은 당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사비로 향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덕물도에서 당군과 만난 김법민은 소정방과 백제 공격로와 공격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당군은 해로로 진군하고 신라는 육로로 진군해 7월 10일에 사비성 남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덕물도에서 신라군의 영접을 받고 백제 공격전략 회의를 마친 당군은 뒤따라 온 후미의 당군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전열을 정비하였다. 덕물도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서해를 건너 도착한 당군 본진과 후미는 성산에서 출병할 때처럼 순차적으로 출항하는 것이 아니라 덕적도와 주변의 여러 섬에서 정박해 있다가 동시에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당군의 출항 준비는 늦어도 7월 초에 완료되었다. 백제군과의 전투 준비를 완료한 당군은 신라 수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일제히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풍도 등 덕적군도와 이어진 연안 항로를 따라 남양만을 남하한 후 태안과 안면도 연안을 돌아서 서해안을 따라 기벌포로 나아갔다. 기벌포에 도착한 당군은 금강 남쪽으로 상륙한 뒤 금강 물줄기를 따라 사비로 진격하였다.

신라군은 7월 10일에 당군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 백제로 진군하였다. 태종 무열왕은 사라지정(청주 부근)을 거쳐 남하하여 금돌성(상주)에 머물렀고, 김유신이 거느린 5만은 백제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요충지인 탄현을 넘었다. 탄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전 부근, 충남 금산과 전북 고산의 경계인 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탄현, 충남 영동군 양산면에서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이르는 길 등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개 보은의 삼년산성과 옥천의 관산성을 경유한 신라군의 이동 경로를 볼 때 대전 동쪽의 탄현을 넘어 연산의 황산별로 진군한 것으로 본다.

신라군의 공격로는 기벌포에서 상륙한 당군이 금강 하구에서 본류를 거슬러 올라 사비로 간 것과는 반대로 금강 상류에서 하류로 이어진 통로를 이용해 사비로 진군한 것이었다. 이처럼 신라군과 당군은 금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합군하였다. 이는 백제의 도성이 금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탄현과 기벌포는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길목이자 금강 하구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사비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다.

## 2. 나당연합군의 협공과 백제의 멸망

### 백제군의 방어전략

신라는 당군과 힘을 합쳐 백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18만 대군으로 사비성으로 진군했다. 의자왕대 백제가 보유한 병력인 5만 정도에 비하면 나당연합군의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구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구려는 당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지쳐 있었다. 658년과 659년 당은 연이어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등 대고구려 공격을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고구려는 요동지역의 방어에 촉각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군이 백제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알아차렸더라도 백제에 구원병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

나당연합군이 공격한다는 정보를 백제는 미리 알지 못했다. 신라가 고구려와 당에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위로 그쳤다는 사실의 확인에 만족한 백제는 이후 신라가 고구려를 포기하고 당에 적극적 청병외교를 펼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백제는 오히려 당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고, 당이 백제를 치려면 거리가 멀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백제는 당의 출병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군이 출병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

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직공 전략과 수륙 양면에서의 협공 전략에 맡겨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조정은 의견이 갈린 채 우왕좌왕하였다.

의자왕 초기부터 신라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좌평 의직은 당군을 주력으로 보고 당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달솔 상영은 백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신라군과 먼저 결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의직은 원거리 항해에 지쳐 있는 당군이 상륙하는 것을 맞아 친 후에 신라군을 칠 것을 주장하였고, 상영은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는 비교적 약세인 신라군을 먼저 쳐서 그 예봉을 꺾은 후에 당군을 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군과 신라군 중 어느 쪽과 먼저 결전을 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의자왕은 즉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의직과 상영의 엇갈린 주장을 듣고 의자왕이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의자왕 초기부터 정권의 중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의직은 왕의 측근으로서 여전히 정치적 실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직은 의자왕 즉위 초에 대신라전을 이끌면서 왕권 강화에 앞장서기는 했지만 신라에게 연속해서 패한 전력 때문에 군사적 신임을 얻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647년(의자왕 7) 신라의 3성을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하였고, 648년(의자왕 8)에도 옥문곡에서 김유신에게 대패를 당하였었다.

의자왕은 구귀족세력의 한 사람으로 고마미지현(장흥)에 귀양 가 있던 좌평 홍수에게까지 대책을 물었다. 홍수는 예전에 성충이 간언한 것과 같은 방비책을 내놨다. 성충은 육로로는 적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아야 함을 의자왕에게 간언한 바 있다. 홍수도 성충과 마찬가지로 요충지인 탄현과 백강의 입구인 기벌포에서 적군을 막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자왕은 상영 등의 군신들이 '홍수의 말을 들으면 안되며, 당군을 백강에 들어오게 하고, 신라군을 탄현에 오르게 한 뒤에 치면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의자왕은 성충과 홍수가 요충지로 지목한 백강구와 탄현에서 나당연합군을 막는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강구로 당군이 들어오고, 탄현에 신라군이 올라선 연후에 방어전을 펼치자는 상영의 주장을 채택하여 신라군과 먼저 결전하기로 하였다.

## 황산벌전투

백제의 조정에서 국왕과 대신들이 방어책을 두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당군과 신라군은 이미 백강 입구 기벌포와 탄현을 넘어섰다. 좌평 의직과 홍수 등 백제의 구귀족세력이 제시한 방어전략은 달솔 상영 등 신진귀족세력과 정치적 대립 때문에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결국 전략적 요충지인 백강 입구의 기벌포와 탄현에서 당군과 신라군을 방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의자왕은 당군과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솔 계백에게 5천 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가서 신라군과 황산벌에서 결전하도록 했다.

백제군의 5천 결사대는 황산벌(연산)에 신라군보다 먼저 도착해 3개의 진영을 구축하고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제군을 이끈 계백은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5천 결사대에게 "옛날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의 70만 대군을 무찔렀다. 오늘은 모두 다 떨치어 힘써 싸워 이겨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신라군과 결전을 준비하였다. 7월 9일 벌어진 결전에서 백제군의 사기에 눌린 신라군은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네 번을 싸워 네 번을 모두 패배하였다.

7월 10일 김유신은 신라군이 연패를 당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김흠순의 아들인 반굴과 김품일의 아들인 열여섯 살의 앳된 소년 화랑 관창을 백제군 진영으로 홀로 보내어 싸우게 하였다. 반굴과 관창은 백제군 진영으로 저돌적으로 나아가 싸우다 죽었다. 신라군은 반굴과 관창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기가 진작되어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백제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신라군은 계백과 결사대 대부분의 목을 베고 충상과 상영 등 20명의 장군을 포로로 잡았다.

신라군은 황산벌전투의 승리로 계백이 거느린 백제군을 무너뜨리고 사비성으로 행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당군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에 사비성 남쪽에 도달하지 못했다.

## 기벌포 해전

성충과 홍수에 의해 탄현과 함께 백제의 양대 요충지로 지목된 백강 입구에서도 백제군은 나당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백강의 입구는

오늘날의 금강 하구로 기벌포가 자리하고 있었고, 기벌포는 배를 타고 진입하는 나당의 수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소정방이 김인문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해 백제병을 만나 크게 이겼다고 나당연합군이 승리한 사실만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소정방이 거느린 당군이 덕물도에서 신라 수군의 안내를 받아 기벌포에 도착했을 때 백제군이 강의 입구를 막고 당군의 상륙에 대비하고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소정방과 김인문이 거느린 당군이 덕물도를 거쳐 금강 하구에 도착한 날 짜가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계백과 대전을 치르던 날과 같은 7월 9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군이 황산벌전투의 패전 이후 금강 입구를 막고 당군을 맞아 싸운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또 『삼국유사』에는 황산벌에서 전투를 마친 신라군이 당군과 합세하여 금강 입구의 기벌포에서 백제군과 전투를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백제군 결사대를 만나 격전을 치르느라 7월 10일 당군과 합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라장군 김문영을 소정방이 참수하려 하는 등 신라군과 당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라군이 황산벌전투 후에 다시 금강 하구까지 진격해 기벌포전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신라군은 기벌포에 상륙한 당군과 만나기로 한 날짜인 7월 10일을 지키지 못하고, 7월 11일에야 겨우 당군과 사비 남쪽에서 합군할 수 있었다. 김유신이 거느린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백제군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신라군이 백제군과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이던 날, 기벌포에서는 바다를 건너온 당군은 상륙을 저지하는 백제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2,000척의 대규모 전단으로 이루어진 나당연합군이 서해안의 연안 항로를 따라서 기벌포로 진입해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은 7월 9일이었다. 당군이 상륙한 시점은 ‘진흙탕이어서 빠지므로 다닐 수가 없어서 버드나무로 만든 자리를 펴고 나서 군사를 내리게 했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썰물 때를 맞췄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군은 이미 상륙에 대비해 갯벌에서 이동하는 데 쓸 버들자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상륙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런 상륙작전용 버들자리는 덕물도에서 전열을 기다림으며 머무르는 동안 백제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과 지형을 잘 아는 신라 수군의 도움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당군이 썰물 때를 맞춰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은 상륙시 백제군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배에서 내리는 시점을 밀물 때로 맞추면 비록 질퍽거리는 갯벌은 밟지 않아도 되지만, 당군이 배에서 내려 전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상륙지점에서 기다리던 백제군의 직접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조수가 물러난 썰물 때에 배에서 내린다면 질퍽거리는 갯벌을 밟아야 하는 불리함은 있지만, 미리 버들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당군이 움직이는 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백제군을 피해 상륙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또 백제군이 조수가 물러난 갯벌 안으로 진입해 당군을 공격한다면 갯벌 바깥쪽에 구축해 놓았을 진영을 활용할 수 없고, 갯벌에서의 활동도 배에서 내린 당군보다 나올 바가 없으므로 함부로 공격해 오기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한 작전이었다.

당군이 상륙한 기벌포는 금강 남안의 군산 오성산 부근이었다. 당군이 이곳으로 상륙을 한 까닭은 우선 탄현을 넘은 신라군과 합세하기 편리하고, 사비성으로 진군하는 데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금강 남안의 군산 일대는 백제의 방어용 성이 옥구토성, 오성산성, 창안토성, 아래산성 등 4개에 불과해서 북안의 서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군하기 유리한 곳이었다. 즉 금강 남안은 사비성 외곽에 이르는 길목에 사실상 당의 대군을 막을 만한 방어시설이 취약한 지역이었다. 사비로 이어지는 길도 금강의 남안과 나란히 이어지는 얇은 구릉상의 산지만이 있을 뿐, 거의 평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월한 진군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금강 남안은 백제군의 방어가 약하고 사비로 진군하기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당군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군의 주력은 당연히 금강 남안의 군산 방면으로 상륙하였다.

금강 남안의 개펄에 상륙한 당군은 산을 등지고 백제군과 전투를 펼쳤다. 백제군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저항했으나 끝내 당군을 막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 사비성 함락

기벌포전투에서 백제군을 격파한 당의 수군은 조수를 타고 강을 거슬러 꼬리에 꼬

리를 물며 북을 치고 고향을 지르며 올라갔고, 상륙한 당군은 대장군 소정방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강독을 따라 수군과 나란히 전진해 사비성을 향해 진격하였다. 금강의 남쪽 해안으로 상륙한 당군은 보병과 기병으로 편제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군과 나란히 강독을 따라 진군하다 사비도성 밖 30리 되는 지점에서 우선 멈추어 신라군을 기다렸다. 당의 수군은 마침 밀물을 만나 쉽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7월 10일 당군이 사비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강경 부근에서 잠시 진격을 멈추자 백제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을 해왔다. 당군은 이 싸움에서 만여 명의 백제군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신라군을 기다렸다. 당군과 신라군은 7월 10일 합군해 사비도성을 공격할 것을 덕물도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신라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예상 외로 강한 백제군을 맞아 싸우느라 시간을 소비한 까닭에 약속보다 하루 늦은 7월 11일에야 약속 장소에 기다리던 당군과 합군할 수 있었다.

소정방은 신라의 독군인 김문영의 목을 베려고 잡아두는 등 책임을 추궁하였다. 신라군이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늦는 바람에 당군은 홀로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백제군과 먼저 전투를 치르고 난 후였다. 비록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백제군의 기세에 놀랐고, 동맹군인 신라군이 약속을 어긴 데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군 역시 황산벌전투에서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당군에게 알렸고,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라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당군과 먼저 싸우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 때문에 당의 대장군 소정방과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나당군의 연합작전이 결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군과 신라군의 이러한 갈등은 김유신의 강경한 대응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백제 공격을 앞 둔 당군과 신라군 사이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 때문이기도 하였다. 신라군과 당군의 갈등은 이후 나당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비록 신라가 청병하여 대군이 건너왔고 신라군이 당병에 기대어 백제 정벌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황산벌전투의 치열한 상황을 당군이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일을 어긴 사실만을 탓하는 것을 신라군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에 소정방은 더 이상 신라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

고, 독군 김문영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양군은 바로 사비성으로의 진격을 준비하였다.

그렇지만, 소정방은 사비성 진격을 앞두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정방은 당군이 기벌포와 사비성 밖 전투에서 백제군을 크게 이기기는 하였지만, 그 군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러나 김유신은 소정방을 설득해 백제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한 후, 즉각 백제도성인 사비로 진격을 하게 되었다.

백제는 좌평 각가를 당군 진영에 보내 사죄의 글을 올리고 퇴병해 줄 것을 애걸하였다. 신라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출병한 당군을 백제군은 협상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즉, 그간 당에 조공하지 않고 불손하였으며 이웃인 신라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점과, 당과 적대적인 고구려와 가까이 하고 당에 복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퇴각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정방은 백제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7월 12일 당군과 신라군은 사비성의 나성을 돌파한 후 소부리별관에 진주해 사비도성을 포위하였다. 백제는 다시 상좌평을 보내 당군에게 제물과 많은 음식을 바치며 퇴군을 애걸하였다. 그리고 다시 의자왕의 서자 궁을 좌평 6인과 함께 보내 죄를 빌었으나 소정방은 이마저도 물리치고 사비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의자왕이 당군에게 퇴각을 애걸한 것은 당군이 백제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백제가 신라와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당과는 과거에 직접적으로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유와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든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정방은 모든 것을 거절하였고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18만 대군의 공격을 받은 사비성은 곧바로 함락위기에 몰렸다. 7월 13일 밤 의자왕은 사비성을 떠나 북방의 웅진성으로 달아났다. 사비성에는 여러 왕자와 백성들만이 남아 지키게 되었다. 의자왕이 웅진성으로 달아난 것은 사비도성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북방의 요충지이자 전 도읍지였던 웅진에서 후일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사비성에 남아 방어하고 있던 백제 왕자들 사이의 내분이 일어났고, 이에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을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은 웅진방령 예식진(예식)의 배반으로 7월 18일에 사비도성으로 사로잡혀와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7월 29일 금돌성에 있던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사비성에 도착하였다. 8월 2일에는 백제 의자왕이 왕자와 군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종 무열왕과 소정방 등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등 공식적 항복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은 성공리에 끝났다.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 성공 원인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신라로서는 당에 대한 적극적인 청병외교로 당군을 끌어들이므로써 전력의 열세를 뒤집고 백제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또 신라군과 당군이 백제를 육로와 해로로 협공함으로써 백제군의 방어선을 분산시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신라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외교 전략과 군사력 운용이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었다.

### 3. 백제부흥군과의 전쟁과 진압

#### 백제부흥운동의 발생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660년 9월 3일 당군은 의자왕과 왕족 및 대신을 비롯한 12,807명의 포로를 잡아 사비에서 배를 타고 당으로 귀환했다. 점령지인 백제 옛 땅에는 당의 도독부를 설치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의 의도대로 백제의 영토를 통치할 수는 없었다.

백제 옛 땅에 남은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백제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나당점령군의 약탈과 살육에 따른 반발이다. 백제유민들은 약탈과 인명의 살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 속으로 달아났고, 생명의 위협에 대한 자구책으로 군비를 갖추어 대항하였다. 약탈과 살육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은 백제부흥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둘째는 의자왕이 항복하였을 때의 비참한 모습을 본 목도한 백제유민들은 당이 백제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신라의 수중에 백제를 넘겨 준다는 말에 분노하였다. 만약 당이 백제를 신라에 넘긴다면 백제인들에 대한 신라군의 꺾박



그림 2. 예산 임존성

은 당군의 살육 및 약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 모든 백제인을 다 잡아 죽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의자왕과 왕족에 대한 나당군의 처우를 본 후에 더욱 두려운 현실로 유민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셋째는, 직접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방의 군장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부흥운동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의자왕의 항복과 더불어 당군에 항복했으나, 이후 흑치상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흥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당군에 투항한다면 어느 정도 보장되리라 믿었던 기득권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더욱이 왕족을 비롯한 대다수 중앙귀족들이 당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상황을 목도한 지방 군장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 백제부흥군의 활동

백제의 유민들이 처음 봉기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660년 8월 2일에 이미 사비 남잡과 정현성 등 사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시작했고, 두시원악에서는 좌평 정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8월 2일은 나당연합군과 백제유민들이 군사적으로 충돌

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8월 26일에는 소정방이 임존성에 웅거한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소정방이 거느린 당군 주력이 철군한 뒤인 9월 23일에는 무려 20여 성이 호응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비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초기 부흥군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흑치상지나 복신의 경우처럼 그 출신지였거나, 정무의 경우처럼 은거하고 있던 세력 근거지였다. 또 의자왕이 항복할 당시에 5방 37군 200성의 지방 통치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된 상태였으므로, 지방 군장과 성주들은 자신들의 임지인 지방의 방성과 군성 등을 중심으로 거병하여 부흥운동에 합류하였다.

부흥운동이 시작과 함께 맹렬한 기세를 떨칠 수 있었던 요인은 멸망 당시 백제의 군사력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었고, 지방의 군장들도 지역적 세력기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백제유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점이다.

부흥운동 지도자로는 복신, 흑치상지, 사타상여, 여자진, 정무 등이 있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부흥군의 대표적 지도자로 복신을 지목하여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승려 도침이 있었다. 도침은 처음에 왕흥사를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시작하였다가 복신과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도침은 초기 사비성 공격의 핵심거점이었던 왕흥사를 중심으로 부흥군을 이끌었고, 사비 남쪽에서 사비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침의 활동은 복신과 함께 부흥운동의 양대 중심인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제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이끌 지도자 이외에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당으로 끌려간 의자왕 대신에 옹립할 국왕이 필요하였다. 백제에서는 국왕의 유고시에 왕자나 왕제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런데 의자왕과 태자 및 왕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뒤였으므로 왕위계승권을 갖는 왕실 자제들을 백제 옛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왜에 가 있던 왕자들만이 백제 멸망의 화를 면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유민들은 자연스럽게 왜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국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풍은 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두 나라의 외교활동을 이끌었기에 왜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에도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에 백제부흥군을 이끌고 있던 복

신은 왜에 사신을 보내 풍의 귀국과 함께 구원군을 요청하였다. 풍은 661년 9월에 왜의 구원병을 이끌고 백제로 돌아와 즉위했다.

부흥운동의 발생 초기에 사비성에 주둔한 나당연합군은 부흥군의 공세에 시달렸으며 부흥군의 맹렬한 공세에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경주로 돌아가던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결국 삼년산성에서 다시 군사를 돌렸다. 신라군은 사비 남령과, 이례성, 왕흥사잠성 등에 근거지를 두고 사비성을 공략하던 부흥군을 직접 토벌하여 겨우 사비성의 포위를 풀 수 있었다.

661년 2월에 백제부흥군은 다시 사비성을 포위하고 공세를 취하였다. 이 당시의 사정은 신라 문무왕이 당장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薛仁貴書)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661년에 들어와 '복신의 무리가 점차 많아져서 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니, 웅진도독부의 당병 1천 명이 나가서 치다가 오히려 전멸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복신의 무리가 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부흥군의 세력이 웅진도독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까지 활동역역을 넓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661년 초에는 사비성과 웅진성 부근을 제외한 백제 옛 땅의 상당 부분이 부흥군의 세력권 아래 놓여 있었고 사비성의 당군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사비성까지 함락당한다면 백제정벌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는 터라 당에서는 웅진도독부의 유인원을 구원하기 위해 유인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유인케는 661년 3월에 웅진강구, 즉 금강의 하구에서 부흥군을 대파함으로써 사비성



그림 3.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 우금산성) 원경(좌)과 성벽(우)

에 고립된 나당연합군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군은 두량윤성(주류성)과 빈골양(태인)에서 부흥군에게 대패하였다. 두량윤성전투에서 대패하자 웅진강구전투에 참여했던 신라군도 양식이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회군하였다. 두량윤성전투의 대패로 신라는 커다란 손실을 입어 백제부흥군 진압에 당분간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백제 남방의 여러 성들이 일시에 백제부흥군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초기에 백제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661년에 들어서서는 동부와 남부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여 성을 회복할 정도로 백제 옛 땅 전역이 백제부흥군의 활동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도침이 영군장군, 복신이 상삼장군 등을 칭할 정도로 백제부흥군은 기세가 올라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도침이 당군에게 ‘언제쯤 귀국할 것인가?’라는 조롱 섞인 말과 함께 당군이 귀국할 것을 중용하기까지 하였다. 유인원기공비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면 ‘부흥군의 강성함에 눌린 당군은 부흥군의 힘이 다하고 기운이 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 백제 주둔 당군의 처지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사비성에는 낭장 유인원이 거느린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천 명이 주둔하였다. 모두 18만의 나당연합군 중에서 1만 7천 명이 사비성에 남아 백제 옛 땅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1만 7천의 병력만으로는 멸망 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백제부흥군을 대적하기는 어려웠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점령지를 지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비도성에 설치한 백제도호부 이외에 5개의 도독부 중에서 실제 당군과 신라군의 영향력이 미친 곳은 사비성과 웅진성 정도였다. 사비성에 설치하였던 백제도호부는 얼마가지 못해 폐지되고, 웅진도독부가 백제 옛 땅에 대한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661년 2월 부흥군에게 포위된 사비성의 유인원을 구원하려는 유인케조차도 소수의 당군만을 거느리고 왔다. 유인케는 삼년산성(보은)에서 갑자기 죽은 왕문도가 거느렸던 당병만을 직접 거느렸을 뿐이었다. 유인케가 거느린 당병은 애초부터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그가 거느리고 온 당병만으로는 사비성에 포위된 채 고립된 유인원을 구원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신라군을 징발하여 부흥군과의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에 없었다. 그 때문에 당군은 성 안에서 신라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 조정에서는 웅진도독부의 존립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웅진도독왕문도가 660년 9월 28일 부임도 하지 못한 채 삼년산성에서 급사했음에도 새로운 웅진도독을 파견하지 않았다. 661년에 가서야 백의중군하게 된 유인케를 검교대방주 자사라는 임시직함을 주어 원군도 거의 없이 백제에 파견한 것이 전부였다. 사비성에 머무르던 유인원이 웅진도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웅진도독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유인원이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것은 662년 7월이었다. 당시 당은 백제 옛 땅을 지배할 여력이 없었고, 의지도 부족했다. 오로지 당의 관심은 고구려 원정에 있었다. 당이 국력을 기울인 고구려 원정은 백제 옛 땅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돌볼 여력이 없게 만들었다.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웅진도독부 주둔 당군마저도 고구려 원정에 동원하려고 하였다.

사실 웅진도독부의 당군에게는 병력을 증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다. 부흥군의 공격으로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로의 확보였다. 즉 신라로부터 군량과 군수물자를 조달받는 것이 급선무였다. 웅진도독부로 가는 신라의 군수물자 보급로인 웅진도(熊津道)가 부흥군에게 차단된 상태라 군량을 비롯한 물자의 보충이 원활하지 못해 단 며칠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661년 3월 유인케가 거느린 당군과 신라군이 도침의 부흥군을 웅진강구전투에서 격파한 후 일시적으로 포위가 풀렸다. 그러나 신라군이 부흥군의 거점인 두량윤성을 공격하다가 대패하고 돌아가자 복신이 거느린 부흥군은 다시 당군을 포위하였고 당군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부흥군이 웅진도를 차단하자 신라군이 겨우 셋길로 당군에게 군량과 물자를 보냈다는 것은 부흥군의 성세와 더불어 고립된 당군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엿보게 해 준다.

당고종은 662년 2월 고구려 원정에 나섰던 당군이 철수하자 백제 옛 땅에 있던 당군도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백제 옛 땅에 주둔하던 당군의 무기력한 상황은 당 조정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종은 백제 옛 땅을 포기할 의사까지도 있었다. 보급품을 대느라 악전고투하던 신라와 부흥군에 포위된 당군 사이의 보급로인 웅진도가 개통된 것은 662년 7월이었다.

## 당의 백제 옛 땅 지배의 실상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등 5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37개의 주와 250개의 현을 두어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당군의 통치조직은 백제의 지방 통치체제인 5방 37군 250성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의 구상대로 된 것은 백제 도성인 사비성에 유인원이 거느린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천 명이 주둔한 것과 웅진도독에 왕문도를 임명한 것이 전부였다. 웅진도독부를 제외한 나머지 도독부의 도독과 주현의 자사와 현령은 백제의 지방관을 발탁해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의 계획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이는 부흥군의 활동지역과 5도독부를 설치하려 한 5방성의 관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61년 3월 신라군의 두량윤성 공격시 백제의 5방성 중 하나였던 중방의 고사비성 밖에 신라군이 진을 쳤다는 기록과, 663년 2월에 신라군이 백제 남방의 거열성과 거물성, 사평성 등을 함락시키고, 다시 백제 5방성 중 하나였던 동방의 덕안성을 공격하여 700급을 침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백제의 5방성 중 중방의 고사성과 동방의 덕안성에 도독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흥군의 주요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덕안성은 당이 백제 옛 땅에 두려고 한 5도독부 가운데 하나인 덕안도독부였음을 보아도 당의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정책은 허구에 그쳤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당의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체제는 구상과는 달리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백제의 5방성을 비롯한 주요 지방 군성은 오히려 부흥군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다. 당이 실제로 백제의 5방 가운데 도독부를 설치할 수 있었던 곳은 북방의 웅진성이 전부였다. 웅진성에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제외하고 도독부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그러므로 백제 옛 땅에 대한 당의 실질적 지배는 불가능했고, 당이 설치하려 한 5도독부와 37주 250현은 탁상 위의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 신라군의 공세와 당의 증원군 파견

신라가 백제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적 공세를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한 것은 662년 7월 이루어진 웅진도의 개통이 계기였다. 이 무렵 부흥군 내부에서는 도침이

복신에 의해 살해당했다. 부흥군 지도자 사이의 내분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또 662년 3월을 끝으로 당의 고구려 원정이 잠시 중단되자 신라는 더 이상 고구려 원정에 동원되지 않게 됨으로써 부흥군의 진압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662년 7월에 유인원과 유인제가 거느린 당군은 부흥군을 웅진의 동쪽에서 대파하고 지라성과 윤성, 대신책(홍산)과 사정책(대전 동쪽) 등을 점령하였다. 또 진현성(진잠)도 함락시켰다. 662년 8월에는 부흥군의 또 다른 거점인 내사지성(유성)도 함락시켰다. 진현성과 내사지성 등 부흥군의 동방 거점들을 차례로 점령하여 웅진도를 확보하자 당군은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부흥군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나당군의 공세는 이제 백제부흥운동의 남방 거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663년 2월에 이르러서 신라군은 거열성(거창), 거물성(남원 부근), 사평성(순천) 등 부흥군의 남방 거점성들을 차례로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또 백제 5방성 중의 하나였던 동방의 덕안성(은진)도 함락시켰다. 신라군은 웅진의 동쪽 지역과 백제의 동방과 남방을 점령함으로써 부흥군의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장악해 나갔다.

당군의 공세도 강화되었다. 웅진도독부에 파견되었던 유인제는 고구려 정벌이라는 당의 최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제부흥군 진압이 완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증원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간청했다. 당 조정은 662년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선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백제 옛 땅 지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진현성전투의 승리 이후 당 조정에서는 웅진도독부에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662년 7월 21일 당고종은 손인사를 웅진도행군총관으로 임명하고 7천 명을 징발해 웅진도독부로 보냈다. 손인사가 거느린 증원군이 웅진도독부에 실제로 도착한 때는 663년 5월이었다. 손인사가 거느린 당군은 웅진도독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위력을 보여줬다. 백제로 오던 길에 부흥군을 돕기 위해 출병한 고구려와 왜의 수군을 격파하였던 것이다. 당의 증원군은 웅진도독부 주둔 당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로써 웅진도독부의 당군은 그동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부흥군의 최대 거점인 주류성 공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었고, 신라군과 공동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 백강구전투의 승리와 주류성 함락

증원된 당군은 신라군과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였다. 신라는 문무왕이 직접 김유신, 김인문, 천존, 죽지 등 28장군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당군과 합세하였다. 신라군이 동원한 전력은 660년 백제 정벌 당시와 비슷한 5만 정도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663년 주류성의 부흥군 진압 작전 역시 국왕과 김유신 등 28장군이 출전하는 등 국력을 기울였던 것이 분명하고, 또한 661년 3월 두량윤성(주류성)전투에서의 패배를 거울 삼아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당과 신라는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주류성으로 진군했다. 육군은 문무왕이 거느린 신라군과 유인원, 손인사가 거느린 당군의 연합군으로 편성되었고, 수군은 유인케와 두상, 백제 태자였던 부여용이 거느린 당군이 주축이었다.

주류성의 부흥군도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전략을 펼쳤다. 우선 부흥군은 주요 거점성들이 신라군과 당군에 의해 속속 함락당하자 군수물자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일시로 옮겼던 피성(김제)에서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어 방어하기 유리한 천협의 요새지인 주류성으로 되돌아와 방비를 단단히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왜에 구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예상되는 당의 측면공격 때문에 구원군을 직접 파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왜는 직접 구원군을 파견하여 백강구전투와 주류성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백제·왜의 연합군이 나당연합군과 대결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663년 8월 13일에 나당연합군은 주류성에 도착하여 8월 18일에는 완전히 포위했다. 8월 27일 당 수군은 백강구에서 왜 수군과 풍왕이 거느린 부흥군과 마주쳤다. 백제·왜의 연합수군과 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당 수군은 화공전술과 당과 전술로 맞서면서 강 언덕 위의 육군의 지원도 받았다. 그리하여 왜의 병선 1,000척 가운데 400척을 불태우는 대승을 거두었고, 패전한 풍왕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백강구전투 해전에서 승리한 나당연합군은 9월 7일에 이르러서는 주류성마저 함락시켰다. 나당연합군이 웅진에서 합세하여 출병한지 불과 50여 일만의 일이었다. 주류성에서 달아난 부흥군과 백제유민들은 왜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 임존성과 사비산성의 마지막 부흥군 진압

임존성은 부흥운동 초기 복신과 도침이 머물던 곳으로 주류성과 함께 부흥군의 양대 거점이었다. 이곳은 660년 소정방이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요새였다. 나당연합군은 주류성을 함락시킨 후 군대를 돌려 부흥군의 북방 거점인 임존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이 합세하여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했다. 지세가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공격하기 어렵고, 또한 양식이 풍부한 임존성의 부흥군은 지수신의 지휘 하에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라군은 무려 30일간이나 임존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자 설리정(서천)으로 퇴각했다.

그렇지만 당군은 퇴각하지 않고 백제 태자였던 부여용을 이용해 부흥군을 이끌던 사타상여와 흑치상지를 회유하여 투항하도록 했다. 사타상여와 흑치상지는 이제 당군의 일원이 되어 임존성을 공격해 마침내 함락시켰고, 마지막까지 임존성을 지키던 지수신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당군은 부여용과 사타상여, 흑치상지 등 백제 유민들을 이용하여 임존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임존성을 함락시켰으나 부흥군이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다. 사비산성에 아직 부흥군이 남아있었다. 사비산성은 백제의 왕도로서 백제 멸망 직후에 당군과 신라군이 주둔했으나 부흥군의 왕성한 활동 결과 점령한 곳이었다. 부흥군이 사비성을 차지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661년 6월에 유인원이 거느린 당군이 소정방의 고구려 원정군에 호응하기 위해 사비성을 나와 출병한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사비성의 당군은 당시 부흥군의 기세에 눌려 그 본영을 이미 웅진도독부가 있던 웅진으로 옮긴 뒤였기 때문에 사비성을 비우지 않고서는 출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흥군은 661년 6월에 수복한 사비성을 664년 3월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664년 3월에 사비성의 마지막 부흥군은 홀로 항전하였으나 김유신이 거느린 신라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로써 백제 옛 땅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종식되었다.

## 4. 당과 신라의 백제 지역 지배와 갈등

### 백제부흥군 진압 후 당의 백제 지역 지배정책

백제부흥군을 진압한 당은 다시 백제 옛 땅에 대해 직접 지배할 방도를 찾았다. 백제 멸망 직후 설치한 5도독부가 백제유민들의 봉기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구려 원정에 치중하느라 백제 옛 땅에 대해 소홀했던 당은 이제 백제 옛 땅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백강전투에서의 대승을 기반으로 주류성을 함락시킨 당은 백제 옛 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다.

백제 땅은 오랜 병화로 말미암아 가옥이 다 무너지고 죽은 시체가 잡초처럼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에 웅진도독부에 계속 주둔하고 있던 유인케는 해골을 묻어주고 호구를 정리하며 촌락을 다스릴 관청의 장을 임명하고 도로를 개통하고 제언을 수리하며 못을 복원해 농사를 권장하고 가난한 자를 구휼하고 노인과 고아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당의 사직社稷을 세우고 정식正朔과 묘회廟諱를 반포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이 편안히 살도록 하였다. 이러한 당의 조치는 사직을 세우고 정식과 묘회를 반포하였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당의 직접적 지배체제 내에 백제 영토를 새롭게 편제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당의 백제 옛 땅 경영 목적은 고구려를 경략하기 위한 전진기지의 구축이었다. 백제부흥군을 진압한 당이 백제 영토를 당의 지배체제 내에 편제하고 백제의 유민들을 위무한 까닭은 점차로 둔전을 경영함으로써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길러 고구려 경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구려 원정에 필요한 군량과 군사를 확보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당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는 과거의 경험이 작용했다. 660년 백제의 사비도성을 함락시키고 의자왕을 비롯한 국왕 대신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백제 옛 땅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실패한 교훈을 당은 잊지 않고 있었다. 661년 12월 백제를 정벌하는 데 성공하고 돌아온 소정방에게 고구려 원정을 다시 명하였다. 662년 무려 35군을 편성

해 고구려 원정에 나섰던 당군은 평양성 부근까지 진격했음에도 원거리 출정에 따른 군량의 원활한 보급 실패로 숙원이던 정벌에 실패하고 철군해야만 했다. 당군은 고구려 원정에 신라군의 호응을 요구했고 신라군 역시 문무왕이 상중임에도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백제 옛 땅에서 부흥군에게 막혀 제대로 진군하지 못하였다. 또 평양성 근교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에게 보급할 군량미도 제 때에 보내지 못하여 당군을 아사 위기에 빠뜨렸다.

거듭되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이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궁극적 목적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백제 멸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신라의 응원이 당의 고구려 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당은 신라의 확실한 응원을 받기 위해 우선 백제 옛 땅의 부흥군을 평정하고 백제 옛 땅에 대한 직접 지배를 추진하였다. 또 고구려와 가까운 백제 옛 땅을 군수물자 공급과 병력을 직접 조련하는 병참기지로 삼음으로써 고구려 원정시 마다 늘 문제가 되었던 보급로를 확보하고 백제 옛 땅에 주둔한 당군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하였다.

### 부여응의 역할

당군이 백제의 옛 땅을 병참기지화하고 신라의 적극적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특히 백제 옛 땅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한 당으로서 동맹국이자 백제 멸망과 백제부흥군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라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당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점령한 백제 옛 땅은 웅진도독부가 있던 웅진성을 제외하고는 662년 7월 신라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탈취한 웅진 동쪽의 지라성과 사비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던 진현성, 663년 가을과 겨울에 함락시킨 주류성과 임존성 정도였다. 신라군은 백제 수도 사비성 주변의 이례성, 왕흥사암성 등을 직접 함락시켜 점령하였고, 백제 남방의 거열성, 거물성, 사평성을 비롯하여 동방의 득안성, 웅진성을 둘러싼 지역인 윤성, 사정책, 대신책, 내사지성 등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백강 입구의 설리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당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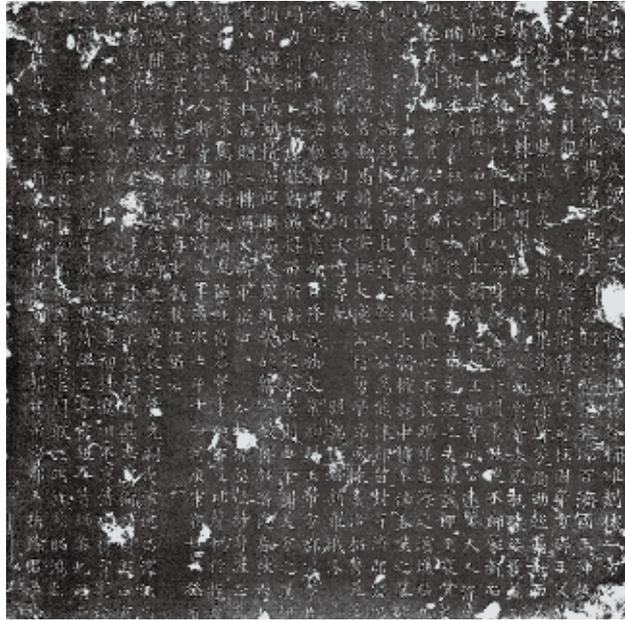


그림 4. 부여옹묘지명

당이 백제 옛 땅에 주둔시킨 병력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4년에 걸친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인사가 거느리고 온 증원군 7천을 합해도 신라군에 비해 턱없이 열세였다. 이 정도의 병력으로는 신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도 없었고, 당의 정예 병력을 백제 영토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신라군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백제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당은 백제의 태자였던 부여용을 내세웠다. 백제 멸망 직후 당에 끌려갔다 죽은 의자왕을 대신해 부여용을 앞세워 백제의 옛 땅을 기미지배하려고 획책함으로써 신라와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 당은 비록 백제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5도독부 체제를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신라에게 백제 옛 땅을 내줄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 당태종은 648년에 김춘추가 청병하러 갔을 때에 분명히 평양 이남의 땅을 모두 신라에게 주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를 모두 평정한 다음에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당

과 신라 모두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의 입장에서는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에게 성급히 내줄 이유가 없었다.

당태종과 신라의 약속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지켜도 틀리지 않는 것이었다. 신라도 당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게 백제 옛 땅을 할양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당이 부여용을 내세워 백제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자 문제는 매우 복잡해졌다.

당은 당군을 대신해 부여용 휘하의 웅진도독부 병력이 백제 옛 땅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는 백제 옛 땅을 점령하고 있던 신라군에게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어렵게 멸망시킨 백제가 다시 당의 지원을 얻어 새로 세력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렇게 되면 신라는 또다시 백제와 국경을 맞대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553년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554년 관산성전투를 시작으로 백제와 국운을 걸고 100년 이상 끌어왔던 전쟁을 겨우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한 신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이 선택한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 전략은 신라와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자연스럽게 백제 옛 땅에서 신라군이 철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당은 백제 옛 땅을 손쉽게 직할영토로 편입하여 고구려 공격의 전초기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웅진도독부를 이용해 신라를 견제하며 제어하기에도 편리한 이점이 있었다. 당은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중국 고유의 전통적 방식인 ‘맹약의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즉 당은 중재자로서 나서서 두 나라를 화해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신라를 백제 땅에서 내몰고자 했던 것이다. 당이 부여용을 귀국시켜 신라와의 맹약을 체결토록 한 것도 바로 명분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부여용을 앞세움으로써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고 있던 신라군이 더 이상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백제유민들을 위무하도록 해 신라에 귀복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

#### 당의 회맹 강요와 신라

당은 우선 백제 옛 땅에 설치한 웅진도독부와 격을 맞추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하

었다. 백제와 신라를 서로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로서 사전에 동등한 객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는 엄존한 국가인 반면에 백제는 이미 멸망한 국가였으므로, 현존하는 신라와 멸망한 백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화해를 중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663년 4월 당은 일방적으로 신라를 당의 기미주로 선포하였다.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백제와 신라를 모두 당의 통치체제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당이 신라에 대한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의 정책에 신라가 노골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다. 당에 맞대결할 만한 국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으로서는 백제 옛 땅을 웅진도독부, 신라 본토는 계림대도독부로 편제함으로써, 두 도독부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당은 백제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였다. 신라 역시 당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터라 당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를 보면 663년에 당군과 신라군이 주류성을 함락시킨 뒤에 다시 힘을 합해 북방의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미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신라군은 10월 21일까지는 당군과 함께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공격을 멈추고 철군하고자 하였다. 이때 당군의 두대부가 당고종의 칙명을 따를 것을 종용하였다.

당고종의 칙명은 백제부흥군을 평정한 다음에 신라와 백제가 서로 회맹하라는 것이었다. 백제와 회맹할 것을 요구한 두대부는 손인사와 함께 웅진도독부에 온 두상杜爽이었다. 두상은 백제부흥군을 평정한 이후에는 신라와 백제가 회맹하라는 당고종의 칙명을 임존성전투 이전에 이미 신라에게 전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칙명에 따라 아직 임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음에도 회맹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부흥군을 완전히 평정한 이후에 회맹하라고 하였는데, 아직 임존성이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회맹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백제는 간사하여 말을 뒤집길 잘하므로 지금 비록 서로 회맹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회맹 추진을 그만둘 것을 청하였다.

신라는 어떻게든 회맹을 피하려고 하였다. 결국 신라가 당고종의 칙명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회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임존성 공격을 멈추고 회군하는 것이었다. 백제부흥군의 북방 거점인 임존성마저 함락시켜야만 백제 옛 땅을 완전히 평정할 수 있었음에도 신라는 계절이 11월로 추운 겨울인데다가 사졸이 피곤하여 싸우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철군하였다.

신라군의 회군으로 임존성의 함락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부여융의 위무와 회유 등으로 흑치상지와 사타상여가 당군에 투항하면서 임존성은 바로 함락되었다. 임존성이 함락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삼국사기』에 용삭 연간(661~663) 임존성의 흑치상지가 유인귀에게 항복해 왔다고 한 것을 보면 신라군이 철군한 11월 4일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였다.

임존성전투에서 신라군이 설리정으로 회군했다가 경주로 귀환한 것은 회맹을 피하기 위한 방도였다.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던 백제부흥군의 근거지인 임존성이 함락되자 백제부흥군을 모두 평정한 뒤에 회맹하라는 당고종의 칙명을 거부할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 때문에 신라로서는 더 이상 당의 회맹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 웅령과 취리산에서의 회맹

결국 신라 문무왕은 664년 2월에 각간 김인문과 이찬 천준으로 하여금 당의 칙사인 유인원이 보는 앞에서 부여융과 회맹을 하게 하였다. 유인원의 중재에 따라 부여융과 김인문, 천준이 참여하여 맺은 회맹은 실상 백강전투와 주류성전투에 참여한 인물들 간의 회맹이라고 볼 수 있다. 663년 11월 임존성 공격에 참여했던 당의 주장인 손인사와 신라와 부여융이 서로 회맹할 것을 강요했던 두상은 이미 당으로 귀환한 뒤였다. 그러므로 웅진도독부에 남아있던 유인원의 중재로 웅령에서 회맹이 이루어진 것이다.

웅령회맹에 유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유인원은 임존성을 함락시킨 663년 11월 중순 이후 손인사, 두상 등과 함께 당으로 돌아가 고종을 알현하였기 때문에 백제로 다시 돌아와 664년 2월에 웅령에서 회맹을 중재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웅령회맹을 중재한 사람은 유인귀로 고쳐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부여융은 당에 가 있었기 때문에 664년 2월에 열린 웅령회맹에 참

여하기는 어려웠고, 664년 12월에 웅진도독부로 귀환해 회맹에 참여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러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부정할 만한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

부여용은 663년 손인사와 함께 귀국해 백강전투와 주류성전투에 연이어 참가했고, 신라와 회맹하기 위해 웅진도독부에 대기하고 있었다. 유인원이 웅령회맹에 참여했는지의 문제도 답설인귀서에 '당고종이 거듭 엄한 칙명을 내려 회맹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라는 웅령에서 회맹하였다.'고 한 기록을 음미해 보면 유인원은 당으로 귀국해 고종을 알현하자마자 다시 백제로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의 입장에서 백제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면 신라의 양보를 얻어 내야 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한 강제 수단이 부여용과의 맹약 체결이었기 때문에 한 시라도 빨리 성사시켜야 할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갔던 유인원은 다시 신라와 부여용이 맹약할 것을 명하는 고종의 칙명을 가지고 웅진도독부로 돌아왔다고 보아야 한다.

부여용과 김인문이 회맹한 장소를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4년 2월 조에는 웅진이라고 하였으나, 문무왕 11년 조의 답설인귀서에는 웅령熊嶺이라고 하였다. 웅진과 웅령 중 어느 곳에서 회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명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대개 웅령에서 회맹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웅령의 현 위치에 대해서는 공주의 공산公山이라는 설과 대전 동쪽의 질현岫이라는 설이 있는 등, 그 위치를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웅진 관할 지역에 있는 웅령에서 회맹한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답설인귀서에서 회맹처인 웅령으로 웅진도독부와 계림대도독부의 경계를 삼았다는 내용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회맹의 가장 큰 목적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맹한 곳인 웅령은 웅진도독부와 신라가 경계로 삼은 지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시 웅진도독부가 위치한 공주의 공산이 웅령이 되기는 어렵다. 웅진도독부가 있던 공주를 국경으로 정하는 것을 당이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웅령은 신라의 중요 군사기지였던 삼년산성과 일모산성(문의)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점인 웅현으로 비정된다. 웅현은 '곰치'라고도 부르는 곳으로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 있다. 웅진도독부의 부여용과 신라가 회맹한 웅령은 백제 멸망기의 신라와 백제의 국경

선이 지나는 곳이었다. 결국 당은 660년 7월 이전의 국경선 밖으로 신라군이 물러서기를 요구한 것이다. 신라로서는 당이 직접 점령하고 있는 곳이 웅진도독부와 극히 한정된 일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획득한 백제 옛 땅을 거의 다 내주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영토획정이었다. 신라 문무왕은 웅령에서의 회맹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무리 당고종의 칙명으로 어쩔 수 없이 맺은 회맹이라지만 너무나 불리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문무왕이 이를 두고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다. 문무왕은 신라 국왕인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웅령회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웅령회맹을 중재한 유인원도 이를 무작정 목살하기 어려웠다.

그 다음 해인 665년 8월에 취리산에서 회맹이 다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취리산회맹이 문무왕과 부여용의 회맹을 공식화하기 위해 당이 강제한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회맹의 가장 큰 목적이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었던 만큼, 웅령회맹에서 불리한 맹약을 체결한 신라가 다시 맹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신라로서는 어렵게 차지한 백제 옛 땅을 순순히 부여용을 앞세운 당에게 내줄 수 없었다. 당도 신라의 요구를 목살할 명분이 충분치 못했기에 신라가 새로이 회맹을 요구하자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맹에 앞서 웅진도독부의 유인원과 신라 문무왕은 웅령회맹의 문제점을 두고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반이라는 조정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당도 웅령회맹에 대한 신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회맹처로 취리산이 선택되었다. 취리산은 공주의 금강 북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취리산에서 회맹했다는 것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취리산으로 확정된 것이다. 신라는 당과의 지리한 협상 끝에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경계를 금강으로 다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660년 백제 멸망 당시의 국경선으로 강역을 확정하려던 당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신라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백제 옛 땅에 대한 영유권을 일부나마 인정받은 것이었다.

취리산회맹은 당과 신라 모두 중국의 전례에 따라 격식을 갖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백마를 죽여 희생을 삼아 피를 나누었고, 회맹문을 작성해 금서철권金書鐵券으로 만들어 종묘에 보관토록 했다. 또 하늘과 땅의 신에 제사를 지내어 맹세하도록

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혼인을 통해 화친할 것도 약속했다. 취리산회맹은 웅령회맹과는 달리 신라의 문무왕이 직접 참여하여 백제를 대표하는 부여융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맹약을 체결하였다.

당은 계림주대도독 김법민과 웅진도독 부여융이 취리산에서 회맹하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고 화친을 도모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여융을 내세워 백제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는 책략을 실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백제 옛 땅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구려 원정의 전초기지로 삼을 준비를 마쳤다.

취리산회맹으로 신라와 웅진도독부의 국경선은 다시 조정되었다. 신라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웅령회맹 때보다는 나아진 조건이었다. 이미 점유하고 있던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권을 당으로부터 공인받았기 때문이다. 당은 신라의 웅진도독부 침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리산회맹으로 당의 백제 옛 땅에 대한 지배는 본격화되었다. 백제 옛 땅을 새로이 웅진도독부와 7주 51현으로 편제해 기미주로 삼음으로써 항구적 지배를 도모했다. 신라는 당의 처사에 불만이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라의 내재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구려 멸망 이후 일어난 대당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김영관)

---

## 참고

## 문헌

김영관, 2005,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문화사.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백제사연구회, 2007,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아디람.

한국고대학회, 2010, 『취리산회맹과 백제』, 헤안.

#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정복

- 1.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고구려의 멸망
- 2.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
- 3. 보덕국의 성립과 해체

## 1.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고구려의 멸망

###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

645년에 당태종의 고구려 공격 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관계와 적대관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방과 북방을 안정시킨 당은 마지막으로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였다. 당은 644년 고구려 원정을 공포한 후 거란, 해, 백제,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정벌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신라 사신 김다수金多逯가 644년 귀국할 때에도 당태종은 국서를 보내어 참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반응이 없자 645년 다시 국서를 보내어 참전을 독려했다. 당시 신라는 642년 고구려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당과의 동맹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645년 4월 당군이 요하를 건너자, 5월 신라는 3만의 군대를 보내어 임진강을 건너 수구성水口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요동에서 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남부전선에서 신라의 공격은 고구려로서도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군이 북진하는 틈을 타서 백제가 신라의 7성을 공격한 까닭에 신라는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회군하여 백제의 침공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당의 출병 요구에 반응이 없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는 최대의 전쟁이었던 645년 전쟁에서 신라는 당의 진영으로, 백제는 고구려의 진영으로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셈이었다. 이 과정은 이후 국제관계가 고구려-백제, 당-신라의 양진영으로 재편되는 데 촉진 작용을 하였다.

당이 고구려 정벌에서 패퇴한 이후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한층 적극화하면서 647년에서 649년에 걸쳐 계속 신라를 공격하였다. 결국 한반도에서 고립된 신라는 648년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의 관복을 요청하고 자신의 아들을 당 조정에서 숙위케 하였으며 독자적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 중화中華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당도 이미 여러 차례의 단독 작전에 의한 고구려 정벌이 실패한 후였기 때문에 신라와 연합 작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백제·고구려 정벌을 위한 나당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다. 이때 양국 사이에는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밀약이 맺어졌다.

신라는 650년 이후 매년 당에 사신을 보내어 양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애를 썼다. 그러나 나당 군사동맹이 결성되었음에도 실제로 당의 군사력이 백제 정벌에 동원되기에는 당시 대외정세가 그리 순탄치 않았다. 650년에는 서돌궐이 당에 반기를 들었으며, 당은 658년에야 철궤(鐵軌)를 이용해 돌궐의 반란을 진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55년에 고구려, 백제, 말갈이 연합하여 신라 북변의 33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위기가 닥쳤다. 신라는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은 여전히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당은 655년부터 659년까지 계속된 공격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 전략을 바꾸었다. 즉 백제 공략을 우선 순위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해서 동원된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공략하여 멸망시켰던 것이다.

이제 나당연합군의 다음 목표로 고구려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료상으로는 고구려가 동맹국인 백제의 멸망 과정에서 전혀 군사적 지원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이 나당 군사동맹과는 질적으로 달랐으리라고 짐작되지만, 한반도 내에서 우방인 백제의 멸망이 고구려의 남부 전선에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리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 공격 당시 나당연합군의 군사 행동을 보면, 6월 18일에 무열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천정에 도착하였으며, 21일에 덕물도에서 법민이 당의 소정방(蘇定方)과 회동하였다. 그리고 7월 10일 날짜로 백제의 사비도성 아래에 집결하였으며, 공격을 시작한지 불과 7일만에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즉 나당연합군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지 1달도 채 못되어 백제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이 나당 군사동맹과는 달리 매우 느슨한 형태의 동맹으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공포되어 있었던 나당 군사동맹에 대응하는 군 동맹 전략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양국 사이에 군사동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제가 너무 빠르게 항복하는 바람에 고구려군이 배후에서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백제를 측면 지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고구려와 백제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 문제의 침공 이래 중원세력의 고구려 침공이 주로 요동지역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에만 생각이 갇혀 있었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전략이었으며, 당군을 백제 공격으로 유도한 신라의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660년에 백제 왕실과 지배층의 항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백제 각 지방의 무력은 온존된 상태였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전개된 백제 부흥운동 때문에 신라군과 당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당군의 최종 목표는 고구려 공격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백제군을 진압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뒤늦게 660년 11월 신라의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해 함락시켰으며, 661년 5월에는 술천성(述川城)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물론 신라군의 상당수가 백제부흥군과의 전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의 남하 작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전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백제 지역에 주둔한 당군이 신라군의 군량 지원을 받으며 한층 용이하게 고구려의 남부 전선을 공격할 수 있었으므로 고구려의 군사행동 역시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660년 백제 멸망 이후 668년 고구려 평양성 함락에 이르기까지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정벌의 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요 사건들의 연표를 만들어보면 <표 1>과 같다.

660년 11월 1일에는 고구려는 칠중성을 침공해 신라 군주 필부(匹夫)를 전사시킬 정도로 공세가 강력하였다. 그럼에도 당군은 한반도 내에서 신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군은 독자적으로 고구려 정벌군을 편성하였다. 660년 11월에 당은 계필하력(契苾何力), 소정방, 유백영(劉伯英), 정명진 등으로 네 길로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 660년 당군의 고구려 정벌 기사에 대해 당시는 단지 정벌군의 편성에 그쳤고 실제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이듬 해인 661년 4월로 보기도 한다.

표 1. 나당연합군과 고구려의 전쟁 연표(660~668)

660	무열왕 7 보장왕 19	7월, 나당연합군의 백제 정벌 11월, 고구려가 신라 칠중성을 공격 11월, 당군의 고구려 침공
661	무열왕 8 보장왕 20	4월, 당군 고구려 침공 준비, 그침 5월, 고구려 뇌음신, 말갈 생해등이 술천성, 북한산성 공격
	문무왕 1 보장왕 20	8월, 당이 신라에게 고구려 공격 요구 8월, 당군 평양성 공격 9월, 압록수전투 10월, 당의 조문사 파견, 당이 평양의 소정방군에 군량 조달 요청
662	문무왕 2 보장왕 21	1월, 당이 문무왕 책봉 2월, 연개소문이 사수전투에서 당군에 승리함 1~2월, 김유신 평양으로 진군하여 당군에 군량 보급, 회군시 고구려군 격파 2월, 당의 소정방군 평양에서 회군
663	문무왕 3	4월, 당이 계림주도독부로 편제 백제 복신 등의 부흥운동
664	문무왕 4	7월, 신라군이 웅진부의 당군과 고구려 돌사성 공격
665	문무왕 5	당, 신라와 백제에 취리산 회맹
666	문무왕 6 보장왕 25	신라가 당에 고구려 정벌 청병 태자 복남 태산 제사 참가 연개소문 사망 6월, 남생 당에 투항 12월, 당의 고구려 공격 고구려 연정토 투항
667	문무왕 7 보장왕 26	7월, 당이 신라에 고구려정벌 요청, 유인원등 신라군을 비열도로 진군 8월, 문무왕 김유신 등 한성정에 주둔 9월, 당군 이적이 고구려 신성 함락 11월, 신라군의 회군
668	문무왕 8 보장왕 27	신라 비열홀주 설치 2월, 당군이 고구려 부여성 함락시킴 6월, 문무왕이 김유신 등 신라군은 고구려 정벌 진군 9월, 평양성 함락

660년 당시 이 정벌군의 진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사가 없어 잘 알기 어렵지만, 그 이전까지 유지하던 전략인 소부대 침공에 의한 장기 소모 전술을 버리고 대규모 군대를 편성해 정벌을 시도한 점은 큰 변화였다. 이러한 대규모 군대의 편성과 이를 통한 평양성 직공 전략은 661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백제 멸망 이후 나당연합군의 공세를 우려하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660년

에 당군이 독자적으로 침공해 오자, 요동지역에서 진공해오는 당군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단 신라에 대해 공세를 펴으로써 한반도 남부 전선을 안정시키려고 시도하였다.

661년 5월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偁)가 신라의 술천성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물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그 전해 11월의 칠중성 공격과 마찬가지로 요동지역에서 당군의 대대적 공세를 막기 위해 후방인 남부전선을 든든히 해두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술천성의 위치를 대개 지금의 여주 일대로 비정하고 있으나, 당시 고구려의 공세가 여주에까지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때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눈길을 끈다. 이는 660년의 칠중성보다는 남하한 위치로서 고구려의 공세가 임진강을 넘어 한강 이북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60년 칠중성의 전투에서 신라 군주 필부의 죽음은 곧 칠중성의 함락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신라는 주력부대를 백제부흥군의 공격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이 빈틈을 노린 고구려의 공격으로 임진강 유역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편 신라 역시 고구려 정벌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비록 사비성과 웅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중앙정부를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백제부흥군의 기세가 강렬해서 오히려 백제부흥군의 반격에 대응하기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어쩌면 당이 독자적으로 고구려 정벌을 추진하는 것이 고마운 지경이었을 것이다. 이미 백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신라와 당은 고구려 공격을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 661년 당의 평양성 공격과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

661년 4월에 당고종은 35만군이라는 대군을 편성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이때 고종은 직접 출정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당시 고종이 친정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대규모 군대를 고구려 정벌에 투입하였음은 틀림없다. 이때 당군의 공격로는 크게 두 길로 나뉜다. 먼저 요동지역에서는 철록 출신인 계필하력(契苾何力)이 진격하여 9월에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때 연개소문은 아들 남생(南生)에게 수만 정에

군을 주어 압록강을 지키게 하였지만, 마침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온 당군의 공격으로 고구려군 3만 명이 몰살당하고 남생이 겨우 빠져나오는 패전을 겪었다.

이보다 이른 8월에는 소정방의 군대가 패강전투에서 고구려군을 깨뜨리고 마읍산(馬逸山)을 차지해 군영을 만들고 이어서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소정방이 거느린 군대가 출정한 곳은 알기 어렵지만, 해로로 대동강을 거쳐 평양으로 직공하였거나 혹은 해로로 한반도 남쪽의 한강유역으로 들어와서 북진하여 평양으로 진격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후자인 경우에는 도중에 고구려군과 전투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데도 사료상으로는 패강전투만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소정방군은 해로로 고구려 수도를 직공하고, 계필하력군은 육로로 평양으로 진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은 660년 백제 공격시에 당군과 신라군이 백제 수도 사비성을 직공한 군사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즉 백제 정벌시 효과를 본 전략을 다시 고구려 평양성 공격에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당은 6월에 당에서 숙위하던 김인문을 신라에 보내 문무왕에게 출병을 요구하였다. 이때 문무왕은 즉위 직후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 고구려 정벌군을 동원하였다. 당시 고구려 원정군에는 장군 24명이 편성되었는데, 1인당 1,500명을 거느릴 경우 이때 동원된 총병력은 약 36,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8월에 문무왕은 대장군 김유신 등과 더불어 부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시이곡정(始飴谷停[김유신전에는 남천주]에 이르렀다. 이때 백제 웅진도독인 유인케도 군대를 거느리고 남천주에서 신라군과 합류하였다. 그런데 웅산성(甕山城[대전시 계족산성]에 웅거하고 있던 백제부흥군 때문에 신라군의 진격이 어려워졌다. 10월 27일에 이들을 진압했지만, 신라군의 진격은 상당히 지체된 셈이다.

이처럼 신라군 등 남쪽에서 진격하는 군대가 제 때에 평양성 공격에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당군의 고구려 정벌 전략은 틀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당군의 전략은 백제정벌전과 마찬가지로 속전속결의 전략이었던 듯하다. 과거 645년 태종의 침공시에도 드러났듯이 요동의 고구려성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쓸 경우에는 쉽사리 평양성까지 진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당은 육로와 해로 양쪽에서 평양으로 직공하고, 남쪽에서는 신라군이 치고 올라오는 전략을 택하였다.

즉 요동 지역을 통과하는 계필하력의 군대와 해로로 평양으로 직공하는 소정방의 군대, 그리고 북상하는 신라군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당시 고종이 직접 출정하려 하였을 때 이를 만류한 이유는 황제가 친정할 경우 이러한 속전속결의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계필하력의 군대 역시 요동에 산재한 고구려 요충성들을 공략하지 않고 압록강으로 직공한 듯하다. 물론 계필하력 군대의 이러한 공격 전략은 사실 매우 위험한 전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요동지역에 배치된 다수의 고구려성을 공략하지 않고 곧바로 진격할 상황에서 요동 곳곳의 성에 배치된 고구려 군대가 본격적으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 후방 보급로나 퇴각로가 끊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 정벌에서 승리를 거둔 당군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모할 수도 있는 평양성을 직공하는 속전속결의 전략을 구사한 듯하다.

9월에 압록강에 도착한 계필하력의 군대는 압록강을 방어하던 남생의 군대를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황제의 명으로 되돌아갔다. 이미 8월에 소정방의 군대가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 압록강전투에서 승리한 계필하력의 군대를 되돌리게 된 이유는 서부 몽골 일대에 있던 철륵이 일으킨 반란 때문이었다. 계필하력은 본래 철륵의 한 무리인 계필부(契苾部) 출신으로 632년에 당나라로 귀순한 인물이었다. 계필하력은 안무대사(安撫大使)가 되어 철륵의 반란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이때 소정방이 거느린 군대는 회군하지 않고 계속 662년 2월까지 평양일대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다. 계필하력의 군대가 회군한 상황에서 소정방 군대가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한 이유는 북진하는 신라군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전략도 차질을 빚고 말았다. 문무왕이 거느린 신라군은 웅산성의 백제부흥군을 격파하였지만,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당의 사신이 왔다는 소식에 10월 29일 회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당시 당고종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 무열왕의 조문을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명목이었을 뿐이고 실은 신라군이 평양성 공격에 합류하지 못한 점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러면 신라군은 실제로 웅산성의 백제부흥군 때문에 평양으로 진격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시 신라군은 문무왕이 직접 출정하였기 때문에 김유신 등이 대장군

으로 참여하는 등 660년 백제 정벌군에 못지않은 대군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세가 백제부흥군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라는 백제부흥군이 백제 지역 도처에서 발흥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신라군을 평양선전투에 투입할 경우, 후방에서 일어난 백제부흥군의 기세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즉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정벌보다 백제부흥군을 제압하여 백제 지역을 온전히 손에 넣는 일이 한층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무왕이 상중 喪中에서도 정벌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당의 출정 요구가 강력하였기 때문에, 일단 문무왕이 직접 북진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제로는 백제부흥군의 핑계를 대고 진격을 중지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아마도 당도 신라의 이러한 전략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기에 태종 무열왕의 조문을 핑계로 사신을 보내어 신라의 소극적 태도를 추궁하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신라본기」에는 다시 당의 함자도 含資道 총관 유덕민 劉德敏이 와서 황제의 명이라고 평양의 소정방 군대에 군량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유덕민이 함자도 총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음을 보면, 당의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사신이라기보다는 평양 일대에 군영을 짓고 있던 소정방군에 참여한 인물로 추정된다. 즉 군량이 떨어져가는 소정방군이 직접 유덕민을 보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신라본기」 기록을 보면 일단 문무왕이 수도로 귀환하고 당의 고종이 보낸 조문사를 접전한 뒤에 유덕민의 기사가 이어진다. 반면 문무왕이 보낸 「답설인귀서」에서는 유덕민이 와서 평양으로 군량 수송을 요청하였고, 문무왕이 유덕민과 함께 웅산성을 함락시키고 웅진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확보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웅산성의 함락 이전에 유덕민이 신라에 온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9월 27일에 웅산성의 백제부흥군을 진압할 무렵 그 이전에 소정방에게 보낸 대감 大監 문천 文泉이 돌아와 소정방이 군량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덕민이 온 시기는 「김유신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감 문천이 돌아온 시점과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평양을 포위한 소정방의 군대는 늦어도 661년 9월경부터 군량 부족이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이럴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소정방군이 회군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해로의 퇴로를 차단당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북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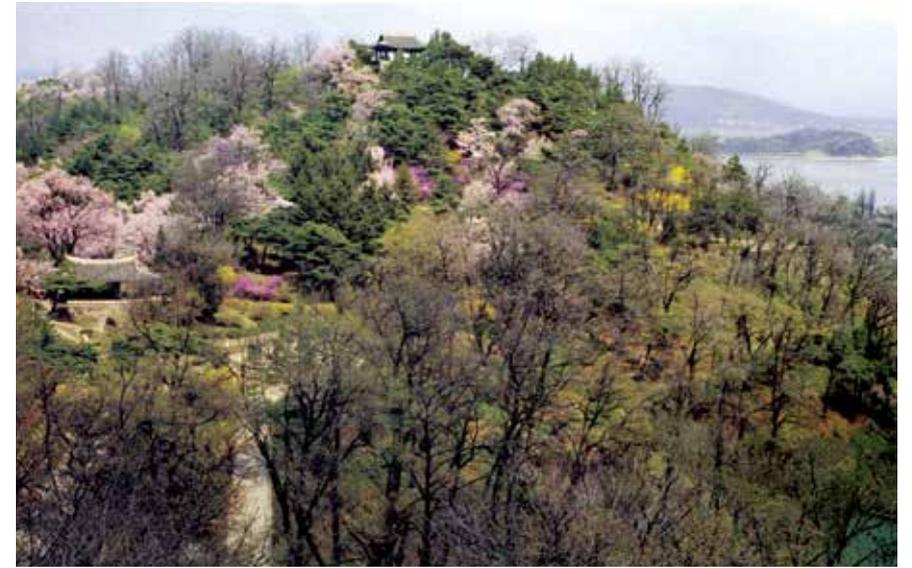


그림 1. 고구려 평양성 ©동북아역사넷

육로군 및 남쪽 신라군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로까지 차단당한 소정방군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662년 2월에는 사수 蛇水 전투에서 방효태가 연개소문의 군대와 격전을 벌이다가 아들 13명 등과 함께 전군이 모두 패물하는 참패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평양 일대의 소정방군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전투였다.

한편 662년 정월에 신라의 객관에 머물고 있던 당의 사신이 문무왕을 '개부의동삼사상주국낙랑군왕신라왕 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에 책봉하였다. 이어서 문무왕은 662년 정월에 김유신에게 김인문 등 아홉 장군과 함께 수레 2천여 대에 쌀 4천 섬과 조 2만 2천여 섬의 군량을 싣고 평양의 소정방군에게 보급할 것을 명하였다.

군량 보급을 요청하는 유덕민이 온 시기가 문무왕이 남천주에 있을 때이며 당의 사신이 신라에 도착한 것이 10월 말이다. 이 한두 달 동안 신라 조정과 당의 사신 사이에는 신라의 군량 보급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무왕은 남천주에 있을 때 유덕민의 요청이 있음에도 군량 보급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차 당 사신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사

실 겨울철 군사 행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이 고구려군이 포진하고 있는 그 남부 전선을 뚫고 평양까지 군량을 보급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당시 소정방군의 군량 지원 요청에 대해 신라 군신들은 “적의 경계 내에 깊숙이 들어가 식량을 수송하는 것은 형편상 이를 수가 없다.”라고 논의하였다.

신라가 군량 보급을 주저하자 당은 책봉을 무기로 신라를 압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양국간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결국 신라의 군량 지원을 전제로 문무왕의 책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직하다.

이때 김유신에 의한 신라군의 군량 수송 작전은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2년조와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에 실려 있다. 이 사료들을 통해 당시 김유신군의 진격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풍수촌風樹村 - 칠중하七重河 - 산양蔘壤 - 이현梨峴 - 장새獐塞 - 양오楊陝  
 ... 과천瓢川 또는 표하瓢河

이 지명들 중 칠중하는 지금의 파주 적성 일대의 입진강으로 비정되며, 장새는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된다. 장새는 667년 10월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시에 신라군이 진격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천과 표하는 동일 지명으로서 지금의 입진강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보면 김유신군은 파주에서 입진강으로 건너 수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큰길에서 지킬 것을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蔘壤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고구려군이 방어하고 있던 일반적 교통로와는 다른 길을 이용한 듯하다. 다만, 그 길을 현재로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한강 이북의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자비령로, 방원령로, 재령로 등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었다. 자비령로는 서울-양주-파주-장단-개성-금천-평산-서흥-황주-평양으로 이어지고, 방원령로는 서울-양주-연천-삭녕-토산-신계-수안-연산-대동-평양으로 이어지며, 재령로는 서울-파주-개성-해주-신원-재령으로 이어진다. 이 길 중 재령로는 예성강과 입진강 하류 지역 등 강폭이 넓은 지역을

도하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편이었다. 자비령로는 고려~조선시대에 대표적 간선로였다. 이 길에는 서흥의 대현산성, 평산의 태백산성 등 고구려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이 축조되어 있다. 반면에 방원령로는 산악지대를 관통하면서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중세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재령강유역을 거치지 않고 입진강유역과 대동강유역을 직접 연결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교통로였다. 따라서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방원령로와 자비령로는 668년에 신라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 주요 진군로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교통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662년 1월에 김유신이 군량을 공급하려 평양으로 진격하면서 선택한 교통로는 황해도 수안에 비정되는 장새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 방원령로(해곡도)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지킬 것을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입진강을 건너 수안에 이르는 길은 일반적 교통로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김유신군은 고구려군과 소규모 충돌을 거듭하면서 산양을 거쳐 장새에 이르렀다. 이 장새는 평양으로부터 3만 6천 보步 떨어진 곳이다. 여기서 김유신은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 등 15인을 소정방군에 보내어 군량 공급을 위해 신라군이 진격 중임을 전달하였고, 5일 뒤에 양오라는 곳에 이르러 군량을 전달하였다.

소정방의 당군은 비록 신라군으로부터 군량을 보급 받았지만, 이미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방효태군이 사수전투에서 패물한 직후였기 때문에 당군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유신이 거느린 신라군 역시 애초에 군량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부대이기 때문에 평양성 포위 공격을 계속할 전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에 소정방은 부랴부랴 서둘러 당으로 돌아갔다.

당군이 평양성 포위를 풀고 퇴각한 상황에서, 고구려 영역 내로 깊숙이 진공한 김유신의 부대 역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받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김유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회군하였으며, 이를 뒤쫓는 고구려군을 입진강 일대에서 격파하였다. 이렇게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군량 수송 작전이야말로 전략과 전술에 탁월한 김유신의 능력을 잘 보여 주는 장면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61년에서 662년 2월에 걸친 당의 평양성 포위 공격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당의 고구려 공격 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첫째, 해로로 평양성을 직공하는 작전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이와 함께 육군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동지역을 경유하여 압록강을 넘어 남하하는 육군의 진공 역시 배후에 요동지역에 산재한 고구려의 요충성들을 그대로 지나칠 경우 보급로와 퇴로가 끊길 가능성이 큰 위험한 전략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부전선에서 신라군의 진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로로 평양성을 직공할 경우에도 장기간 포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퇴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항존하는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의 평양성 포위 공격이 어렵다. 따라서 남쪽에서의 신라군의 공격은 고구려군의 방어 전력을 남부전선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 이외에도 신라군의 군량 보급을 통해 평양성에 대한 장기간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신라군의 지원이 없는 당군의 독자적 공격만으로 고구려 공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신라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백제부흥군을 먼저 제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662년에서 663년에 걸쳐 신라와 당은 백제 지역의 부흥군을 진압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은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664년 7월에는 김인문, 품일, 군관, 문영 등이 이끄는 신라군이 일선주-善州와 한산주-漢山州 2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부성의 당군과 함께 고구려 돌사성-突沙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돌사성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이 시기 고구려와 전선을 이룬 신라의 북변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돌사성 공격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60년 11월에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661년 5월에는 술천성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술천성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칠중성은 현재의 파주 칠중성으로 비정되며, 북한산성은 서울 북한산 일대이다. 따라서 신라군이 백제와의 전쟁에 주력하는 동안 대략 임진강 일대에서 신라와 고

구려의 전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전인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638년에는 칠중성을 공격한 사례로 보아 660년대에 신라군과 고구려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이 경계선은 아마도 6세기 중엽 이래 거의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661년 12월에 김유신 등 신라군이 평양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소정방의 당군에 군량을 공급하기 위해 진군할 때에도 칠중하(임진강)를 건너 바로 고구려군과 격돌하였고, 장새(지금의 수안)에서 후퇴할 때에도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아 임진강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치렀던 것이다. 따라서 664년 7월 신라군과 웅진부성 당군의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돌사성 공격은 아마도 임진강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고구려의 남부전선을 돌파하는 작전으로 추정된다. 즉 돌사성의 위치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어느 전략적 요충지로 추정할 수 있겠다.

###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고구려

666년 4월 신라는 마지막 백제부흥군의 명맥을 끊고 백제 영토를 거의 장악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당에 연합작전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고구려 국내에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666년 6월에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맏아들 남생이 그 뒤를 이어 태막리지에 올라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사망하기 전부터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남생 형제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연개소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화해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유언하였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정권을 물려받은 남생은 666년에 지방 순행길에 나섰는데 아마도 이는 지방의 반대세력을 회유하는 한편 자신의 새로운 세력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생 남건·남산이 남생의 지방 순행을 틈타 반기를 들어 남생을 쫓아내고 남건이 막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동생들에게 쫓겨난 남생은 국내성을 근거지로 삼아 고구려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켰고, 대형 염유와 아들 헌성-獻誠을 거둬 당에 보내 항복할 의사를 전하였다. 당은 처음에는 남생의 투항이 계략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그러나 남생의 항복이 진심임을 알고 6월에 계필하력을 보내어 남생을 구원하게 한 후 방동선-龐同善, 고간-高侃, 설인귀-薛仁貴, 이근행-李謹行 등으로

그 뒤를 후원하게 하였다. 9월에 방동선이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천남생 무리와 비로소 연결하였다.

남생의 투항은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668년 2월 시어사侍御史 가언충賁言忠은 요동 원정군에 대한 군량 보급과 전황 파악을 위해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고종에게 당의 필승을 보고하였는데, 그때 남생이 향도로 참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점을 들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최고 집권자였던 남생이 당에 투항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淵淨土가 666년 12월에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이에 신라는 그중 8성에 군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이 12성은 비열홀 등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부 일대 지역이었다. 아마도 12성 중에서 4성은 단지 주민들이 내려온 지역이었을 것이다. 나머지 8성은 신라가 영역을 확보한 결과가 되었다. 즉 568년에 비열홀주比列忽州를 폐지하고 후퇴한 이래 다시 비열홀 지역이 신라 영토화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668년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문龍文을 총관으로 삼았다.

남생이 당으로 투항하고 연정토가 신라로 귀부하는 등 고구려 최고 지배층이 분열하자 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666년 12월에 고종이 이적李勣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고구려 정벌군을 편성하였고, 하북 여러 주에서 요동으로 군량을 공급하게 하였다. 당이 대대적인 고구려 정벌의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666년 6월 남생이 당에 투항한 시점부터 668년 평양성이 함락될 때까지 전개된 전황이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 당의 고구려 공격 과정을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667년 2월에 이적이 지휘하는 당군은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그리고 먼저 신성新城을 공략하였다. 이는 남생이 국내성 등을 들어 항복하였기에 이와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요동에서 국내성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신성을 거쳐야만 하였기에 신성 공격을 서둘렀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군은 요동 일대에 15만 이상의 군사를 배치하였고, 신성의 배후인 남소성에는 말갈군 수만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당군의 신성 공격은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군은 신성의 배후 성곽

을 차례로 공격하였다. 계필하력은 남소성의 말갈군을 격파하여 참수자가 만여 급에 이르렀으며, 승세를 틈타 7성을 함락시켰다. 한편 방동선과 고간이 신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이 습격하자 설인귀가 이를 공격하여 깨뜨렸다. 곧이어 고간이 출정하여 금산金山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하였지만 설인귀가 고구려군의 측면을 공격하여 5만여 명을 죽이고, 계속 진격하여 남소성·목저성·창암성의 3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결국 국내성의 연남생 군사와 만나게 되었다.

신성의 배후에 있는 지역이 차례로 당군의 손에 들어가자 고립된 신성을 지키는 민심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신성은 수 양제와 당태종의 침입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이었다. 그러나 9월에 성안 사람 사부구師夫仇 등이 성주를 묶어 항복하면서 쉽게 당군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신성이 무너지자, 인근에 있는 16성이 모두 당군에 함락되었다.

물론 당군이 신성 공격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적의 부장인 학치준郝處俊은 안시성을 공격하여 고구려군 3만명을 패배시켰다. 그리고 광대봉郭待封이 거느린 수군은 바닷길로 평양으로 직공하였다. 이렇게 당군이 본격적으로 평양으로 진격해오자, 연남건은 압록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군사를 배치해 당군의 도하를 막았다.

한편 당은 이적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평양으로 진공할 가능성이 커지자, 7월에 신라에게 고구려 정벌군의 출정 및 평양으로의 군량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8월에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9월에 한성정漢城亭에 도착하여 이적 군의 진공을 기다렸다. 10월 2일에 이적은 평양성 북쪽 200리 되는 곳에 도착해 신라의 대나마 강심江深을 보내어 신라군의 출정을 독려하였다. 이에 신라군은 북진하여 11월 11일에 장새障塞에 이르렀으나, 당군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되돌렸다. 한편 문무왕이 보낸 「답설인귀서」에 의하면 이때 신라군은 한성에서 북진하여 고구려 칠중성을 공격하다가, 이적이 보낸 사신의 재촉으로 수곡성까지 이르렀다가 회군하였다고 한다.

당시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진공한 것은 고구려 남부 전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전략은 아니었다. 즉 668년 평양성 공격 시에 비로소 고구려의 대국성(평산), 한성(신

원) 등 2군 12성이 항복한 것을 보면, 667년까지 신라군은 겨우 수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만을 확보하였을 뿐이며, 아직 황해도 서쪽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668년 정월 당군은 다시 대규모 정벌군을 일으켰다. 요동으로 진격하는 당군은 이적이 총지휘하였다. 그리고 당고종은 유인궤(劉仁軌)를 요동도 부대총관, 학처준과 김인문을 부장으로 삼아 신라군을 동원해 평양성 공격을 담당하게 하였다.

전해인 667년에 이미 신성과 국내성을 장악한 이적의 당군은 고구려의 북쪽 거점인 부여성 공격을 시도하였다. 2월에 이적과 설인궤 등이 부여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부여성이 함락되자 그 일대의 40여 성이 모두 항복을 청하였다. 고구려 중앙 정부는 부여성을 구하려고 군사 5만 명을 보냈지만 설하수(薛賀水) 전투에서 당군에게 3만여 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였다. 이적이 거느린 당군은 대행성(大行城)으로 진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압록강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다른 길로 나왔던 당군이 모두 이적의 군대와 연합하여 압록궤(溟鰲)에 이르렀다. 압록강을 방어하기 위해 고구려군은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이적의 당군은 200여 리를 진격하여 고구려의 육이성(辱夷城)을 함락시켰다.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평양성은 당군의 공세에 바로 노출되고 말았다. 계필하력은 50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먼저 평양성에 이르렀고, 뒤이어 이적의 군대가 도착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평양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공방전을 거듭하며 한달이 경과하였다.

한편 6월 12일 당의 유인궤가 당항진(党項津)에 도착하여 신라군과 고구려 정벌을 의논하고 군사 동원 기일을 약속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정벌군을 편성하였다. 22일에는 웅진부성 유인원이 고구려의 대곡성과 한성 등 2군 12성이 항복해왔음을 알렸다. 이러한 남부전선의 전면적 붕괴로 신라군은 별 다른 저항없이 평양성까지 진군할 수 있었다. 북진하는 신라군이 고구려군과 조우하여 전면전을 벌인 최초의 전투가 평양 근처 사수였음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6월 27일에 문무왕이 대군을 이끌고 서라벌을 출발하여 한성에 이르렀다. 신라군의 선발대를 이끌고 있던 김인문 등은 이적 군대와 함께 영류산(嬰留山) 아래까지 진군하였다. 7월 16일에 문무왕이 한성에 이르러 머무르면서 신라군을 대거 북진시

켰다. 평양에 도착한 신라군은 당군과 평양을 포위하였다. 신라군은 평양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평양성을 함락시킨 뒤 그해 10월 22일 문무왕이 평양성전투에 참여한 관료들을 포상하는 상황을 보면, 사천 싸움을 비롯하여 평양성 대문에서의 싸움, 평양 군영 싸움, 평양성 북문 싸움, 평양 남교(南橋) 전투, 평양소성(平壤小城) 전투 등 평양성 전역에서 신라군이 투입되어 전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9월 21일 신라와 당의 군대는 평양을 에워쌌다. 고구려 보장왕은 연남산을 보내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흰 기를 들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였다. 그러나 연남군은 성문을 닫고 항거하여 지키면서 자주 군사를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연남군은 군사의 일을 승려 신성(信誠)에게 맡겼는데, 그는 몰래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하기를 청하였다. 5일이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결국 평양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 무렵 문무왕 역시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다가 힐차양(訶次壤)에 이르렀는데, 이미 고구려 평양성이 무너지고 당군이 철군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성으로 발길을 되돌렸다. 11월 5일 문무왕은 포로로 잡은 고구려인 7천 명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왔다.

## 2.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

나당연합군의 결성 이후 660년 백제 멸망과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동은 결국 신라의 존립을 둘러싼 나당전쟁으로 이어졌다. 나당연합군은 이미 내부에 균열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당은 백제 멸망 후 노골적 점령의도를 드러냈다. 백제고지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나아가 663년에는 신라를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로 하고 신라왕을 계림주대도독에 임명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신라마저 복속시킨 모양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664년과 665년에 신라 문무왕으로 하여금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와 동맹을 맺고 상호 침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고, 이후 백제 지역에서 신라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다만, 아직 고구려 정벌이란 공동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지라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668년 고구려 멸망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백제 지역 장악을 둘러싸고 신라와 당의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670년에 나당전쟁이 시작되었다.

670년부터 본격화된 나당전쟁의 중심축은 신라와 당이지만, 이 시기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신라의 우익으로 활동하였다. 물론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목표는 고구려 왕조의 부흥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군의 축출이 우선되어야 했다. 따라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는 당군의 축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와 지원이 지속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대당전쟁을 함께 고려해 676년 나당전쟁이 종식될 때까지의 전개 양상을 보면 대략 다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고구려 멸망 이후 669~671년으로, 고구려 유민들의 대당 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이다. 이때 신라는 670년 이래 백제 지역에서 당의 공세를 물리치며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었다. 제2기는 672~673년으로, 백제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당이 요동으로부터 한반도 서북부지역으로 침공하였고, 이에 대해 고구려 유민과 신라의 연합군이 당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은 세력이 약화되어 결국 신라로 내투하였다. 제3기는 674~676년으로, 신라가 단독으로 당과의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결국 최종적 승리를 얻어 나당전쟁을 마무리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개 과정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및 고구려 유민의 존재 방식이 규정되었다.

### 고구려 부흥을 외친 한성 고구려국

제1기에 벌어진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자.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당은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669년 4월에 유력자를 중심으로 3만 8천 3백호라는 대규모 주민을 당의 내지로 옮기는 강경책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책과 관련하여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가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겨졌다. 즉 669년에 안동도호부였던 설인귀가 평양에 있지 않고 요동의 신성에서 670년 4월 토번 원정에 종군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또 설인귀와 함께 평양 통치를 맡았던 유인케 역시 669년에 안동도호부에 주둔했던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안동도호부

의 통치를 맡았던 설인귀와 유인케가 이미 669년에 요동으로 철수한 것은 그해 4~5월경 고구려 유민에 대한 대규모 사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처럼 고구려 주민이 대규모로 사민되고, 아울러 안동도호부 및 군사력이 요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평양 지역은 일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670년 3월에 신라의 사찬 설오유(薛烏儒)와 고구려의 태대형 고연무(高延武)가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당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각기 정예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지금의 봉성 봉황성)에 이르렀고, 4월 4일에 말갈 군사를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뒤이어 당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자 압록강 하구의 박작성(泊沔城)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이렇게 설오유와 고연무가 각기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당군과 충돌한 것은 당의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옮겨진 이후 당시 평양 일대가 군사적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전투가 주목되는 이유는 고연무가 거느린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 설오유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벌인 점 때문이다. 고연무는 태대형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후일 안승(安勝)이 한성(漢城)에서 고구려국을 세웠을 때나 보덕국 단계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 멸망기 무렵인지는 확실치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고연무는 고구려 말기에 가장 유력한 군사지휘관이었음을 뜻하고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구려 부흥군을 이끄는 최고의 지위이기 때문에, 고구려 멸망기에 이미 고연무는 유력한 군사지휘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고연무가 거느린 1만 정병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 한성을 기반으로 하는 무력기반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후일 안승과 검모잠(劍牟岑)이 고구려국을 세운 기반이 한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는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 멸망 후 2년 가까운 시일이 지난 뒤이고, 또 당이 평양 일대의 유력한 고구려 주민들을 대거 당의 내지로 사민한 뒤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연무가 거느린 1만 정병은 당의 사민에 반발해 이탈한 고구려 병력을 수습해서 새로 구성된 부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고연무와 군사행동을 함께 한 신라의 사찬 설오유가 거느린 1만 정병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 당시 신라군 지휘관이 대부분 진골귀족임에 반하여 사찬 설오

유가 진골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거느린 부대가 신라 정규군이 아니라 신라에 포로가 된 고구려 군사를 재편성한 부대로 볼 수 있겠다. 이때는 아직 신라가 본격적으로 대당 선전포고를 하기 전이며, 또 압록강을 건너 고연무의 고구려군사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할 점은 고연무와 설오유가 거느린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군사활동을 전개할 때, 이 부대의 후방 보급과 지원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이다. 설오유가 거느린 1만 부대는 신라 장군이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대의 구성원이 비록 고구려 포로로 구성된 군대라고 하더라도 후방 지원은 신라군이 맡고 있었을 것이다.

고연무가 거느린 1만 정병의 경우 이 부대를 뒷받침할 어떤 세력기반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아직 한성에서 고구려국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세력기반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평양 일대의 주민은 당의 사민으로 인해 거의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연무 등의 군사 활동이 단기간은 아니라 최소한 2달 이상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그것도 겨울철의 군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후방 지원이 없으면 결코 수행될 수 없는 전투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연무가 거느린 부대 역시 신라군의 적극적 군량 보급 등 후방 지원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이때 고연무와 설오유가 오골성으로 진공하여 벌인 전투는 신라군의 적극적 지원 아래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대당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신라는 곧 전개될 대당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미 고구려의 잔여 병력이나 포로들을 재편성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요동에서 한반도 내로 당군이 진공해오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 오골성전투는 신라의 장기적 대당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671년 7월에는 안시성 일대에서 고구려 유민에 의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는 등 고구려 영토 곳곳에서 당군 축출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 중에서도 검모잠이 한성(漢城, 지금의 재령)에서 고구려국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검모잠의 거병과 한성 고구려국 재건도 평양 지역

이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한층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라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699년 안승의 신라 투항은 당시 안동도호부를 통해 고구려를 지배하고 있던 당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신라에 무언가의 기대를 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또 670년에 고구려의 재건을 꾀한 검모잠도 신라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 당의 동맹국이었던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추진하는 안승집단의 내투를 받아들이고 검모잠을 후원하였으며 안승을 고구려왕에 책봉한 것은 당군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 지역에서 당군과의 대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의 지배에 저항하는 안승이나 검모잠이 한편으로 신라의 지원을 기대한 것은 이 고구려 유민들도 이미 당과 신라 사이에 흐르고 있던 균열과 대립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한성에서 고구려 유민에 의해 고구려국이 등장하게 된 것은 670년부터 본격화되는 나당전쟁이라는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안승과 검모잠으로 대표되는 한성에서의 고구려국 성립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부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성 고구려국의 등장 과정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여러 계통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한성에서 고구려국이 등장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69년 2월에 안승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② 이듬해 670년 6월에 수림성(水臨城) 출신 대형(大兄) 벼슬을 하던 검모잠이 유민들을 모아 대동강 남쪽에서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남하하다가, 당시 서해 사야도(史冶島)에 머물러 있던 안승을 왕으로 받들어 한성(漢城)에서 다시 고구려의 재건을 꾀하였다. ③ 이때 검모잠 등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지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7월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④ 이후 신라는 이 고구려 유민들을 옛 백제 지역인 금마저(金馬漚, 지금의 익산)로 옮겼다. ⑤ 674년에는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봉하였다.

안승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한성에서 고구려국이 재건되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669년에 안승이 이끌고 온 4천여 호 주민집단의 성격은 고구려 멸망 이전인 666년 신라에 귀부한 연정토가 이끈 주민집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시 연정토는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



그림 2. 신라의 대당전쟁도

하였다. 이때 신라는 연정토와 그의 부하 24명은 수도 및 주부(州府)에 안주시키고, 12성 중 8성에는 군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즉 연정토가 이끈 12성 중 적어도 8성은 주민이 이동해온 것이 아니라 그 영역과 주민이 그대로 신라의 영역내로 편제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투항의 형태로는 또 다른 예가 있다. 평양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668년 6월에 고구려의 대곡성과 한성 등 2군(郡) 12성이 당의 웅진부에 항복하였는데, 이 역시 주민의 이주가 아니라 영역의 귀부한 형태였다.

그런데 안승이 이끈 4천여호의 투항은 이러한 영역의 귀부가 아니었다. 앞에서 든 두 예는 모두 당시 영역지배의 단위인 성 단위의 투항임에 반해 안승이 이끈 주민집단은 단순히 4천여호라는 가호 수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안승 집단은 안동도호부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고구려 유민집단의 이동이었다.

그러면 신라는 이 대규모 고구려 유민집단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신라는 670년 6월에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받들어 한성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한 이후에 백제 영역인 금마저로 안치시켰다. 그렇다면 안승 등 4천여 호 유민집단은 699년 2월의 투항 이후 적어도 1년 여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금마저로 안치된 셈이 된다.

적지 않은 규모의 이주민 집단이라는 점에서, 또 그들의 금마저 이주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안승 등 4천여 호라는 대규모 주민집단의 투항 기사에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안승이 서해 사야도에 머물다가 검모잠을 따라 한성으로 가서 고구려왕에 오르는 과정을 고려하면, 4천여 호가 이러한 안승의 행적과 함께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669년에는 안승이 홀로 신라에 내항하였을 것이며, 안승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한 시기는 고구려국 부흥운동이 당군의 공격으로 실패하고, 검모잠을 살해한 안승이 신라로 재차 투항할 때로 추정된다. 이때 신라는 안승과 4천여 호를 곧바로 금마저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안승과 4천여 주민이 신라로 투항한 시점에 대해 『자치통감』과 『신당서』 고려전 등 중국측 자료에서는 670년에 고간(高侃)과 이근행(李謹行)이 거느린 당군이 검모잠 세력을 공격하자 그 과정에서 안승은 검모잠을 죽이고 다시 신라로 투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670년의 정황을 고려할 때 당시 당군이 검모잠 등 한성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은 669년에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이치하였다. 그 공백을 이용하여 검모잠의 부흥운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아가 요동지역에서도 여전히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671년 7월에는 안시성에서 고간의 당군과 고구려 유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세를 고려하면 당시 당군의 한반도내로의 진공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671년(문무왕 11) 9월에 당의 고간 등이 변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에 도착하여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았으며, 대방(帶方)을 침입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중국측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신라본기에만 전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체로 이듬해인 672년 7월에 고간과 이근행이 평양에 주둔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와 동일한 기사로 간주되어 왔다.

위 기사에서 대방을 침입하였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대방은 곧 검모잠 등이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삼은 한성이 위치한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후 신라군, 고구려 유민군이 당군과 충돌한 지역도 주로 황해도 일대, 즉 대방지역이지만 위 기사는 대방지역에 대한 당군의 공세를 보여 주는 첫 기사라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측 사료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정벌하라는 당고종의 조칙은 670년에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요동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군이 한반도로 진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고간이 거느린 당군이 실제로 한반도에 나타나 검모잠의 고구려부흥군을 공격한 시기는 670년이 아니라 671년 9월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고간의 군사행동이 같은 해 7월 안시성에서 고구려 유민을 격파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요동지역 고구려 유민의 활동이 제압된 이후에야 한반도내에서 당군의 군사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71년 7월 26일에 당의 장군 설인귀가 신라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 고간과 이근행 군대의 한반도 진공을 운운하며 문무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서도 당군의 한반도 진공은 671년 이후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후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한 시점 역시 당군의 공격이 있던 671년 9월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성 고구려국의 존립 기간은 최소한 670년 6월 이후 671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은 안승의 투항 시점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당서』 등 당시 당의 기록에 나타나는 분위기로 볼 때,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당은 자못 우려를 갖고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요동지역에서의 고구려 유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중국 사서에서 유독 검모잠에 대해 뚜렷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당시 검모잠의 활동은 당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도 한성 고구려국의 활동은 결코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고구려국의 재건을 도모함으로써 주변국에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이 한성 고구려국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신라의 대당 전략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670년 7월경부터 신라와 당은 백제부흥군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고 마침내 본격적 나당전쟁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이는 670년 7월에 등장한 한성의 고구려국을 의식한 신라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성 고구려국의 등장 직후 신라는 670년 7월에 대아찬 유돈을 웅진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웅진도독부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마(司馬) 예군(裨軍)을 보내 신라의 사정을 정탐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라는 예군을 잡아가두고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의 90여 성을 함락시켰다. 10월에는 신라가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공격하여 웅진도독부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특히 백제 지역에서 벌어진 신라와 당의 직접 충돌은 671년에 집중되어 있다. 1월에 서해의 옹포(蘆浦)를 지켜 길목을 차단한 신라는 6월에는 백제 가림성(加林城)의 벼를 밟아 당의 군량 공급에 타격을 주었으며, 10월에는 금강 하구에서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격파하였다. 백제 웅진도독부에 대한 신라의 포위망은 점차 좁혀들고 있었으며, 당 본국의 구원이 없으면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본국 원정군의 해상 루트가 차단당한 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전개된 고구려 유민의 활동으로 육로를 통한 당군의 군사행동이 불가능해진 결과이기도 해서, 애초에 신라가 한성 고구려국을 지원할

때 의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671년 11월에는 웅진도독 곽무중이 일본으로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라는 671년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여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와 같이 671년 신라의 공세에 따라 웅진도독부가 위기에 처했음도 불구하고, 당이 해상 원정에만 주력하고 요동으로부터 적절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한성 고구려국이 중심이 된 고구려 부흥운동세력이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서 당군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는 이 기간 동안 북변의 위협에서 일단 벗어나 백제고지에서 당군에 대한 공세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듬해 672년 정월과 2월에도 백제 고성성吉省城과 가림성을 공격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잔여세력에 대한 마지막 공격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 당과 치러야 할 전쟁의 주무대는 자연스레 한반도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터였다. 신라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672년에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비정되는 주장성書長城을 축조하여 그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한성 고구려국 재건 활동을 적극 지원한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안승 세력이 당군에게 패퇴함에 따라 이들을 금마저로 이치한 뒤에도 여전히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장해주고 있었으며, 또 후술하듯이 보덕국의 대일본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당군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으로만 한성 고구려국을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여기서 몇가지 점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국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라왕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당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를 지배하고, 나아가 신라마저 계림도독부로 지위를 격하시킨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신라왕이 타국에 대해 책봉의 형식을 취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당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안승 등 고구려 유민집단을 금마저로 옮긴 뒤에도 신라가 보덕국의 대일본 외교활동을 지원한 데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 바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대외적으로 신라왕의 도덕적 명분을 높이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안

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는 책봉문에서 안승의 곤란함을 도와주는 신라왕의 입장을 강조한 부분에서 그러한 면을 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라가 안승의 고구려국에 기대한 측면이나 그들을 이용하려는 의도 역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어찌 되었든 신라는 신라대로 자신의 목적을 갖고 안승을 지원하였고, 고구려 유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해 신라의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한성 고구려국은 형식상으로나마 고구려 계승국로서의 위상을 갖고 부흥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고구려 유민과 신라군이 함께 한 당과의 전쟁

672년~673년[제2기]에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과 신라의 연합군이 당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르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0년 안동도호부의 요동지역 이치로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당은 671년 7월 안시성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격파하고 요동 일대의 통제력을 확보한 후, 9월에 한반도로의 진공을 시도하였다. 이때 고간 등이 거느린 당군의 평양 진공과 대방지역에 대한 공세는 6월에 고구려 재건을 외친 한성 고구려국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671년 9월에 고간 등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으로 진주해와 대방지역, 즉 한성 고구려국에 대해 공세를 취하였는데,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듬해 672년 8월 고간이 거느린 한병 1만과 이근행이 거느린 말갈병 3만 군사는 다시 평양지역으로 진공해 와서 군영을 짓고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한성의 고구려국에는 내부 분열에 의해 위기가 다가왔다. 안승과 검모잠이 서로 불신하면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에 투항한 것이다. 안승과 검모잠 사이의 불화의 원인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뒤에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당군의 공격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주민을 거느리고 한성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안승의 신라 투항은 검모잠을 살해한 때문이 아니라 당군의 공세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성을 거점으로 하는 고구려부흥군은 672년 8월 당군의 공세에도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계속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즉 상당수의 고구려부흥군이 672년 8월 무렵까지 한성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승과 4천여 호의 투항은 내부 분열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성 고구려국을 구성하는 고구려 주민집단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승과 주민집단이 신라에 투항한 시기는 671년 9월 당군 고간의 공세가 이루어진 시점이거나 혹은 672년 8월 당군의 공세 때일 것이다. 신라는 안승이 거느린 4천여 호라는 대규모 유민 집단을 곧바로 구백제의 금마저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671년 9월 무렵은 백제의 고지에서 신라가 당군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면서 아직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때문에, 고구려 유민집단을 금마저로 이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672년 8월 당군의 공세 때에 안승과 4천 여호 주민집단이 신라에 투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안승과 주민집단의 남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식이었다. 당군의 공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 부대만 남고 일반 주민 집단은 신라 투항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672년 이후 당군과 직접 전쟁을 벌인 주체는 아마도 670년 3월 신라군과 합동으로 압록강 이북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한 고연무가 거느린 1만 정병이라는 군사력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고연무 등이 거느린 1만의 군사력은 안승의 주민집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설오유가 거느린 고구려군 포로로 구성된 1만 정병도 한성 고구려국의 성립 이후에는 여기에 합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한성 고구려국은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태대형 고연무가 이 군사력을 지휘하면서 671년 이래 673년까지 당군의 공세에 저항을 하고 있었고, 673년 5월의 패배 이후에는 신라로 내투하여 금마저의 보덕국에 합류하였다.

672년 8월 이후 비록 전략상의 후퇴라고 하더라도 안승 등 한성 고구려국의 주요 중심점이 신라로 투항하였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당군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졌다. 고간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 인근의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함락시킨 후 계속 남하하여 황해도 석문石門 지역에서 신라의 주력군을 격파했다.

이어 12월에는 고간의 당군이 고구려 유민들을 백수산白水山(천산泉山)에서 격

파한 뒤 이를 구원하는 신라군마저 패배시켰다. 차츰 당군에 밀리던 고구려 유민들은 마침내 673년 5월에 이근행이 거느린 말갈군과 호로하靺鞨河(지금의 임진강)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으며, 마지막 거점이었던 우참성牛峯城·대양성大楊城·동자성童子城을 차례로 빼앗겼다. 당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근거지를 잃은 고구려 부대는 결국 신라로 남하하였다. 670년 검모잠의 고구려국 재건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고구려유민의 대당 항쟁이 종식된 것이다. 신라본기는 이때 당군과 벌인 전투의 중심을 신라군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측 기록은 고구려유민을 전쟁의 주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672~673년 당시 당군과 벌인 전쟁의 중심은 고구려 유민들이었을 것이다.

이후 고구려 유민들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신라는 거의 단독으로 당군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구려 유민들의 남하로 674년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이 일시적 평온을 되찾자, 당은 요동으로 옮겨갔던 안동도호부를 이 무렵 재차 평양 일대에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라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취하였다. 675년 2월에 유인계는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9월에 설인귀는 천성泉城(백수성白水城)을 공격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신라군의 결정적 승리는 이근행의 20만 군대를 매초성買城 전투에서 대패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676년 11월 설인귀가 거느린 수군마저 기벌포伎伐浦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당은 더 이상 신라에 대한 공격을 벌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안동도호부는 676년에 다시 요동으로 축출되었다.

### 3. 보덕국의 성립과 해체

674년 9월에 신라 문무왕은 안승을 '보덕국왕報德國王'으로 책봉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계승성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보덕報德'이라는 이름에서 간취되듯이 신라에 대한 복속성을 강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674년 이후 신라가 단독으로 당과 전쟁을 수

행하면서 더 이상 고구려 유민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보덕국에 대해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한 의도가 깔려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 고구려국의 등장은 고구려 재건을 꿈꾼 유민들의 항쟁과 당과 전쟁을 수행해야 한 신라의 전략 방향이 일치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물렸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약자의 이해관계는 강자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게 마련이었다. 신라에 몸을 의탁한 보덕국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덕국의 실상은 고구려 유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라가 취한 대고구려 유민 정책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672년 8월 이후 한성의 고구려국이 당군의 공세에 밀리면서 신라로 투항한 안승과 4천여 호는 금마저로 이치되어 보덕국을 이루었다. 이 4천여 호 고구려 유민 집단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안승과 검모잠이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던 한성은 고구려 후기에 3경<sup>京</sup>의 하나로 5세기 이래 정치적 중심지의 하나이며, 지방통치의 핵심지역으로 기능한 곳이다. 나아가 부도<sup>副都</sup>로서의 한성은 고구려 지배층의 거주지로서, 행정적 편제도 수도 평양성과 마찬가지로 5부<sup>部</sup>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한성의 주민들은 상당수가 고구려 지배층에 속하는 존재들이었다.

고구려 멸망 후 669년 4월에 당에 의해 이루어진 대대적 사민의 주 대상은 아무래도 평양성 주민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민의 피해를 적게 입었을 한성의 주민들이 이후 고구려 재건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한성의 주민들에 일부 평양성 등지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합류함으로써 한성에서 고구려국을 재건하는 기반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처럼 금마저로 이주한 4천여 호 고구려 유민집단의 구성원은 고구려의 정치적 중심지의 주민들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주지에서도 고구려국이라는 이름 아래 독자적 국가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안승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집단을 구고구려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백제 지역인 금마저(지금의 익산)로 옮긴 배경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세를 보면 672~673년에 걸쳐 신라는 고구려유민과 연합하여 당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신라가 안승과 4천여 호에 이르는 대규모 유민집

단을 금마저로 옮긴 데는 대당전쟁에서 이들의 군사적 지원을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안승 집단이 내투할 무렵은 신라가 이미 백제 지역에서 승세를 굳힌 이후이기 때문에, 항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구려 유민을 굳이 북방의 전선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혹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새로 장악한 백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백제 유민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추정해볼 수 있다. 아니면 안승집단은 단순한 주민집단으로서 실제적 군사력으로 동원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쉽사리 북방 전선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신라는 안승집단의 이주지로 왜 금마저를 선정하였을까? 금마저 지역은 백제 말기에 왕도급의 위상을 지녔던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였다. 아마도 안승집단의 근거지였던 고구려의 한성과 같은 부도<sup>副都</sup>로서의 위상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현재 익산일대에 남아 있는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들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금마저가 보덕국의 새로운 안식처로 신라 정부에 의해 선정된 배경이 짐작된다. 보덕국도 형식적이거나 엄연히 독립된 국가이기엔 그에 걸맞은 위상과 면모를 유지해야 하였다. 신라로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 백제시기에 왕도급으로 조영되었던 금마저의 도성 시설은 보덕국의 형식적 외양을 갖추어 주는 데 제격이었을 것이다. 이제 안승집단, 즉 한성의 고구려국 주민들은 금마저로 이주하여 새로운 고구려국을 세우게 되었다. 다만, 한성에서는 스스로 고구려국의 재건을 추구한 것이지만, 이곳 금마저에서는 신라 정부가 허용한 범위에서만 고구려인의 자존을 지킬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문헌자료에는 오히려 이 시기 보덕국이 여러 면에서 독자적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술하듯이 보덕국인들이 고구려 전통의 부명<sup>部名</sup>·관명<sup>官名</sup>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일본에 고구려국의 이름으로 독자의 사신을 파견한 모습들이 좋은 예이다.

보덕국은 671년부터 68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거의 매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런 행적을 과연 보덕국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보

덕국은 신라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일까? 신라에 내투하여 낮은 금마저 땅으로 옮겨진 보덕국은 어차피 독자적으로는 존립할 수 없었다. 신라에 대해 스스로 이용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신라 정부의 아량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보덕국이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 상황은 그러한 보덕국의 존립 배경을 추적해 갈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특히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기간(671~683)과 보덕국의 존립 기간(670~684)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9차례의 사행(使行) 중 초기 671년과 673년의 사신 파견만 보덕국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7차례는 신라 관리가 일본까지 호송해주거나 아니면 신라 사신과 동행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선 초기 두 차례의 사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1년의 사행은 한성 고구려국 재건과 연관되리라 짐작된다. 사신 가루(可婁) 등이 671년 1월 일본에 도착하였으니, 아마도 사신의 고구려 출발일은 그 전해였을 것이다. 670년 6월에 한성에서 고구려국이 재건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때 사행은 고구려국의 재건을 일본에 알리고 나아가 군사력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673년 5월에 일본에 도착한 사신은 보덕국이 이미 금마저로 이치된 이후 파견된 사신으로서, 아마도 한성에서 후퇴하여 금마저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상을 알리는 목적을 갖고 파견된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후 674년부터는 거의 매년처럼 사신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신라가 보덕국의 사신들을 호송하고 있다. 이러한 신라의 호송은 사실상 보덕국의 독자적 외교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선 두 차례의 사신 파견과는 다른 상황과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면 674년 이후 일본에 파견된 보덕국 사신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왕의 견해 중에는 신라가 보덕국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였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는 달리 보덕국의 잦은 사행의 주된 목적은 청병(淸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672년 고구려 유민들이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는 보덕국이 굳이 청병을 목적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로 신라를 지원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성의 고구려국 시절에 보낸 첫 사행의 경우는 청병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

며, 두 번째 사행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신라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보덕국의 대일본 외교활동과 같은 측면이 신라가 보덕국의 존립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한편으로 보덕국인 스스로도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외견상으로는 종전과 같은 고구려식 부명(部名)과 관등명을 칭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는 보덕국의 관인(官人) 기록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보덕국의 관인과 신라본기에 전하는 몇몇 보덕국 관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구체적으로 찾아지는 보덕국의 관인들의 관등 분포는 태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고구려 말기 12관등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이는 형식적일지라도 보덕국이 독자적 관료 운영체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이 칭한 관등을 고구려 시절 이래의 관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덕국의 운영과정에서 관등의 수여·승진 등이 새로이 이루어졌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조직을 통해 4천여 호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자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보덕국의 독립성과 관련해 독자적 무력 기반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 주민들이 본래 당과 항쟁을 경험한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무력 기반이 그리 간단치는 않았을 것이다. 684년 보덕국민의 반란 시에 그 저항이 매우 격렬하여 당시 신라군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음을 보면, 그 이전부터 보덕국 자체의 무력 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신문왕은 686년에 보덕국의 백성을 대상으로 9서당 중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편제하였는데, 이들은 아마도 본래 보덕국이 갖고 있던 무력 기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의 전통적 관등제와 행정적 편제방식에 입각해 작지만 독립된 국가질서를 구축해온 보덕국의 운명은, 그 탄생이 국제정세의 변동 틈새에서 가능하였듯이 그 소멸 또한 정세의 변동에 따라 정해졌다.

674년 문무왕이 안승을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 책봉한 데에서 이미 보덕국의 종말은 예고되고 있었다. '보덕(報德)'이라는 의미는 신라왕의 덕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신라왕에 대한 종속성이 크게 강조된 칭호였다. 게다가 676년 대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보덕국의 운명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신라는 680년 3월 안승과 문무왕의 여동생을 혼인시켜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시켰다. 683년 10월 신

문왕은 안승을 서라벌로 불러들여 소판蘇判의 벼슬과 김씨 성을 주어 왕족으로 예우하고 좋은 집과 토지를 내리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보덕국이란 간판마저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신라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684년 11월 금마저의 보덕국인들은 무력 봉기하였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고구려의 계승과 귀속의식을 지키려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10여 년 간 누려오던 보덕국의 자치권을 박탈한 데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였다. 신라는 이들을 진압하고 남해안 일대에 사거시킴으로써 마침내 금마저의 보덕국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보덕국을 구성한 핵심 세력들은 새로이 신라의 관인층이나 무력기반으로 편제되었다. 686년에 고구려 관인층에게 신라의 관등을 수여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덕국의 관료층들은 신라의 관등체계 내에 편입되었다. 또 같은 해에 9서당 중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은 보덕성민으로 구성되었다. 9서당은 681년(신문왕 원년)에 일어난 김흠돌의 반란을 제압하고 순차적으로 5개 부대가 창설되었는 바, 모두 이민족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고구려인들의 경우 3개의 부대를 구성했는데, 황금서당黃衿耨幢은 고구려인,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은 보덕성민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684년에 보덕성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데 황금서당이 투입되었다. 이는 반란진압 과정에서 전사한 김영윤金令胤이 황금서당의 보기당주步騎幢主인 사실에서 확인된다. 같은 고구려계 유민인 보덕성민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같은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황금서당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신라 사회에 편입된 같은 고구려 유민들 사이에도 일정한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통일신라 정부가 복속지의 주민들에 대해 펼친 정책에 있어서, 보덕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은 처우를 받은 편이었다. 9서당 중에서 백제인을 대상으로 2개 부대를 편성한 데 비해 이와는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소수의 보덕국인을 대상으로 2개 부대를 편성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신라 관등체계로 편입하는 관등의 대응 기준에 있어서도, 백제 관인과 고구려 관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별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구려 관인에 대한 처우가 나았는데, 그 이유는 기준이 보덕국의 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같은 고구려 유민일지라도 9서당

의 편제에서 고구려인이 1개 서당, 보덕성민이 2개 서당이란 사실은 신라에 편입된 고구려 유민의 주류를 보덕국인이 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 유민들 중 상당수는 보덕국이란 중간 단계를 거친 후 통일신라에 흡수 편제되었으며, 이때 보덕국과 신라가 맺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받았다. 보덕국은 처음부터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등장하여 신라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러나 보덕국이 고구려 유민의 생존방식 가운데 하나로 모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최종적으로 보덕국의 소멸과 통합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기환)

## 참고

## 문헌

- 강경구, 2005,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
- 김병근, 2013,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한국사학보』 50.
- 김병근, 2013, 「668년 고구려 멸망시 사천원전의 재구성 및 의의」, 『고구려발해연구』 46.
-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이기백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 김현숙, 2004,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 노종국, 1988, 「통일기 신라의 백제고지지배」, 『한국고대사연구』 1.
- 노태돈, 1985,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영일, 2004, 「한성시대의 백제 북방교통로」, 『문화사학』 21.
- 양병룡, 1997,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총』 46.
- 이문기, 2008, 「고구려 멸망기 정치운영의 변화와 멸망의 내인」, 『한국고대사연구』 50.
-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 이호영, 1998, 「삼국통일과정」, 『한국사 9 - 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2003, 「보덕국고」, 『강좌 한국고대사』 10.
- 정선여, 2013,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 신라의 대당전쟁과 승리

- 1. 신라의 자주성과 대당전쟁
- 2. 서역의 정세 변화와 당과 토번의 전쟁
- 3. 당군의 공격과 신라의 대응
- 4. 소강과 반전
- 5. 676년의 나당 휴전
- 6. 대당전쟁의 승리와 여진

### 1. 신라의 자주성과 대당전쟁

대당전쟁은 신라인들에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는 문무왕이 명량법사를 시켜 무늬비단(彩帟)으로 임시 사찰을 짓고 유가승(瑜伽僧) 12명으로 하여금 문두루법(文豆婁法)이란 주술적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당전쟁은 670년 3월에 약소국인 신라가 당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이었다. 신라는 세계제국 당과 전쟁을 선택하는 데 중압감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과감히 그것을 선택했다. 근 80년 간 국토보위전쟁·통일전쟁 수행에 지친 상태의 신라였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국제상황 변화라는 큰 변수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대당전쟁의 기원·발발·휴전 등 모든 과정이 당시 국제정세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기로 한다. 지금까지 대당전쟁을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서역의 강국 토번의 등장이 바로 당의 신라정벌을 중단시킨 가장 큰 변수였다.”라고 지적한 이가 있다. 토번의 팽창으로 당은 신라의 한반도 점령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당고종대의 한반도 전쟁에 관한 기록은 중국사서보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자세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하면서, 아울러 후자를 보면 당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데는 신라와 고구려 유민의 심한 저항이 어떠한 외부적 요인보다 중요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연구자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에 의한 타율적 통일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한다. 나아가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을 원조하면서 시작된 대당전쟁은 자율적으로 외세를 축출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 당은 토번(吐蕃)과 같은 변환에 시달려 신라와의 대결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대당전쟁에서 신라가 당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라의 능동적 대처가 없었다면 국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한편 기존의 연

구가 지나치게 신라의 자주성만 강조한 나머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방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나당전쟁에 관한 단행본을 낸 경우와 다년간 삼국통일에 관한 연구를 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후자에서는 나당전쟁이라는 정면대결에서 당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것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며, 신라가 당과 대결할 수 있는 용기와 임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축적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하는 점을 계속 추구하였다. 이는 신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신라가 필연적으로 통일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 지적대로 나당전쟁은 당의 한반도 기미지배에 대한 신라의 반발이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신라의 승리는 현재 우리에게 자긍심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만을 놓고 과거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반당적 적개심만으로 국운을 건 전쟁을 무모하게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은 신라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당시 국제질서 변화를 응시하고 있었던 신라인들의 고민을 간과하는 것이다. 물론 최강국 당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신라인들의 자주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당전쟁 당시의 국제적 연동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전혀 없었던 만큼 신라인들이 당시 급변하는 국제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헤쳐 나갔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

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직후의 일이었다. 당고종은 678년 이경현李敬玄이 이끄는 당의 대군이 토변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유심례劉審禮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짐은 일찍이 갑옷을 입고 군대를 통솔하여 전장에 나간 적이 없다. 지난번 고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이래 (당·토변전쟁과 나당전쟁에) 매년 군대를 동원해 중원이 소란하니 짐은 지금까지도 이(한반도 통일전쟁 개입)를 후회한다. 지금 토변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대들은 어찌 나에게 좋은 계책을 주지 않는가?” 『신당서』 토변전의 이 기록은 당·토변 전쟁과 한반도 통일전쟁 사이의 연동성을 시사해 준다.

또 기존 연구에서는 신라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신라가 당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군사 기술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없었다. 나당전쟁은 당군의

공격에 신라가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신라는 당군이 사용한 전술이나 전략을 알아야만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해야 비로소 최강국 당과의 전쟁을 수행한 신라인의 진정한 자주성이나 생명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서역의 정세 변화와 당과 토변의 전쟁

7세기 초 중국대륙에서 강력한 통일왕조 당이 등장한 사실은 주변 국가들에게 변화를 강요했다. 당은 630년에 북의 동돌궐을 복속시켰고, 634년에는 토욕혼吐谷渾을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640년에는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키고, 앞서 분열된 서돌궐을 각 개격파하여 642년 실크로드의 경영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건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잘 조직화된 무서운 적이었다. 645년 당의 고구려 1차 정벌은 안시성에서 패배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태종은 오래도록 고구려 정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647년 당의 장군 이적과 우진달이 이끄는 육군과 해군의 공격이 있었고, 648년에는 설만철이 수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급습했다. 이 같은 산발적 공격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태종은 30만 대군을 동원한 대규모의 고구려 원정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649년에 태종이 사망함으로써 무산되었다.

태종을 이어 즉위한 고종도 고구려에 대해 간헐적 공격을 감행했다. 655년 소정방蘇定方을 시켜 고구려 국경을 강타했고, 다시 656년에는 설인귀가 그 선봉을 맡았다. 따라서 4년 뒤에 이루어진 나당동맹의 성립과 전개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 정벌의 연장이다.

나당동맹이란 당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를 정면 공격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후방인 백제를 정벌함으로써 신라와 남북으로 협공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나당연합군은 먼저 660년 백제를 협공했다. 신라는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진격하였으며, 당군은 해로로 백제에 접근한 후 만조기에 금강(백강 白江)을 거슬러 올라가 사비

성 근처에 상륙했다. 백제를 동서로 협공하는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660년 7월 9일에 황산벌전투로 시작된 전쟁은 4일 후 웅진성으로 도망간 의자왕이 항복해 옴으로써 국왕을 비롯한 백제의 최상층은 당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676년까지 지속된 나당 간의 17년 전쟁의 서막이었다.

17년 전쟁에서 당은 그 주력을 한반도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 시기 동안 서돌궐 제부족과 타림분지 소국가들이 당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는 현지의 친당적 지배층들이 축출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서역 각지에서 친당적 정권들이 몰락하고 반당적 정권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을 보면 이 시기에 당에 투항해 온 서돌궐 제부족의 수장들과 타림분지 지배층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나 부족이 복속하였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당 조정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을 배척하는 자신들의 동포로부터 쫓겨난 망명자들이었다.

당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천산(天山) 지역의 서돌궐 부족들이었다. 궁월(弓月)과 인면(咽面)이 카슈가르를 함락시켰고, 철륵(鐵勒)을 포함한 천산지역 여러 부족에 파급되었다. 동라(同羅)·복골(僕骨)·사길(思結) 등이 여기에 가세했다. 이는 662년 당의 장군 정인태(鄭仁泰) 등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이 토욕혼·고창국 등 서역 여러 나라에 구축한 섬세한 그물망은 이완되어 갔다. 665년 서돌궐도 내분을 청산하고 노실필(弩失畢)과 돌궐(吐陸)이 연합해서 당이 세운 괴뢰 왕들을 몰아내고 독립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토번이 있었다. 서역의 여러 부족·소국의 정권교체나 당으로부터의 이탈은 토번의 지원을 받는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번은 당이 한반도에 집중하는 사이에 그 영향력을 타림분지, 천산산맥, 청해 등 실크로드가 통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660년 당이 한반도 원정에 주력을 투입한 사이에 토번의 제1차적 공격목표가 된 것도 토욕혼이었다. 토욕혼은 앞서 북위(北魏) 때부터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북위의 국사라도 토욕혼의 중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서역으로 갈 수 없었다. 청해호(青海湖) 근처 복사성에 근거지를 둔 나라는 서는 차이담(Tsaidam)분지를 지나 타림분지의 남도지방에, 동은 장안 방면에, 남은 사천(四川)에서 건업(建業)에 이

르고, 북은 몽고고원에 이르는 동서 교통로의 중심에 있는 상업왕국이었다. 토욕혼은 수(隋)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609년(수 대업 5년) 양제가 토욕혼 정벌을 감행한 것은 수가 하서(河西)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조치였다. 당 또한 하서 회랑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 멸망 후 부흥한 토욕혼을 공략해야 했던 것이다.

634년 당태종은 토욕혼 왕의 입조를 요구했다. 토욕혼 왕이 당 조정에 대한 입조를 거절하자 태종은 앞서 약속된 종실의 공주와 토욕혼 왕자의 결혼을 취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욕혼 내부에서는 반당적 인물들의 발언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토욕혼 왕 복윤(伏允)의 나이가 고령화되자 권력이 주요 대신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 기회를 이용해 당을 치자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토욕혼은 당의 북서 국경을 침범했다. 이리하여 당태종은 634년 이정(李靖)을 시켜 토욕혼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감행했다. 토욕혼은 대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토욕혼 왕은 도망 중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장안에 머물고 있던 토욕혼의 왕자 모용순광(慕容順光)이 왕으로 옹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동포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당의 원조로 유지되는 괴뢰정권의 수괴에 불과했다. 이 정권은 오래가지 않아 635년 말 급기야 토욕혼 왕이 살해되었다. 그 후 당태종은 이 지역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군대를 파견해야 했다. 그에 따라 토욕혼은 국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 이는 당에게 받은 타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토번이 팽창하면서 토욕혼의 기반을 잠식해 왔기 때문이었다.

토욕혼이 당의 공격을 받고 약해진 틈을 타서 토번은 그 영향 아래에 있던 유목 부족들을 흡수했다. 이로써 토번은 그들로부터 양질의 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병전술을 배웠다. 토번은 이미 주변의 강족계(羌族系) 주민들을 복속시켜 자신의 병력으로 활용해 온 경험이 있다. 637-8년에 토번에게 복속된 탕구트(당항(黨項))와 그의 여러 티베트계 강족들이 그들이다. 토번은 복속 부족으로 구성된 병력을 선봉으로 내세워 그들이 전멸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본대가 나가 지켜있는 적을 상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한다.

강족들이 토번에게 보병 병력원을 제공했다면 청해 차이담분지의 유목 부족은 토번의 기병전력 증강에 기여했다. 당이 실크로드를 석권하는 과정에서 토욕혼을

심하게 약체화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토번의 군사력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640년에 이르러 완료된 당의 서역 정벌은 결과적으로 볼 때 토번을 상대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절멸·약체화시켜 토번이 팽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634년 이후 토욕혼은 당의 보호 아래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토욕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소정방의 660년 한반도 전선 투입은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자치통감』 권200, 당기 16 고종 현경 5년(660) 8월의 기사를 보면 “8월 토번 녹동찬이 그 아들을 파견해 토욕혼을 공격하여 내부內附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병을 이끌고 성산城山에서 바다를 건너 백제가 있는 웅진강구로 가자 막아섰다.”고 나온다.

660년 8월 토번이 토욕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시기에 소정방은 백제 전선에 종군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은 토욕혼이 추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자치통감』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짧지만 압축적인 기록이 보인다. “그 후 토욕혼과 토번이 불화하여 용삭龍朔(661-3), 인덕麟德(664-5) 연간에 서로 표를 올려 말했다. 토번이 분개하여 토욕혼을 치니 대패했다. 그후 서로 싸우고 각기 사자를 파견해 청병을 하니 고종이 불허했다.”

토번의 공격이 시작되자 토욕혼은 당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 기간은 661-665년간인 것으로 짐작되며, 당이 토욕혼의 요청을 거절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때 토번의 사신이 당 조정에 와서 토욕혼의 청병을 방해했던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당이 토욕혼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토욕혼 원병 파견의 걸림돌은 또 있었다. 백제부흥군의 전국적 거병이 그것이다. 이는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핵심 상층이 거주했던 수도 사비 이외에 다른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백제인들은 이제 조국의 부흥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물론 백제부흥군의 활발한 활동 배후에는 왜의 원조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서기』 권27, 제명천황 7년(661) 8월에 전군前軍 장군 부연大化下阿曇比邇夫連·후군後軍 장군 부신大化阿倍引田比邇夫臣 등을 필두로 하는 수송선단을 파견하는 한

편 동년 9월에 부여풍夫餘豊에게 5천의 군병을 주어 백제부흥군을 원조했다. 부여풍이 백제에 들어가자 복신福信은 찾아가 배알하고 국정을 남김없이 이양하였다고 한다. 왕자 부여풍은 백제부흥군을 조직화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왜의 원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662년 1월에 복신에게 화살 10만 개, 실 500근, 솜 1,000근, 포 1,000단, 무두질한 가죽 1,000장, 종자벼 3,000곡을 보냈다. 동년 6월에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무기를 수선하고 선박을 정비하고 군병의 식량을 비축했다고 한다. 이는 이듬해 왜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2만 5천명을 파견한 금강白江 전투를 위한 것이었다. 왜의 백제부흥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당을 불안케 하여 서역에 신경을 돌릴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윽고 왜 함대의 백제 지역 상륙 소식이 날아든 663년 당은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재차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665년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독재정치 후유증으로 집권층 내부에서 심각한 정권쟁탈전이 전개되었다. 맏아들 남생南生은 동생인 남건南建과 남산南産에게 쫓겨서 옛 서울인 국내성에 웅거하게 되었다. 남생은 아들 현성을 적국인 당에 보내어 그 힘을 빌리려고 하였다. 같은 해 연개소문의 동생 정도는 12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하였는데, 이 지역의 성에는 신라군이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내분은 고구려의 멸망을 재촉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667년 고구려의 내분을 기회로 당고종은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해 토욕혼은 토번에 의해 완전히 병합되었다. 당고종은 서쪽을 희생시키면서 동쪽 고구려 전선에 병력을 투입했던 것이다.

수대까지만 해도 티벳고원은 여러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지금의 라싸 부근을 근거지로 하는 토번(Tu-Fan)이 가장 호전적이었다. 이 부족은 6세기에서 7세기의 전환기에 티벳고원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다. 토번은 당 초기에 남북으로 히말라야에서 곤륜산맥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사천 인근지역에서 인도 북부의 케시미르 인근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토번은 623년에 당의 북서 농우지역과 그 영토가 인접하게 되었고, 634년에 당 조정과 외교관계를 열었다. 몇 년 후 당 황실의 공주가 동돌궐과 토욕혼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은 토번 왕 승젠간포는 당에 화번공주和蕃公主를 요구했다.

당시 서역과 북방을 제패한 당에게 토번의 이 같은 요구는 너무나 당돌한 것

이었다. 그때 당은 돌궐을 격파하고 모든 실크로드의 오아시스를 지배했으며, 토욕혼을 정복하는 등 엄청난 국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돌궐이 조공을 해왔으며, 외몽고 북쪽지역의 부족들까지 사절을 보내 경의를 표하며 조공했던 것이다. 아시아는 당태종에게 경악하며 다만 미증유의 성취를 바라볼 뿐이었다.

물론 이때 토번의 요구를 당 조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토번은 사천의 서부지역을 침공해 왔다. 그러나 토번의 침공은 철저히 격퇴되었다. 송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토번군은 후군집이 이끄는 당의 원군이 도착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그런데 641년 토번 왕이 다시 화번공주를 정중히 요구하자 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당서』 권196·『신당서』 권216, 토번전을 보면 문성공주가 토번의 승젠간포에게 출가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 바로 다음에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이다.

641년 진대덕의 고구려 방문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당태종이 진대덕을 파견한 것은 고구려 정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신당서』 권220 고려전을 보면 고구려 태자 환권이 당에 입조하여 방물을 바치자 여기에 대한 답방으로 당태종은 진대덕을 고구려에 파견했다. 고구려 영내에 들어간 진대덕은 방어를 맡은 관리들을 매수해 실정을 살살이 파악했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4년 조에도 고구려 영내에 들어온 진대덕이 각 성읍에 있는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어 그들의 인도를 받아 가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 각 지역의 세세한 곳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는 반복해서 진대덕이 사신으로 온 것을 기회로 고구려의 허실을 다 엿보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진대덕이 병부兵部 산하의 정보수집 기관 직방職方의 장長 직방랑중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는 641년 진대덕이 고구려를 염탐한 후 당 조정에 제출한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한다.

당시 당태종의 관심이 고구려 원정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신흥세력 토번을 망각케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의 고구려 원정이 토번에게 내실을 다지고 국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문성공주가 티벳

고원으로 들어간 641년부터 20여 년의 기간 토번이 당의 선진문물을 흡수했으며, 이는 토번의 국가발전에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야심은 토번의 힘을 축적케 하고 그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주었다.

641년 당태종은 문성공주를 토번 왕에게 시집보냈다. 이때 토번 왕은 호위병을 이끌고 백해까지 와서 문성공주를 맞이했으며, 공주를 수행한 중국사절에 대해서도 극진한 예로 대접했다. 또 토번 왕은 문성공주가 거처할 새로운 궁전을 지었으며, 그녀가 토번의 국민들이 얼굴에 문신한 것을 불길하게 여기자 영을 내려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토번 왕의 문성공주에 대한 극진한 예우나 사랑은 당태종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번 왕은 고구려 정벌에 나가는 당태종에게 사신을 보내어 글을 올리기도 했다. ‘폐하께서는 천하를 평정하시어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은 폐하의 신하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648년(정관 22)에는 당이 서역의 중천축中天竺을 토벌하기 위해 청병을 하자 토번 왕은 즉각 정병을 내어 이를 도왔다고 한다. 당시 토번은 중국의 충실한 신하를 지처했던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표현에 따르면 문명국가를 위해 어떤 민족蠻族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문명국가의 매력에 민족의 정도가 존경심으로 젖어들 때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라 한다.

이 시기에 토번은 중국문화의 수혜자였다. 『신당서』 권216을 보면 이 시기에 중국의 서적과 장인匠人들이 라싸로 들어갔고, 토번 유력층의 자제들이 장안의 국학國學에 유학했다. 이때 토번 왕은 당의 선진적 생산기술을 계획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맷돌과 종이·먹 등의 생산기술과 중원의 농기구 제조·방직·도자기 제조·야금·건축 등 생산기술을 토번에 들여왔으며, 이것이 토번사회의 생산력은 물론 문화발전을 촉진시켰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토번의 실력자 녹동찬은 660년에 당이 한반도 통일전쟁에 개입하자 그 이듬해 천산의 궁월을 충동하여 당에 반기를 들게 하였으며, 662년에 가서 이를 표면화했다. 토번과 궁월·카슈가르 등이 연합한 군대가 카슈가르 남쪽에서 소해정이 이끄는 당군과 마주쳤다. 정면 충돌로 가지는 않았지만 상호간에 긴장이 고조된 것은 확실하다. 이듬해인 663년에도 토번은 파미르고원의 발루르(Balur)와 와칸(Wakhan)을

점령하여 그 지배하에 둬으로써 동투르크스탄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였다.

669년 9월 토번이 당에 내부한 토욕혼에 대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갈이씨의 집정시기에 당·토번의 전쟁은 지속되었다. 『자치통감』 권206을 보면 갈이씨가 토번군대를 장악한 후 당은 30년 간 그 침략을 받게 되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갈이씨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 당나라와 전쟁을 해야 했고 그 승리의 결실을 재분배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당고종은 토번의 이러한 공세를 막기 위해 670년 4월 한반도 지역을 관할하던 안동도호부 도호 설인귀(薛仁貴)를 대토번 전선에 투입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그의 군대는 참패하고 말았다. 토번은 설인귀의 10만 대군을 청해(青海) 대비천(大非川)에서 전멸시켰던 것이다. 백전노장 설인귀는 모든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 나왔다고 한다. 그 결과 실크로드의 안서 4진(安西四鎮)(카라샤르·쿠차·호탄·카슈가르)이 토번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졌다. 토번이 당군을 격파하고 실크로드를 장악한 이 사건은 전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당고종, 그에게 실크로드의 상실은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었다. 아버지 태종이 이루어 놓았던 실크로드 경영권은 그가 한반도 전쟁에 주력한 사이에 토번에게 고스란히 넘어 갔다.

중앙아시아는 물론 페르시아, 동로마제국의 상인과 사절들이 이 길을 거쳐서 중국을 왕래했으며, 필연적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장악과 경영은 그야말로 당의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였다. 향후 당은 주력을 서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670년 3월 약소국 신라가 압록강을 넘어 만주에 들어가 당군을 선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상황 아래서 가능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

당과의 전쟁을 결정했던 신라 수뇌부의 상황 논리를 도식화해 보면 신라는 당태종이 약속한 평양 이남의 땅을 당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선명한 목적이 있었다. 신라는 669년 말 한반도 주둔 사령관 설인귀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라 수뇌부는 서역에서 당이 토번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상황에서 당과 전쟁을 해야 자기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670년 3월 당군에 대한 선제공격을 개시했다.

### 3. 당군의 공격과 신라의 대응

이제 신라가 당군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았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조를 보면 당은 나당전쟁에서 대규모 기병을 동원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나당전쟁 기간에 당에 이끌려 대거 남하했던 거란족은 기마민이었으며, 말갈족도 상당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675년 9월 신라군이 매소성에 주둔한 이근행(李謹行)의 말갈병에 승리한 후 3만여 필의 말을 포획했던 사실로도 알 수 있다.

670년(문무왕 10) 이후 당의 장군 고간(高侃)의 통솔 아래 대규모 기병이 대방(帶方)(황해도)지구에 몰려왔다. 신라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672년에 창설된 신라의 장창당은 이러한 전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병조직이었다. 산성을 중심으로 벌어진 산악전에 익숙한 신라로서는 당의 기병을 기병으로 대처하기에는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열세였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기존의 보병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새로운 대기병(對騎兵) 전술을 개발하는 일이 절실했다.

672년 창설된 신라의 장창당(長槍幢)에는 기병 관계 군관직이 거의 결여되어 있고 보병조직이 강화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삼국사기』 편자의 착오였다고보다는 장창당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신라가 기병을 갑자기 증강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기존의 보병을 대기병(對騎兵) 방어부대로 조직하는 쪽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장창보병이란 기병이 절대적으로 열세일 때 창설되는 군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한·당·송과 서양의 로마에서 확인되며, 또한 잉글랜드·스코틀랜드·플랑드르·스위스 보병에서도 볼 수 있다.

중세유럽에서 장창(長槍)은 보병이 대기병(對騎兵) 전투를 하는 데 있어 기본병기였다고 한다. 장창은 길고 육중했으며, 창(槍)의 뒤쪽 끝이 굽었는데 이는 창(槍)의 밑을 땅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육중한 말이 빠른 속도로 달려올 때 창(槍)을 땅에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그 힘에 밀려날 뿐만 아니라 군사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없다. 따라서 장창 1개에는 2명의 병사가 필요했다. 한 사람은 장창을 땅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창 의 각도를 잡았다.

이때 장창보병 대열은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잡아 강을 등지거나,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서는 왕관형 원진[圓陣]대열을 구사했다. 이는 물론 측면이나 배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장창이 겨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馬]의 가슴이나 목이었다. 기병 선두를 낙마시켜 전체 기병대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정체된 기병이란 기동성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많은 차가 밀리듯 전방이 막혀있는 기병이란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장창보병의 역습을 받았을 때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중세 서양 장창부대의 경우 중장기병 즉 기사[騎士]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물론 장창을 사용하는 측은 귀족적 기사들의 숙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농민공동체 또는 길드공동체였다. 가난한 그들은 물론 기병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쟁취한 경제적 기반과 일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작비용이 싼 장창으로 무장한 보병부대를 조직하여 기사들에게 대항했다.

통일전쟁으로 피폐해진 신라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장창부대의 창설은 당의 기병[騎兵]을 막아내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극히 보병적[步兵的]일 수밖에 없다. 장창당의 군관조직에서 기병관계 군관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장창당의 이런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당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황해도와 경기도 평야지대였다는 점은 당군이 기병을 활용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당군이 서해안으로부터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예성강·임진강·한강 등의 수로가 존재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5년(675) 9월조를 보면 설인귀 함대가 임진강 입구의 천성[泉城]을 포위 공격하다 신라군의 역습을 받고 퇴각했는데, 이때 신라 장군 문순[文順]은 병선 40척과 전마 1천 필을 노획했다고 한다.

신라가 병선 40척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해전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며, 전마 1천 필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임진강 중류에 주둔한 당군에 대한 전마 보급이 설인귀 함대의 주임무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말이란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기적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풀을 뜯을 수 없다면 죽는 것이 일반적이며, 병참선 등을 통

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소모품이다.

그렇다면 당의 보급선로를 차단하는 일은 신라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671년 신라 수군의 당 보급선의 격침이다. 이는 그 해 당군의 '겨울작전'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해 9월 황해도에 진입한 당군이 구체적 군사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군은 그 이듬해인 672년 7월에 가서야 군사 행동을 다시 재개하였다.

이렇듯 신라는 장창보병을 조직하고, 서해에서 당 보급선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등 당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했다. 그러나 672년 8월 황해도 석문에서 벌어진 당과의 정면대결에서 장창당을 비롯한 신라 중앙군단이 패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당군은 이로 말미암아 지속적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였고, 장기적인 지구전도 가능해졌다. 반대로 신라에게는 대야찬 효선 등 장군을 비롯한 7명의 고위 군관들이 전사한 이 싸움은 수많은 정예 병력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신라의 전술 변화를 낳았다. 김유신의 건의로 신라군은 당군에게 단기적 정면 승부를 걸지 않았고 각지의 요소를 지키는 방어전으로 전술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전쟁에서 전투 자체가 소규모화 되고 동시에 그 횡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조를 보면 "당군과 무릇 '아홉 번' 싸워 2천 명을 참수했다"라고 하거나, "또 우리 군대가 크고 작은 18회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다"라고 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당군의 보급품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구전으로 이끌어갔다. 676년의 해전도 그 예외가 아니다. 즉 그 해 11월 사찬 시득이 이끄는 신라 수군은 기벌포에서 당 수군과의 첫 개전에 패하였지만 나머지 22회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가 전국적으로 산성 축성을 단행한 점이 그것이다. 신라는 672년 패전 직후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書長城(남한산성으로 추정)]을 쌓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673년에 10개소의 축성과 수성[修城]을 단행하였다. 즉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673) 조를 보면 2월과 8월에 서형산성과 사열산성을 증축했고, 9월에 국원성·북형산성·소문성·이산성·주양성·주잠성·만흥사산성·골쟁현성 등을 새로 쌓았다.

그러나 당군은 672년 8월의 승세를 몰아 신라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계속해 왔다. 672년 12월 당군은 백수산(白水山, 황해도 재령)에서 고구려 유민과 신라군을 격파했고, 673년 윤5월에 이근행의 말갈군대는 호로하(紇廬河, 임진강) 서쪽에서 고구려인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673년 9월 당군은 말갈과 거란군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침략해 왔고, 겨울에 신라의 우점성·대양성·동자성을 함락시켰다. 이 시기에 신라가 산성에 의지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여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세에 몰렸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674년 전쟁 소강상태의 도래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까지 674년 당군의 신라 침공을 673년 9월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인 공세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674년 당은 군사적으로 칠중성(七重城, 임진강 중류)에서 신라군을 격파하는 등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전세의 역전은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674년 칠중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74년 한 해 동안 신라와 당의 구체적 전투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74년 정월에 유인궤(劉仁軌)와 이근행 등이 이끄는 당군이 신라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자치통감』·『양당서』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 전투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림 1. 파주 칠중성

다만 『신당서』 권108, 유인궤전에서 함형(咸亨) 674년(합형 5)에 그가 계림도총관에 임명되어 병력을 이끌고 호로하를 막아 칠중성을 격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674년에 당군은 신라에서 작전을 감행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유인궤가 한반도에서 실질적 전투를 시작한 시기는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와 『신당서』 권3, 고종본기 그리고 『자치통감』 권202, 당기 및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등에 상원(上元) 2년(675) 2월로 명기되어 있다.

## 4. 소강과 반전

유인궤가 674년 1월에 계림도총관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인 675년 2월에 가서야 신라에 대한 실제적 군사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여기서 674년 한 해 동안 전쟁의 소강이 포착된다. 이것은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인문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상원 원년(674)에 문무왕이 고구려의 반란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니, 당나라 황제가 크게 노하여 유인궤를 계림도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와서 치고, 조서로써 왕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이때 인문은 우효위원의대장군임해군공으로 당나라 수도에 있었는데 그를 세워 (신라)왕으로 삼고 귀국시켜 형의 뒤를 잇게 하고자 계림주대도독개부의동삼사에 봉하였다. 인문이 간곡히 사퇴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여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마침 왕이 사절을 보내 공물을 바치며 또 사죄하니 황제가 용서하고 왕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인문도 중도에 (당나라로) 돌아가 전의 관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

유인궤를 계림도총관으로 하는 당군은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한반도를 향했다. 하지만, 이는 중도에 중단되었다. 여기서 674년 1월 유인궤가 이끈 당군의 신라 침

공이 도중에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라가 사신을 파견해 사죄하자 당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고 신라 침공을 중도에 중단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당에 대한 신라의 사죄가 당군의 침공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라는 672년 8월 처절한 참패 후 동년 9월에 당에 사죄사를 파견하여 당고종에게 상표문을 올리고 막대한 공물을 바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당군은 672년 8월의 승세를 몰아 신라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계속해 왔다. 당군은 672년 12월 백수산(황해도 재령)에서 고구려 유민과 신라군을 격파했고, 673년 윤 5월에 말갈군대가 임진강 부근에서 고구려인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었다. 673년 9월 말갈과 거란이 북쪽 변경을 침략해 왔고, 그 해 겨울에 신라의 우잠성·대양성·동자성을 함락시켰다.

그렇다면 674년 1월 당군이 신라 침공을 중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또 다시 서역의 정세가 주목된다. 『자치통감』 권202, 고종 함형 4년(673) 12월 병오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12월 병오에 궁월과 소록의 2왕이 항복하여 왔다. 서돌궐 흥석망가한 시대에 제부가 이산하고 궁월과 아실길이 모두 반叛했다. 소정방으로 하여금 서로 가서 이를 토하게 하니 아실길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궁월이 남으로 토번과 손잡고, 북으로 인면을 끌어들이 함께 소록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주상이 흥려경 소사업을 파견하고 발병케 하여 그것을 토하게 했는데, 사업의 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궁월이 두려워하여 소록과 함께 모두 입조하니, 주상이 그 죄를 용서하고 귀국시켰다.”

위의 기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궁월과 소록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의 보복이 두려워 항복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궁월과 소록의 왕이 항복할 당시 과연 그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실질적 통치자였는가에 있다. 만일 그들이 실질적 통치자였다면 당시 토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타림분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

켜 승리한 친당적 인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반란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당의 한층 적극적인 군사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이 이 시기(673년 12월 직전)에 타림분지에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변방의 왕들이 스스로 당 조정에 입조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도 변방의 왕들이 자신의 영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궁월과 소록의 2왕은 토번에 대한 반란에 성공한 자들이기보다는 그 부족 내부의 친토번 세력에 밀려나 당에 망명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통감』 권202, 고종 함형 4년 병오 조의 기록대로 궁월과 소록의 2왕이 당 장군 소사업 원정군의 보복이 두려워 당조에 스스로 입조했을 수도 있다. 또 궁월과 소록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673년 12월 천산지역에 파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이 지역의 파동이 곧바로 토번의 전면적 군사개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당대의 기록인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155를 보면 “침주(肅州)……, 상원 원년(674)에 토번이 쳐들어와 밀공(密恭)과 단령(丹嶺) 두 현을 살육하고 약탈했다. 이에 두 현을 폐했다.”라고 하고 있다. 674년에 토번이 침주를 침공한 것이 확실하다.

또 『왕방익의 묘지명』을 보면 “낙성공(樂成公)이 동쪽의 신라를 정벌할 때 계림도총관으로 천거되었다. 그러나 군사 행동이 중지되고 정벌에 나서지 않아 사주자사에 제수되었다.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숙주자사(肅州刺史)로 전임되었다.”고 한다. 낙성공은 삭주(朔州) 상덕부(尚德府) 과의(果毅)를 지냈던 왕방익(王方翼)이다. 왕방익은 674년에 유인궤가 주창을 올려 선임한 장수 가운데 하나였던 왕방익은 신라로 가지 못하고 서역(肅州)으로 향했다.

토번의 반격 가능성에 대해 당이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670년 토번에게 천산남로를 상실한 당은 그 대안으로 서쪽으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을 이용했다. 그것은 타림분지를 경유하지 않는 천산산맥 이북의 루트로서 長安-玉門-哈密-우루무치-준가리아 분지와 발하시호(湖) 부근의 일리(III) 계곡을 통과하는 길이었다.

토번과 천산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은 당에게 토번의 위협을 피해 북으로 돌아가는 가늘게 연결된 길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었을 것이다. 궁월은 천산

산맥 북쪽 산록과 이식쿨호(湖)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면은 발하시호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토변에 동조한 경력이 있는 두 부족은 당이 유지하고 있던 천산북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토변의 개입과 두 부족의 협공은 천산북로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당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673년 토변은 궁궐·인면과 연대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천산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한 것이 확실하다. 어쨌든 이 시기에 당이 천산북로에 대한 수비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천산지역의 전운은 당의 대신라전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674) 1월 조와 2월 조에 각각 보이는 서로 상반되는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

“봄 정월…유인궤를 계림도총관으로 삼고, 숙위경(衛尉卿) 이필과 우령군대장(軍右領軍大將軍) 이근행으로 보좌하게 하여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왔다.”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문무왕 674년 1월에 당군이 침공해 왔다. 그럼에도 동년 2월에 신라 국왕은 궁궐에 연못(안압지(雁鴨池))과 그 안에 섬을 만드는 등 정원을 꾸미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모순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674년 1월에 당군의 신라침공은 결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신라가 궁궐에 호화관 연못을 만드는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당군이 당면한 천산북로 방어 문제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70년 3월 당에 대한 신라의 선제 공격이 669년 9월 토변의 천산남로 공격에 기인했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서 당과 군사력으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토변의 등장과 그 힘의 여파는 나당전쟁 기간에 어김없이 한반도에 밀려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나당전쟁에서 674년 1년간의 소강기는 신라에게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해 문무왕은 설수진의 육진병법을 관람했다. 이전부터 신라

는 당의 진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의 손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설수진이 그 일을 맡았고, 그 결과를 왕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한편 실크로드의 긴장감 고조에 기인한 소강은 긴장 완화에 따라 전쟁으로 바뀌었다. 675년 1월 토변의 평화사절이 장안을 방문한 직후인 675년 2월 당이 신라로 재침하여 왔다. 당장 유인궤가 군대를 이끌고 대거 남하하여 칠중성(七重城)을 함락시키고 이근행으로 하여금 매소성을 그 전진기지로 삼아 신라를 공략케 했다. 『신당서』 권220, 신라전을 보면 “이에 당고종이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매소성(買肖城)에 주둔시켰는데, 세 번을 싸워 그때마다 신라(虜)를 패배시켰다. 그러자 법민(法敏(문무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를 하는데, 공물(貢物)의 짐бар리가 줄을 이었다.”라고 한다. 당시 당군의 대신라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675년 9월 29일 매소성전투를 고비로 해서 반전된다. 이와 관련하여 675년 9월 신라의 천성(泉城) 전투 승리가 주목된다. 신라의 매소성 승리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천성은 그곳에서 신라군이 당의 병선 40척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해안에 위치하며, 그 앞에서 해전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가 전마를 노획한 것으로 보아 당 선단은 보급선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 선단은 임진강 중류에 있는 이근행의 말갈군에게 보급을 위해 임진강 하구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러나 설인궤 함대는 천성에서 막혀 임진강 중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다. 실로 임진강 하구에서 설인궤 선단의 패퇴 소식이 중류의 매소성에 전해지자 말갈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차후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그들은 별 저항도 없이 말 30,380필과 상당한 병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굶주린 말이란 승마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짐이 되었다.

이로써 신라는 대당전쟁의 승기를 잡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대당전쟁의 종결을 이것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토변의 내분은 당에게 정적을 타도할 수 있는 호기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676년 이근행의 대토변전선 종군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5. 676년의 나당 휴전

676년 토번 왕 만손만첸 칸포가 사망하자 토번은 왕위계승 문제를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책부원구』 권966, 외신부, 계습1의 토번 조를 보면 왕비 로(Hbro)씨와 연결된 국살고(麴薩苦)가 친린 치도우슨(器弩悉弄)을 옹립하고, 그의 두 살 아래 동생은 권신 흠릉(欽陵(mGar-噶爾氏))이 밀고 있었다. 두 세력은 서로 자신이 미는 왕위계승 후보자를 옹립하려 하였다. 676년 토번 궁정 내부의 암투는 곧 당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당은 병부 산하에 직방이란 정보기관을 두어 귀화해온 현지인들을 이용함으로써 주변국가에 대한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다. 676년 토번의 왕위계승 쟁탈전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 토번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측의 기록에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렇다면 676년 윤3월에 당이 토번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계획한 것은 만손만첸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내분을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 티벳고원에서 토번에게 최대의 숙적이었던 양동(羊同)의 왕위계승전 개입은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언급한 『책부원구』의 기사에는 “먼저 (치도우슨이) 살고(薩苦)와 함께 양동(羊同)에 가서 병마를 징발했다. 찬보(贊普(토번 왕))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귀국하여 그의 자리를 이으려고 했다. 그때 나이가 8세였다. 그 동생은 6세였는데 흠릉의 군에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살고가 양동에 가서 병마를 징발한 후 토번 왕 만손만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8세의 조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라싸로 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고는 자신의 조카를 왕위에 올리는 데 양동의 군사력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는 『자치통감』 권202, 고종 조로(調露) 원년 2월 조에서 “치도우슨은 그(驃) 국살고(麴薩苦)와 함께 양동에 가서 군대를 징발했다.”라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인도의 케시미르 쪽과 가까운 양동은 라싸와 상당히 먼 거리였다. 그럼에도 대신(大臣) 살고가 곧 양동까지 가서 군대를 징발했고 또 그것도 만손만첸 찬보가 사망하기 전에 조카와 함께 그곳에 동행한 것은 만손만첸의 죽음을 앞두고 토번 궁정 내부의 암투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한다.

물론 이러한 암투의 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옛 티베트 『편년기』(Old Tibetan Chronicle)를 보면 만손만첸 찬보가 죽기 1년 전인 675년에 왕비 로(Hbro)씨 치마로(Khri ma lod khri sten)의 등장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만손만첸 찬보 시기부터 정치에 관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녀의 정계 등장은 필시 당시 토번의 실력자 흠릉을 수장으로 하는 같이씨와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살고·로씨 일파와 같이씨의 대립은 만손만첸 찬보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토번의 병권은 같이씨 일가의 장악 아래에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살고·로씨 일파는 그 무력적 기반을 토번 외부의 어느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과거 토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양동을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사실 양동은 653년 토번에 의해 병합되었지만, 그 군대는 토번의 군사조직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토번 수뇌부의 내분은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당이 공세로 전환하는 기회를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서역 양방면에서 전쟁을 수행해 왔던 당은 그 무게 중심을 서역으로 완전히 옮겼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 당군 철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675년까지 한반도에서 활동한 이근행이 이끈 말갈군대의 행적을 알게 하는 송본 『태평광기』 권143, 흑치상지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흑치상지는 678년 청해호 북쪽에서 토번의 공격으로 전멸 직전의 상태에 빠진 당의 장군들을 구해낸 장본인이었다. 그는 토번군의 급습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대토번전쟁에서 당군 거점인 하원(청해성 서령시 부근)에 주둔해 있던 그가 탕쿠트(黨項) 토벌을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근행이었다.

그러나 이근행은 이보다 2년 앞서 이 전쟁에 투입되었다. 『구당서』 권199, 말갈전을 보면 이근행은 676년 청해에서 벌어진 토번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청해에서 토번군 수만을 격파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당고종으로부터 연국공칭호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신당서』 권110, 이근행전에도 “상원(上元) 3년에 토번을 청해에서 파하였다.”라 하여 그가 대토번 전선에서 공을 세운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상원 3년은 676년 11월 이전을 의미한다. 토번의 만손만첸 찬보는 676년 8월

이후의 어느 시기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며, 토번이 내분에 휩싸인 시점이다. 강력한 토번군에게 이근행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토번의 내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토번 장군들의 시선은 라싸에 향해 있었다.

물론 청해에서 이근행이 통솔했던 병력은 말갈군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675년 9월 29일 매소성전투 이후 한반도에서 말갈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나당전쟁 관련 기사에는 신라와 대적한 군대의 종족명이나 국적이 명기되어 있다. 676년(문무왕 16) 11월에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격파한 것은 당의 수군이 확실하며, 이보다 앞서 동년 7월에 도림성을 함락시킨 것은 당병이었다. 676년 당이 토번의 내분을 이용하여 총반격을 가할 때 한반도에 있는 말갈군 주력을 동원했다. 당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이근행 개인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가 거느린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상원 3년(676) 윤3월 조를 보면 주왕 현을 조주도 행군원수로 하고 상왕 룬을 양주도행군원수로 한 토번 정벌군의 조직이 이루어졌지만, “두 왕이 끝내 가지 못했다.”라 하여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에 대신하여 이근행의 말갈군이 동원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보았을 때 청해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렇다면 문무왕 15년(675) 9월 29일 이후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대가 곧바로 청해지역으로 향해야만 그 이듬해에 작전이 가능하다.

이근행은 보급의 단절로 675년 9월 29일 매소성에서 물러났지만 나당전쟁에서 무능력한 패장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676년 청해의 대토번 전선에서 선봉을 맡을 만큼 노련한 장군이었으며, 당시 토번의 대당 승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나당전쟁의 종결은 매소성전투 승리의 산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배후에는 당이 토번의 내분을 틈타 총공세를 취하기 위해 한반도의 말갈 병력을 청해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국제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당전쟁은 676년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이 낳은 전쟁 종결은 그 상황이 변할 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신라인들에게 대당전쟁은 676년에 휴전이 되었을 뿐이다.

670년 토번의 실크로드 장악은 당시 세계체제에서 당이 누렸던 독무대의 막

이 내려졌음을 입증했다. 당이 주연 자리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강력한 조연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력적 우위만을 감안한다면 힘의 축이 당에서 토번으로 옮겨갔고, 따라서 토번의 항배에 따라 당시의 상황이 좌우되었다.

토번이 실크로드를 급습하자, 669년 당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신성으로 옮기고, 670년 4월에는 당장(唐將) 설인귀를 대토번전에 투입하였다. 물론 이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병력도 서역으로 이동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대당전쟁기에 신라군이 주로 맞서 싸운 상대가 당군이 아니라 말갈·거란군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역의 정세 변화는 국제적 상황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 여기에는 국제정세의 판을 읽고 당과의 전쟁을 결정했던 신라 지배층의 결단력이 있었다. 자신의 속내를 숨기면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능력은 신라인들의 본성이었다.

통일전쟁 초기부터 신라에 대한 당의 부당한 처사는 계속 있었다. 663년 4월에 신라영토에 계림주대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왕을 그 도독으로 임명했고, 664년에 당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를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그 이듬해 신라에게 백제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맹할 것을 강요했다. 신라와 백제의 회맹은 계림주대도독부와 웅진도독부 사이의 그것이었다. 양국의 지위는 당의 통치를 받는 점령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라는 당에 책을 잡히지 않고 여기에 철저히 순응했으며, 당의 어떠한 모욕에도 인내하고 시간을 기다렸다.

신라는 고구려 멸망 이후는 물론, 대당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저자세로 일관했다. 669년 5월 신라는 흠순과 양도를 당에 사죄사로 파견하였고, 급찬 지진산을 당에 파견해 자석 2상자를 바쳤다. 또 동년 겨울에 당의 사신이 신라의 노략기술자 구진천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신라인들의 심장을 향할 수도 있는 노의 제작기술자를 당에 양도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응시하던 신라인들은 폭풍이 서역 상공에 떠 있고, 토번이 그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당에 순종적이었던 신라는 670년 3월 단숨에 태도를 돌변했다. 한반도에 미치는 당의 힘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사정없이 덤벼들었던 것이다. 가장 힘있고 노련한 세계제국 당조차도 기만할 수 있는 신라의 탁월한 인내심은 무서울 정도이다.

세계 대제국 당과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신라의 능력은 결코 갑자기 생겨

난 것이 아니다. 경주 분지의 조그만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주위의 여러 동료국가를 통합, 나물왕대(356~402)에 영남 일원을 차지한 신라는 처음에 고구려의 간섭 아래 있었다. 고구려의 그늘 아래 보낸 이 세월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외침에 대한 보호막이면서 한없이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다.

그 후 신라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자, 433년 백제와 손을 잡으면서 고구려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18년이 지난 551년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지역의 10군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2년 후 신라의 본능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백제가 이제 막 탈환한 한강 하류 유역을 탈취하여 중부지방을 모두 독차지했던 것이다.

독립 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백제와 동맹을 맺고 근 120년간 고구려에 대항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동맹국을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는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 신라였다. 경주분지에서 출발한 신라가 이윽고 7세기 중반에 당을 끌어들이어 여제 양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팔목상대할 만한 발전 과정은 신라가 결정적 순간에 얼마나 자기 변신을 대담하고 완전하게 해 왔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 6. 대당전쟁의 승리와 여진

대당전쟁은 실로 서역의 전황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669년 9월 토변이 천산남로를 급습하자 670년 4월 설인귀가 이끄는 한반도 주둔 병력이 청해에 투입되었다. 그때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의 당군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었다. 670년 7월 청해 지역에서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이 전멸 당하자, 그 해 같은 달에 신라는 백제 지역 대부분을 장악한다.

672년 4월 토변의 사절이 장안에 도착하여 당고종과 무후를 접견하면서 모종의 협상을 진행시키자, 같은 해 8월 당장 고간高侃이 이끄는 정예기병이 황해도 서흥石門에서 신라 중앙군단을 거의 전멸시켰다. 나아가 동년 12월에 당군은 고구려 유

민이 지키고 있던 백수산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이를 구원하러 온 신라군마저 격파했으며, 그 이듬해인 673년 윤5월 임진강 서쪽에서 고구려인들을 패배시켰다.

673년 겨울까지 당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673년 12월 토변이 궁월 등 천산지역의 서투르크 제부족을 총동하여 천산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대당전쟁은 674년 전 기간과 그 이듬해 2월까지 14개월 간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670년 토변에게 천산남로를 상실한 당은 그 대안으로 천산을 북쪽으로 우회하는 천산북로를 이용했는데, 이것마저 위협 당하자 이 루트의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674년의 대당전쟁 소강은 신라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675년 1월 토변의 사절이 장안에 와서 평화회담을 진행시키자, 그 해 2월에 당군은 한반도에 재침해 왔다. 유인케가 이끄는 당군은 임진강 이남까지 남하하여 칠중성을 대파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매소성까지 장악했다.

676년 당고종이 토변의 내분을 이용해 총 공세를 가하면서 나당전쟁은 무기한 휴전상태로 돌입했다. 그 해 이근행이 이끄는 말갈사단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청해의 대토변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676년 당시 약자인 신라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의 재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만일 당과 토변이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예봉은 또 다시 신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적대국가가 견재해 있을 경우 전쟁은 종결되어도 항상 여진餘震을 남긴다. 양국의 국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전쟁재발에 대한 우려는 대개 약소국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나당전쟁 후 당의 재침은 결코 없었다. 따라서 나당전쟁 이후를 긴장이 없는 평화기로 상징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만을 놓고 본 것이다.

세계 최강국 당이 신라조정에 가한 압력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신라 전체가 두려워했다. 전쟁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후에 바로 평화기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결과만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다. 그렇지만 거의 25년에 걸쳐서 신라 조정과 당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은 약자인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슴 졸이는 것이었다.

당고종은 나당전쟁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 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678년 9월에 당고종은 신라를 재침하려 했다. 하지만 토변 정벌이 시급했기 때문

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은 여전히 토번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 이듬해인 679년에 대당전쟁의 정신적 귀의처였던 사천왕사가 신라의 왕경에 세워졌다. 이는 당의 재침에 대한 우려가 신라 사회에 팽배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대당전쟁을 경험하면서 서역의 전황이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676년 이후에도 줄곧 서역의 전황을 지켜 보았을 것이다. 당군의 재침에 대한 두려움은 전후 신라의 급진적 군비 증강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나타났다.

신문왕대 신라는 전후 최대의 군비확장을 단행했다. 전쟁종결 후 군비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는 적대국을 완전히 정복했거나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했을 때 가능하다. 당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건재하였으며, 신라와는 외교적 단절상태였다.

679년 문성공주<sup>文成公主</sup>의 노력으로 당과 토번의 평화협상이 재개되었고, 681년 당은 동돌궐의 반란을 진압했다. 당고종은 신라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681년(신문왕 원년) 당고종이 태종 무열왕 추존명과 관련해 가한 압력은 신라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 하나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추존명을 고치고 당에 굴욕적 외교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에 결사 항쟁할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택하자면 신라 내부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선덕여왕 폐위를 결의한 화백회의의 권위를 무력으로 뒤엎고 정권을 장악한 후 신라 사회를 통일전쟁이란 국제전에 끌어들이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의 추존명 개칭은 중대왕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아가 이는 통일전쟁에서 왕의 이름으로 사라져간 자들의 희생을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 살아 있는 자들의 충성을 감퇴시키는 일이었다.

후자를 택하자면 세계 최강의 당과 일전을 불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신문왕은 자신의 왕국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도 있는 당 제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에 굴복하여 중대왕실의 창건자 태종의 칭호를 개칭한다면 이는 진골귀족 사회 내부에서 무열왕가의 카리스마 상실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 시기에 신라의 내분은 공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에 대한 철저

한 단속과 탄압은 자연스러운 귀착이었다. 신문왕 원년 김군관 등 최고위 귀족들이 연루된 김흠돌의 반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골귀족 대부분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사전에 발각되어 신속하게 정리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이룩한 영주<sup>英州</sup> 문무왕의 상중에 일어난 국구<sup>國舅</sup>의 반란은 진골귀족들의 시각에도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반란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숙청이 있었지만, 이는 대당전쟁 여진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국왕의 항변권 행사였다. 진골귀족 대부분에게는 신라 정권의 중심에 서서 통일을 이룩한 무열계 왕실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신들 사이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통일 직후 당의 재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골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새로운 계통의 왕권이 등장한다는 것은 진골귀족 사회의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였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김흠돌의 반란은 중대왕권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불안케 하는 독소가 진골귀족 사회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그 독소란 아직 너무나 젊은 세계 대제국 당과의 대결에서 진골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력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종 무열왕의 추존명을 개칭하라는 당고종의 칙령을 가지고 온 당의 사신이 다녀간 시점과 김흠돌의 반란이 모두 681년(신문왕 원년)에 일어난 일로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당전쟁을 직접 지휘한 문무왕의 죽음과 경험이 없는 아들의 즉위 그리고 이 시기에 밀어닥친 당고종의 외압은 신라의 조야를 당의 재침이라는 공포감에 술렁이게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당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독소란 누구보다 당에 먼저 붙어 자신의 가계만이라도 구출할 수도 있다는 각 진골귀족들의 이기심일 것이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장인 김흠돌의 반란은 신문왕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겨 놓았지만 그에게 진골귀족 사회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부여하고, 앞서 대당전쟁기에 나타났던 독소적 기우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670년(문무왕 10)과 671년에 각각 한성주 총관 수세와 한성주 도독 박도유 등이 당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고, 또한 673년(문무왕 13)에 아찬 대토가 당에 붙어서 반란을 계획하다가 적발되었다. 당이 나당전쟁기에 신라 귀족 사이에 깊이 파고 들어가

분열공작을 획책했던 것은 분명하다.

신문왕은 진골귀족 사회에 퍼져있는 독소를 어떻게든 해독해야 했다. 독소를 인공적으로 증류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힘을 압착하면 자체 치유의 힘이 생기게 된다. 신문왕은 진골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분산된 두려움을 하나로 모아 결사 항쟁의 구호를 내걸어야 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패전은 모든 진골귀족이 당에 끌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복한다고 해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했다. 당에 대한 공포와 의심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당의 재침이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당과 전쟁을 경험한 대부분의 고위직 진골귀족들에게 불안감·압박감을 가중시켜야 했다.

사실 백제와 고구려 귀족들이 패전 후 당에 끌려가 모든 것을 잃고 당태종의 소릉과 묘사에 승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불운한 말로를 신라 진골귀족들은 목도하거나 들은 바 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660) 9월 3일자 기사를 보면 백제를 멸망시킨 후 소정방이 그 왕족과 신하 93명과 유력층 1만 2천을 당으로 압송하는 데 김인문 이하 사찬 유돈·대나마 중지가 동행했으며, 같은 책 권6, 문무왕 8년 7월 16일자 기사에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이적李勣이 보장왕과 그의 아들 복남·덕남 이하 대신 등을 비롯한 20만의 고구려인을 당에 압송하는 데 김인문 이하 신라의 유력 귀족인 대아찬 조주·인태·의복·수세·천광·홍원 등도 동행했다.

여제 멸망 후 그 유력자들이 당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신라의 귀족들은 생생히 전해 들었을 것이다. 특히 그때 소정방이나 이적과 동행한 자들은 여제인들의 말로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왕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를 하나의 의지로 모아 압착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때 당의 압력에 의한 태종 무열왕 칭호의 개칭은 무열왕가의 간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왕은 당고종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당과 결사항전하는 길을 택했던 것 같다. 신문왕대에 이루어진 급진적 군비 확장은 이를 무언으로 말하고 있다. 적금무당, 황금무당을 중앙에 설치하고 삼변수 3개 부대를 조직하여 북변의 방어를 강화했으며, 대기병 방어체제의 보강을 위한 개지극당을

창설했다. 무엇보다 중앙군단 구서당의 완성은 엄청난 군비증강이었다.

신문왕 당대 5년 동안 구서당 5개 부대(황금, 흑금, 적금, 벽금, 청금서당)의 증설은 군관 숫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육정 전체의 그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통일 이전 시기에 서당(녹금서당綠衿誓幢), 낭당(자금서당紫衿誓幢), 장창당(長槍幢(비금서당緋衿誓幢), 백금서당白衿誓幢) 등이 창설되는 데 진평왕 5년(583)에서 문무왕 12년(672)까지 근 90년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군비확장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통일 후에 이루어진 급진적 국제國制 개혁도 그러하다.

676년 이후부터 최소한 성덕왕대 초반까지 신라인들은 당과의 전쟁 재발에 우려감을 가지고 살았으며, 이는 신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신라는 당시 진골귀족 집단지도체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 진골귀족이 구서당·육정은 물론 모든 중앙과 지방의 관서에서 최정점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진골귀족 집단이 사회의 특권을 독차지하였고, 따라서 그 체질상 집단지도체제라는 권력 분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대왕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적 위기감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것만이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집사부의 정치적 중요성 강화와 녹읍 혁파 또한 그러하다. 국왕 아래의 일원적 행정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집사부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며, 집사부 시중이 대략 3년을 주기로 교체된 것은 그것이 국왕 직속의 행정수반임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녹읍 혁파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토지세 수취 시스템 확립을 의미한다. 특히 구서당의 경우 그 병력의 2/3가 왕경에 전혀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양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음이 확실하다.

구서당이 완성된 직후 녹읍 혁파가 단행되었다. 대외적 위기감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문무관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진골귀족의 경제적 희생 감수란 상상할 수 없으며, 녹읍 혁파는 어쩌면 통일전쟁기에 진골귀족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던 총력전의 수행과정에서 이미 배태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676년 휴전 이후에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기의 국가 주도적 수취 형태를 그대로 제도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대당전쟁기에 신라가 자국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징수한 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당군에 대한 엄청난 보급 물자는 신라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진골귀족들의 참여 없이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했다.

전국의 농민을 모두 법당군단(法幢軍團)으로 조직한 것도 그러하다. 통일기 군대 수(郡太守), 군소수(郡少守), 현령(縣令)의 숫자는 법당주(法幢主), 법당두상(法幢頭上), 법당감(法幢監), 법당벽주(法幢辟主)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며, 통일 후 법당군단이 전국에 걸쳐 설치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한다. 신라통일기에 왕경, 소경, 주, 군, 현 등을 망라한 신라의 농민들이 모두 법당군단에 편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단서가 된 것은 「신라촌락 문서」 가운데 살하지촌(薩下知村)에 보이는 여자(余子)와 법사(法私)는 법당군단 중 여(餘)자나 법(法)자가 있는 부대에 징발되는 연(烟)이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에 효소왕 4년(695)으로 주장되고 있는 「신라촌락 문서」 작성연대를 감안 하더라도 통일 후 중대왕권이 전국적 인력 동원 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전쟁기에 만들어진 인력 동원 시스템을 확충 완성한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그것을 지속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76년 이후 25년간 지속된 당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은 신라에게 전쟁을 대비케 하였고, 앞서 전시에 가동된 시스템을 전후(戰後)에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대왕권은 국왕 중심 관료체제의 확충은 물론 대규모 군비확장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행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녹읍을 혁파하고 법당을 통한 전국적 노동력 징발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물적 인적자원 수취체제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일본서기』와 『속일본기』를 보면 668년부터 700년까지 신라가 25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사절단의 대표도 대아찬 이상의 진골왕족이나 고위 인사가 많았다. 특히 문성공주가 파견한 토번의 평화 사절이 장안에 도착한 679년부터 신라는 일본에 대한 대규모 물량 공세를 본격화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당과의 전쟁 재발을 대비해서 신라는 등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일본을 묶어두기 위해 천황과 그 가족 그리고 고위 귀족들의 환심을 사두려고 했던 것이다.

686년 4월 19일 신라가 약류 100여 종과 약물 60여 종을 일본에 보낸 것은 천무천황(天武天皇)의 지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 권29에 있는 다음 기록의 전후를 고려해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천무천황 백봉 13년(685) 9월 24일 조를 보면 “천황이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대관대사·천원사·비조사에서 경을

읽게 하였다”라 하고, 같은 책 주조 원년(686) 5월 24일 조에 “천황의 병이 중해져 천원사에서 『약사경』을 설하게 하고 궁중에 안거시켰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687년 신라는 일본에 불상을 보냈다. 이는 역사여래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689년 천무천황의 장례의식에 참여한 신라의 사신이 금동아미타상·금동관세음보살상·대세지보살상 등 아미타삼존불을 가지고 간 이유는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동서로 협공하여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당과 남북으로 협공하여 무너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당전쟁 이후 당의 재침이 우려되는 그 당시의 시공간에서 신라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그것을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해안에 세워진 감은사는 본래 명칭이 진국사(鎭國寺)였다고 한다. 이는 동해에서 경주에 이르는 최단거리에 있는 동해 입구에 절을 세움으로써 육진왜병(欲鎭倭兵)하고자 했던 문무왕의 의도와 부합된다.

이러한 일련의 급진적 개혁은 통일을 달성한 무열왕계의 권위 상승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쟁 재발에 대한 전 신라인의 우려가 무열왕계에 계속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대당전쟁의 여진(餘震)은 국가권력이 진골 집단지도체제인 화백에서 왕권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목직한 저울추가 되었던 것이다.

(서영교)

## 참고

## 문헌

이기동, 1996, 「백제왕국의 흥망」, 『백제사연구』, 일조각.

이기백, 1978, 「한국전통사회의 병제」,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이기백, 1995, 「고대 한일관계사의 연구의 방향」, 『한국고대사론』(증보판), 일조각.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 1, 일조각.

이인철, 1993, 「신라 법당군단과 그 성격」,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지사.

이문기, 1997,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내용과 성격」, 『신라병제사 연구』, 일조각.

## 제 3 편

# 신라 승리의 요인과 삼국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제1장  
통일의 배경과  
요인

---

제2장  
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 제1장

# 통일의 배경과 요인

1. 통일전쟁의 배경
2.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원인
3. 신라 승리의 요인

### 1. 통일전쟁의 배경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그 후반기 수백 년 간 삼국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상당 기간 소강상태를 이룬 시기도 있었으나 대체로 대립과 전쟁 상태가 일상적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남북국으로 대치한 이백여 년 간 규모가 큰 전쟁을 치르려 한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한 것에 비해 그 빈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이와 같이 삼국 사이에 빈번하고 치열하게 전쟁이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멸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 지배층이나 주민들의 성품이 호전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삼국시대가 갖는 역사성과 삼국의 상호관계 그리고 삼국을 둘러싸고 조성되었던 국제적 여건 때문이었다.

서력 기원 이후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철기문화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이와 더불어 다소 시차를 두면서 영토 확보를 특성으로 한 국가 체제의 형성과 발전이 진행되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각 국의 중심 세력들이 주변의 소규모 초기국가를 정복하는 기사가 자주 보이고 그들을 영역에 편입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진한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두각을 보이던 사로국(신라)은 현재의 경상북도 주요 지역에 있었던 이서국, 감문국, 소문국, 사벌국 등을 공격하여 공납을 받기도 하며, 뒤에는 그들의 반발 등을 이용해 점령하고 영토화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고구려나 백제가 더 먼저 경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고구려는 4세기 초 중국의 5호16국 혼란기를 이용하여 낙랑군, 대방군 등 중국 군현을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과거 중국 군현이 있었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였다. 근초고왕 지배 하의 백제는, 전연前燕의 수차례 침략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된 고구려의 남방을 공격하여 371년 고국원왕을 평양전투에서 죽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거점의 정치집단들을 연결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영역을 중앙 권력이 지배하는 영역국가로의 성장 과정과 그 귀결은, 필연적으로 강대해진 고대국가들 사이의 국경을 맞댄 대립을 가져왔다. 아울러 국가 사이 경쟁이 점

차 심화되면서 국력을 기울인 전쟁이 발발하는 중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나 뒤에는 백제의 개로왕이나 성왕 등 국왕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영역 다툼에 더해 국왕의 죽음과 패배에 대한 복수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가되면서 국가 사이의 대립은 지속적이고 치열한 국면을 더욱 띠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고대국가의 점진적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군사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상호간의 충돌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변한, 흔히 가야라고 불린 지역의 초기국가들은 상당한 국력과 동질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미 선발의 백제 그리고 신라의 확대 발전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결국 양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등 고통스런 운명을 겪기도 하였다.

삼국간의 대립은 4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가 직접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서 심화되어 갔다. 백제와 가야, 왜 등의 신라에 대한 침략이 강화되면서 신라도 드디어 한반도 내에 형성된 국제적 대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삼국 사이의 영역적 대립은 5세기 이후에도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중국의 북조 지역이 선비족 계통 왕조인 북위(北魏)에 의해 안정적으로 장악되면서,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대에 한반도의 남부로 진출하는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고구려의 남진정책 여파는 백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후원을 달갑게 여길 수만은 없는 형편으로 형세를 변화시켜 갔다. 그리하여 5세기 전반 이래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기 위해 신라와 백제 간에 나제동맹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다만 동맹을 대하는 양국의 태도나 정도는 국익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

본래 신라는 4세기 말에, 가야나 왜 나아가 이들과 연결된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의하면 나물마립간으로 보이는 신라 매금이 고구려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도움을 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후 신라는 왕자들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고 고구려군은 오랜 기간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면서 신라의 정치에 간섭을 마지 않았다. 나물마립간은 자신의 잠재적 왕위 경쟁자인 사촌 동생이자 동서이기도 한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다. 그리고 실성은 왕이 된 뒤에 나물왕의 아들들을 고구려나 왜에 인질로 보내어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역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격화되기 시작한 삼국 사이의 전쟁은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는 전쟁이 국가 별 영역 확대 차원에서 그야말로 삼국이 국경을 완전히 맞댄 상태의 국가 운명을 건 총력전 차원으로 변하였다. 이 총력전은 군사 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전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6세기 중반 북방 돌궐의 침략으로 고구려는 남방 한강유역의 군사력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틈타 신라는 고구려와의 밀약으로 남한강 유역을 손쉽게 차지하고 이어 553년 백제가 되찾았던 지금의 서울 등 한강 하류유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백제 성왕의 보복전을 맞아 554년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고 점차 고구려 남동 해안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갔다. 그런데 본래 한강 유역 진출이나 고구려 남동해안 영토로의 진격은 군사상 엄청난 부담과 그 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한 면이 있었다. 진흥왕은 새로 획득한 영역을 적극 순수하며 국토 확장과 수호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갑자기 너무 확대된 영역을 지켜내는 일은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두 나라를 적으로 만들게 되자 이전과 달리 삼국간 군사 정치적 삼각 역학 구도의 이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고구려나 혹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그 중 어느 다른 한 나라와 연합하여 실시하였던 견제 및 방어정책을 이제 결코 손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공동 적으로 몰리는 형세가 되었다.

진평왕과 선덕여왕대에 신라가 겪은 국방상의 고초는 위와 같은 정치 군사적 정세 변화의 산물이었다. 이제 고구려나 백제와의 전쟁은 변방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영토 확장 차원의 전투가 아니고, 왕이나 중앙귀족들, 나아가 백성 일반이 곧바로 영향을 받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총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다른 두 나라의 경우도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6세기 말 7세기 초 신라의 사정을 전해주는 『수서』 권81 동이 신라전에는 모든 건장한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더구나 이 새로운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외적 위협에 크게 노출된 신라는, 외부 세력을 적극 끌어 들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실로 삼국 사이의 대결은 더욱 국제적인 대결로 비화할 소지를 가졌고 결과도 그렇게 되어 갔던 것이다.

삼국 간에는 국력에 따른 나름의 서열의식이 있었다. 백제 성왕이 신라에 고구려를 함께 칠 것을 요청해 왔을 때 진흥왕은 소국으로서 대국을 공격하는 일의 위험성을 크게 염려하고 결국 고구려에 이 사실을 알렸다. 뒤에 고구려가 신라의 영토가 된 북한산성 등을 침공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진평왕은 608년 승려 원광을 시켜 결사표를 지어 수 양제에게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연간의 신라가 재정비된 백제 군사력의 강력함을 크게 의식하면서 고구려와 당에 도움을 청한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아 삼국의 국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상대적 약소국이었던 신라만 해도 가야를 위시하여 한강 유역과 고구려 남부를 장악하게 되면서 국력이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삼국 말의 백제와 신라의 군사 수는 훈련이 잘 된 정병을 기준으로 약 6~7만 명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삼국의 국력은 대체로 보아 그 가시적 영토의 넓이와 무관하게 6세기 중반 이후 거의 비슷한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고구려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중국이나 북방 유목세력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큰 부담을 띠고 있었던 만큼 백제와 신라를 상대하는 데 국력을 쏟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삼국간의 대립에 사용할 수 있는 국력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삼국은 어느 한 나라가 강성해 질 때 필연적으로 다른 두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협력한다면 결국 어느 나라도 일방적 승자가 되기 어려운 구도였다.

삼국 사이의 팽팽한 정치 군사적 삼각 역학 구도는 각국으로 하여금 여타 외부 세력의 향배에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미 왜가 일찍부터 백제와 연결하여 삼국간의 경쟁에 깊이 관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중국 측이나 그 주변 유목 민족들의 향배 또한 삼국의 역학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미 서력기원전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적극 진출하였던 중국 세력은 동북방의 안정을 위해 삼국과 조공 외교체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선진의 정치 군사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나름의 중주권을 행사하는 처지라서 중국 정권과는 대립적 관계를 이를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수<sup>隋</sup>가 중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에까지 확고한 중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고

구려는 수와 항쟁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수의 침략을 물리치자 그 계승자인 당<sup>唐</sup>의 침략을 막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당은 수가 벌인 군사작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 철저한 군비를 갖추 고구려를 공격함은 물론, 백제나 신라 등 고구려의 경쟁 세력과도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그를 압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때에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와 침략으로 시달리던 신라도 중국 세력의 개입을 적극 희망함으로써 양자의 필요에 의한 군사 동맹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진흥왕이 6세기 중엽에 펼친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정책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적 반격으로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 신라의 절실함과, 동북아의 유일한 패자가 되려던 당의 침략 의도 앞에 만주와 한반도는 7세기 중반 치열한 국제적 전장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 2.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원인

신라가 삼국 대결에서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가 갖춘 여러 분야의 역량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직접적으로는 정치 군사적 대처에 적극적이며 용의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주 대상이었던 고구려나 백제 자체 내부의 국가사회적 모순이나 한계점 등도 당연히 신라의 승리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따라서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신라에 비해 선진이었던 고구려와 백제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원인은 상당 부분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편의상 두 나라의 경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멸망의 순서로는 백제를 먼저 말해야 하지만, 삼국통일 전쟁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백제는 나당 연합군과 고구려의 대결에서 부수적 피해를 입어 폐망이 재촉된 면이 있는 만큼 고구려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 고구려 멸망의 원인

고구려의 멸망을 아쉽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인간사에도 원인과 책임이 있게 마련이듯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구려 자체가 가졌던 패망의 원인과 책임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멸망의 내재적 근본 원인은 사회발전을 담아내지 못하였던 체제의 고대적 한계성(限界性)에 있었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인 만큼 본래의 체제가 변화의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인간을 위시한 생물이나 조직이 오래되면 죽거나 해체되는 것이 필연이듯이 고구려 멸망은 700여 년 지속된 역사적 노후화(老朽化)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었던 측면이 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발전의 길을 꾸준히 밟아갔다. 압록강 중·상류의 제한된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이어 동해안과 요동지역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던 지역을 차지하며 국가 발전을 도모하였다. 4세기 후반 백제의 공격에 주춤하였지만, 광개토태왕 이래 장수왕대에 걸쳐 백제를 한강 유역에서 축출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까지 깊숙이 남하하여 동아시아에 큰 비중을 가진 패자로 자리 하였다.

서울 인근 한강 유역인 하남시 미사리에서는 옛 농경유적이 발굴되었다. 밭의 고랑과 이랑의 구조가 남아 있는 삼국시대 두 농경층위 중 아래층의 밭은 4~5세기 경 혹은 그 이전에 경작되었고, 상대적으로 뒤에 경작된 상층 밭은 6세기의 농경 흔적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하층 밭은 백제가, 그리고 상층 밭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했던 시기에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층 밭은 하층 밭에 비해 상경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의 농업기술은 강가의 충적지라는 좋은 경작 여건에서는 상경화를 실시할 만큼 발달하였다. 또 전쟁과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통해 대량의 토지와 농민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고구려의 조세제에는 역사적 발전 양상이 어느 정도 잘 드러난다. 『수서』권81 열전46 동이전 고려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고구려에는 남자 장정 호주를 기준으로 조 5석과 포 5필의 동일한 세액을 내고, 여기에 재산 정도에 따라 3등호제에 의한 호조(戶租)를 추가로 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추가로 내는 호조가 상등호는 조 1석, 중등호는 7두, 하등호는 5두씩이었다는 점이다. 호등에 따른 차액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3등호제가 재산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세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사용되면서도 재산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삼국시대 초·중반에는 주민들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그 후반으로 갈수록 농업의 발전과 군공 혹은 관리 취임에 의해 주민간의 경제력 차이가 심화되었다. 지배층의 부(富)는 전공(戰功)에 의한 포상이나 국가의 녹 그리고 대규모 농업 경영에 의하여 더욱 증대되었다. 그런데 6세기 말·7세기 초의 고구려에서 적용된 3등호제에 의한 호조는 그 차액이 매우 적어서 주민 대다수를 차지했을 당시의 가난한 일반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세금으로 받아들여졌을 지는 의문이다. 농업의 발전과 기타 여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분화를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고구려의 지배층은 자신들과 가까운 연관을 맺고 있을 부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세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법적으로 보아, 바보 온달과 같은 가난한 농민과 비단옷을 입고 노비를 부리며 살던 부자들이 일 년에 조 5말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보면 이 조세제가 지닌 문제점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하남 미사리 통일신라시대 밭 유적

이 점은 삼국시대 후반 고구려라는 국가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체제이건 간에 그것을 건설한 지배층과 그에 협조해 체제 건설에 밑받침이 되었던 피지배층은 상호 수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당대(當代)의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국가를 운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제도에 의해 그 신분적 특권이 보장되는 지배층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제도 운영에 곧바로 수용하기보다는 여전히 기득권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가급적 유지하려는 입장을 갖게 마련이다.

고구려는 족장 출신들로부터 나온 왕과 귀족을 지배층으로 한 고대국가였다. 이 지배층들은 국가 성립 초기에는 주민들의 상호 비슷한 경제력을 고려해 일단 균등한 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역사가 경과하여 재산 차이가 확대되었어도 그를 반영한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6세기 말 즈음에야 전쟁으로 증대된 국가의 재정적 필요와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배려해 3등호제를 내걸고 재산의 차이에 의한 조세 부과를 실시하였지만, 그 호등별 차액은 미미하여 지배층의 기만성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고구려가 발전적 자기 갱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고대적 성격에 머물고 있었던 점은 다른 면에서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태학 설치(372), 율령 반포(373), 불교 수입(372)은 소수림왕 초에 이루어졌다. 태학(太學)은, 통치 학문으로서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체계를 가진 유학을 중심으로 한 한학을 가르쳐 국가의 관리 후보를 양성하려 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300년이나 뒤진 682년 신문왕대에 유사한 목적의 국학(國學)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고구려에 이처럼 일찍부터 태학이 설치되어 유학 등의 소양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태학이 설치된 후 고구려가 멸망하기 까지 수백 년 간 관리 선발이나 인재 등용에 한층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거나 학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여전히 숭(崇)무(武)적인 5부 귀족들이 혈통에 따른 특권에 의해 중요 관직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물론 중국계 귀화인이나 타 종족 출신의 귀화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권의 핵심에 어느 정도까지 진입하여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내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5부의 귀족제도 마찬가지이다. 장수왕대를 전후하여 왕의 전제권이 강화된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5부 귀족들로 이루어진 지배체제를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반민은 이미 족장 휘하의 속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민(公民)으로 자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벗어나 생계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귀족 지배층은 연합적 정권을 세워 일반민들로부터 고대적 수탈을 지속하고 있었다.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층은 피지배층으로부터 유리된 채 자신들의 탐욕을 키워갔다. 그리하여 소수가 많은 국가 경영상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획책하게 되어 귀족 연합 정권조차 흔들리며 상호 충돌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자주적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는 연개소문의 642년 쿠데타도 새로운 비전에 의한 국가 발전을 지향한 위대한 결단이기보다는, 자기 가계의 권력 독점을 지속시키려는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고구려 멸망의 근본 원인으로는 고구려가 자리하고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를 들 수 있다. 고구려는 삼국 중 북방에 자리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중국 문물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그를 통해 선진적 문화와 국가 체제를 이룩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 건설 단계부터 끊임없이 중국 세력 및 북방 유목세력 등의 침략과 견제에 시달리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중국이나 북방 유목 세력은 그 힘이 강성해지면 만주 및 한반도 방향으로의 영향력 확대나 영토 확장을 노렸는데 고구려는 삼국 중 그런 침략의 물결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의 침략이나 결국 멸망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된 당의 침략도 이와 같은 역사 지리적 구도와 추세의 산물인 측면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전면에서 막다가 결국 고구려의 멸망이 재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은 건국 과정부터 있었던 만큼 그것만을 멸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고구려 멸망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는, 고구려 후기 지배층의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 및 대응 미숙을 꼽지 않을 수 없다. 6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었다. 북위가

분열하여 결국 북제와 북주로 나뉘어 대립하고, 몽골 고원의 유목제국 유연<sup>柔然</sup>이 망하고 돌궐이 강성해져 침략의 방향을 중국과 고구려로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였던 백제와 신라는 국력을 회복하고 신장시켜 고구려의 위협이 되고 있었다.

물론 고구려는 신라와 밀약을 맺고 한강유역을 내어주며 돌궐의 침략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때에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마음만이 앞서서, 새로운 다크호스인 신라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한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과거보다는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신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영토를 손쉽게 내어 주어 신라의 급성장을 도와준 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점이 삼국시대사의 전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후의 역사가 입증하였다.

더구나, 고구려 지배층은 귀족 연합정권을 구성해 중국 및 돌궐 방면의 침략을 잘 방어하였다고 하지만, 수<sup>隋</sup>의 천하 통일 이후 역사 전개 과정을 단일하게 평가한 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조급하게 고구려 원정에 나선 중국 수 양제의 침략을 격퇴한 후 고구려인들은 수, 나아가 이어 당의 국력에 대해 일종의 자만심조차 가진 면이 없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던 점을 보여주는 일례로 을지문덕이 우중문<sup>于仲文</sup>에게 주었다는 시가 있다. 『수서』와 『삼국사기』에 똑같은 한시<sup>漢詩</sup>가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신통한 계책은 천문<sup>天文</sup>을 다 알았고  
신묘한 헤아림은 지리<sup>地理</sup>를 꿰뚫었도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둔이 어떠하리.

이 시문은 누가 보아도 조롱조이다. 물론 이 시는 우중문이 받았기에 당나라 초에 만들어진 『수서』에 실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시를 지어 전달한 을지문덕의 수<sup>隋</sup>에 대한 인식, 나아가 고구려인들의 그것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수나라는 이전에 북주<sup>北周</sup>였고 북주는 서위<sup>西魏</sup>를 계승한 나라였다. 서위는 동위

와 함께 선비족의 나라인 북위<sup>北魏</sup>가 나뉜 나라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인들이 선비족의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을 수를 내심 대단찮게 보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듯하다.

고구려인들은 적어도 국가 방어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성들은 견고하였고 방어전은 공격전보다 쉬우며 유격전에도 능했던 만큼 국가 방위에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편이다. 수와의 전쟁이 영양왕의 명에 의해 고구려의 선공<sup>先攻</sup>으로 시작된 것도 그러한 자신감의 소산이었다. 이와 같은 자부심대로 고구려는 수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고구려인들에게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 주었을 것은 물론이다.

중국에는 수나라가 망한 후 당나라가 등장하였다. 당나라의 첫 황제인 고조<sup>高祖</sup>는 수나라를 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고구려의 국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당서』 권220 고려전에 의하면, 그는 신하들에게 수나라가 끝내 고구려를 신하로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저항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반드시 고구려를 신하로 삼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은 중국의 우월함을 믿고 있던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당나라 내부의 사정을 염담하였을 고구려의 대중국(당) 인식이 어떠하였을 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의 2대 황제인 태종<sup>太宗</sup>은 팽창주의자였다. 그는 돌궐족이나 고창국 등 주위 국가들을 굴복시키거나 멸망시킨 후,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때 고구려에는 영양왕의 동생인 건무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영류왕이다. 영류왕은 당 고조의 대고구려 유화책에 부응하고 아울러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생각해 당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정책은 수와의 전쟁에서 크게 회복된 왕실의 위엄을 대외관계를 통해 공고히 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류왕의 이런 의도는 당태종의 야욕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는 우호관계를 희망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침략에 대비해 천리장성<sup>千里長城</sup>을 수축하는 작업에 나섰던 것이다.

당은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국내의 길과 방어시설 등을 탐문하였다. 직방랑 중職方郎中이라는 지도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진대덕陳大德이란 자가 사신으로 와서 고구려 관리들에게 선물공세를 퍼면서 국내 곳곳의 형세를 엿탐하였다는 사실이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에 전해진다. 당의 침략 의도는 분명하였는데 침략의 길목을 별 거리낌도 없이 알려 주고 있는 고구려 관리들의 태도는 부패한 행태라고 말하기만은 어려운 자만심의 발로에서 나온 안일함의 측면도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당태종은 큰 것을 좋아하며 공 세우기를 좋아했다는 인물평을 받던 자이다. 그가 수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차에 걸쳐 침략을 시도하다가 패하고 말았던 것은, 그의 품성에서 연유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수의 당시 중국인들도 고구려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러한 중에 연개소문이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채, 허울뿐인 보장왕을 세워두고 집정으로 군림하여 뒷날 당태종의 침략 명분이 되었다. 당은 연개소문이 국왕을 시해한 자라고 비난하며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끝내 물러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의 침략 명분이 된 채 전쟁 상태로 들어가 결국은 멸망을 재촉한 면이 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권에서 귀족들과 백성들의 일체감이 크게 상처를 입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고구려 멸망 과정에서 신라에 투항했던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나 동생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마음에서 당에 투항하여 고구려 침략의 길잡이가 된 장자 남생의 행태를 보면, 이들 가문이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집안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멸망에는 고구려 최후의 통치자로 볼 수 있는 연개소문의 국제 정치 감각의 부족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보인다. 백제의 맹공에 시달리다 구원을 요청하고자 달려온 신라의 김춘추에게 과거 한강유역 땅을 돌려줄 것을 겁박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를 당태종에게 달려가게 하여 큰 적에 만만치 않은 우군을 붙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다. 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백제가 신라의 운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정도의 외교능력을 발휘했었다면, 고구려는 당의 개

입을 차단하여 삼국 간에 군사·외교적 주도권을 구사하면서 자국은 물론 백제의 멸망을 좀 더 늦출 수도 있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물론 고구려 멸망의 좀 더 직접적인 이유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5세기 이래 남북조와 유목제국인 유연 그리고 고구려가 지역적 패자로 자리하여 백여 년 지속되어온 동북아시아의 오랜 평화가 깨어진 것이다. 특히 남북조가 수에 의해 통일되고 이어 당이 그 뒤를 계승하면서 중국의 통일 세력은 고구려의 신복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새로운 변화가 갖는 의미를 간과한 채, 자국군의 전통적 수성 능력을 믿고 저항한 고구려는 수·당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와 당의 침략 전쟁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고구려는 신라나 당에 대한 미숙한 대응 때문에 결국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에 의해 운명을 마감하게 되었다.

### 백제의 멸망 원인

백제 멸망의 기본 원인으로는 역시 건국 이후 너무 오래 지속된 국가체제의 노후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인 온조의 남하로 건립된 한강일대의 백제국은 발달한 철기 문화 그리고 중국 군현과의 교류 경험 등에 힘입어 지금의 경기도 일대에서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발전 과정에서 고구려와 장기적으로 대결을 벌인 결과 475년 개로왕이 죽임을 당하는 패전 끝에 웅진으로 부득이 천도하게 되고 이어 538년에는 사비로 재천도하는 불안정한 국가 운영을 지속한 면이 있었다.

웅진 천도 이후 국가 체제의 노후화와 비정상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갱신의 노력이 당연히 있었다. 그러나 국왕들이 자주 살해되기도 하고, 수도를 자주 옮기려 한 것 등은 국가체제 전반이 회복되기 어려운 자체 모순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중국의 『주서』 권49 이역 백제전에 의하면 ‘왕’을 칭하는 용어가 궁정과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났다고 할 정도로, 백제는 또한 주민 구성에서 이중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웅진 천도 이후 실제 주민들의 대다수가 마한 계통인들로 채워지

고 그 토착 지배층이 신진 지배층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지배체제는 재편성의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면이 있었다. 무령왕의 국력 회복에 힘입어 적극적 부강책을 시도한 성왕이 554년 신라에 복수전을 펼치려다 포로가 되어 살해된 이후, 백제는 왕권의 재 회복과 국왕의 죽음에 대한 대 신라 복수라는 새로운 짐까지 지고서 신라와의 험난한 대결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과 신라의 성장 정책 사이에 끼여 그에 대응해야 하였고, 이중적 주민 구성 등의 취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들을 늘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의 불안정이 지속되어 주민 구성의 취약성은 쉽게 불식할 수 없는 과제였던 만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다른 큰 문제들을 만나는 형국이였다. 이러한 중에 특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성왕의 죽음은 백제의 대 신라 강경 정책을 고착화하는 면이 있어서 대외관계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러한 중에 무왕의 국력 회복에 힘입은 의욕 만만한 의자왕의 등장은(641) 역설적이게도 국가 멸망을 재촉한 면이 있었다. 왕실의 조상인 성왕의 원수를 갚고, 선덕여왕의 등극과 함께 잠재된 내분 등으로 약화된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은 백제왕으로서 당연히 취해 볼 만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삼국간의 구도로 보나 신라의 국력으로 보아도 당장 그 영토를 자국 영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 만도한데, 즉위 다음 해에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는 등 대대적 강공 정책으로 나아갔다.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한 신라는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대응하였다. 의자왕은 자국이 멸망하기 1년 전에도 신라의 독산성과 동잠성을 쳤을 만큼 신라 영토 잠식에 열을 올렸다. 의자왕이 더 넓은 국제 감각을 가졌더라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변동 속에서 신라와 당의 군사적 동맹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의자왕의 신하 성충은 옥에 갇혀 죽기 전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몰려올 것 같다고 국제정세를 예견하고 그 대책을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자왕의 근시안적이고 자만에 찬 통치 스타일로는 그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조짐을 읽어낼 수 없었다. 결국 백제는 신라를 군사적으로 크게 압박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와의 외교 교섭을 거쳐 결국 당과 군사동맹을 맺게 만들었던 것이

다. 고구려를 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당태종은 신라의 후방 지원 속에 고구려와 백제를 친다는 전략에 김춘추와 합의하였다. 백제는 그 후 이십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신라 공략의 성공에 취한 가운데 오히려 갑작스럽게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 3. 신라 승리의 요인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을 하고 이어 고구려와 백제가 건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다운 체제를 갖춘 순서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로 보고 있다. 뒤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자국 역사의 연원을 의도적으로 더 높였다고 보이는데, 다른 면에서는 고대국가 체제 성립 이전의 역사 경험도 상당 부분 잘 전승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후발주자인 신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을 들자면, 고대국가 성립이 두 나라에 비해 오래되지 않아 국가 사회가 오히려 역동적이었고 사회적 모순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젊은 청년은 다소 무리를 해도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 신라는 노후한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적은 편이었다. 고구려는 백제보다 100년, 백제는 신라보다 150년 정도 앞서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므로 그만큼 신라는 두 나라에 비해 젊은 국가였던 셈이다.

7세기 삼국의 전쟁 관련 기사들을 보면 신라인들의 헌신적 태도가 눈에 띈다. 물론 결국 승리자로서 역사를 기록한 신라인들의 시각에서 윤색되고 미화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아 신라인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세는 이 사회가 갈등 요인이 아직은 적고 그것을 적절히 해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데서 비롯될 수 있었다.

전시 동원 체제가 원활히 운영된 면도 신라 승리의 한 요인으로 꼽을 만하다. 군사체제나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조차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귀족 연립 정권 등을 겪기도 한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6부병이나 귀족들의 사병 체계가 이미 사라지고 백성 일반이 병사로 징발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의 군사 통수권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작동되었다고 여겨진다. 지방 행정구역도 군사편제의 속성을 띠고 있었으며, 지방의 촌주와 촌민들도 전쟁에 동원되어 큰 공로를 세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삼국이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말기에도 국가의 정치 운영은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한 반대와 그의 정치적 능력을 둘러싼 정변이 있었으나 대체로 화백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되었음이 주목된다. 다른 두 나라의 경우에도 제가회의나 정사암회의 등 귀족협의체가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그 후반으로 갈수록 애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정 귀족이 주도하는 귀족 연합정권 회의체가 되는 등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거기에 비해 후발의 신라에서는 7세기에 이르도록 국왕권이 강성해진 바탕 위에서도 주요 귀족들의 협의체적 화백회의가 여전히 주요 국정의 심의 결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김춘추의 왕위 등극도 물론 이와 같은 중요 귀족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귀족들이 협의해 국정을 결정하는 것은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신라처럼 상대적 약자에게 중요 구성원간의 단결은 매우 유효한 생존 수단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뜻을 모아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단합해 시행할 때 그 실천력은 배가될 것이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된 일을 시행하는 신라의 귀족들은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며 헌신적으로 국정 운영과 전쟁에 임했던 것이다.

신라 정치 체제의 협의체적 운영은 최고 귀족들 간의 주요 국정 협의로만 한정되었던 일은 아니다. 신라 귀족들은 동시에 여러 주요 관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내성사신이 병부령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 등 주요 장관직 등을 귀족들이 겸직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요 관직은 2~3명의 장관을 두었다.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병부령은 3명이었으며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한 위화부령도 3명이었다. 이외에도 조부, 창부, 예부 등의 장관은 2명이었다. 다만 시대가 뒤로 갈수록 새롭게 생

겨난 부서들의 경우는 왕권 강화의 산물로서 그 장관이 1명으로 된 것이 많아졌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장관직에 2~3명의 장관이 있었다는 것도 바로 신라 귀족들의 전통적 협의체적 운영이 관직체계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의 장관제는 그 정책 결정의 신속성에는 역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협의와 상호 견제를 통해 정해진 국책의 시행은 그만큼 추진력이 더 실렸을 터이다. 많은 귀족들이 국정에 참여해 협의 결정하고 집행하는 운영방식은 그만큼 힘을 받고 귀족사회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처럼 왕조가 이미 너무 장기간 존속한 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왕과 귀족간의 불신과 대립 그리고 귀족 상호간의 구조적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신라 국정 운영의 효용성은 그만큼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국가 구성원 전반의 높은 일체감도 승리의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역사서 및 기타 금석문 등에서 만나는 신라인들의 삶과 죽음의 인간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신라에 대해 가질 법한 골품제에 의한 구별과 차별의 국가 운영이라는 선입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출신국이나 신분 혹은 세대를 뛰어넘어 신라인들이 보여준 헌신적 충성은 실로 삼국 간 및 대당전쟁 승리의 실질적 힘이 되었던 것이다. 진평왕대에 백제와의 싸움에서 고립된 눌취와 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함께 전사한 그 중의 사례나, 647년(진덕여왕 원년) 백제군이 무산, 감물, 동잠 등의 성을 공격해 와서 김유신의 군대가 심히 고전할 때 부하인 비령자와 아들 거진 그리고 그들의 종인 합절이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히 싸우다 전사함으로써 신라군을 발분하게 한 사실 등에서도 소통과 공감이 살아 움직였던 신라 사회 인간관계의 건강성을 볼 수 있다.

신라의 골품제는 차별의 대명사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주로 출생에 의해 정해지게 마련인 골이나 두품에 따라 관리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도는 물론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의 종류 심지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의 재질이나 집에 딸린 외양간의 크기까지도 규제를 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반 백성은 비단 옷을 입을 입장은 되지 못하며, 마음껏 큰 집을 지을 일도 없는 것이고 금이나 은그릇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다. 백성은 외양간에 소나 말 2마리까지 키울 수 있고 더 큰 외양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일반 백성이 소 1마리인들 쉽게 가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제시대 이래 한국 고대사회의 낙후성을 매우 강조하던 학문 분위기에서 비롯된 골품제에 대한 지나친 차별적 신분제로서의 이해는, 신라 나아가 한국 고대사회를 자칫 인도의 카스트사회와 같은 폐쇄사회로 보도록 몰아간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집의 크기나 복식에 대한 신분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전통사회에서 상위 신분의 특권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차별이나 규제 조치는 흔히 있는 일이다. 골품제의 제한 규정이 신라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불편한 차별로 의식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골품제 관련 규제 조항은 신분제가 크게 혼란을 겪고 있었던 9세기 흥덕왕 대에(834) 다시 선언된 것으로, 체제 붕괴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정책 당국의 미련과 아쉬움을 역으로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신라 주민들의 일체감은 출신국의 차이를 넘어서도 추구되었다. 524년(법흥왕 11)에 세워진 「울진봉평신라비」에는 신라가 새로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을 노인(奴人)이라고 하며 노인법으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인법의 지배를 받는 그들도 큰 재난을 만나자 공물이나 부역 등을 감면해 주는 조치가 있었던 듯하다. 다만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는 국법, 즉 율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였다. 피점령지에 대한 지배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부로서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해도 피점령지 주민들의 재난에 대해 적극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과거에 고구려 영토였던 곳을 새로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일단 피점령지법으로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임의적 처벌을 하지 않고 신라 법령에 의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점령지 주민들을 일견 차별 지배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라 주민으로 대우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울진봉평신라비」의 노인법이라는 차별적 용어는 그보다 뒤인 진흥왕대 세워진 「단양신라적성비」에서는 그런 명칭을 떼어내고 적성전사법이라는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사실 이 적성을 차지하는 데서는 앞서 법흥왕대에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왕실 출신이자 김유신의 조부인 사랑부 소속 무력지 아간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주목된다. 적성을 점령하는 데 협력한 타국 출신 인물들이라고 해도 그 공로대로 포상하고 돌비에 새겨 신라국의 선무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진흥

왕대 신라의 열린 종족의식을 잘 보여준다. 곧이어 행한 순수를 통해 새겨진 「황초령비」·「마운령비」 등에도 다양한 종족을 휘하에 다스리게 된 진흥태왕은 “아래로 □□□하여 신고(新古)의 백성을 기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도(道)가 충분히 미쳤다고 말할 수 없다 ……” 하였다. 새로운 백성과 종래의 백성을 모두 통치의 대상으로 하여 민심을 살피고 충성스런 공로가 있는 자들을 적극 포상하고자 대대적 순수의 길에 나선 것을 볼 수 있다. 진흥왕, 나아가 신라 정부의 피점령지인에 대한 열린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주민의 수가 아직은 고구려 백제에 비해 크게 부족했을 신라로서는, 과거 가야나 백제 그리고 고구려 출신 피점령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자국민으로 삼는 길만이 자신들이 존속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삼국통일 전쟁을 중심으로 보아도 결국 가야계인 김유신이 이러한 포용적 태도와 정책 덕분에 신라의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가야계를 위시한 지방 출신들의 헌신적 충성을 얻어내 신라가 최종 승리를 쟁취한 면이 있는 것이다.

주민의 일체감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진 면도 있다. 삼국시대 후반, 나아가 통일전쟁기의 전투사를 보면 신라의 청소년 화랑들의 헌신적 공헌이 두드러진다. 진흥왕대의 화랑 사다함으로부터 뒤의 유신이나 관창 등 술한 화랑이나 낭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선두에 서서 참전함으로써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올린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김유신처럼 가야계로서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인 귀족 출신이 저명한 용화향도라는 화랑도 조직을 이끈 화랑이 된 것을 보면, 진흥왕대에 국가적 관리 체계를 갖춘 신라 청소년의 화랑도 운동이 신분제 내에서 나름의 개방성을 갖고 인품과 실력 중심으로 운영된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화랑도 운동은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울리며 스스로 인품과 실력을 닦는 교육과 심신 훈련의 성격을 가졌다. 단체 수련 생활과 그 세속오계 등을 통해 강조된 충, 효, 의리, 우정 그리고 호방한 생사관 등은 곧 조화로운 사회관계 형성과 국가 정치 및 군사 운영체계에 윤리적이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신라 청년들이 장차 국가 지도자임을 자부하고 실력을 갖추고자 하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자 한 사실은, 「임신서기석」에 보이는 어느 청년 둘이 약속

을 한 후 새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생산기반의 충실한 확보도 꼽을 수 있다. 신라의 우경 등 농업 기술의 보급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세기 지증왕 이후 실시된 신라의 권농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역동적이었다고 보인다. 산간 계곡을 이용한 저수지가 축조되고, 더구나 가야지역에서 이미 발달한 농업기술이 곧 신라 농업에 파급되었을 것도 물론이다. 통일신라에서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농가의 우·마 소유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촌락들은 왕실직속의 다소 특수한 처지에 있었던 취락이라고 하겠지만, 지증왕의 우경 보급 등이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 준다. 신라의 생산기반은 낙동강 유역의 가야는 물론 한강유역과 함흥 등의 고구려 남동해안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가야지역과 한강유역의 영토 편입은 군사, 정치, 외교 및 농업생산 부문에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확충에 큰 기여가 되었다. 삼국시대 말에 고구려와 백제의 국토가 점차 축소 국면에 들어갔던 데 비해 신라의 영토와 주민이 대체로 확대되어 간 것은, 차후 신라가 군사 및 재정 운영과 조세 수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었던 기본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국가를 수호하는 데 왕실과 귀족은 물론 일반 백성 그리고 지방민까지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던 점도 주목된다. 648년(진덕왕 원년)에 압량주 군주로 있었던 김유신은 주민들이 오히려 백제와 전투를 하고자 하는 민심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한다. 신라의 지방지배가 상당한 성공과 일체감을 얻어내고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지방민들조차 이처럼 대응한 것은 대민 정책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일반 주민들이 신라왕이나 지배층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특별히 충성을 다할 이유는 없다. 지방민이 중앙 지배층에게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헤아려 본다면, 전공 포상이나 그로 인한 일부 관직 취임 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 효과라는 면에서는 역시 조세제도 상의 이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자료로 당시 조세제도의 실상을 헤아려 보기는 무척 어렵지만 몇 가지 내용이나 나름의 특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남산신성비」 등을 통해 보면 신라의 지방민에 대한 부역 징발 등은 매

우 철저히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성비의 비문들에는 해당 촌의 부역 담당 내용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작업이 불성실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등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부역이나 세금은 법대로 엄정하게 징발, 징수되는 사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율령에 의해 정확하게 부역이 징발되고 그 책임자들의 이름이 비문에 새겨지는 등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최초의 작업 수행 자체는 다소 힘든 일이 되겠지만 임의적 인원 징발이나 재작업을 위한 추가적 징발 가능성 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서』나 『구당서』의 동이전 신라조를 보면 신라의 풍속이나 형정刑政, 의복 등은 고구려나 백제와 거의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세제도 전반도 대략 이 두 나라와 유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연구 성과들도 인두세와 호동제가 가미된 고구려 식의 조세제도에 근사한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신라 백성들이 고구려나 백제 백성들에 비해 별다른 조세 수취 상의 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다른 두 나라에 비하여 발전이 뒤늦었던 신라가 삼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던 6, 7세기에 두 나라와 유사한 정도로 진전된 수준의 조세 수취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서도 혜택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분화와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진한데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고려해 경제력에 따라 차등있게 조세를 수취하였다면 일반 주민들로서는 그만큼 더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라는 주민과 영토가 대체로 확장되는 추세였던 만큼 조세 수취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다.

신라는 물론 고려나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전통적 양전量田 방식인 결부제結負制가 당시의 조세 수취와 깊은 연관성을 가졌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결부제는 7세기 중엽 신라에서 시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앞서 율령 등에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다. 또 일본에서 율령국가 체제가 마련되어 가던 시기인 7세기의 양전제에 신라의 결부제가 참고되었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 그때에 일본에서는 양전의 결과에 따라 비중은 적은 편이나 경지 면적에 따른 전조田租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신라에서도 그 실상은 다 알 수 없으나 합리적인 조세 수취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국시대 말에 호등의 산정이나 혹은 전조 수취에서 결부제에 의한 경지의 다과 등이 참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데 조세 수취는, 조선 후기의 사실들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조항 못지않게 담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배려나 정부나 관료들의 자세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부담의 폭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라 후기에 신라인들이 보인 전반적 화합과 단결의 풍조로 볼 때, 늘어난 영토에서 확보된 경지나 주민 수를 기본 여건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수취 양은 물론 정부나 관료들의 태도도 수탈적 면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신라가 조세 제도에서 백성을 적극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견포의 길이와 폭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665년(문무왕 5)에 실시된 바에 의하면 기존의 견포(縞布) 한 필의 길이가 80자였던 것을 42자로 줄였다. 세금으로 거둬지기도 하였을 견포의 길이를 크게 줄인 것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적극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어온 기준 척도(자)를 바꾸면서 나타난 일로서 액수 비율 그대로의 감액이라 볼 수는 없더라도,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해인 669년(문무왕 9)에는 귀족들을 위시한 관료들에게 전공 포상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그런데 이 때에도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이 실시되면서, 곡식을 빌린 백성들로 하여금 풍년 농사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본곡(本穀)과 이자의 상환을 면제하고 다만 풍년이 든 곳에서는 본곡만 갚도록 하였다. 백성의 고통을 적극 배려하고 승전의 공을 함께 나누는 국가의 정책 기초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주민들이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농사와 군량 마련 등을 위한 조세 수취에 큰 고통을 겪은 사실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의 백성들, 특히 지방민들까지도 충성을 다한 그 이면에는, 위와 같이 국가의 조세제도가 가진 나름의 제도상 합리성과 운용상 유연성이 자리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신라 지배층들이 상호 협의와 견제의 정치를 하였던 바,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휘하 주민들의 안정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좀 더 합리적

이고 탄력성이 있는 수취를 일찍부터 적용함으로써 신라인의 일체감이 고취되고 거시 통일의 한 역량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멸망 원인으로 그 지정학적 위치를 비중 있게 볼 수 있다면, 신라가 끝내 승리하게 된 근원적 구도상의 원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새로 조성한 고구려 및 백제와의 적대적 국제관계 자체의 절실함을 꼽을 수 있다. 신라가 백제를 배반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남동해안 영토까지 차지하고 올라간 이상 두 나라와의 적대관계는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신라는 이제 고구려 및 백제와 삼각구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신라 진흥왕의 백제 및 고구려 영토 점령은 삼국관계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차원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가져왔다. 즉 신라가 끝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두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국제관계는 차후 신라인들에게 엄청난 국방의 부담을 지웠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중국 측과도 연결하여 인접한 두 나라를 물리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적대적 국제관계 자체의 절박함은 신라인들로 하여금 통일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곧 통일 의지로 발전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삼국통일이 진정 신라가 주도하여 쟁취한 것인지 아니면 당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서 비롯된 산물에 불과한 것인지로 보느냐에 따라 신라의 통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또 신라가 과연 통일의 의지나 정책이 있었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교도 분명 국가 간 경쟁이고 전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삼국간 전쟁을 통해 수만 혹은 수십만의 신라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더구나 결국 당군과 싸워서 그들의 침략 의도를 물리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이 엄청난 민족사의 대 변동을 우연의 결과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통일이라는 대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역사적 결과물이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고 그리고 심지어 시대적 정세의 도움까지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라에 통일지향의 이념이나 적어도 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인식이나 신념 같은 것이 지배층이나 주

민들에게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우선 6세기 중반 삼국사의 중심에 있었던 신라 진흥왕에게 대대적 영토 확장에 따른 새로운 국제관계가 일으킬 문제점과 이 때문에 발생할 국가의 장래사에 대한 염려나 인식이 없었을 리 없다. 백제 성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고구려와 밀통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이어서 고구려의 남동해안 지역을 차지하였던 그로서는 차후 삼국관계에서 신라가 깊어지게 될 부담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마땅히 있었을 것이다. 진흥왕은 성왕이 상호 연합하여 고구려를 칠 것을 제의해 오자 고구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결국 고구려와의 밀약에 의해 남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쉽게 넘겨받다시피 했던 것이다. 곧 이어 백제가 되찾았던 한성일대를 차지하였다. 그 뒤 복수전을 펴기 위해 침공해온 백제의 성왕을 생포하여 죽였다. 이러한 격변의 역사적 현장을 주도하였던 진흥왕이나 신라 핵심 지도층들이 차후 백제와의 관계가 불구대천의 공존할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전망하지 못했을 리 없다.

또 신라는 이어 고구려의 남동해안 지역을 공격해 차지하였다. 이때에 차후 고구려와도 공존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역시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신라가 선택한 백제 및 고구려와의 이런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길은 자신이 승자가 되든지 아니면 항복하는 경우만 있을 뿐인 엄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진흥왕은 머뭇거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백제와 고구려에서 빼앗은 점령지를 순수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신 점령지를 순수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을 선무하는 의미가 물론 크겠지만, 과거 이 지역들이 속한 두 나라를 의식하고 나아가서는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수레가 닿은 한성은 곧 백제의 옛 수도였고 황초령이나 마운령은 고구려와 인접한 국경지역이었다.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친히 대대적 순수를 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점령 의지를 천명함은 물론이고 차후로도 영토 확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후 진행된 역사의 결과로 보면 통일 의지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진흥왕은 자신을 태왕이라 하며 연호를 자주 바꾸어 제정할 만큼 마치 중국의 천자天子와 같은 위상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진흥왕은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나중에는 승복을 입고 생활할 만큼 불경에 보이는 전륜성왕을 자임하였던 것

도 잘 알려진 일이다. 전륜성왕은 물론 불법으로 천하를 점령한 왕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정복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천하의 태왕으로 전륜성왕을 자임한 그가 피할 수 없는 적대국이 된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을 듯하다.

그가 인도의 아소카왕이 보내 준 금과 철로 황룡사의 장육존상을 주조하였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정복왕으로서 불교를 크게 발전시킨 전륜성왕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인물인 아소카왕도 이루지 못한 큰 일을 그의 도움까지 받아서 진흥왕이 이루었다는 것이다. 신라 사회에서 진흥왕이 아소카왕에 못지않은 전륜성왕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진흥왕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전륜성왕에 해당하는 동륜과 사륜이라 하였다. 동륜은 진흥왕의 장자이며 진평왕의 부친이지만 요절하여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사륜은 철륜과 같은 뜻으로 뒤에 진지왕이 되었다. 아들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은 것은 역시 자식들도 전륜성왕이 되어줄 것을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진흥왕은 자신과 후손이 전륜성왕으로서 삼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삼국을 통합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짧은 기간의 재위를 통해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진지왕이 통일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진지왕을 이어 즉위한 진흥왕 손자 진평왕은 위화부를 설치하는 등 여러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정비하였으며 국토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부친은 진흥왕의 장자인 동륜태자인 바, 아버지가 전륜성왕을 지향한 이름을 하고 있었으니 그도 전륜성왕을 의식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602년(진평왕 24)에는 백제의 신라 침략이 있었고 이어 그 다음해에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략하자 진평왕은 친히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아갔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시달리던 그는 608년 원광법사로 하여금 결사표를 짓게 하여 수나라의 군사를 빌어 고구려를 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국가 경영자인 그가, 신라는 결국 고구려 및 백제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611년(진평왕 33)에 17세의 청소년 화랑인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 및 말갈의 침략을 맞아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맹세하며 산속의 굴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도움을 청하였다

고 한다. 당시 화랑인 청소년도 이같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적국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 의자왕의 집중적 공격에 힘겨워하던 선덕여왕은 여성 왕이라서 주위 나라들이 일본다는 당태종의 조롱을 뒤로 하고 오히려 황룡사에 구층탑을 건립함으로써 천자국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 구층탑은 고구려, 백제를 포함한 주위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 전해지는 만큼, 선덕여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졌을 것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삼국 간 최종 자웅을 겨룬 대규모 전쟁의 지도자였던 무열왕이나 문무왕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통일의 의지를 가졌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통일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은 국왕이나 최고 지배층만이 가진 것이 아니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7세기 초의 화랑 김유신에게서 그러한 인식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용화향도라는 화랑도의 화랑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그의 낭도들도 그와 같이 고구려, 백제와 공존할 수 없는 국제관계를 인지하며, 반드시 신라가 두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화랑도 무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세속오계에는 '임전무퇴'가 있어서 현실의 적인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실제 삼국 사이 전쟁에서 신라의 화랑이나 군사 그리고 심지어 종들까지 보여 준 헌신적이고 용감한 전투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대외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외적 위기감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을 물리치지 않으면 신라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다수 신라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량주 군주였던 김유신이 짐짓 술로 세월을 보내자 오히려 주민들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적극 내비쳤다고 한 것을 보면, 신라인들의 국가 운명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공감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무왕이 당의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671)에 의하면, 668년 신라 병사들은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한 후 두 나라를 평정하는 것이 누대累代의 장망長望인데 오늘에야 이루어졌다고 한 내용이 전한다. 문무왕대에 말해지는 '누대'라는 것이 무열왕 정도까지만 이르지 않을 것은 쉽

게 짐작이 간다. 신라 병사의 상당수는 진평왕 말년에서 선덕여왕 연간에 태어났을 만한 연령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누대의 오랜 소망'은 실로 중고기 이래의 염원이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고기 진흥왕이 보여준 적극적 군사·정치·종교 행적에서 우리는 삼국통합의 필연성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고구려, 백제와의 대립 관계 심화와 함께 삼국통합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그의 후손들인 신라 왕실은 물론 지배층과 주민 일반에게까지 번지고 계승되었던 것이다. 물론 신라는 흔히 말해지는 대로 수·당과 고구려의 충돌 과정에서 삼국통일을 얻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의 대고구려전에서, 신라와 동일한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할 여지가 있었던 백제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멸망을 재촉 당하고 말았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국통합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준비한 신라가 쟁취한 결과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신라 지도층의 폭넓은 국제 감각과 헌신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신라 지배층의 뛰어난 국제 감각과 리더십은 적어도 진흥왕으로부터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는 고구려와의 밀약을 통해 차후 맞을 수 있는 고구려의 반격을 대비하면서 영토를 손쉽게 확장하는 실리를 취하였다. 아울러 백제가 되찾았던 한강 하류일대를 기습적으로 차지하고는, 고구려가 처한 어려운 국제정세를 간파하고 그 남동해안까지 영토로 삼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신라 진흥왕이나 신라 조정의 행태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운을 건 대 군사·정치적 작전을 펼치는 데서 신라가 행한 대응을 개인사의 경우처럼 도덕적 기준으로만 판단해 말할 수는 없다. 백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구려와 전쟁을 기도한 것이나, 신라 측의 국익우선 정책 수행을 한없이 비난할 수만은 없다.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호 동맹을 맺는 마당에, 해당 작전 이후까지를 염려하고 고구려를 달래 손쉽게 더 큰 이익을 얻어낸 신라 지도층을 비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백제 성왕은 고구려의 국제적, 군사적 어려움을 일찍 간파한 만큼, 과거에 동맹국이었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국익 추구에 따른 여러 가지 가변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국가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위치임을 생

각할 때, 그의 대신라 인식이 너무 안이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뒤에 진평왕은 대폭 확장된 국경의 방어에 상당히 고심하게 되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반격에 대비해 중국 측, 특히 수와 적극적 우호관계를 맺고 그 군사력을 이용해 고구려 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막으려는 시도를 펼쳤던 것이다. 이때 삼국은 서로를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로서 상호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삼국이 상호 민족적 일체감을 가진 단계는 아니었다. 설혹 민족적 동질성을 상호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국가 존망을 다투는 문제는 자국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다른 차원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에 노출된 신라가 중국의 외교 군사적 힘을 빌려 두 나라를 견제하려는 태도는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당시 국제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었으며, 이를 굳이 비난한다고 하면 돌궐이나 말갈을 이용하려 한 고구려나 왜와 연계하여 국제관계를 풀어보려 한 백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신라가 중국의 위세를 빌리려 한 것은 군사·정치·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족하다.

김춘추가 보여 준 대외교섭 능력과 성과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642년 대야성전투의 참패에 의해 신라 조정은 커다란 분노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김춘추는 외교적 성과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구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현재 전하는 자료들이 뒤에 무열왕이 된 이 인물을 다소 우호적으로 운색하고 있겠지만, 그가 인질로서 잡힌 처지에서 능변을 통해 극복하고 귀환한 결과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가 고구려측에 한 이야기가 다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 진흥왕대에 고구려로부터 거저 얻다시피 한 영토를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대답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이다. 신라의 최고위급 사신을 무단히 억류할 입장이 아니었을 고구려 연개소문 정권도, 그 대답의 실현 여부를 확신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일단 명분을 얻고 그를 귀환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명한 김춘추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관계의 냉혹성과 엄정성을 확인하는 큰 경험을 하였다.

그 뒤 김춘추는 결국 당으로 가서 태종과 외교적 협상을 벌였다. 고구려 정벌을 위해 노심초사하던 당태종의 의중을 잘 알고 그를 이용하여 고구려와 백제라는

공존할 수 없는 적을 일거에 쳐부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당태종이 김춘추를 대한 태도를 보면 김춘추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태종은 김춘추를 신성한 인물로 보고 대우하였다고 하는데, 이로써 곧 그를 왕이 될 만한 탁월한 인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러한 김춘추는 왕으로서 나라 일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결국 장춘과 파랑의 혼령이 나타나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사실을 알려 주는 일이 있었다고도 한다. 그의 국정에 대한 절실한 책임감과 거기에서 비롯된 지도력이 혼령까지도 감동시키고 있다고 말해질 만큼 신라인들의 큰 공감을 받고 있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의 지도력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정치 군사적 상황으로 보아 부친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더구나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삼국 통합을 이루었다. 특히 문무왕이 즉위한 이후는 당이 백제를 점령하고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고 나아가 663년에는 신라까지 계림도독부로 두어 지배 야욕을 드러내던 시절이다. 신라 정부로서는 고구려 정벌까지는 당의 군사력을 우호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고구려 정벌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대당전쟁을 대비하여 신라인은 물론 고구려 유민들의 성원까지 얻어야 하는 힘든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아 문무왕은 이러한 외교 및 국방 정치상의 어려움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적합한 정책 대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전후 포상으로 귀족과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대사면과 감세 및 부채탕감 등을 통해 민심을 확고히 산 후 고구려 유민들을 적극 선무하여 그들의 호응까지도 얻어냈던 것이다. 거기에서 당의 서쪽 방면 토번의 정세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당 군사적 강공이 필요한 때에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군을 적극 공격함으로써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당에 사신을 보내 당 황제를 달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실익을 확보해 결국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다.

나아가 문무왕은 안승 등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여 고구려 정부를 일면 존속케 하는 정책으로 결국 고구려가 신라에 투항 통합되는 형식을 밟게 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차후 일통삼한의 위업 달성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할 만한 명분을 쌓았다. 폭



그림 2. 경주 대왕암(문무대왕릉)

넓고 장기적인 안목의 외교 감각과 통합의 철학을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발휘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경주에 성을 쌓고자 하였으나 의상의 진언에 따라서 즉시 그 일을 중단하였다. 이는 열린 소통의 자세와 백성의 고난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을 화장해 동해에 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리하여 지금까지 대왕암의 신비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용이 되는 것이 불교의 윤회설로 보아 짐승으로 화하는 것이라 하여 지의법사가 그런 소원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영화보다는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화장하여 재로 뿌려지고 결국 동해의 용이 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니 그의 국가를 위한 헌신성은 사후에도 빛나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이 신라인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은 달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후발 성장도상의 국가로서 갖고 있었던 역동성, 안정된 농업 생산 기반, 높은 사회적 일체감, 매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세제도 운용, 공존이 불

가능하게 된 절박해진 국제관계와 통일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통일의지) 그리고 지배층의 국제 감각과 헌신적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신라는 고구려 및 백제와의 경쟁에서 가진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다. 여기에 때마침 닦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편 움직임은, 후발국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 두 선발국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결과를 더욱 촉진해 주었다.

(김기흥)

## 참고 문헌

- 김기흥,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찬홍, 2010, 「고대 한국과 일본의 양전제 비교 고찰」, 『한국사학보』 41.  
 윤선태, 2002, 「한국 고대의 척도와 그 변화 - 고구려척의 탄생과 관련하여 -」, 『국사관논총』 98.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이상훈, 2012,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결부제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21.

## 제2장

# 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1.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적 자산
2. 신라의 '일통삼한' 의식
3. 통일의 시점과 대당전쟁
4. 통일에 대한 논쟁
5. 삼국통일과 그 의의

### 1.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적 자산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신라가 당을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이 완수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 단일한 민족문화와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고, 또 “이 시기의 예술세계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통일과 균형의 아름다움을 통해 불교세계의 이상을 실현하였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석굴암이다.”라고 하여 신라의 삼국통일이 갖는 민족사적 의의와 통일 이후 신라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헌신적 지도력, 신라 화랑의 빛나는 용기 등에 대해서도 신라 당대부터 끝없는 찬사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나 개설서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었고 고구려의 고토 ‘만주’를 잃어버린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통일의 한계점을 강조하는 부정적 시각도 반드시 곁들여져 있다. 심지어 “신라의 삼국 통일은 통일이 아니며, 단지 백제의 멸망에 불과하다. 고구려를 이어 발해가 등장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서 양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까지도 나와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긍정, 부정의 서로 다른 양극단의 평가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는 삼국통일이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평가자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 그 자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이다. 역사는 현재의 누군가가 기억하고 되뇌고 싶은 과거이며, 그렇게 소환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재평가된 현재의 해석이다.

여기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억하고 평가했던 지난 역사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신라의 삼국통일은 또한 어떤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한다.

## 2. 신라의 '일통삼한' 의식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자부심은 이미 신라 당대인들의 말 속에 나온다. 김유신의 현손인 김장청이 지은 『김유신행록』에 의하면, 임종 직전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삼한<sup>三韓</sup>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에게 두 마음이 없으니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히 ‘소강<sup>小康</sup>’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이때는 673년(문무왕 13)으로 고구려 및 백제 양국을 병합한 직후였다. 통일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김유신은 ‘삼한일가<sup>三韓一家</sup>’로 신라가 ‘소강’, 즉 태평에는 못 미치나 매우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686년(신문왕 6)에 건립된 청주 시 운천동사지에서 발견된 신라의 사적비<sup>寺蹟碑</sup>에도 “합삼한이광지<sup>合三韓而廣地</sup>”, 즉 “신라가 삼한을 통합해 땅을 넓혔다”는 구절이 보인다. 이때의 ‘삼한’이라는 용어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원래의 역사적 실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삼국’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7세기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작성된 문헌자료나 금석문을 살펴보면, ‘삼한’이라는 용어가 그 역사적 실체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가리키는 타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때 삼한이라는 용어는 ‘해동<sup>海東</sup>’이나 ‘청구<sup>靑丘</sup>’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몇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당 제국의 팽창적 동방정책이 삼국 각각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삼국이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역사적 실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신라·고구려·백제 등 삼국은 결코 각기 다른 민족(ethnic group)으로 구분될 만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삼국의 언어 혈통 습속이 비슷했다는 것은 현재 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에 수·당의 중국인들은 삼국을 동질적

국가군으로 이해하고, 통칭하여 삼한 또는 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651년 당고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보낸 국서에 ‘해동삼국<sup>海東三國</sup>’이라 언급하면서, 또 ‘삼한<sup>三韓</sup>’으로 표현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 준다.

별개의 고대국가로 성립한 삼국은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반목을 거듭하면서 대립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서로 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유대감은 미약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하던 삼국이 동일한 역사공동체로 승화되는 전환점이 7세기 후반에 찾아왔다. 우선 백제, 고구려의 멸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삼국 유민이 신라라는 하나의 국가 내로 통합되었다. 이어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이 신라마저 굴복시키려 하자, 신라는 당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민족포섭정책’을 통해 당을 삼국 공동의 적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신라국가 내로 묶인 삼국 유민이 화학적으로 융합되고 통일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660년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백제인도 그 재능을 헤아려 신라의 관료로 임용하였다. 문무왕도 이러한 삼국 유민의 포섭 정책을 이어 갔다. 신라와 당이 대결하게 되자, 670년(문무왕 10) 신라군은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합동으로 당의 전초부대가 주둔했던 오골성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당시 신라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포섭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었음을 잘 말해 준다. 672년(문무왕 12) 8월에 신라군이 고구려 군사와 더불어 당군과 싸워 많은 전과를 올렸던 사례도 그러한 경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군사조직은 9서당<sup>九誓幢</sup>으로 정비되어 갔다. 9서당 중 신라민으로 구성된 경우는 3개뿐이고, 나머지 6개는 새로 흡수한 고구려인 3개, 백제인 2개, 말갈인 1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85년(신문왕 5)에 전국을 9주<sup>九州</sup>로 편제한 신라의 지방행정 제도도 주목된다. 원래 9주는 하<sup>夏</sup> 나라의 우왕<sup>禹王</sup>이 천하를 9주로 구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신문왕은 9주를 삼국의 영역에 의도적으로 각각 3주씩 나누어 배치하였다. 이러한 신문왕의 9주 편성에는 신라가 삼국을 평정하였다는 것과 삼국이 어우러져 하나의 천하가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 신라의 9주에는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고구려국왕’으로 책봉해 익산의 금마저에 살게 하는 등 고구려 왕실을 신라 내

의 제후국으로 포섭하였다. 이는 신라가 백제만이 아니라 고구려까지도 통합하였다는 객관적 기초를 스스로 마련한 것이었다. 신라는 일본에 이 고구려국의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고구려가 신라에 통합되었음을 과시하였다.

이처럼 신라 왕실의 삼국 통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는 당나라에서 김춘추의 묘호를 태종이라 한 사실을 문제 삼자 신라 조정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고종高宗이 692년(신문왕 12)에 보낸 조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당나라 태종 문황제文皇帝는 신묘한 공과 거룩한 덕이 천고에 뛰어났으므로 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 묘호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너희 나라의 선왕 김춘추가 그분과 같은 묘호를 쓰니 분수에 매우 넘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야 할 것이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이에 신문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여 대답하였다.

“선왕 김춘추는 자못 어진 덕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어진 신하 김유신을 얻어 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삼한을 통일했으니, 그 공적을 이룩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그가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묘호를 태종으로 한 것입니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신라 왕실은 “선왕이 이룩한 ‘일통삼한一統三韓’의 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린 것”이라고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태종 김춘추가 일통삼한의 공을 이루었다는 신라 왕실의 자부심은 후대에도 전승되었다. 경문왕景文王(재위 861~875)이 월악산 월광사月光寺에 머물던 대통大通에게 주지를 추인해 준 글에도 “옛날 우리 태종대왕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 삼한을 정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였다.”며 이 사건을 특별히 기리고 있다.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

이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공으로 신라 종묘에서 영원히 훼손되지 않은 불천지주不遷之主로 모셔진 것도 이를 잘 말해 준다.

신라 왕실의 자부심이었던 삼국통일 의식은 698년 ‘발해’의 성립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발해를 고구려의 재흥으로 받아들여, 발해를 ‘고려(고구려)’라고 불렀다. 이처럼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표방했던 발해의 성립은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다고 자랑했던 신라 왕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근거에서 뒤흔든 진짜로 심각한 위기는 오히려 신라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900년(효공왕 4)에 견훤은 완산주(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백제’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장광설을 토했다.

“내가 삼국의 시작을 상고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신라) 혁거세가 일어났다. 백제는 나라를 금마산에 개국하여 600여 년이 되었는데 총장桴章 연간에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에 의해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수군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신라의 김유신은 군사를 정비하여 황산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했으니, 어찌 (백제)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씻지 않을 수 있겠는가!”(『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견훤)

이어 901년에는 궁예가 송악(지금의 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옛 고구려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로 선포하였다. 궁예 역시 신라에게 망한 고구려의 원한을 강조하였다.

“이전에 신라가 당나라에 군대를 청해 고구려를 격파했기 때문에 평양 옛 도읍은 황폐해져 풀만 무성하게 되었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견훤과 궁예,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출신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연고도 가지지 않은 옛 백제 땅과 옛 고구려 땅에 가서 짧은 시간 내에 국가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 지역의 호족과 일반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신라’ 지역정서를 강하게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가 통일 이후 일통삼한을 내세웠고 삼국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옛 고구려와 옛 백제의 영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라인이라는 의식보다 여전히 옛 고구려와 옛 백제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삼국 통일 이후 240년이 지났는데도 삼국은 이처럼 다시 분립되었다.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견훤과 궁예는 각각 백제와 고구려의 부활을 자처하였다. 이로 인해 후삼국 시기의 분립을 극복한 고려 왕조 역시 ‘일통삼한’의 명분을 내세웠다. 『삼국사기』는 비록 열전의 형태를 빌리긴 했지만 견훤과 궁예의 왕조를 포괄하였다. 이는 고려인들이 삼국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에 의해 진정으로 통일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삼국유사』에도 후백제의 견훤이 백제 계열 상의 마지막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된 이후에도 삼국 유민 의식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는 고려의 중앙 정치질서가 이완되었던 무신집권기의 민란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에 신라, 가야, 백제의 고지(故地)에서 각국의 부흥을 기치로 내건 지방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다. 고려를 이어 조선의 건국주체들까지도 자신들이 ‘일통삼한’했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일통삼한’, 즉 삼국통일을 표방했지만 그 내부에는 삼국유민의 분립의식이 소멸되지 않은 채 잔존해 있었다. 또 발해의 성립으로 신라가 고구려를 통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신라를 이은 고려와 조선이 신라에서 비롯된 일통삼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계승함에 따라, 오히려 신라의 ‘일통삼한’에 대한 위상은 더욱 굳건해졌다. 신라의 영토와 문화를 계승한 고려와 조선은 사실상 재분열된 삼한을 다시 일통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우리의 통사체계를 구상하는 속에서 신라는 삼국통일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된다. 반면 발해는 이에 비례해 우리 역사공동체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통사인 『동국통감』의 본문 편차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외기(外紀), 삼국기(三國紀), 신라기(新羅紀), 고려기(高麗紀)가 그것이다. 이 중 ‘문무왕 9년(669)~태조 18년(935)’의 시대를 ‘신라기’로 독립시킨 것은 그 이전에는 시도된 일이 없는 새로운 편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삼국병립기와 문무왕 9년 이후의 통일기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을 크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동국통감』의 찬자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국통감』에서는 발해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라에 이웃하였던 나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7세기까지 주류를 이루었고, 그 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동국통감』 이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사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에 삼국을 서로 대등하게 바라보았던 ‘삼국균적론(三國均敵論)’을 대신해, 심지어 삼국시대조차도 신라를 정통(正統)으로 인식하는 ‘신라정통론’이 등장하게 된다. 흥여하는 『동국통감제강』(1672)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정통론’을 도입하였는데, 삼국 중 신라를 정통으로 규정함으로써 신라의 위치를 그 어느 사서(史書)보다도 극대화시켰다. 물론 조선후기에는 유득공의 『발해고』처럼 발해를 신라와 대등하게 인식하고 양국의 병립을 ‘남북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채 19세기 중반 이후 중단되어 버렸다.

### 3. 통일의 시점과 대당전쟁

앞서 검토한 『동국통감』이 669년(문무왕 9)부터를 신라통일기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고구려의 멸망(668)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나 일반 역사 개설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 시점을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이 교과서와 개설서

들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시점이 아니라 대당전쟁을 거쳐 신라가 당을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이 완성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교과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을 목차로도 분리시켰고, ‘신라의 삼국통일’ 항목에 대당전쟁의 승리 과정을 묘사하면서 “금강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였으며, 평양에 있는 안동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676)”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한국사』 교과서는 삼국통일의 완성을 왜 고구려 멸망이 아닌 대당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일까? 또 이러한 인식은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손진태의 『조선민족사개론』(1948)이나 『국사대요』(1949)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시원은 1892년에 출판된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1858~1922)의 『조센시(조선사 朝鮮史)』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하야시는 동경대학(東京大學) 고전강수과(古典講修科)를 졸업하였는데(1887), 여기에서 그는 고증학적 방법에 의해 경학을 연구하고 이어서 역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역사가로서의 그는 먼저 한국사에 손을 대었다. 1892년에 조선사 5권, 1901년에 조선근세사 2권을 저술함으로써 이 시기 메이지시대 일본의 한국사연구 개척자가 되었다. 그는 후에 이것을 합본하여 조선통사로서 출판하였다(1912). 그가 조선사 7권을 서술함에 있어서 취한 태도는 고증학풍으로 역사를 서술하되 구래의 편년체적 체제를 지향하고, 서양사를 모방하여 새로운 체제로서 한국사를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하야시의 『조센시』에는 ‘신라

의 통일’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서술이 현재의 교과서나 개설서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라통일론’의 선구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물론 신라 당대에 이미 ‘일통삼한(一統三韓)’의 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후기의 역사서에서 ‘신라정통론’으로 채택되어 오늘날의 신라통일론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통시대의 신라정통론과 하야시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지만 김유신이 673년(문무왕 13)에 죽으면서 “삼한이 일가(一家)가 된 것을 자부하였다.”고 전하는 『김유신행록』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 당대에는 대당전쟁에 승리한 시점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을 삼국통일의 기점으로 표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당전쟁 때도 신라는 대국인 당과의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쟁과 강화(講和) 외교를 병행하는 화전양면책(和戰兩面策)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실제 대당전쟁의 승리를 대내외적으로 자랑할 수 없었다. 또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당전쟁에 승리한 시점으로 알고 있는 676년은 이 이후 전쟁이 장기간 휴전에 들어간 시점이며, 실질적 대당전쟁의 종전은 당과 발해가 전쟁에 돌입했을 때 신라가 당을 후원하였던 730년부터였다.

한편 『삼국사기』를 편찬한 고려시대의 김부식도 ‘일통삼한’, ‘삼국일가’라는 어휘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의의를 분명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조공·책봉의 사대질서에 함몰된 유학자였기 때문에 나당의 대립까지도 시야에 넣어 나당전쟁의 승리를 통해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한 증거는 정말 많다.

김유신은 상국(上國)과 협력하여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빛나는 업적과 명성을 남기고 자기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상)

위 인용문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와 있는 저자 김부식의 사론(史論)이다. 조선 성종대에 완성된 『동국통감』에는 이 사론이 김유신이 죽은 문무왕 13년, 즉 나당전쟁이 한참이던 시점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도 『동국통감』도 나당전쟁의 기사를 상세히 연대기로 나열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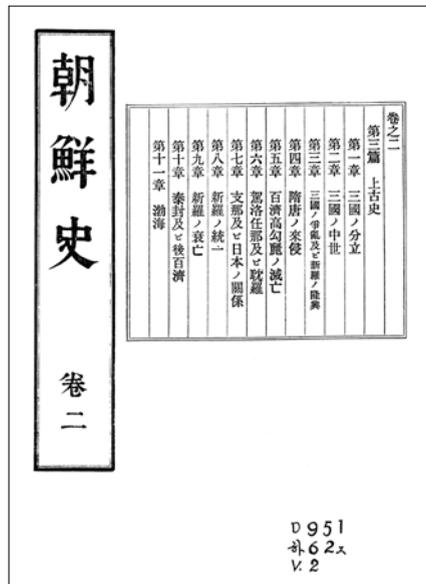


그림 1. 하야시의 『조선사』

과의 협력” 속에서 삼국통일이 완성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통감』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문무왕 8) 이후부터 ‘신라통일’이며, 이때부터 ‘신라기’로 독립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679년(문무왕 19) 궁궐을 상대히 보수한 것에 대한 『동국통감』의 사론은 전근대의 역사가들이 나당전쟁의 기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동국통감』의 찬자들이 나당전쟁 기사를 왜 그렇게 상세히 재수록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은 대저 태종이 널리 땅을 개척한 계략과 김유신이 창조한 힘이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당나라 조정에서 장수를 명하고 군사를 보내어 귀순자는 도와주고, 반역자는 토벌했던 공로가 또한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통일된 뒤에는 자만하여 사치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으며, 고구려의 반란하는 무리들(叛衆)을 받아들이고, 백제의 옛 땅(百濟故地)을 점거하면서 감히 천병(天兵, 당나라 군사)에 항거하여 덕을 배반하고 순리를 범하다가 대방(大邦, 당)의 원수가 되어 폄삭(貶削)을 당했으나,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뉘우쳐 사과하려는 기색이 없이 교만한 생각만을 더욱 길러서 궁실을 높이고 원유(園囿) 확대했다. (...) 비록 능히 태종의 남은 공렬(功烈)을 승습(承襲)하여 강역을 회복하였으나, 끝내 편안하도록 돕는 계책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난적이 서로 잇따라서 신라의 왕업이 날로 쇠하여졌다. [문무]왕이 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나태하고 교만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동국통감(東國通鑑)』 권9 문무왕 19)

『동국통감』의 찬자들은 문무왕이 고구려의 반중(叛衆)을 끌어들이고 백제고지를 차지해 당과 전쟁을 벌인 사실을 천자의 덕을 배반하고 순리를 범한 참람된 행동의 본보기로 남긴 것이다. 귀순자로서의 태종 무열왕과 배반자로서의 문무왕을 포폄(褒貶)하고, 당에 귀순해 반역자(백제·고구려)를 토벌할 수 있었던 ‘통일’과 당에 항거해 교만해져 대당전쟁으로 쇠락해간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역사가

들은 문무왕이 통일 이후 고구려의 잔당을 끌어들이 당에 항거했기 때문에 태종의 통일 공훈마저도 망치게 되었다고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대당전쟁에 대해 오늘날의 『국사』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또 조선후기의 ‘신라정통론’ 역시 그 명분은 어디까지나 신라가 기자(箕子)의 유풍을 간직, 계승하였고, 오륜(五倫)이 돈독하고, 골품(骨品)의 구별이 뚜렷하여 서로 혼인하지 않으며, 사람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는 유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들과 달리 하야시는 『조선시』 권2 제3편 상고사의 목차에 ‘제5장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제8장 신라의 통일’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차로도 알 수 있지만, 그는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통일’을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한 제8장의 내용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야시는 신라의 통일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대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마침내 통일의 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신라가 당(唐)과 힘을 합해 백제·고구려를 멸했지만, 당은 그 땅에 도독(都督) 등의 관(官)을 설치했다. 신라는 점점 백제의 땅을 취하고, 또 고구려의 반중(叛衆)을 거두어 들였다. 당이 누차 꾸짖었으나 신라가 또한 복종치 아니하니, 마침내 병사들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당은 노(怒)하여 (신라)왕의 작(爵)을 삭탈하고, 유인궤(劉仁軌)로 하여금 침략케 하였다. (신라)왕은 사자(使者)를 보내 사과하지만 마침내 고구려 남경(南境)까지 주군을 설치하였다. 대개 무열왕과 문무왕 때에 김유신이 충력(忠力)을 다해 보익(輔翼)하고, 당 및 백제·고구려 사이에서 외교를 펼친 끝에 통일(統一)의 업(業)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하야시는 나당전쟁을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포착하였는데, 이는 『삼국사기』 이래 전통시대의 편년체 사서가 백제·고구려의 멸망을 기준으로 신라의 통일을 설명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나·당의 대립을 강조한 새로운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야시는 신라·당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았고, 또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했지만, 백제·고구려의 멸망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으로 '신라의 통일'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대당전쟁을 거쳐 통일이 완성되는 새로운 역사상을 묘사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하야시의 『조센시』에서 최초로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백제, 고구려의 멸망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당전쟁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기존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백제·고구려의 멸망으로 삼국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사건인데, 하야시가 나당전쟁을 끝으로 통일이 완성되었다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통일의 시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야시는 나·당의 갈등 속에서, 당 세력의 대척점에 신라만이 아닌 '백제의 땅(과 인민)'과 '고구려의 반중叛衆'이라는 조건을 새롭게 포착하여 배치하였다. 이는 후술하지만 하야시 이후 일제시대 여러 역사가들에게 '삼국인민의 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역사공동체, 즉 '통일신라'를 상상하는 필수장치로 기능한다.

조공·책봉의 사대질서 속에 있었던 전통시대에는 애초 신라의 통일을 나·당의 대립국면에서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하야시는 어떻게 기존과 다른 자신의 새로운 신라통일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일까?

『조센시』에 하야시가 직접 쓴 서序에 의하면, 『조센시』 저술의 직접적 동기는 무엇보다도 “조선이 가장 가까운 최이소방蕞爾小邦으로서 동양東洋의 인후咽喉에 거루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필쟁지형必爭之衝이 되었는데, 일본과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나라로 그 안위존망安危存亡이 실상은 순치唇齒와 같은 관계인지라, 하루 아침에 변란이 있거나 하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있었다.

결국 하야시의 '신라통일론'은 청일전쟁 직전 일본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하여 체결된 1876년 「한일수호조규」에는 “조선국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 일본국과 평등지권平等之權을 보유한다.”는 점을 제1조로 명기하였다. 여기에서의 자주국과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전근대 동아시아세계의 계서적階序的 국제질서 관념 속에서 청국淸國에 대한 조선의 종속관계從屬關係를 단절시켜, 조선을 전통적 화夷觀華夷觀 밖으로 끌어내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는 188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아시아연대론'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시아연대론자였던 타루이 토키치榑井藤吉(1850~1922)는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1893)에서 조선의 청에 대한 독립을 주장하면서, 특히 과거 신라의 자주적 기풍을 예로 들고 있다.

한국이 태고적부터 부진한 것은 국민에게 자주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중국에 친밀감을 갖고 사대외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며, 현재도 그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자주정신이 강한 일본과 친했던 시대에는 한국도 일본의 기운을 받아서 자주정신이 신장되고 국력이 발전했다. 이를테면 삼국의 신라가 그랬다.

타루이가 『대동합방론』을 들고 나오고, 하야시가 나당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한 '신라통일론'을 새롭게 만들어낸 시기, 즉 1885년부터 1893년에 이르는 시기는 갑신정변 이후 일본이 조선을 둘러싼 청국과의 쟁탈전에서 패배한 시점이다. 또 청국에 이어, 구미열강 그리고 특히 러시아가 조선에 등장해, 일본은 조선에서 부득불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에 대한 지배권 탈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위 인용문에는 단순히 '삼국의 신라'라고 되어 있지만, 자주와 짝하는 신라의 이미지는 나당전쟁기(670~676)를 제외하고는 달리 생각할 곳이 없다. 따라서 조선이 사대주의를 버려야 국력이 발전한다는 당위를 “자주적 신라”에서 찾았던 타루이와 마찬가지로 당과의 대립 끝에 성립한 신라의 통일을 강조했던 하야시의 신라통일론에도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당시 일본 지식인의 굴절된 희구希求가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하야시의 주장은 당시 국민국가 건설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던 조선과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야시가 삼국통일의 기점을 나당전쟁의 종결로 잡으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자주성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갖게 되었고, 이후 대당전쟁의 승리는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부동不動

의 '역사적 사실'로 승화하였다.

하야시의 신라통일론은 과거의 사건이 자기 당대의 컨텍스트 속에서 재결합하고 재해석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는 '술이부작<sub>述而不作</sub>'하는 중세사학<sub>中世史學</sub>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기술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 텍스트를 해체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혀 다른 시대관을 창출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한말 지식인들이 근대적 역사기술 방식에 눈을 뜨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

#### 4. 통일에 대한 논쟁

갑오개혁 이후 역사를 소비하는 주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는 유교 지식인의 경학<sub>經學</sub>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던 역사가 갑오개혁 이후에는 국민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1894년 11월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붙인다.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라고 하여 정부와 인민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국문으로 정식 통일한 데 이어서, 1895년 3월 내무아문훈시를 통해 "인민에게 먼저 본국사<sub>本國史</sub>와 본국문<sub>本國文</sub>을 교<sub>敎</sub>할 사<sub>事</sub>"라고 하여 국문뿐만 아니라 국사교육도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민 만들기' 구상의 일환으로 등장한 역사 교과서가 바로 1902년 김택영<sub>金澤榮</sub>의 『동사집략』, 『역사집략』(1905), 그리고 현채<sub>玄采</sub>의 『동국사략』(1906), 『중등교과 동국사략』(1908) 등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현채가 지은 역사 교과서들은 그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하야시의 『조센시』를 거의 그대로 역술<sub>譯述</sub>한 것들이다. 기존에는 이를 식민사관의 수용으로만 평가하였을 뿐 근대역사학의 성립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근대역사학은 1908년 신채호<sub>申采浩</sub>의 『독사신문』에 이르

러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보고 있다. 신채호 역시 중국 양계초의 사회진화론과 서양 역사학 방법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야시의 『조센시』 체계를 수용한 현재의 역사관과 동일 선상에서 비판, 정리해야만 한다.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사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적 잣대로는 우리의 근대역사학과 그 성립 과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검토한 하야시의 새로운 신라통일론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택영과 현채의 역사 교과서가 모두 하야시의 『조센시』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들이 『조센시』에 내포되어 있는 '근대역사학'을 소화하고 체현하는 양상은 완전히 달랐다. 기존에는 두 역사가의 시각을 모두 근대역사학이 성립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지만, 김택영과 현채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었다.

김택영은 『역사집략』(1905)에서 하야시의 『조센시』에 서술되어 있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오늘 오랜 밤의 어둠 끝에 갑자기 이웃집의 불(즉 『일본서기』를 말함: 인용자 주)을 빌려 (역사의 내용이) 밝아졌다"고 칭송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신채호가 「독사신문」(1908)에서 이러한 그를 준열히 비판한 것은 필연적 수순<sub>手順</sub>이며, 이는 한편으로 김택영이 당시까지도 근대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김택영에게 '임나일본부'는 기존에 자신이 보지 못했던 『일본서기』라는 역사서에 기록된 새로운 사실이었고, 『삼국사기』를 보완해 주는 자료였다. 그는 유교적 합리주의나 고증학에 입각해서 시비판단<sub>是非判斷</sub>을 내리는 데 만족할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인식 구조 속에서 '과거의 임나일본부'는 '현재의 조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서<sub>史書</sub>에 기록된 하나의 사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야시의 『조선사』에 대당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신라통일론이 조선민족사를 구성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근대적 역사관에서는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에도 연속성을 갖는 실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김택영에게서는 그러한 자각을 발견할 수 없다. 김택영은 하야시의 『조선사』를 역술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통시대 사서와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또 조선 건국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 연호를 배제하였던 현채와 달리, 김택

영은 자신의 역사서에서 전통사서의 방식대로 중국의 연호를 굳이 사용하였고, 단군조선을 부인하였다.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구현되는 독자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족사는 그에게 아직 이해될 수 없는 범주의 것이었다.

민족적 정체성이란 어느 한 문화적 단위 안에 그 구성원들 각각의 세대가 연속성의 자각을 가지며 역사상 그 이전의 사건이나 시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 단위나 집단의 운명에 대해 각각의 세대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 존재하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택영에게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이르는 연속체로 선택하는 근대적 역사 인식이 없었다. 그가 저술한 역사서들이 전통적 편년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이를 잘 말해 준다. 현재가 김택영의 『역사집략』 서문에서 정확히 비판하였지만, 김택영의 책들은 전통적인 편년체 사서였다. 단대사를 나열 집합시킨 '통감류' 사서와 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그의 중국 망명도 유교적 충군忠君의 이데올로기 그것이었으며, 신해혁명을 비판하면서 "공화제의 신민이 되고 싶지 않고, 황제黃帝의 유민이 되겠다."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마지막 유자儒者였다.

한편 현재의 『동국사략』은 하야시의 『쇼센시』를 역술한 것이지만, 하야시의 『쇼센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변용한 완전히 다른 책이다. 기존에는 현재가 1915년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논설을 발표하고, 1922년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각을 한 점 때문에 근대 역사학의 성립을 단재 신채호 이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동국사략』이 집필된 당시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림 2. 현재의 「중등교과 동국사략」

다면 현재가 민족사 서술을 고민한 흔적이 매우 역력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하야시의 책을 역술하면서도 고조선의 개국시조나 한국사의 민감한 대외관계 부분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예를 들어 하야시와 달리 단군의 개국을 확실히 하였고, 위만과 한사군漢四郡은 목록에서 빼버렸다. 임나도 목차에는 그대로 두었지만, 아예 설명을 통째로 빼버리고 다만 “국력이 미약하여 신라, 백제 및 일본의 견제를 받았다.”라고만 쓰고 있다. 더욱이 통시대적으로 대對 중국 관계 부분을 고친 것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신라의 대당전쟁 국면에서 신라가 보낸 사과의 사절단을 ‘거짓으로’ 보냈다는 점을 특별히 부가하였고, 당의 축출을 신라통일의 기점으로 더욱 부각하였다.

이처럼 현재는 하야시의 『조선사』에서 조선민족의 타자로 의식한 중국은 물론, 하야시의 책에는 빠져있는 일본까지도 주체적으로 타자의 시야에 넣어 독자적 조선의 민족사를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오~광무개혁을 주도한 조선의 근대화 된 정권은 종래의 지역적 단위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국가 단위, 민족 단위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또 다른 국가 단위의 타자를 필요로 했고, 이때 하야시가 만들어 놓은 중국을 타자로 한 조선사 체계는 ‘국민’을 창출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본국사本國史’의 모델이 되었다.

현재의 『동국사략』과 나당전쟁 승리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신라통일론은 이후 역사서들의 기준이 되었다. 『초등대한역사』(1908)나 안중화安鍾和의 『초등본국역사』(1909) 등 이후 많은 교과서들이 676년 이후를 신라통일기로 설정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또 『동국사략』 자체도 한장본, 양장본, 반양장본으로 출판되어 교과용 또는 교양용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더욱이 현재의 책은 1909년 통감부에 의해 압수, 관금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민족사 서술의 출발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일본 역사가의 근대역사 기술 방식을 모방하면서,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변용하면서 근대역사관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김택영과 현재의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현재가 일본통일로서 일본의 근대적 변화를 많이 접했던 개인적 경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역관집안 출신이며, 그 자신도 1892년 부산항 감리서의 번역관에 발탁되어 일본문화를 자주



그림 3. 단재 신채호

접하였다. 이 시절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책 편찬에도 간여하였다. 1895년에는 한성사범학교 부교관으로 일본어를 강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택영과 현채라는 시간대 사이에 1903년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들어오고, 이후 사회진화론 및 근대역사학 방법론이 조선에 널리 보급되었던 특별한 계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독사신론 讀史新論」

(1908)도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 성쇠의 상태를 서술한 것으로,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지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막중할 진저”로 시작되는 「독사신론」의 첫머리는 민족주의와 국가 관념의 계몽을 위한 근대적 역사 서술의 중요성을 지적한 명문 名文이다.

근대 초창기의 대표적 사학자이자 문인이기도 했던 단재 신채호는 한국 근대 내셔널리즘의 정초자 定礎者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발해의 기상을 숭상하고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애달파한 단재의 내셔널리즘에서 ‘신라’는 사대 事大와 민족 쇠퇴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물론 단재는 신라 고유의 ‘풍류도’나 ‘낭가사상’이 ‘조선’ 국혼의 원류와 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원류적인 것이 신라통일 이후 중국화에 의해 퇴색되고 쇠퇴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쇠퇴가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재사학에서 신라 표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더욱이 ‘신라통일’이나 ‘김춘추’가 ‘모화 慕華’와 ‘사대’의 표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단재사학의 핵심적 내러티브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고구려가 망하여 발해가 되고, 백제가 망하여 신라에 합하였으니, 이는 삼국이 합하여 양국 兩國된 시대요……(중략) 만일 이 반도적半島的 통일 統一도 통일이라 할진대, 동명성왕도 또한 통일이며, 온조·혁거세도 또한 통일이니, 하필 김춘추 이후에야 비로소 통일이 있다 하리요마는, 만일 전체적 통일을 구할진댄 단군 이후에 재현 再現하지 아니한 것이니, 어찌 김춘추를 통일한 자라 하리요.

「독사신론」에서 인용한 위 구절은 당시 한국사회에 유통되기 시작한 하야시의 새로운 ‘신라통일론’에 대한 단재의 즉각적 답변이라고 생각된다. 단군 이래 한 번도 통일이 실현된 바가 없었다는 그의 주장으로 잘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통일은 일언지하에 부정되었다. 그는 삼국시대 이후를 발해와 신라의 ‘양국시대’로 정의해, 이후 ‘남북국시대론’을 여는 선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재사학은 중국 중심의 사대문화권에 편입된 신라통일 이후부터 미래의 근대적 국민국가가 성립될 때까지 한국 민족사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신채호 자신의 역사 서술도 제약함으로써 그의 『조선상고사』는 삼국시대의 말엽에서 붓이 머물고 말았다. 더욱이 그의 사회진화론적 민족사 이해는 제국주의를 우승열패로 긍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채호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타자를 통해 국사 체계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그에 의해 근대역사학이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김택영의 중세적 사학, 현채의 『조선사』 수용과 해체, 그리고 단재 신채호의 사학은 일본 근대역사학의 도움으로 등장한 ‘신라통일론’이 조선의 지식인들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의 조선인은 아직도 가변적인 주체로서 안정적 동일자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성은 안정화를 향해 가는 특별한 계기를 맞게 된다.

제국 일본의 ‘조선합병’은 일본을 타자로 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는 물론이고 제국 일본이 주도하는 ‘조선사’의 성립을 더욱 강력하게 부채질하였다. 일본이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시공간에 대한 전일적 지배자로서의 이미



저명한 고고학자인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후지타 료사(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공동으로 작업한 『조선보물고적도록(朝鮮寶物古蹟圖錄)』(1938)에서 그들은 석굴암과 불국사의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토함산 아래의 불국사는 신라통일시대 석조건축의 정수를 과시하고, 토함산 기슭의 석굴암은 같은 시대 석조 조각의 최고점을 천고에 전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일 것이다.”

독일의 한국 미술사가 안드레아 에카르트(Andreas Eckart)는 독일어와 영어로 발간한 『조선미술사』(1929)에서 “경주의 석굴암이 동양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임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조선미술의 제반 형태들에서 그리스 고전양식과의 연관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듯, 야나기 무네요시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발견자들이 ‘통일신라’의 유산에 매혹되어 기술한 기록들은 ‘통일신라’를 조선의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유산으로 등록시키는 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통일신라’에서 “동양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으로서의 경주”에 동양의 고대를 대표하는 미술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이 지닌 의미 있는 과거 중에서 ‘통일신라’를 불러내어 그것을 동양의 주체로 구성해가는 기획을 하게 되며, 그 속에서 제국-식민지-전통의 역동적 관계망이 구조화된다. 그것은 세계 속에 통용되는 ‘신라’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상이 배태될 가능성을 자라나게 해 주었다.

그러한 관점은 ‘통일신라’를 발견한 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제국주의 지배자이며 타자인 일본인들의 시각을 통해 자신들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관변학자 세키노 다다시와 ‘민예’의 창시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건립해 놓은 ‘신라’라는 박물관에 매혹된 관람객이자 학도로서 그 견학의 결과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들이 ‘발견’하고자 한 ‘신라’의 모습은 세계에 대해 조선을 대표하는 ‘신라’였고, 세계에 나아가 다른 문화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과연 경주 일원에 흩어져있는 쇠몽치, 돌덩이는 우리도 과거엔 현재와 같은 암흑의 생활을 누려온 민족이 아니오, 세계 었던 민족에 비겨도 부끄럽

지 안할만한 문명의 생활을 하여왔다는 유일의 증거품이오, 과장품이다. 제일착으로 (중략) 안압지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새로 이루고,…… 그 지형이 면적확대의 광학적(光學的) 원리를 응용함과 그 석재가 근래에 서구에서 신발견한 수광석(水光石)을 이용함과 동정호와 무산십이봉을 모형하여 되었음엔 세계적 전문 정원학자로 하야금 경탄키를 마지않게 하는 바로서 아무리 황폐한 일편의 유지이나마, 우리의 선대적 생활이 얼마나 문명적 과학적이었음을 자랑할 만한 유일의 증거품이라 할 만한 것이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 유일의 미술적 조각품으로서, 당대문화의 정화를 가장 유감없이 발휘하는 동시에 20세기 문명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바이다. 그 뒷벽 정중에 육각 되어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양귀비, 크레오파도라의 미인도 빛을 잃을만한 그의 미모, 관람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그의 금은주옥적 장식품, 풍풍우우(風風雨雨) 천여 년 동안 변함이 없이 피어오르는 그 좌비상화병은 평화와 사랑과 미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의 대표적 현품으로서 반도의 산하를 영원히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보물이라 할 것이다. 아- 이에 이르러서는 신라문명도 참으로 광휘가 찬란한 절정에 도달하였다 할만하다. (황의돈, 「신라의 찬연한 문명과 신라 민중의 영화- 그 서을 경주는 었더 하였나(1) -」)

1929년 7월 『삼천리』에 발표한 위 황의돈의 글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 제국 일본이 구축한 ‘통일신라’의 표상을 내면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길항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해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황의돈은 『신편조선역사』(1923)에서 신채호의 『독사신문』에 영향을 받아 남북국시대를 설정하였으면서도, 다른 남북국시대론자인 권덕규나 장도빈이 삼국의 통합을 단지 ‘홍룡’이라고 평가한 것과는 달리 명확히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또 당 세력을 몰아낸 676년(문무왕 16)을 통일의 기점으로 삼아, 이후 신라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방면에서 황금시대를 이룬다고 보았다.

‘단재사학’이 한국의 민족사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달리, ‘통일신라론’은 세키노와 야나기가 발견한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에 힘입어, 민족 정체성의 역사적 연속성과 대외적으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근대역사학은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우월함을 나타낼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일신라'보다도 민족 정체성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재생되어야 할 더 긍정적인 가치는 이제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실제와 상상을 혼합한 더욱 더 정교한 민족사를 만들어 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확과 문일평이다.

안확은 감상적이고 모고주의적(慕古主義的)인 단재사학을 배격함과 동시에 정체성(停滯性)을 강조하는 식민사관도 아울러 비판하면서 '독립적'이고 '진화적'인 한국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조선문명사』(1923)는 바로 그 결정판이다. 그 역시 황의돈과 마찬가지로 남북국시대를 설정하였지만, 신라의 외세 이용과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바탕에 신라 정치상의 자치제 발달이 놓여있으며, 고대로부터 고려,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역사가 정치, 사회적으로 발전해왔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문일평은 그가 주창한 '조선심(朝鮮心)'을 이끌어내는 전제로서 더욱 강력한 '통일신라론'을 토해 내었다.

신라통일은 무열왕의 백제 공파에서 발전하여 문무왕의 고구려 토평에서 완성하였다. 그럼으로 문무왕이후를 통일시대라 칭하니 따져 말하면 문무왕 8년(668) 고구려 토평으로부터 기산하여 경순왕 9년(935)까지 268년간을 통일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에 나가볼 때 고구려 토평하는 그 해로부터 통일이 곧 성취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토평한 후에 다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이룬 것이다.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묘책으로는 먼저 고구려의 유증을 선동하여 당에게 저항케 하고 그 뒤로 신라는 무력을 가져 원조할 새 이리저리 핑계하여 당병과 교전한 지 전후 7년 동안에 백제고지에서와 고구려구강에서 수륙대결전이 여러 번 연출되었다. 그 결과 당은 여·제의 수도에 두었던 안동도호부와 웅진도독부를 모두 요동으로 철거하며 문무왕 16년(676)에는 신라가 사실상 대

동강 이남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실로 평양성이 함락된 지 9년만이다. 백제 전부와 고구려 일부를 가진 신라통일이 비록 불완전하나마 반도에서 생긴 최초의 통일국가이니 우리 동방이 신라라는 용광로 속에서 한 덩어리로 주성된 것이 이때부터이다.

위 문일평의 언급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일신라론'의 가장 정교한 최초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사안(史眼)으로 본 조선(朝鮮)에서 이조(李朝)의 위대성을 신라로부터의 '연속성'에서 찾고 있다. "이조문명은 신라, 고려의 정화를 흡수하여 대성한 것이다. 조선은 신라의 반도통일로부터 새 출발점을 짓느니만큼 오늘날 조선은 실로 신라의 연장이라 하겠다. (중략) 물에 비하면 문명의 샘이 신라에서 다시 발원하여 가지고 고려의 시내로 흘러서 이조의 저수지로 모여들어왔다." 이러한 언급들로 볼 때, 그의 '조선심(朝鮮心)'은 '통일신라론'에서 배태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방 이후 손진태는 『조선민족사개론(상)』에서 "광대한 영토와 인민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그나마 우리는 신라의 통일에 의하여 민족 모체의 결정을 보게 되

었으며, 5~6세기에 빈번했던 종족 내부의 상투의 비극은 이에 정지된 것이다. (중략) 만일 신라의 통일이 없고, 삼국이 함께 어느 외민족의 손에 망하였던들 현금의 조선민족이란 것이 과연 있었을는지 의문이다. 이 의미에 있어 신라의 통일은 조선민족 사상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며, 통일신라를 민족의 결정기로 총평하였다.

특히 손진태는 기존에 '신라 통일'처럼 통일이 동사로 쓰이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통일신라'라



그림 5. 남창 손진태

는 고유명사를 조어造語하였다. 이는 신라통일의 역사적, 현재적 가치를 크게 격상시켜 신라에 '통일신라'라는 가장 찬란한 새로운 국가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후 한국인들에게 통일신라의 이미지는 민족의 형성과 민족문화의 연원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되어갔다. 문일평이 '조선심朝鮮心'의 근원으로 표상한 통일신라론이나 해방 후 손진태가 신라통일을 민족의 결정기로 이해한 것도 그 당연한 결과였다.

조선후기 이래 일제시대에 부여-고구려족 주체설과 남북국시대론이 제기되었음에도 신라통일론이 의연히 강화되어간 것은 민족사를 '발전적'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국사'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론'의 발명과 확립은 민족이라는 배타적 역사단위와 그 발전을 키워드로 삼는 한국 근대역사학의 성립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표상이 구축되기 시작한 식민지시기에 '제국 일본'의 지배자이자 피지배자인 '일본'과 '조선'이 발명한 각각의 '통일신라'는 서로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경합했다. '통일신라'의 표상은 식민지시기를 배경으로 '주체-타자-전통'이 역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근대적 주체 구성의 복잡한 맥락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 코드인 셈이다.

식민지시기를 통틀어 역사, 문학, 종교, 미술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 '통일신라'의 표상 창출은 당시 한국인의 지적, 상상적 능력이 전면적으로 동원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 대한민국의 정치 실험과 문화 건설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업이었다. '통일신라'의 발명과 확립은 '문화'와 '민족'의 지위가 사라져버렸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기획할 수 있었던 상상적인 국가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5. 삼국통일과 그 의의

7세기 중엽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지역을 통합하였다. 이후 698년에는 고구려 구토에서 그 계승을 표방한 발해가 새롭게 건국하였다. 이 사

건에 대해,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신라가 대당전쟁에서 당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일신라시대'로 명명하고 발해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발해를 한국사에 포용하기 위해 '남북국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적극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남북국시대 하에서도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굳건히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역사학계가 신라 우위의 한국사 체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한 체제에서 북한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구려-발해-고려-조선-북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계통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최초의 통일이 신라가 아닌 고려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통일신라 대신에 발해를 중심에 둔 '발해와 후기신라시대'라는 전혀 다른 시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견해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낳은 고구려의 옛 영토 만주지역의 손실과 통일 과정에서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비자주성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남북국시대론'이나 '발해와 후기신라'라는 시대관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에 고구려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삼국통일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까지도 제기되었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신라 지배층이 통일 이후 고식적 안정책을 취해 고구려의 옛 땅을 방기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침으로 고통을 받고 약소국이 되었다며 삼국 통합의 불완전성을 지적하였다. 18세기에 안정복 역시 『동사강목』에서 이 한백겸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조선후기에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유득공이 1784년에 쓴 『발해고』의 다음과 같은 서문은 그 대표적 언설이라 할 수 있다.

고려가 발해사를 짓지 않았으니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거주하여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거주하여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거주하여 신라라

하였다. 이것이 삼국으로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였으니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으로,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개척하여 고구려의 영역보다 더 넓혔다. 김씨가 망하고 대씨가 망한 뒤에 왕씨가 이를 통합하여 고려라 하였는데, 남쪽으로 김씨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지만, 북쪽으로는 대씨의 땅을 모두 소유하지 못하여 그 나머지 여진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유득공은 고구려 옛 영토를 상실한 것은 신라통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북국을 통합한 고려가 발해의 영역을 온전히 통합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정조도 정약용에게 내려준 시제(詩題)에서 “고려의 통일에 여한(餘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는 점으로 볼 때, 당시 유득공과 같은 역사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앞서 검토한 신채호의 삼국통일이 아닌 양국시대론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신채호는 삼국통일은 세 왕조의 통합일 수는 있으나 민족 전체로 보면 민족적 역량과 영토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당과 동맹한 전쟁 과정은 외세와 결탁한 반민족적인 것이며 사대주의 독소를 심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남한학계에서는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고 발해를 민족사로 자리매김할 논리적 여지를 마련하려는 입장과 신라통일의 의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발해를 민족사로 인식하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 중에는 신라의 통일은 삼국통일이 아닌 백제 통합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제기되어 있다. 이는 유득공의 남북국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물론 고구려의 영역과 주민 중 많은 부분을 신라가 흡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다. 동시에 통일기 신라의 영역과 주민 중 거의 1/3에 상당하는 부분이 고구려의 그것임도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즉 고구려 전 영역을 기준으로 하면 신라가 통합한 고구려의 영역은 매우 작지만, 신라통일 이후의 9주 영역에서 고구려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매우 높다. 더욱이 대당전쟁을 거치면서 삼국의 주민들은 서로 자신들의 존재 양태의 동질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신라 당대의 삼한일통 의식은 이러한 9주로 묶여진 삼국의 영토적 통합, 그리고 삼국 주민의 동질성 인식이 더욱 구체화된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한국사의 범주에 고구려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삼국통일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이 직접적으로 당에 끌려갔는가, 발해 멸망 후 요·금대에 중국 방면으로 이주되었는가 하여 고구려인의 다수가 결과적으로 한족(漢族)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방면에 흡수된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전근대 시기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기술한 예도 확인되지 않는다.

통일신라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남북국시대론 주장하는 사람도, 양측 모두가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점은 일치한다. 이러한 공통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해 신라와 발해를 공평히 포괄할 수 있는 시대 명칭을 구상한다고 할 때, ‘남북국시대’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신라와 발해는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220여 년을 병존한 이웃나라였다.

한편 발해를 한국사에 포섭하기 위해 신라와 발해 사이에 동족의식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비약은 오히려 한국사의 체계화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신당서』에는 신라인이 발해인에 대해 아이를 잡아먹는 야만인으로 묘사했던 사실이 전해진다. 또 신라인들은 추석 명절을 발해를 물리친 전승일로 기념하였고, 최치원은 당에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암적 존재로 설명하려 애썼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신라인들은 발해에 대해 고구려를 계승한 적대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경제적 교역이나 우호적인 상시적 외교 관계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사절 파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한국사의 체계화에는 신라와 발해 상호간의 인식보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후대인들이 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 신라인들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도 발해를 인척의 나라로 여겨 발해 멸망 후 그 지배층과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또 송나라 사신인 서긍의 『고려도경』이나 이승휴의 『제왕운기』로 볼 때, 고려 지식인들은 발해를 고려 성립의 전사(前史)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지만 조선후기에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삼국시대에 이어지는 ‘남북국’의 역사로 바라봐야 한다는 유득공의 주장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발해고』 서문에서 “김씨가 남쪽을 영유하자,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고 했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를 준엄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은 7세기 이후의 한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민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마 후세에 ‘남북 분단 시대’, ‘남북한 시대’ 등으로 불릴 것이다. 분단이라는 비극을 극복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발해가 처했던 대내외 정세와 각국의 역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의 남북국시대를 현재의 남북 분단과 그대로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신라와 발해,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변 세계가 상호 합종연횡하였던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 적지 않다.

(윤선태)

---

## 참고

## 문헌

- 김영하, 1983, 「단재 신채호의 신라삼국통일론」, 『민족문화연구』 17.  
김영하, 1993, 「한말 · 일제시기의 신라 · 발해 인식」, 『태동고전연구』 10.  
김영하, 2006, 「신라통일론과 남북국성립론」, 『한국고대사입문(3)』, 신서원.  
김용섭, 1966, 「일본 ·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  
김용섭, 1970,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성립」, 『한국현대사』 6.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박찬승, 1988, 「한말 신채호의 역사관과 역사학 - 청말 양계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  
송기호, 1991, 「조선시대 사서에 나타난 발해관」, 『한국사연구』 72.  
심승구, 1991, 「해원 황의돈의 역사학연구」, 『북악논총』 9.  
이만열, 1985, 「19세기말 일본의 한국사연구」,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 출판부.  
한영우, 1989,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한영우, 1994,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신라의 삼국통일

ㄱ

갈이씨(曷爾氏)	202, 213
검모잠	175, 176, 177, 179, 180, 181, 183, 185, 186
견수사	055, 056, 058, 059
결부제	247, 248
계림주	016
계백	015, 131, 132
계필하력	159, 161, 162, 163, 169, 171, 172
고건무	012
고사성	142
고연무	175, 176, 184
고창(高昌)	012, 062, 111
고향혹마려	099, 101, 102
골품제	243, 244
관산성	126, 129
9서당	189, 190, 261
국상(國相)	040, 104
국학(國學)	014, 032, 036, 037, 039, 110, 201, 234
금관가야	033, 244
금돌성	128, 135
금마저	017, 177, 179, 182, 184, 186, 187, 188, 190, 261
기미체제	113, 114
기벌포	018, 128, 129, 130, 131, 132,

기벌포	133, 135, 185, 205, 214, 266
김다수	099, 106, 107, 157
김법민	090, 122, 128, 154
김양도	126, 128
김유신	013, 024, 027, 028, 030, 033, 036, 039, 046, 090, 094, 103, 125, 126, 128, 130, 131, 132, 134, 135, 144, 145, 162, 163, 165, 166, 167, 169, 171, 172, 205, 243, 244, 245, 246, 251, 252, 260, 267
김인문	123, 124, 125, 128, 132, 144, 151, 152, 162, 165, 168, 172, 207, 220
김춘추(金春秋)	013, 014, 015, 016, 023, 024, 025, 027, 030, 032, 033, 035, 036, 037, 039,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0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5, 116, 122, 123, 148, 157, 218, 238, 241, 242, 254, 255, 262, 276
김품석	028, 035, 092, 122
김흠돌	190, 219

ㄴ

나당동맹	095, 109, 110, 111, 116, 195
나당연합군	014, 015, 016, 116, 121, 124, 125, 129, 130, 131, 132, 135, 136, 137, 139, 140, 144, 145, 158, 159, 160, 168, 173, 195, 198
나당전쟁(羅唐戰爭)	018, 108, 110, 116, 173, 174, 177, 181, 194, 203, 204, 210, 214, 217, 219, 267, 268, 269, 270, 271, 275
나제동맹	121, 149, 228
남생	016, 161, 162, 163, 169, 170, 199, 238
남진정책	067, 072, 228

낭비성전투	027
내주(萊州)	126, 127, 128
노인법	244
녹동촌(祿東贊)	198, 201

ㄷ

「답설인귀서」	139, 150, 152, 164, 171
당고종(唐高宗)	110, 112, 113, 115, 116, 117, 123, 124, 125, 141, 143, 150, 151, 152, 153, 161, 163, 172, 180, 194, 199, 202, 208, 211, 213, 216, 217, 218, 219, 220, 261, 262
당태종(唐太宗)	013, 014, 015, 016, 028, 032, 035, 036, 040, 043, 070, 079, 080, 081, 082, 083, 085, 086, 097, 098, 101, 102,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5, 116, 123, 126, 148, 149, 157, 171, 195, 197, 200, 201, 202, 220, 237, 238, 241, 252, 254, 255
당항진	172
「대구무술오작비」(「오작비」)	038
대당전쟁	016, 017, 018, 019, 154, 174, 176, 187, 189, 193, 211, 214, 215, 216, 217, 218, 219, 221, 223, 243, 255, 266, 267, 268, 269, 270, 271, 273, 275, 285, 287
대등(大等)	026, 034
대비천(大非川)	017, 202
대야성	013, 028, 035, 081, 089, 091, 092, 095, 122, 124, 254
덕물도	128, 132, 134, 158
덕안성	142, 143
도안(道安)	038
도침	138, 140, 141, 142, 145
돌궐	011, 018, 028, 050, 054, 055, 056, 058, 059, 060, 061, 062, 064, 066, 067, 068, 069, 071, 073, 074, 075, 076, 078, 079,

돌궐	092, 111, 113, 200, 229, 236, 237, 254
동돌궐(東突厥)	018, 055, 059, 060, 067, 068, 072, 073, 074, 076, 077, 078, 079, 085, 195, 199, 218

ㄹ

라사	199, 201, 212, 214
----	--------------------

ㄴ

말갈(靺鞨)	011, 017, 029, 050, 055, 056, 057, 058, 059, 077, 079, 083, 097, 113, 114, 115, 158, 161, 175, 206, 208, 214, 215, 251, 254, 261
매소성(買肖城)	017, 203, 211, 214, 217
모화주의	023
문무왕(文武王)	016, 027, 028, 045, 139, 144, 147, 150, 151, 152, 153, 154, 162, 163, 164, 165, 166, 171, 172, 173, 180, 185, 189, 193, 203, 204, 205, 208, 210, 211, 214, 219, 220, 221, 223, 248, 252, 255, 259, 260, 261, 262, 265, 267, 268, 269, 281
문성공주(文成公主)	200, 201, 218, 222

ㄷ

발해(渤海)	018, 019, 175, 227, 259, 263, 264, 265, 267, 276, 277, 284, 285, 286, 287, 288
번신	011, 018
병부령	027, 040, 041, 242
보덕국	175, 182, 184, 186, 187, 188, 189, 190, 191
복신	138, 139, 140, 141, 143, 145, 199
부여웅	122, 144, 145, 148, 149, 151, 152, 153, 154, 173
부여풍	138, 199

북한산성	061, 159, 161, 168, 169, 230, 251
불도장佛圖澄	038
비담	013, 024, 025, 032, 036, 098, 105

**人**

사비	126,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95, 198, 239
살수	012, 064
『삼국사기』	023, 026, 027, 040, 094, 095, 100, 106, 124, 125, 132, 138,
『삼국사기』	151, 152, 193, 200, 203, 204, 205, 206, 207, 210, 214, 220, 227, 236, 238, 240, 241, 244, 264, 267, 269, 273
『삼국유사』	026, 027, 089, 104, 125, 132, 255, 264, 279
삼년산성	126, 129, 139, 140, 141, 152
서돌궐	055, 059, 060, 064, 067, 069, 073, 076, 077, 078, 079, 111, 112, 113, 116, 195, 196, 200
석전釋奠	014, 032, 036, 043
선도해	093, 094, 095
설오유	175, 176, 184
설인귀薛仁貴	017, 027, 028, 108, 139, 150, 169, 171, 172, 174, 175, 180, 185, 195, 202, 204, 211, 215, 216, 252
세속오계	031, 245, 252
소정방蘇定方	111, 112, 115, 116, 123, 125, 128, 132, 134, 135, 136, 138, 145, 146, 158, 159, 162, 163, 164, 167, 169, 195, 198, 220
『속일본기續日本記』	016, 222
쇼토쿠태자	059
술천성	159, 161, 168
승궐칸포(松贊幹布)	199, 200
시위부	042
『신당서新唐書』	103, 112, 179, 194, 196, 200, 201, 207, 211, 213, 287
『신라촌락문서』	045, 046, 222, 246

신채호	023, 272, 273, 274, 276, 277, 286
실크로드	017, 195, 196, 197, 200, 202, 211, 214, 215

**오**

아사나하로	112, 113
아소카왕	251
안동도호부	114, 116, 117, 174, 175, 177, 179, 183, 185, 202, 215
안승	175,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안승	189, 190
안시성	013, 083, 085, 098, 115, 171, 176, 180, 183, 195
안흥(안함)	011, 030
압량주	094, 122, 246, 252
연개소문淵蓋蘇文	012, 013, 016, 026, 035, 081, 082, 083, 091, 092, 093, 097, 106, 161, 165, 169, 170, 199, 235, 238, 254
연정토	170, 178, 179, 238
염종	013
영객부	011, 029
영객전	029
영휘永徽	037, 110, 112
오골성	013, 175, 176, 261
오묘제	015, 042, 043
5호16국	011, 023, 028, 049, 227
왜전	029
요서	012, 018, 058, 060, 061
용수	025, 027, 032
웅령회맹	151, 152, 153, 154
웅진	015, 135, 142, 143, 144, 145, 147, 152, 164, 239
원광	011, 030, 031, 230
유교儒敎	025, 031, 032, 042, 272
유덕민	164, 165
유인궐	017, 121, 139, 140, 141, 143, 144, 146, 151, 162, 172, 174, 175, 185, 206, 207, 209, 211, 217

유인원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51, 152, 153, 172
을지문덕	012, 236
의자왕	013, 015, 081, 085, 122, 130, 131, 135, 136, 137, 138, 146, 148, 196, 215, 240, 252, 261
이근행李謹行	169, 179, 180, 183, 185, 203, 206, 211, 213, 214, 217
이방부理方府	041
『일본서기日本書紀』	016, 099, 100, 101, 107, 111, 169, 198, 222, 273
일선주	168
『임신서기석』	031, 245
임존성	138, 145, 147, 150, 151

**ㅈ**

자장	095, 096, 097
『자치통감』	125, 179, 196, 198, 202, 206, 207, 208, 209, 212, 238
장창당長槍幢	203, 204, 205, 221
재상宰相	015, 027, 040, 041
적성전사법	244
전륜성왕	030, 250, 251
정관	111, 112, 114, 201
조원전	037, 044
주류성	140, 143, 144, 145, 146, 147, 150
주장성壽長城	182, 205
죽지	144
지기삼사	035
진골	025, 026, 027, 033, 034, 036, 037, 041
진평양	011, 025, 027, 028, 029, 030, 031, 034, 035, 036, 057, 070, 080, 089, 090, 221, 229, 230, 251, 253, 254
진현성	143, 147
진흥왕	011, 027, 028, 029, 031, 033, 051, 121, 143, 147, 216, 229, 230, 231, 245, 249, 250, 251, 253
『진흥왕순수비』(『순수비』)	031, 038

집사부	015, 037, 041, 042, 046, 110, 221
-----	-----------------------------------

**ㅊ**

창부倉部	015, 037, 041, 042, 242
천리장성	012, 079, 092, 237
천성泉城	185, 204, 211
철륜鐵勒	050, 060, 062, 073, 077, 078, 079, 112, 158, 161, 163, 196
청해호靑海湖	196, 213
취리산	153, 154
칠중성七重城	017, 080, 091, 159, 161, 168,
칠중성七重城	169, 171, 185, 206, 207, 211, 217

**ㅌ**

타카무쿠노쿠로마로	099, 100, 101
탄현	126, 128, 129, 130, 131, 133, 195
태평송太平頌	110, 123
태학	234
토번吐蕃	017, 018, 019, 193, 194,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22, 255
토욕혼土谷渾	011, 012, 017, 018, 029, 049, 056, 057, 060, 062, 063, 064, 067, 068, 069, 071, 073, 074, 076, 078, 079, 085, 092, 111, 195, 196, 197, 198, 199, 200, 202

**ㅍ**

패강전투	162
평양성	012, 013, 014, 015, 016, 064, 066, 083, 085, 126, 147, 159, 160, 162, 163, 166, 167, 168, 170, 171, 172, 173, 174, 179, 186, 252

평원왕	051, 053, 056
품주	015, 037

**ㅎ**

한산주	168, 205
한질허	105, 106
한화정책	050
화랑도	030, 037, 038, 039, 242, 245, 252
화백	040, 223
황룡사	251, 252
황룡사구층목탑	097
황산벌	015, 129, 131, 132, 134, 195
흑치상지	137, 138, 145, 151, 213

## 편찬위원회

### 위원장

이기동 동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 위원(가나다순)

김동소 대구가톨릭대  
김리나 홍익대  
김명자 안동대  
문명대 동국대  
성호경 서강대  
신형식 이화여대  
이희준 경북대  
주보돈 경북대  
최병현 서울대  
최병현 송실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 편집위원회

### 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 부위원장

주보돈 경북대  
이희준 경북대

### 위원(가나다순)

김복순 동국대  
김세기 대구한의대  
이강근 서울시립대  
이영호 경북대  
이임수 동국대  
이한상 대전대  
임영애 경주대  
임재해 안동대  
경상북도 문화유산국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 04

## 신라의 삼국통일

**편저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발행인** 경상북도지사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 054-880-3176 F. 054-880-4229

**발행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8874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T. 070-7113-9011 F. 054-336-8323

**디자인** 전명철, 천진영, 이종선, 김새얼,  
임소라, 김다영, 최셋별

**사 진** 오세운

**제 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16호  
T. 02-2285-4132 F. 02-266-9821  
<http://www.designgb.co.kr>

**인 쇄**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ISBN** 978-89-6176-193-2 98910  
978-89-6176-189-5 98910(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opyright@2016 by Gyeongsangbuk-do